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30-01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8-30-01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연구위원)	김지현(부연구위원) 이재희(부연구위원) 김혜진(연구원)
협력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 석(부연구위원)	

제 출 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국문요약

농어촌의 인구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영유아 수는 더욱 감소되어 농어촌 보육 등 육아지원 정책 실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도시 근교에 위치하며 도시와 농촌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낮은 주거비와 대도시 직장까지의 통근 가능 등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을 통한 영유아 가구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잠정적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도농복합지역에 대해 면밀하게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출산, 육아와 관련한 이슈와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출생률을 높이고 육아하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도시 대비 출산 및 육아 환경 구비가 미흡하지만 영유아 인구 증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을 대상으로, 육아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1) 도농복합지역의 개념화 및 특성 파악, 2) 도농복합지역의 육아지원 실태 및 요구 분석, 3) 출산율 제고와 육아정책의 해외 성공 사례 검토, 4) 육아정책에 대한 인식 및 지자체 특수 시책 파악, 5) 도농복합지역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등 5가지이다.

연구방법으로는 1) 농촌 전문 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의 연구 협동, 2) 문헌 및 기존 자료의 검토 및 분석, 3) 전문가 회의 개최, 4) 도농복합지역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5) 도농복합지역 거주 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조사, 6) 심층 면담 조사, 7) 해외 현지 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 등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존의 인구 등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문헌연구한 결과를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영유아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도농복합시는 0~4세 영유아 인구에 있어 2016년 기준 최근 5년간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9세 이하 아동 수 역시 도시나 농촌 지역에 비해 늘어났다. 도농복합시에 속하는 4개 도시를 선정해 실시한 면담 사례를 보면 이 중 전통적인 농촌지역에 가깝고 자립형 중소거점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안성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안성의 경우 인구가 장기 정체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유아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같은 중간지역에 속하는 당진의 경우, 해안을 접해 철강 산업 등 기업이 자리잡고 있어

남성 일자리가 풍부하므로 결혼과 함께 이주하는 유입 인구가 많아 영유아 인구 또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도농복합도시는 일반적인 도시나 농촌과 달리 인구유입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 특성을 지닌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이 젊은 세대의 이주와 함께 영유아 인구 증가를 예상케하고 결과적으로 이에 따르는 육아지원 서비스 요구가 높아지는 곳으로 특징될 수 있는 것이다.

도농복합시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도농복합시 내부 일정 지역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일자리와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필요한 인구가 유입되어 영유아 보육 등 육아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읍’지역이나 신규 ‘동’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도농복합시는 신도시형 읍이나 新 동지역, 기존의 전통적 도시이며 정제되어 있는 舊 ‘동’지역, 농촌이라 할 수 있는 ‘면’지역, 이렇게 3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 동과 읍 또는 면 간 인구, 환경, 요구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느 한 곳의 상황이 도농복합시 전체 특징이 되기는 힘들다. 도농복합도시 내 지역 격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제되어 있는 舊 동지역이나 면지역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新 동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조차도 다수가 자녀가 다녀야 하는 지역 내 교육 기관에 대해 불안해하고 초등학교 기간 중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다른 시로 이주해 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도농복합지역 육아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우선 지역으로는 상대적으로 도시보다는 농촌특성에 가까운 ‘중간지역형’ 도농복합시에서 지역 내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 중간지역에 속하는 도농복합시에 대해 우선적으로 동-읍-면 간 지역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구체적으로, 1) ‘동’ 지역에 대한 농어촌 특별 지원 정책의 적용 허용, 2) ‘면’ 지역에 대해 도시와는 달리 완화된 시설 운영 기준 적용, 3) 신도시 ‘읍’지역 교육·보육 서비스 양적·질적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보육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1) 장시간·야간 보육 이용 시설 설치 필요: 거점형 시설 이용, 2) 공립병설유치원의 통합과 단설유치원 증설, 3) 보육의 질 개선: 우수 교사 유치 방안 강구, 4)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 및 이용시간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1)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시설 ‘육아광장’ 설치, 2) 의료시설의 확충, 3) 영유아 문화센터로서 지역 도서관의 활용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While in the rural areas the population of infant and young children are decreasing, and childcare support insufficient, in urban-rural complex areas, families with infant and/or young children have been increasing due to the low cost of living in the suburban areas and the increase of commuting population. Thus the current study analyzes the infrastructure and quality of childcare support, and then identifies its issues in order to propose improvements in related policies in urban-rural complex areas where child birth and care circumstances are insufficient in comparison to those of urban areas but exhibiting potential growth in the infant and/or young children population.

In order to collect necessary information, a collaborative research with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along with literature and data review and analyses were conducted. To promote building childcare friendly urban-rural complex communities meetings with related field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were held. A survey on the childcare support provided in urban-rural complex areas was carried out to 500 parents of infant and/or young children residing in the said areas. Childcare related policies and special projects in these areas were researched by inquiring 51 local government officials. After classifying the urban-rural complex areas into 3 categories (urban district, midpoint district, central city linkage midpoint district) 4 cities (Anseong, Wonju, Dangjin, Naju) from the 3 categories were selected for in-depth interviews with parents, childcare center and kindergarten principle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Case studies of Nagareyama and Tottori, Japan which include urban-rural complex areas and agricultural/fishing areas within the vicinity of major cities with population growth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various methods of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ural-urban complex areas are as follows. First, as new cities are formed within the urban-rural complex areas increases in jobs and residences have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population of families in need of childcare support. Urban-rural 'cities' are classified as one of the three: 1) a newly formed city-like 'eup' or newly established 'dong', 2) a preexisting 'dong' which is a traditional city, stagnant in population growth, 3) an agricultural village called 'myeon'. Second, differences between cities and agricultural areas, and 'dong' and 'eup'/'myeon' in population, environment, needs are too large to define urban-rural complex area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ny one specific district category. Third, most parents whether residing in older 'dong's/'myeon's or new cities with population growth, showed apprehension about the schools in their areas and had plans to immigrate to an area with better schools when their children start elementary school. Lastly, immigrants to the new cities of the urban-rural complex areas were found to be mostly from outer areas. On the basis of these characteristics of rural-urban complex areas, it was found that the childcare related demands of childcare service providers and parents of infant and/or young children of these areas were varied.

Thus the proposed policy measures are as such. First, narrowing of the gap among dong-eup-myeon zones in midpoint districts of rural-urban complex areas is a primary issue. Second, improvements in the childcare services in urban-rural complex areas as such are required: installing long-hour and late-night childcare services (hub-type facilities), merging kindergartens operated within public elementary schools, increasing independent kindergartens, developing measures to attract outstanding teaching faculty, etc. Thirdly, building childcare plazas and increasing medical service facilities are a couple of examples of necessary improvement in childcaring circumstances in rural-urban complex areas.

정책 제안

□ 육아실태 개선 정책 우선 지역 선정: '중간지역형' 도농복합시

- 중간지역에 속하는 도농복합시에 대해 우선적으로 동-읍-면 간 지역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1) 도농복합시 '동'지역에 대한 농어촌 특수 지원 정책 적용 허용: 농어촌 교사 특별 수당 월11만원 지원, 농어촌 차량운행유류비 지원 적용 필요
- 2) '면'지역에 대한 완화된 정책 적용: 중간지역 도시의 면지역에 대해서 기준보다 적은 인원의 영유아를 돌보더라도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 수 규정을 예외 적용 필요
- 3) 신도시 '읍'지역 교육·보육 서비스 양적·질적 제고 노력: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학교 인프라 확대와 방과후교실 내실화 등으로 젊은 세대의 교육적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집중하는 것 우선 요구

□ 교육·보육 시설 개선

1) 장시간·야간 보육 이용 시설 제공: 거점형 시설

- ① 거점 어린이집 방식: 기존 어린이집 중 한 곳을 거점시설로 선정하여 활용함. 면지역 어린이집 중 한 곳(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거점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보육 이용을 희망하는 영유아를 거점 어린이집으로 이동시킴.
- ② 영유아 보육 스테이션 방식: 기존 어린이집이 아닌, 신규 시설로 저녁 돌봄을 위한 보육센터를 설치하는 방법임. 맞춤반 이후 시간의 종일보육 또는 연장보육을 희망하는 영유아를 해당 시설 차량으로 스테이션으로 이동을 해 오고 부모는 퇴근 시 야간보육센터로 가서 자녀를 데리고 귀가하는 방식

2) 공립병설유치원의 통합과 단설유치원 증설

면지역의 공립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고 동지역에 대해서는 단설유치원을 증설해야 함. 유아를 위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고려한다면 통학을 위한 버스가

제공되는 조건에서 보다 적정 규모의 병설로 통합하여 운영함. 동지역에서는 단설 유치원이 설립되어 병설이 모두 수용치 못하는 대상 인원에 대한 확대의 역할과 장애영유아 교육 등 공립이 가진 의미 있는 역할에 집중케 하는 것이 필요함.

3) 보육의 질 개선: 우수 교사 유치 방안 강구

① 일정 기간(5년) 해당 도농복합시 농촌 지역에 근무할 경우 대학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 ② 타 지역 출신 교사일 때 주거비를 일부 지원해 줌. ③ 교통 편의를 위해 자동차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함. ④ 현재 11만원 지급되고 있는 농어촌 교사수당을 인상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더라도 최대 20만원까지 상향조정함.

4)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 및 이용시간 확대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에 적절한 돌봄교실 확충이 필요함. 이용시간은 초등 저학년, 특히 1학년의 경우는 맞벌이 부모를 두었을 때 부모퇴근 시까지의 충분한 돌봄을 위해 돌봄교실을 1시간 정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육아 환경 개선

1) 부모-자녀 공동 활동 공간 ‘육아광장’ 설치

육아광장은 부모가 자녀가 함께 방문하여 자유롭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시간을 보내다 갈 수 있는 곳으로, 참여하는 부모끼리의 육아정보 교환과 관리 교사가 제공하는 부모상담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엄마랑 아기랑’과 같은 체험 교실 등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요구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음. 지자체 재정 수준이 가능하다면 좀 더 다양한 놀잇감과 환경으로 공공 키즈카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도 됨.

2) 의료시설의 확충

① 공중보건의 배치 시 소아과 또는 가정의학 등 관련 전공 의사를 도농복합시에 우선 배치하도록 함. ② 소아과 병원을 신흥 동이나 읍지역에 개원할 경우,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통해 개원을 활성화함. ③ 응급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말

이나 야간 시기, 영유아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보건소 혹은 공공 네트워크 속의 의사 등 담당 의료인과 연결되는 핫라인을 설치함. ④ 독박육아와 타지 생활 등으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영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서적 치유 혹은 정신과적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3) 영유아 문화센터로서 지역 도서관의 활용성 강화

문화적 시설이 거의 없는 도농복합시에서 도서관의 예산 활용성을 키워 시내 문화회관 등 기관과의 협업 속에 영유아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 기획, 시행을 증대함.



I. 서론 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6
4. 선행 연구 11

II. 도농복합시의 특성 14

1. 도농복합지역 정의와 구분 14
2. 도농복합시의 특성 17
3. 소결 28

III. 육아정책의 해외 사례 29

1.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보육정책 사례 29
2. 육아친화도시 사례: 일본 31
3. 시사점: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36

IV. 도농복합도시 유형별 요구 분석 39

1. 심층면담 관련 정보 39
2. 중간지역(경기도): 안성 41
3. 중간지역(충청도): 당진 47
4. 완전한 도시지역(강원도): 원주 54
5.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전라남도): 나주 59
6. 소결 75

V. 도농복합지역 육아 실태 및 정책 인식 81

1. 응답자 특성	81
2. 자녀양육 특성	83
3.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 이용	92
4. 기타 육아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이용 현황	100
5. 보육·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107
6. 양육에 대한 지역 특색	114
7. 초등 방과후 돌봄	127
8. 소결	134

VI. 도농복합지역 지자체 의견 분석 136

1. 조사 참여자 특성	136
2. 지역 내 인구 변화 인식	137
3. 인프라 확충 필요성	140
4. 지역 내 동·읍·면 차이 인식	142
5. 특색 사업 및 정책 인식, 제언	144

VII.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47

1. 요약: 지역 특징 및 요구	147
2. 정책 제언	152

참고문헌 159

부록 163

부록 1. 부모 대상 설문지	165
부록 2. 공무원 대상 설문지	182
부록 3. 공무원 조사 주관식문항 결과표	186

Ⅰ 표 차례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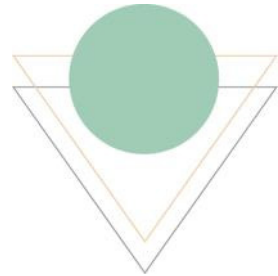
〈표 Ⅰ-1〉 협동연구기관 및 역할분담	7
〈표 Ⅰ-2〉 협동연구기관 간 연구추진 과정	7
〈표 Ⅰ-3〉 전문가 회의 참석자 및 안건	8
〈표 Ⅰ-4〉 공무원 조사 참여 도농복합시 현황	9
〈표 Ⅰ-5〉 공무원 조사표 내용	9
〈표 Ⅰ-6〉 영유아 부모대상 설문조사표 내용	9
〈표 Ⅰ-7〉 해외(일본) 출장 내역	11
〈표 Ⅱ-1〉 도농복합지역 구분과 특성	16
〈표 Ⅱ-2〉 도시, 농촌, 도농복합시의 인구증가율 및 순이동인구 비교	17
〈표 Ⅱ-3〉 2005, 2010, 2016년 도시, 농촌, 도농복합시의 0~4세 영유아 수	18
〈표 Ⅱ-4〉 2005, 2010, 2016년 도시, 농촌, 도농복합시의 5~9세 아동 수	19
〈표 Ⅱ-5〉 도시, 농촌, 도농복합시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수 비교	21
〈표 Ⅱ-6〉 도시, 농촌, 도농복합시의 유치원 원아 수	22
〈표 Ⅱ-7〉 도시, 농촌, 도농복합시의 재정자립도 및 면적	23
〈표 Ⅱ-8〉 도시, 농촌, 도농복합시의 사회복지 시설 수 및 의료기관 종사자 수	23
〈표 Ⅱ-9〉 지역별 도시와 도농복합시 도시지역 만족도 평균 비교	25
〈표 Ⅱ-10〉 지역별 농촌과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만족도 평균 비교	26
〈표 Ⅱ-11〉 지역별 도농복합시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만족도 평균 비교	27
〈표 Ⅱ-12〉 도시, 농촌과 도농복합시 만족도 평균 비교	28
〈표 Ⅲ-1〉 연도별 돛토리현과 일본 전체 합계출산율 비교	35
〈표 Ⅳ-1〉 심층면담 일정 및 참석 인원	40
〈표 Ⅳ-2〉 심층면담 주요내용	40
〈표 Ⅳ-3〉 나주시 인구 및 세대현황(외국인 제외)	60
〈표 Ⅳ-4〉 나주시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62
〈표 V-1〉 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	82
〈표 V-2〉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비율)	83
〈표 V-3〉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 수	84
〈표 V-4〉 자녀-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유	84
〈표 V-5〉 자녀를 기르면서 어려운 점	85
〈표 V-6〉 양육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된 시간대	86
〈표 V-7〉 자녀 양육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	87
〈표 V-8〉 육아지원 서비스(전체) 이용 현황-평일/주말 이용일수	88
〈표 V-9〉 육아지원 서비스(기관) 이용 현황-1일 이용시간	88
〈표 V-10〉 육아지원 서비스(혈연 개별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1일 이용시간	89
〈표 V-11〉 육아지원 서비스(비혈연 개별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1일 이용시간	90

〈표 V-12〉 육아지원 서비스(시간제 학원) 이용 현황-1일 이용시간	91
〈표 V-13〉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종류	92
〈표 V-14〉 자녀가 다니는 기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 - 1+2순위	93
〈표 V-15〉 자녀의 기관 등하원 방법	95
〈표 V-16〉 자녀가 기관까지 이동하는 시간	96
〈표 V-17〉 자녀돌봄 서비스 운영 여부, 이용 여부 및 이용 의사	97
〈표 V-18〉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만족도(인력, 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 비용)	97
〈표 V-19〉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 가장 개선하여야 할 부분-1+2순위	98
〈표 V-20〉 교육내용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99
〈표 V-21〉 거주 지역사회 내 이용시설 유무	100
〈표 V-22〉 거주 지역사회 내 이용시설 이용 경험	101
〈표 V-23〉 거주 지역사회 내 이용시설까지 이동시간(분)	102
〈표 V-24〉 거주 지역사회 내 이용시설 이용 만족도	103
〈표 V-25〉 건강가정지원센터(정부지원기관)의 돌봄 사업 인지 및 이용 경험(아이 돌보미)	104
〈표 V-26〉 건강가정지원센터(정부지원기관)의 돌봄 사업 인지 및 이용 경험(공동육아나눔터)	105
〈표 V-27〉 지난 1년간 영유아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의 이용 여부	106
〈표 V-28〉 지난 1년간 영유아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이용 장소	106
〈표 V-29〉 지난 1년간 영유아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이용 시 어려운 점	107
〈표 V-30〉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107
〈표 V-31〉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지원 인프라 확대 정책 필요성	108
〈표 V-32〉 영유아 가구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	109
〈표 V-33〉 영유아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 제고 정책의 필요성	109
〈표 V-34〉 가정 양육 지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	110
〈표 V-35〉 보육, 교육, 육아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정책의 필요성	111
〈표 V-36〉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	112
〈표 V-37〉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	114
〈표 V-38〉 지역에서 자녀 양육 시, 어려움 정도-①	115
〈표 V-39〉 지역에서 자녀 양육 시, 어려움 정도-②	116
〈표 V-40〉 도농복합지역 양육환경 개선에 가장 필요한 것-1순위	117
〈표 V-41〉 도농복합지역 양육환경 개선에 가장 필요한 것 - 1+2순위	118
〈표 V-42〉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정착하게 된 이유	119
〈표 V-43〉 거주 지역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여부	119
〈표 V-44〉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가장 좋은 점-1순위	121
〈표 V-45〉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가장 좋은 점-1+2순위	122
〈표 V-46〉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가장 나쁜 점-1순위	123
〈표 V-47〉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가장 나쁜 점-1+2순위	123
〈표 V-48〉 향후 다른 지역 이동 계획	124

〈표 V-49〉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계획한 이유	125
〈표 V-50〉 이사 시기(첫째 자녀 연령 기준)	126
〈표 V-51〉 자녀(초등 저학년 자녀)의 초등학교 정규수업 종료 시간	127
〈표 V-52〉 자녀가 정규 수업 종료 후 이용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128
〈표 V-53〉 공공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	128
〈표 V-54〉 공공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역 내 충분성-1) 초등 돌봄교실	129
〈표 V-55〉 공공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역 내 충분성-2) 학교 방과후교실	130
〈표 V-56〉 공공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역 내 만족도-1) 초등 돌봄교실	131
〈표 V-57〉 공공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역 내 만족도-2) 학교 방과후교실	132
〈표 V-58〉 자녀가 이용하는 학원	133
〈표 V-59〉 자녀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주당 총 이용시간)	133
〈표 VI-1〉 조사 대상자 특성	137
〈표 VI-2〉 최근 5년간 인구 변화 여부	138
〈표 VI-3〉 최근 5년간 영유아를 둔 가구(30-40대 세대주 등)수의 변화	138
〈표 VI-4〉 영유아 가구 증가 이유	139
〈표 VI-5〉 어린이집/유치원의 추가 설치 수요 여부	140
〈표 VI-6〉 기관(시설) 추가 설치 필요 행정 구역(복수 응답)	141
〈표 VI-7〉 초등 저학년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제공 충분성	141
〈표 VI-8〉 동/읍/면지역 간 '영유아 육아지원 관련 요구'라는 측면에서의 특징 차이 여부	142
〈표 VI-9〉 동과 읍, 면 간 육아지원의 측면에서 차이나는 점	143
〈표 VI-10〉 영유아 가족 및 출산장려를 위한 지자체 특수 시책이나 정책 사업	144
〈표 VI-11〉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관련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	145
〈표 VI-12〉 도농복합시의 육아정책 담당자로서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심 기울여야 하는 사안	146
〈표 VI-13〉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육아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146

Ⅰ 그림 차례 Ⅰ

[그림 Ⅰ-1] 협동연구기관 협력체계	7
[그림 Ⅱ-1] 지역별 0~4세 영유아 수 변화	19
[그림 Ⅱ-2] 지역별 5~9세 아동 수 변화	21
[그림 Ⅲ-1] 나가레야마 시청	33
[그림 Ⅲ-2] 보육스테이션 내부	34
[그림 Ⅲ-3] 돗토리시 0·1·2·3 子育て廣場(육아광장)	36
[그림 Ⅳ-1] 안성시 지도	41
[그림 Ⅳ-2] 당진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47
[그림 Ⅳ-3] 원주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55
[그림 Ⅴ-1] 기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	94
[그림 Ⅴ-2] 자녀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	98
[그림 Ⅴ-3] 교육내용 중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100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 필요성

통계에 따르면 농어촌의 인구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인구율 상승과 더불어 노인 복지 관련 정책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영유아 수는 상대적으로 더욱 감소되어 농어촌 보육 등 육아지원 정책 실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김은설 외, 2015). 그럼에도 농어촌 다문화가정의 증가와 가시적으로 확대되는 귀농현상은 농어촌 인구에 대한 변화를 기대케 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도시 근교에 위치하며 도시와 농촌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낮은 주거비를 가지면서도 대도시 내 직장까지의 통근이 가능한 거리 등으로 젊은 세대의 유입을 통한 영유아 가구 증가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잠정적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도농복합 지역에 대해 면밀하게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출산, 육아와 관련한 이슈와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출생률을 높이고 육아하기 좋은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농복합도시가 그 특징을 효과적으로 살려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도시와 대조적인 농어촌 육아지원을 목적으로 연구 주제를 잡을 수도 있겠으나, 위와 같이 도농복합도시가 가진 특수한 환경적 잠재성, 저출산 해결의 맥락에서 전략적으로 집중해 보아야

하는 도농복합지역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도농복합시의 육아 실태와 요구에 대한 본 연구는 육아정책의 새로운 측면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간 농어촌 육아지원 관련 연구는 수차례 진행된 바가 있었다. 특히 육아지원 관련 정책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육아정책연구소는 설립초기인 2007년부터 농어촌 지역 육아 지원 방안 연구 등 관련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으며, 최근 2015년 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 방안까지 여러 편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었다. 연구소 기본과제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요청에 따른 수탁과제 또한 2010년 이후 여러 차례 수행하였다.

그러나 영유아 인구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책연구는 그 내용 범위나 활용에 있어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즉, 농어촌은 보육 수요가 작아 연구 결과를 전체 농어촌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고 특정 지역이나 특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한해 유용한 연구결과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0년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추진되었다가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양된 ‘농촌 소규모 보육시설 운영’ 사업은 초기 계획 시 광범위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농촌 보육을 개선하고자 하는 청사진을 갖고 있었으나 기대와 달리 지자체의 사업 수요가 많지 않았고 결국 활성화되지 못하여 명맥만 유지하는 사업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농어촌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는 수요가 비교적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징적 지역, 즉 도시에 가깝거나 도시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음으로써 영유아 인구가 있고 육아지원 수요가 높은 도농복합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수행된 김은설 등(2015)의 연구는 농어촌을 유형화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며, 특히 도시농촌 혼합지역에 대해서는 인구 유입 지역으로 분석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농어촌이라고 분류하였다.

요컨대, 농어촌 육아지원 정책 연구는 전체 농어촌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영유아 인구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는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수요 분석,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연구 목적

대도시 대비 출산 및 육아 환경 구비가 미흡하지만 영유아 인구 증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을 대상으로, 육아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둔다. 궁극적

으로는 도농복합지역을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출산·육아친화적 도시·농촌으로 변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가. 도농복합지역의 개념화 및 특성 파악

도농복합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형태의 지역으로, 이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형태로는 상당히 많은 지역이 해당될 수도 있고 행정적으로만 구분하여 엄격하게 도시 중 일부만 해당할 수도 있다. 여러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생각하는 도농복합지역을 정의하고 특정 기준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지역이 가진 일반적인 특성을 인구와 교육·보육 시설 현황, 대도시와의 비교라는 측면에서 논의하여 분명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나. 도농복합지역의 육아지원 실태 및 요구 분석

도농복합지역에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교육·보육 기관, 관련 행정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육아 및 육아지원 현황 살펴보고 이들이 가진 요구, 지역 환경적 특성, 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여 도농복합지역 육아가 가진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 뿐 아니라 초등 저학년을 함께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초등생 돌봄이 가진 맹점이 있는지 또한 함께 파악해 볼 것이다.

다. 출산율 제고와 육아정책의 해외 성공 사례 검토

저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 및 인구유입에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파악하여 이들이 가진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라. 육아정책에 대한 인식 및 지자체 특수 시책 파악

도농복합지역 영유아 부모들이 가진 육아 및 저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과 개선 필요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 국가 정책에 더하여 지자체가 도농복합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마. 도농복합지역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대도시나 농어촌과는 달리, 중간적 성격을 지닌 도농복합지역의 육아환경과 요구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가. 농촌 전문 연구기관과의 연구 협동

도농복합지역은 큰 부분 농촌의 영역 포함된 특성을 가진 지역이므로, 그간 농촌 정책연구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 통계 자료 등 문헌을 축적해 온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업을 함으로써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도농복합지역의 개념화, 육아와 관련된 특성 등을 기존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부분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맡아 진행하였고, 육아정책의 고유한 영역인 부모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면담, 설문조사 등 현장 조사의 대부분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담당하였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리적 위치가 전라남도 나주시이므로 본 연구의 심층면담 조사 지역 중 하나로 포함되어, 도농복합시의 육아실태 및 요구와 관련한 면담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가 수행하였다. 단순히 지리적 편이성 때문에 업무를 나누었다기보다는 도농복합지역 육아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동기관도 현장의 요구와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대두되었고 관련 분야인 농촌사회복지 전문가가 연구진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역 내 보육·교육 학계 전문가와 협력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특히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보여주는 관련 자료 분석을 담당하여 연구원 내 ‘농촌 삶의 질 정책연구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협동연구기관과 육아정책연구소는 5개월의 연구 기간 중 총 5번의 대면 회의를 가졌고 수시로 이메일과 유선을 통해 업무를 협의하였다.

〈표 1-1〉 협동연구기관 및 역할분담

협동연구기관	연구내용	참여비중(%)
육아정책 연구소 (주관기관)	도농복합 지역의 육아지원 실태 파악(안성, 당진, 원주지역 심층면담)	75%
	도농복합 지역 육아지원 정책 현황 파악 및 요구 분석(부모 및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해외사례 분석	
	정책 방안 제시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도농복합지역 개념화 작업 및 특성 분석	25%
	도농복합 지역 육아지원 실태 파악(나주시지역 심층면담)	
	정책 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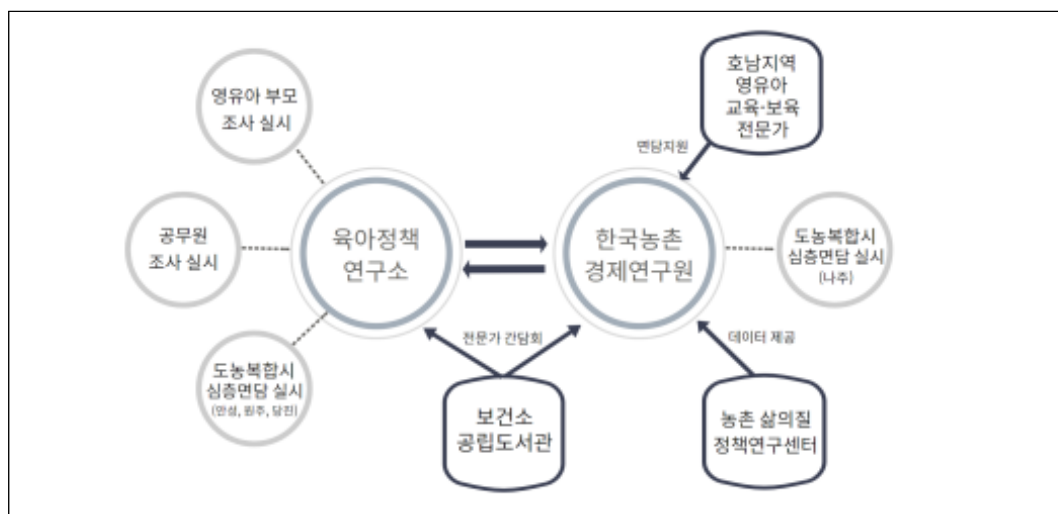
〈표 1-2〉 협동연구기관 간 연구추진 과정

2018. 8-9	2018. 10-11	2018. 12
〈연구계획 수립 및 검토〉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논의	〈중간보고회 1-10.19〉 • 연구추진 경과 점검 • 심층면담 분석틀 확정 및 논의 • 중간 결과 관련 시사점 논의	〈최종보고회-12.14〉 • 최종보고서(안) 보고 • 수정 및 보완 논의 • 정책방안 수정 논의
〈협동연구진 내부 논의〉 • 연구내용에 따른 역할분담 • 세부 연구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수립 • 도농복합지역 개념화 작업 완료 및 논의	〈협동연구진 정책간담회-11.20〉 • 해외사례 관련 내용 공유 및 시사점 논의 •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 공유 및 시사점 논의 • 정책제언 작성 방향 논의	

〈수시점검 사항〉 →

- 일정 및 연구내용 수정사항 수시점검(이메일 교류)
- 도농복합자료 관련 자료 상호교환(이메일 교류)

[그림 1-1] 협동연구기관 협력체계



나. 문헌 및 기존 자료의 검토, 분석

농어촌 육아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던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문헌 자료를 통해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개념을 명료화하였다. 또한 기존 데이터 재분석을 진행하여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다. 전문가 회의 개최

도농복합지역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회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1-3〉 전문가 회의 참석자 및 안건

일시	해당 전문가	회의 안건
2018. 8~10	도농복합지역(3개 유형 지역 총 4개 도시) 보육, 유아교육 담당 공무원(팀장, 주무관 등)	도농복합시의 특성, 육아지원정책의 실시 현황 등
2018. 11	전남 나주시 보건소 소장 및 팀장	농어촌 지역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 확대 가능성
2018. 11	나주시 공립도서관 관련 업무 담당자	도농복합시 문화체험 장소로서 도서관의 기능과 강화 방안
2018. 12	보건복지부, 교육부 내 보육, 유아교육 담당 공무원, 지자체 보육담당 공무원, 교수	도농복합시 육아지원 개선 관련 정책방안 논의

라. 도농복합지역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56개 도농복합시 지역의 지자체(교육지원청/시청) 교육·보육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기관(시설) 현황, 운영 문제점, 특주시책, 개선 방안 등의 질문을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이는 웹으로 구성되어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먼저 도농복합시 전체 56개 각 도시의 교육지원청 공무원 1인, 시청 보육담당자 1인 총 112명을 대상으로 전화 섭외를 하고 설문 URL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최종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은 51명으로, 시청 보육 담당자 29명,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자 22명이었다. 이 중 1개 지역에서만 교육지원청과 시청 두 곳 모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지역의 담당자여서 56개 도시 중 50개 도농복합시에서 의견을 수합한 결과가 되었다.

〈표 I-4〉 공무원 조사 참여 도농복합시 현황

구분	참여 도시	계(수)
시청	강릉, 거제, 경산, 공주, 구미, 구산, 김제, 김천, 김해, 나주, 남원, 문경, 밀양, 사천, 삼척, 아산, 안동, 안성, 양산, 양주, 양주, 여수, 여주, 영천, 제주, 창원, 파주, 평택, 포천	30
교육지원청	경주, 광양, 광주, 김포, 김포, 논산, 당진, 보령, 상주, 서산, 순천, 아산, 양산, 영주, 용인, 익산, 제천, 천안, 춘천, 충주, 통영, 포항	21

공무원 대상 조사의 질문 내용은 다음의 〈표 I-5〉와 같다.

〈표 I-5〉 공무원 조사표 내용

구분	설문내용	
시청 및 교육지원청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 현황,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 충분성,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관련 문제점 및 개선사항
	초등 돌봄 관련	초등 돌봄서비스 충분성
	인구변화	전반적인 인구 변화 양상, 영유아가구 인구 변화, 인구증가 시 이유, 읍면동 지역격차 여부
	정책 관련	지역별 출산장려, 영유아가구 대상 특수시책 여부, 보육(유아교육) 정책 관련 개선 필요사항, 육아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개선사항

마. 도농복합지역 거주 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조사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막내자녀 기준)를 둔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육아 실태 및 문제점, 정책에 대한 의견, 요구 등을 살펴보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의 주요 내용은 〈표 I-6〉과 같다.

〈표 I-6〉 영유아 부모대상 설문조사표 내용

구분	설문내용
응답자 특성	지역구분, 거주지역 특성, 성별, 연령, 자녀연령, 취업유형, 맞벌이 여부 등
자녀양육 특성	가구구성, 자녀 양육의 어려움, 육아지원 서비스별(교육/보육 기관, 비혈연 및 혈연의 개별돌봄 서비스, 시간제 학원) 이용 시간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이용하는 기관, 등하원시간과 방법, 추가 보육 방과후 이용, 교육·보육 기관에 대한 인식
기타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 이용	육아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인프라, 아이돌보미와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 영유아 문화프로그램 이용
보육교육 정책 관련 인식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 육아지원 인프라 확대 정책, 영유아 가구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정책, 영유아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 제고 정책, 가정 양육 지원 확대 정책, 보육·교육 및 육아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정책,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정책,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 등

구분	설문내용
양육에 대한 지역 특색	육아지원 관련 요구 거주 지역의 특색에 대한 인식
초등 방과후 돌봄	자녀(초등 저학년 자녀)의 초등학교 정규수업 종료 시간, 이용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종류, 시간, 충분성, 만족도, 학원 이용 시간 등

바. 심층 면담 조사

도농복합시를 3개의 유형(완전한 도시지역, 중간지역,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본 보고서 본문 참조)으로 분류한 후 해당 유형에 속하는 도시 4곳¹⁾을 선정하여 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해당 도시의 영유아 부모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 등 현장 전문가가 포함되었다. 면담일정과 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본 보고서 4장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사. 해외 현지 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해외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지는 일본의 치바현 나가레야마시와 돗토리현 돗토리시이다. 이 두 소도시는 최근 영유아 인구 수가 급격히 높아지고 출산율 제고 정책에 있어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는 곳이다. 나가레야마시는 도쿄에서 전철로 50분 정도 걸리는 대도시 인근 소도시로 일명 베드시티(bed city)로 불린다. 즉, 도쿄에 직장을 둔 젊은 세대 맞벌이 부부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잠만 자고 출근한다는 뜻에서 이러한 명칭으로 불린다고 하였다. 나가레야마시는 시 전체에서 육아정책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두고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송영보 육스테이션’이라는 제도를 두어 맞벌이 가족의 보육을 적극 지원하는 곳이다.

돗토리 현은 육아왕국으로 불리는 곳으로, 유입인구 수가 일본 전역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농복합시라 할 수 있다. 지역환경을 이용한 숲유치원 인증제 등으로 유명하고 다양한 육아 및 출산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어 많은 시사점을 받을 수 있는 곳이므로 이 두 곳에 대한 출장을 선택하고 진행하였다.

1) 3개 각 유형별로 1개 도시(완전한 도시: 원주, 중간지역: 안성, 중심도시 연계형: 나주)를 선정하였으나, 인구변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충청지방의 도시 포함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포함 도시 수가 많은 중간지역형 도농복합시가 더 면밀히 파악되어야 하겠다는 분석에 의해 중간지역 중 하나인 당진이 포함되어 총 4개 도시에 대한 심층면담이 진행됨.

〈표 1-7〉 해외(일본) 출장 내역

일시	출장 지역	주요 면담자	주요 조사 내용
2018. 11. 6-8	치바현 나가레야마시	- 나가레야마시 공무원 - 보육스테션 운영자	- 맞벌이 부부의 양육 지원 - 송영보육스테이션의 구성과 역할
	돗토리현 돗토리시	- 돗토리현청 공무원 - 0123 육아광장운영자	- 도농복합시로서의 특성 활용 사례 - 출산율 제고 정책의 성공 사례

4 선행 연구

가. 주요 선행 연구 결과

도시 중심의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농촌의 청년층 인구 유출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영유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육아 및 보육에서의 사각지대로 농어촌 지역이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특히, 농촌지역의 아동인구 유출로 인해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정책에 있어 소외되었다고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김경희·박분희·양미경, 2000; 이규천·최경환, 2008). 김경희 외(2000)는 농어촌 지역의 가장 문제점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이 부족하고, 보육시설의 접근성, 농촌 특화 프로그램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무엇보다 농촌지역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아동 발달의 불이익과 결부시키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이 농어촌 육아지원을 확대하는데 예로사항이라고 언급하였다(김경희 외, 2000).

이규천과 최경환(2008)은 도시지역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갖추어져 있지만 농촌지역은 읍 지역을 제외하고는 영유아 수의 제한, 앞날의 영유아 포함 아동 수의 지속적 감소 우려 등의 이유로 민간보육시설이 새롭게 생길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부분을 지적하였다(이규천·최경환, 2008).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 경제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을 보육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이규천·최경환, 2008). 또한 농촌지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문제, 기피지역인 농어촌 지역의 보육교사 수급문제 등이 주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이규천·최경환, 2008).

김은설과 이정원, 지성애, 이세원(2007)은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과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이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농어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소득원이 농·임·어업이

아니라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나 상업에 종사하는 등 다양한 산업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설 외, 2007). 가구형태에서는 부모와 자녀 2명 정도로 구성된 핵가족 형태가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도시에 비해 3대 이상 동거하는 확대가족과 한부모가족, 부모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하는 조선평가정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었고, 부모와 별거하거나 부모 없이 조부모와 있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높았다(김은설 외, 2007: 81). 또한 소득 수준과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생활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점 등이 조사결과 발견되었다(김은설 외, 2007). 이러한 지역사회 환경적 특성, 특히 농번기가 있는 등 근로패턴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보육, 아이돌보미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육시설은 원아수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유지가 어려운 점, 출퇴근이 용이 하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채용이 어려운 점 등이 지적되었다(김은설 외, 2007).

최은희(2010)도 유사하게 충청남도 농어촌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육실태와 지원 요구 사항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농어촌 지역에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으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부족, 정보접근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최은희, 2010). 무엇보다 농어촌은 이른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보육서비스 필요시간이 산재해 있어 보육서비스 제공방식의 다양성이 요구가 되고, 특히 계절별로 보육 수요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최은희, 2010: 6)

김은설과 이정원, 박진아, 조혜주(2014)는 이러한 농촌지역의 보육 및 육아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인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운영을 불안정한 농어촌지역의 보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동주택식 소규모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인근 지역주민 등 가능한 이력을 아이돌보미를 활용하는 가정돌봄센터 개설 등을 제안하였다(김은설 외, 2014). 또한 보건복지부의 사업인 '산모·신생아관리사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육아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김은설 외, 2014).

최근 연구에서는 농어촌 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거주자가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산 보육 등의 정책 방안 마련이 한층 더 복잡해진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박종서와 윤여원, 정준영(2012)은 1995년부터 지방행정 개편으로 시와 군이 통합되어 도농복합형 시가 탄생한 이후에는 단순히 행정적 단위로 도시와 농촌을 판별하기가 어려워진 반면, 일부 도농지역에서는 도심지와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분절 한층 더 심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확장도시로서 잘 작동하는 지역은 도심과 주변이 적절하게 유지되는 등 도농복합형 도시의 정착 수준에 따라 보육을 비롯한 출산환경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이것이 지역의 출산을 격차까지

이어진다고 언급하였다.

김미정(2013)은 직접적으로 경기도 내 도농복합시군의 육아지원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남양주와 같이 도농복합도시이지만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일반 도시지역의 육아지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가평, 연천과 같이 농촌적인 특성이 높은 지자체는 지자체 내 시설을 활용한(도서관 등) 육아지원센터 등을 제시하였다(김미정, 2013). 안성시와 같이 농촌특성이 높은 지역(면지역)과 도심특성(읍지역)이 공존하는 지자체에서는 거점지역의 육아지원센터 설립,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김미정, 2013).

김은설과 윤재석, 윤지연(2015)도 농어촌 유형을 크게 인구감소 낙후지역 농어촌, 농업중심 농어촌, 도시농촌혼합·인구 유입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각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구감소 낙후지역에는 아동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교사 및 지원인력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혼합연령반 내실화, 취사부 지원, 국공립 소규모 시설 및 아이돌보미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김은설·윤재석·윤지연, 2015). 농업중심 농촌 지역의 경우는 농업 근로 특성에 맞춰 야간돌봄 및 휴일보육 확충, 지역 내 인력 활용 등을 제시하였고, 도시농촌혼합·인구 유입 지역의 경우는 인구유입이 있어 입소대기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확충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김은설·윤재석·윤지연, 2015).

나.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첫째, 기존 연구는 우리나라 농어촌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 수준에서 육아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 범위를 농어촌 지역 중 가장 육아지원 필요 우선 순위에 있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둘째, 선행연구들은 농어촌 어린이집, 유치원의 수요 및 공급, 이용률 제고 등 서비스 공급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농복합지역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요구와 어려움을 많이 담는데 초점을 두려하였다.

셋째, 기존 연구는 농어촌 영유아의 육아지원만을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뿐 아니라 초등저학년 자녀의 방과후 돌봄 요구까지 포함하고자 하였다²⁾.

2) 초등 돌봄에 대한 요구를 연구 내용에 포함하였으나, 초등자녀만을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기보다는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큰 자녀가 초등저학년에 있는 부모를 면담 또는 설문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여, 초등부모가 많은 수로 포함되지는 못하였음.

II. 도농복합시의 특성

1 도농복합지역 정의와 구분

가. 정의

도농복합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동일 행정구역에 함께 공존하는 형태의 지역이다. 행정구역상 도시에 해당하는 시(동)와 농촌에 해당하는 군(읍·면)을 통합하여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정의된다. 도농복합 형태의 시는 1995년 도시와 농촌이 상호 보완하여 균형발전을 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손승호, 2013). 이와 관련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³⁾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1994년 12월에 제정되고 199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⁴⁾.

도농 통합 이전에는 읍지역 인구가 5만 명 이상일 경우 시로 승격시켜 도시와 농촌을 분리하는 도농분리식 행정제도였다. 이와 다르게 도농 통합 형태의 행정구역 개편은 도농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행정 효율성 향상, 생활권과 행정권 일치, 종합적 균형발전, 합리적인 자원배분, 정치적 비용 절감, 현실적 생활문화 권역 확대의 장점이 있다(김선명·김기현, 2008). 즉,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높여 도농분리식 행정구역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조석주·장은주·박종관·윤석범, 2000).

도농 통합의 형태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 역시 나타난다.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질적인 지역을 동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하기 때문에 부정적 측면이 나타난다. 도시와 농촌지역 주민은 경제활동, 소득수준, 생활환경 등이 달라 행정에 대한 욕구가 다르게 나타나고, 다양한 선호에 맞는 행정서

3) 도농복합시가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도농복합지역 개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후 도농복합시는 도농복합지역, 도농 통합 지역과 같은 의미로 사용됨.

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InfoP.do?lsiSeq=78876#0000> (2018. 8. 3. 인출)

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조석주 외, 2000).

나. 도농복합시 구분

도농복합지역은 특성상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특성과 농촌의 특성을 모두 보인다. 현재 도농복합시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다시 세분화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지역을 구분할 때 OECD의 인구기준과 통근율을 기준으로 하는 연계성 기준을 사용하여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정도채·심재현·유은영, 2015). 아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사용한 기준을 재구성한 것이다.

1. 인구밀도기준으로 1평방 킬로미터당 150인 ($150\text{인}/\text{km}^2$) 이상인 읍면이 해당시군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도시지역, 중간지역, 농촌지역으로 구분
2. 인구의 거주 지역 비중에 따라 완전한 도시, 중간지역으로 구분
 - 완전한 도시: 도시 외 거주 인구(population living in rural local units) 비중이 15% 이하, 또는 15%~50% 이지만 지역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50만 이상 중심도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중간지역: 도시 외 거주 인구 15%~50%, 또는 지역인구의 25% 이상이 거주하는 20만 이상 중심도시를 가지는 경우
 - 완전한 농촌: 도시 외 거주 인구가 인구의 50% 이상
3. 연계성 기준(인구기준으로 구분된 중간지역과 농촌지역을 연계기준인 통근율에 따라 한 번 더 분류함)
 - 중간지역: 중간지역 중에 중심도시로 통근 및 역통근율이 10% 이상인 경우
 -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중간지역 중에 중심도시로 통근 및 역통근율이 10% 미만인 경우
 - 중심도시 연계형 농촌지역: 농촌지역 중에서 중심도시로 통근 및 역통근율이 10% 이상인 경우
 - 완전한 농촌지역: 농촌지역 중에서 중심도시로 통근 및 역통근율이 10% 미만인 경우

위 기준으로 전국을 구분하면, 완전한 도시지역, 중간지역,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중심도시 연계형 농촌지역, 완전한 농촌지역으로 구분된다. 위 지역구분에서 도농복합지역은 완전한 도시지역, 중간지역,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에만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 도농복합지역 구분과 특성

지역구분	주요특성	도농복합시 지역	
완전한 도시지역 (32)	(도시지역) 일반적인 도시지역 특성을 가짐	경기도	용인, 김포, 화성, 남양주, 파주, 이천, 광주, 평택, 안양, 양주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충청북도	청주
		충청남도	천안, 아산, 계룡
		전라북도	군산, 익산
		전라남도	여수, 광양, 순천
		경상북도	구미, 경산, 포항
		경상남도	창원, 진주, 김해, 통영, 사천, 거제, 양산
중간지역 (22)	(자립형 중소거점 지역) 독자적인 생활권 구축 지역의 중소거점 지역	제주도	제주
		경기도	여주, 안성
		강원도	삼척
		충청북도	충주, 제천
		충청남도	공주, 당진, 서산, 보령, 논산
		전라북도	정읍, 남원, 김제
		경상북도	문경, 상주, 김천, 안동, 경주, 영천, 영주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 (2)	(대도시 배후지역)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수를 지닌 군이 포함 (대부분 인구 5만 이상군) 중심도시와 상호보완적인 생활양식 중심도시에 근교 여가서비스를 제공 도시적 성향이 강하지만 일부 지역에 농촌적 성향이 남아 있음	경상남도	밀양
		제주도	서귀포
		경기도	포천
		전라남도	나주

자료: 정도채·심재현·유은영(2016). 2016년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도농복합시의 특성

가. 인구·아동 수 변화

시와 군이 함께 있는 도농복합 형태 지역은 도농복합시로 현재 56개가 있다. 도농복합시의 특성을 보기 위해 도농복합시의 인구,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분야를 도시와 농촌 지역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표 II-2>는 2006년부터 2016년의 인구 변화를 통해 도농복합시의 특성을 보여 준다. 평균 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도농복합시는 농촌보다는 도시와 비슷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인구는 2006년 0.34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1.03으로 증가율이 커졌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2006년 -1.04, 2016년에는 -0.37로 감소하였다. 도농복합시의 경우, 인구증가율이 2006년에 1.37, 2016년에 0.84로 인구가 증가하였지만,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6년 일반시 중 48%의 시가 인구 감소하였고, 농촌은 65% 군이 인구 감소를 겪은 반면, 도농복합시는 40%만 인구가 감소하여 도시와 농촌에 비해 인구감소를 겪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II-2> 도시, 농촌, 도농복합시의 인구증가율 및 순이동인구 비교

단위: %, 명

구분	지표	2006	2011	2016
도시 (일반시 ⁵⁾)	인구증가율	0.34	0.48	1.03
	순이동인구	-1,025	-907	1,206
도농 복합시	인구증가율	1.37	1.13	0.84
	순이동인구	2,688	2,439	2,320
농촌 ⁶⁾ (군)	인구증가율	-1.04	-0.08	-0.37
	순이동인구 ⁷⁾	-464	87	94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e-지방지표, <http://kosis.kr/visual/eRegionJipyo/index/index.do> (2018. 8. 3. 인출)
원자료: 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 통계청 인구동향과(국내인구이동통계)

순인구이동을 보면, 도시의 경우 2006년 전체 1,025명이 전출을 하였지만, 2016년엔 1,206명이 전입을 해왔다. 농촌의 경우 2006년 464명이 전출을 하였지만, 2016년엔 94명이 전입을 해왔다. 도시와 농촌의 전입/전출을 통한 인구이동 형태와 달리 도농복합시는 2006년 2,688명이

5) 특별시, 광역시,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시

6) 도농복합시의 군 지역은 포함을 하지 않았음.

7) 전입-전출

전입을 해왔고, 2016년에도 2,320명이 전입을 해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표 II-3〉은 2005년, 2010년, 2016년 도시와 농촌, 도농복합시의 0~4세 영유아수 변화를 보여준다. 0~4세 영유아는 도시보다 농촌의 감소가 더 크다. 농촌의 경우 2005년 대비 2016년 영유아 수는 11.04% 감소하여 7.32% 감소한 도시보다 감소폭이 컸다. 이와 반대로 도농복합시는 2016년 영유아 수는 2005년 대비 2.89% 증가하였다. 도농복합시는 영유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도시나 농촌과 달리 영유아수가 증가하는 지역이라는 특색을 보여준다.

〈표 II-3〉 2005, 2010, 2016년 도시, 농촌, 도농복합시의 0~4세 영유아 수

단위: %, 명

구분	지표	2005	2010	2016	증감률 (2005-2016)	증감률 (2010-2016)
도시 ⁸⁾ (동부)	전체	1,968,007	1,837,552	1,824,011	92.68	99.26
	남자	1,021,615	945,626	934,995	91.52	98.88
	여자	946,392	891,926	889,016	93.94	99.67
도농복합시 ⁹⁾ (동·읍·면)	전체	726,874	726,672	747,861	102.89	102.92
	남자	378,878	374,299	383,426	101.20	102.44
	여자	347,996	352,373	364,435	104.72	103.42
농촌(읍·면) ¹⁰⁾	전체	414,343	381,532	368,592	88.96	96.61
	남자	215,686	196,594	189,017	87.64	96.15
	여자	198,657	184,938	179,575	90.39	97.10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국내통계, 주제별통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wcd=MT_ZTITLE&parmTabId=M_01_01 (2018.

8. 4. 인출)

원자료: 인구총조사¹¹⁾

주: 도농복합시의 동부와 읍·면지역은 도시와 농촌에도 포함되어 계산됨.

2010년 도시와 농촌 0~4세 영유아 수는 2005년에 비해 감소하지만, 도농복합시는 거의 감소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의 2016년 영유아 수는 2010년에 비해 거의 감소하지 않지만, 농촌은 여전히 감소한다. 영유아수가 감소하는 도시와 농촌과 비교해서, 도농복합시는 2016년 영유아수가 2010년에 비교해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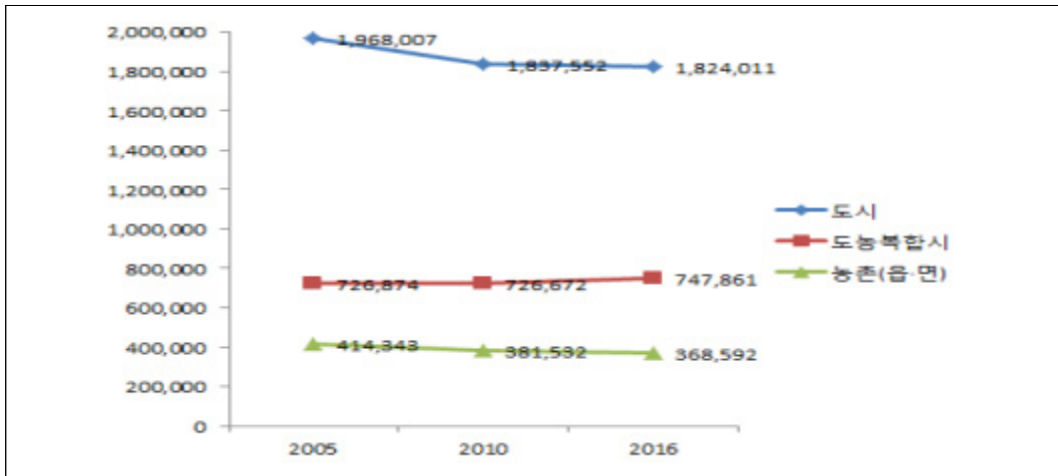
8) 도농복합시의 동부 포함

9) 자료의 특성상 도농복합시의 도시와 농촌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에 도농복합시의 수치가 포함되어 제시함.

10) 도농복합시의 읍·면 포함

11) 5년 마다 전국민 대상으로 조사하여, 2005년과 2010년 자료를 인용함. 2015년부터 전수조사가 아닌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하여 매년 조사하고 있어 2016년 자료를 인용하였음.

[그림 II-1] 지역별 0~4세 영유아 수 변화¹²⁾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국내통계, 주제별통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2018. 8. 4. 인출)

원자료: 인구총조사

아동 수 역시, 2016년 도시와 농촌, 도농복합지역 모두 2005년에 비해 5~9세는 감소하였다. 농촌이 약 절반 수준(53.08%)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그 다음 도시는 27.4%, 도농복합시는 17.4%로 감소폭이 가장 적었다. 11년 전에 비해 도시, 농촌, 도농복합시 모든 지역에서 아동수가 감소하였지만, 2016년 아동 수는 2010년에 비해 감소폭이 줄어들고, 도농복합지역은 2.15% 증가하였다.

[표 II-4] 2005, 2010, 2016년 도시, 농촌, 도농복합시의 5~9세 아동 수

단위: %, 명

구분	지표	2005	2010	2016	증감률 (2005-2016)	증감률 (2010-2016)
도시 ¹³⁾ (동부)	전체	2,624,437	1,993,280	1,904,995	72.59	95.57
	남자	1,370,557	1,034,401	980,435	71.54	94.78
	여자	1,253,880	958,879	924,560	73.74	96.42
도농복합시 (동, 읍·면 포함)	전체	961,715	777,609	794,348	82.60	102.15
	남자	501,344	405,169	409,463	81.67	101.06
	여자	460,371	372,440	384,885	83.60	103.34

12) 도시의 영유아 수는 도농복합시의 도시 지역 영유아 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농촌 역시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 영유아 수를 포함하고 있음.

구분	지표	2005	2010	2016	증감률 (2005-2016)	증감률 (2010-2016)
농촌(읍·면) ¹⁴⁾	전체	719,843	401,383	382,128	53.08	95.20
	남자	375,023	208,893	197,444	52.65	94.52
	여자	344,820	192,490	184,684	53.56	95.94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국내통계, 주제별통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2018. 8. 4. 인출)

원자료: 인구총조사

주: 도농복합시의 동부와 읍·면지역은 도시와 농촌에도 포함되어 계산됨.

2010년 도시, 농촌 도농복합시 5~9세 아동 수는 2005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5년 대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인 2010년에 비해, 도시 4.4%와 농촌 4.8%로 2016년 아동 수는 2010년에 비해 감소폭이 상당히 줄었다. 2010년에서 2016년 시기 도시와 농촌의 아동 수는 감소하였지만, 도농복합시는 2.2%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2005년 대비 2010년 도시, 농촌 지역의 0세부터 9세 영유아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지만, 도농복합시의 0~4세 영유아는 증가하였다. 2010년 대비 2016년 도시, 농촌 지역 0세부터 9세 영유아 아동 감소폭은 상당히 줄었지만, 여전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도농복합시의 0세부터 9세 영유아 아동 수는 증가하여 도시, 농촌과는 다른 영유아 아동 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도농복합시의 영유아와 아동 수의 증가는 젊은 부부의 증가를 의미하며, 지역이 농촌과 도시에 비해 인구구성이 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인구구성은 육아, 교육 및 보육, 산업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수요가 도시와 농촌과 달라야 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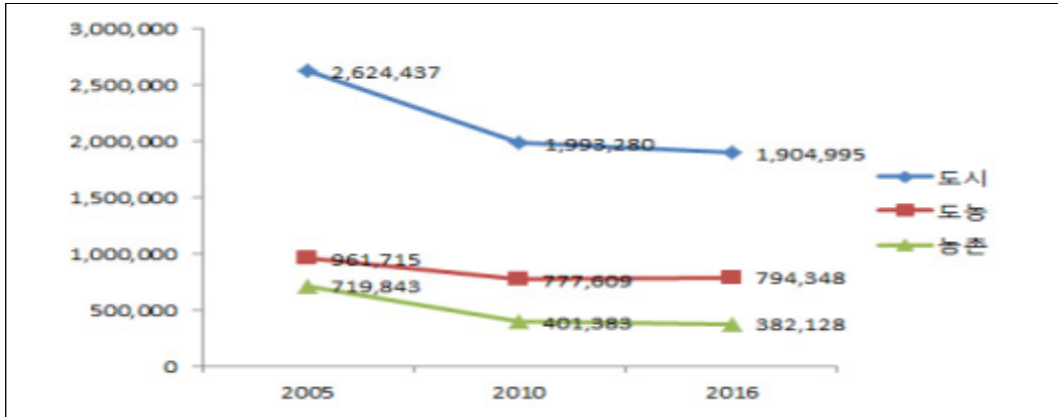
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표 II-5〉는 도시와 농촌, 도농복합시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비교하여, 도농복합시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영·유아 수 대비 도농복합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는 도시(일반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도시의 어린이집은 2006년 천 명당 평균 13.2개에서 2016년 21.1개로, 유치원 수는 평균 2006년 58.6개에서 67.9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초등학교 수 역시 2006년 31.2개에서 2016년 35.1개로 증가했다. 농촌의 어린이집 수는 도시와 같이 증가 추세이나 2006년 천 명당 수는 도시와 반대로 2006년 평균 19.5개에서 2016년 16.4개로 오히려 감소했다. 초등학교 수 역시 농촌은 2006년 16.3개에서 2016년 14.9개로 감소했다.

13) 도농복합시의 동부 포함

14) 도농복합시의 읍·면 포함

[그림 II-2] 지역별 5~9세 아동 수 변화¹⁵⁾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국내통계, 주제별통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2018. 8. 4. 인출)

원자료: 인구총조사

[표 II-5] 도시, 농촌, 도농복합시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수 비교

단위: 개소

구분	지표	2006	2011	2016
도시 ¹⁶⁾ (일반시)	0-5세 천명당 어린이집 수(개소/천 명)	13.2	18.8	21.1
	평균 유치원 수	58.6	61.9	67.9
	초등학교수/ 1km ² 당 초등학교 수(개소/km ²)	31.2/0.35	33.7/0.38	35.1/0.40
도농 복합시	0-5세 천명당 어린이집 수(개소/천 명)	13.1	18.6	20.1
	평균 유치원 수	52.3	56.4	60.7
	초등학교수/ 1km ² 당 초등학교 수(개소/km ²)	38.2/0.063	39.5/0.066	40.2/0.068
농촌(군) ¹⁷⁾	0-5세 천명당 어린이집 수(개소/천 명)	10.6	12.9	15.2
	평균 유치원 수	19.5	17.7	16.4
	초등학교수/ 1km ² 당 초등학교 수(개소/km ²)	16.3/0.028	15.3/0.026	14.9/0.02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e-지방지표, <http://kosis.kr/visual/eRegionJipyo/index/index.do> (2018. 8. 3. 인출)

원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보건복지부(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현황)

농촌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도농복합시는 도시와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¹⁸⁾. 어린이집은 2006년 평균 13.1개에서 2016년 20.1개

15) 도시의 영유아 수는 도농복합시의 도시 지역 영유아 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농촌 역시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 영유아 수를 포함하고 있음.

16) 도농복합시 도시지역 포함되지 않음.

17)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포함되지 않음.

18) 도농복합시 경우,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은 농촌의 특성을 따라 시설이 감

로, 유치원 수는 2006년 52.3개에서 2016년 60.7개로 증가했다. 도농복합시의 평균 초등학교 수는 2006년 평균 38.2개, 2016년 40.2개로 도시보다도 더 많고 증가 추세지만, 면적 대비 초등학교 수를 보면 2006년 1km²당 0.063개, 2016년 0.068개로 2016년 1km²당 0.40개인 도시에 비해 1km²당 0.025개인 농촌에 훨씬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

도시와 도농복합시 유치원 원아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표 II-6). 하지만, 농촌 유치원 원아 수는 2006년 대비 2011년에 4,914명 감소하였고, 2016년은 2010년 대비 증가하였다. 도농복합시는 유치원 원아가 가장 많았고, 평균 유치원 원아 수는 농촌보다는 도시와 가까운 특성을 보였다. 도농복합시는 현재 56개시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시보다 많기 때문에 유치원 원아 수가 가장 많다.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각기 일반적인 도시와 농촌의 특성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이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는 도농복합시는 도시보다는 낮고, 농촌보다는 높은 평균 유치원 원아 수를 보여준다.

〈표 II-6〉 도시, 농촌, 도농복합시의 유치원 원아 수

단위: 명

구분	지표	2006	2011	2016
도시 ¹⁹⁾ (일반시)	유치원 원아 수	100,894	105,007	129,062
	유치원 원아 수 평균	4,804	5,000	6,146
도농 복합시	유치원 원아 수	166,438	167,672	222,499
	유치원 원아 수 평균	3,026	3,224	4,198
농촌(군)	유치원 원아 수	31,888	26,974	28,793
	유치원 원아 수 평균	462	391	417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e-지방지표, <http://kosis.kr/visual/eRegionJipyo/index/index.do> (2018. 8. 3. 인출)
원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다. 지역 지리적, 사회적 특성

도농복합시의 재정자립도는 도시보다는 낮고 농촌보다는 높다. 도농복합시 재정자립도 수치는 도시의 재정자립도에 가깝다. 도농복합시 면적은 농촌과 비슷하다. 도농복합시의 면적은 넓은 읍·면 지역인 농촌지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농촌의 특성이 있다. 도농복합시의 사업체 수는 도시보다 많고, 농촌보다 적다.

소하고, 도시지역은 시설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도농복합시 안에서 지역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한계상 도농복합시 내 지역구분이 불가함.

19) 도농복합시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임.

사업체는 모든 산업의 사업체 수를 의미하며, 주로 일반음식점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 2016년 경제총조사에 의하면 농림어업이 (10.5%)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보도자료, 2017. 9. 28).

〈표 II-7〉 도시, 농촌, 도농복합시의 재정자립도 및 면적

단위: %, km², 개

구분	지표	2006	2011	2016
도시 (일반시)	재정자립도	47.4	45.5	42.5
	면적	109	109	109
	천명당 사업체 수	60.39	63.72	71.07
도농 복합시	재정자립도	31.7	30.5	30.8
	면적	657	682	693
	천명당 사업체 수	65.91	69.43	78.31
농촌(군)	재정자립도	14.4	14.7	16.1
	면적	681	685	687
	천명당 사업체 수	68.81	71.97	83.99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e-지방지표, <http://kosis.kr/visual/eRegionJipyo/index/index.do> (2018. 8. 3. 인출)

원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와(전국사업체조사),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 국토교통부(지적통계연보)

주: 사업체 수 = 전체산업에 대한 사업체 수

사회복지 시설 수는 농촌이 도시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도농복합시의 사회복지 시설 수 역시 도시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농촌과 도농복합시의 경우 농촌 지역은 경로당과 노인 관련 복지시설이 마을마다 세워져 전체적인 사회복지 시설의 증가가 크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 시설과 달리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자는 도시가 2.86명으로 가장 많고, 도농복합시가 2.04, 농촌이 1.82명이었다. 도농복합시의 사회복지 시설 수나 의료기관 종사자 수는 도시와 농촌의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II-8〉 도시, 농촌, 도농복합시의 사회복지 시설 수 및 의료기관 종사자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지표	2006	2011	2016
도시 (일반시)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 시설 수	3.85	9.94	14.56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2.04	2.54	2.86
도농 복합시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 시설 수	6.65	14.50	19.79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1.57	1.82	2.04

구분	지표	2006	2011	2016
농촌(군)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 시설 수	8.93	23.40	26.74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1.45	1.65	1.82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e-지방지표, <http://kosis.kr/visual/eRegionJipyo/index/index.do> (2018. 8. 3. 인출)

원자료: 각 시도통계연보,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

주: 2003~08년 사회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시설, 기타시설 포함

2009년 이후 사회복지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타시설 제외

라. 도농복합시 내 도시, 농촌 비교

도농복합시는 도시와 농촌이 동일 행정구역에 있기 때문에 일반시의 특성과 농촌의 특성이 함께 나타난다. 도농복합시는 일반적으로 도시에 가까운 특성이 더 많지만, 일부는 농촌의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도시와 농촌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 이러한 도농복합시를 도시에 가깝거나 또는 농촌에 가깝다고 보기보다는 도농복합시의 독특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도농복합시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도농복합시를 일반시나 농촌과 비교하기 보다는 오히려 도농복합시 내의 도시와 농촌 지역을 비교하여, 도농복합시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도농복합시 내의 특성을 보기위해 도농복합시의 도시와 농촌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2017년도 ‘농촌·도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조사’ 자료(유은영·박지숙, 2017)를 활용하여 재분석²⁰⁾하였다. 도농복합시 내의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도시와 도·농 복합지역의 도시, 농촌과 도·농 복합지역의 농촌, 그리고 도·농 복합시의 도시 및 농촌 지역의 육아·교육·문화여가²¹⁾ 관련 만족도(10점 만점)의 차이를 Two-sample Mann-Whitney 테스트로 분석하였다.

일반 도시와 도농복합시 도시지역 비교 결과, 육아와 교육 만족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없었다. 문화여가는 강원, 경기 지역만 차이를 보였다. 강원지역은 도농복합시 도시지역의 시설이용과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가 강원도 일반시보다 높았다. 경기지역은 일반시의 만족도가 도농복합시 도시지역의 만족도보다 높았다.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은 일반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20) 분석을 위해 전국을 도시와 농촌, 그리고 도·농 복합지역으로 구분하고 도·농 복합지역을 다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였음.

21) 보건의복지 관련 문항: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교육 관련 문항: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 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문화여가 관련 문항: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 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표 II-9〉 지역별 도시와 도농복합시 도시지역 만족도 평균 비교

단위: 점

비교	지역	육아	교육		문화여가	
		양육보호	학교교육	방과후교육	시설이용	프로그램
도시 vs 도농(동)	강원	6.25	6.38	6.50	5.25*	5.00*
		6.83	6.96	6.98	6.88*	6.52*
	경기	6.68	6.63	6.70	6.75**	6.66**
		6.28	6.49	6.37	6.04**	5.94**
	경남	-	-	-	-	-
		6.96	7.19	7.28	6.67	6.56
	경북	-	-	-	-	-
		6.13	6.57	6.43	6.29	6.07
	전남	7.17	7.17	6.83	6.17	5.83
		6.08	6.04	5.96	6.33	5.79
	전북	6.77	6.81	6.84	6.52	6.77
		5.91	5.64	6.23	6.41	6.36
	충남	-	-	-	-	-
		6.60	6.82	6.93	6.58	6.00
	충북	-	-	-	-	-
		6.74	6.94	6.90	6.42	6.16
	제주	-	-	-	-	-
		7.88	7.81	7.81	7.25	7.44

원자료: 유은영·박지숙(2017). 2017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중 '2017년 농촌·도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조사 자료'를 분석

주: “-”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없는 지역

* $p < .05$, ** $p < .01$.

농촌과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비교 결과, 육아 만족도와 문화여가 영역 프로그램 만족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없었다. 교육부분에서 충북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충북지역 농촌의 만족도보다 높았다. 방과후 교육 만족도는 경기지역 농촌, 경북지역 농촌, 충북지역 농촌이 같은 지역 농촌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문화여가 영역 시설 이용 만족도는 경기지역 농촌이 같은 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보다, 충북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이 같은 지역 농촌보다 높았다. 도농복합시의 농촌과 일반 농촌은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보인다.

〈표 II-10〉 지역별 농촌과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만족도 평균 비교

단위: 점

비교	지역	육아	교육		문화여가	
		양육보호	학교교육	방과후교육	시설이용	프로그램
농촌 vs 도농(읍·면)	강원	5.41	5.72	5.13	4.60	4.37
		5.80	6.05	5.75	5.20	5.05
	경기	5.39	5.64	5.18*	5.74*	5.00
		5.47	5.49	5.51*	5.27*	5.17
	경남	5.67	6.04	5.68	5.18	4.93
		6.13	5.91	6.16	5.46	5.44
	경북	5.35	5.28	4.90*	4.90	4.79
		5.79	5.74	5.59*	4.79	4.79
	전남	5.79	5.83	5.52	5.12	4.87
		6.00	5.89	5.83	5.23	5.21
	전북	5.71	5.71	5.49	5.20	5.09
		5.74	6.05	5.63	4.82	4.71
	충남	5.20	5.58	5.36	4.84	4.71
		5.62	5.50	5.50	4.93	4.86
	충북	5.40	5.28**	5.46**	4.82*	4.99
		5.85	6.17**	6.32**	5.66*	5.54
	제주	-	-	-	-	-
		4.76	4.94	5.00	4.24	4.18

원자료: 유은영·박지숙(2017). 2017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중 '2017년 농촌·도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조사' 자료를 분석

주: "-"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없는 지역

* $p < .05$, ** $p < .01$.

도농복합시 내 도시와 농촌을 비교해 보면 도농복합시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전북지역 학교교육 지표 외 모든 지역 모든 지표에서 도농복합시 도시지역 만족도가 농촌지역 만족도 보다 높다. 육아영역에서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의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강원, 경기, 경남, 제주의 도농복합시 도시지역 만족도가 농촌지역 보다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았다. 교육 역시 전남, 전북,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도농복합시 도시지역 만족도가 농촌지역 만족도보다 높았다. 문화여가 영역 만족도는 충북 외 모든 지역에서 유의미하게 도시지역의 만족도가 높다. 도농복합시 내 도시 농촌 비교 결과는 도농복합시가 하나의 지역이기보다는 도농복합시 내의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I-11〉 지역별 도농복합시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만족도 평균 비교

단위: 점

비교	지역	육아	교육		문화여가	
		양육보호	학교교육	방과후교육	시설이용	프로그램
도농(동) vs 도농 (읍·면)	강원	6.83*	6.96*	6.98*	6.88**	6.52**
		5.80*	6.05*	5.75*	5.20**	5.05**
	경기	6.28**	6.49**	6.37**	6.04**	5.94**
		5.47**	5.49**	5.51**	5.27**	5.17**
	경남	6.96*	7.19**	7.28**	6.67**	6.56**
		6.13*	5.91**	6.16**	5.46**	5.44**
	경북	6.13	6.57**	6.43**	6.29**	6.07**
		5.79	5.74**	5.59**	4.79**	4.79**
	전남	6.08	6.04	5.96	6.33*	5.79
		6.00	5.89	5.83	5.23*	5.21
	전북	5.91	5.64	6.23	6.41*	6.36*
		5.74	6.05	5.63	4.82*	4.71*
	충남	6.60	6.82**	6.93**	6.58**	6.00**
		5.62	5.50**	5.50**	4.93**	4.86**
	충북	6.74	6.94	6.90	6.42	6.16
		5.85	6.17	6.32	5.66	5.54
	제주	7.88**	7.81**	7.81**	7.25**	7.44**
		4.76**	4.94**	5.00**	4.24**	4.18**

원자료: 유은영·박지숙(2017). 2017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중 '2017년 농촌·도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조사 자료'를 분석

* $p < .05$, ** $p < .01$.

도농복합시 도시와 일반 도시를 비교하면 일반도시의 문화여가 영역 프로그램 만족도가 도농복합시 도시의 만족도보다 높았고, 다른 영역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일반 도시와 도농복합시 도시가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농촌과 도농복합시 농촌의 만족도 비교에서는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 육아, 방과후 교육, 문화여가 영역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게 나와, 농촌과 도농복합시의 농촌은 다소 차이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도농복합시의 도시와 도농복합시의 농촌 지역은 모든 영역에서 도농복합시의 도시 지역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와 도농복합시 내 지역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농복합시가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줄어들기보다는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12〉 도시, 농촌과 도농복합시 만족도 평균 비교

단위: 점

비교	육아	교육		문화여가	
	양육보호	학교교육	방과후교육	시설이용	프로그램
도시 vs 도농(동)	6.69	6.66	6.71	6.66	6.60*
	6.55	6.72	6.74	6.48	6.24*
농촌 vs 도농(읍·면)	5.5*	5.64	5.34**	5.02	4.83**
	5.65*	5.66	5.66**	5.18	5.11**
도농(동) vs 도농(읍·면)	6.55**	6.72**	6.74**	6.48**	6.24**
	5.65**	5.66**	5.66**	5.18**	5.11**

원자료: 유은영·박지숙(2017). 2017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중 '2017년 농촌·도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조사 자료'를 분석

* $p < .05$, ** $p < .01$.

3 소결

인구변화, 산업, 교육 및 보육 등의 지표로 일반시와 농촌 그리고 도농복합지역을 비교했을 때, 도농복합지역은 도시와 농촌의 중간에 위치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지표에서 도농복합지역은 도시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주지만, 농촌지역이 함께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중간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인구이동, 영유아 수, 아동 수에서 보면, 도농복합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영유아나 아동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나 농촌과는 다른 인구 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도농복합시 내 농촌과 도시 비교를 통해 도농복합시를 한 지역으로 보기 보다는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지역의 특성 살펴보기 위해 도농복합지역 내 도시와 농촌을 비교했을 때, 그 특성이 잘 드러났다. 도농복합지역 내 도시는 일반시의 특성과 비슷하며, 도농복합지역의 농촌은 일반 농촌의 특성과 비슷하다. 도농복합지역에 관한 육아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농복합시를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하고 정책을 입안하기 보다는 도농복합시 내 지역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농복합시는 도시와 농촌이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이를 고려한 정책을 세우고, 정책이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III. 육아정책의 해외 사례

본 장에서는 도농복합지역의 육아지원과 출산율 제고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성공적 결과를 보여주는 해외사례를 수집,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농어촌 지역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뉴질랜드 사례를 통해 농어촌 보육 정책 사업의 예를 간략히 검토해보았으며, 우리나라 도농복합시 육아정책이 직접적으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일본의 사례는 일본 해외출장을 바탕으로 2절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1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보육정책 사례

가. 미국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도농복합지역의 개념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 부모의 보육서비스 선택에 제한이 있다(김은설 외, 2007). 아이오와 주 농어촌 주택 서비스(Rural Housing Service, RHS)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필수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낮은 이자의 대출과 보조금을 지급한다²²⁾. 필수 시설들은 사적이거나 상업적인 기반 시설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중 하나로 어린이집 등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²²⁾ 또한 보육보조 프로그램(Child Care Assistance Program, CCAP)을 통해 양질의 보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 가정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²³⁾ 현재 켄터키 주에서

22) <https://www.rd.usda.gov/programs-services/community-facilities-direct-loan-grant-program/ia> (2018. 8. 16. 인출)

23) <https://www.louisianabelieves.com/early-childhood/child-care-assistance-program> (2018. 8. 16. 인출)

약 27,000명의 아동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²⁴⁾ 보육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정 별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사례전문가로부터 평가를 받은 이후 허가 여부를 통보받는다.²⁵⁾

또한 어린이집의 확충이 어려운 농촌의 경우는 친인척 보육서비스 등 가정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서문희·이미화·김은설·이세원, 2006: 27). 가정보육(Family Child Care, FCC)이란 보육 전문가의 가정에서 제공되는 보육을 말하는데, 국가 전역에 걸쳐 가정보육 가구는 영유아,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장애아동 등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²⁶⁾. National Association of Family Child Care(NAFCC)는 가정보육의 역할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접근, 비용적으로 이용가능성, 보육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다²⁶⁾. NAFCC는 1982년부터 가정보육 프로그램만의 환경에서 양질의 유아 교육 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유일한 국가 전문의 비영리 기관이다²⁶⁾. 주요 업무로는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의 투자와 시행, 영유아들을 위한 보육 시설 보강, 그리고 농어촌 지역사회에 양질의 어린이집 공급, 영유아 및 비정규 시간 근무하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 등을 지원한다²⁶⁾.

21세기 지역사회교육센터(21st Century Community Learning Centers)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학습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재정적으로 어렵고 학습수준이 떨어지는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학교 외 시간에 학업적 성취를 이루도록 돕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필수 학습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고, 아동을 참여시키는 가족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²⁷⁾

농어촌 지역에 Early Head Start 센터의 직원은 거의 5만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86%에 Head Start 센터가 존재한다. 2015~16년 동안 175,000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²⁸⁾

24) <https://money.cnn.com/2017/12/14/news/economy/kentucky-child-care/index.html> (2018. 8. 16. 인출)

25) <https://www.louisianabelieves.com/docs/default-source/child-care-providers/ccap-application-process-flowchart.pdf?sfvrsn=2> (2018. 8. 16. 인출)

26) <https://www.nafcc.org/About-Us> (2018. 8. 16. 인출)

27) <https://www2.ed.gov/programs/21stccclc/index.html> (2018. 8. 16. 인출)

28) <https://hechingerreport.org/how-rural-families-came-to-rely-on-head-start/> (2018. 8. 16. 인출)

나.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농촌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농림부와 교육인적자원이 합동으로 농촌교육활동프로그램(Rural Education Activities Programme: REAP)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서문희 외, 2006: 30). Central Otago 농촌교육활동프로그램(Central Otago Rural Education Activities Programme, COREAP)이란 Central Otago 지역의 교육 기회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관이며, 교육부와 제 3차 교육 위원회(Tertiary Education Commission)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REAPs는 뉴질랜드에 13개가 존재하며, COREAP는 그 중 하나이다. REAP는 유아교육, 초등, 중등교육, 성인 커뮤니티를 위한 지속 교육(평생교육)을 다루고 있으며, 비영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²⁹⁾ REAP는 농촌 지역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아교육에서부터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융통성 있는 자원이다.³⁰⁾ REAP가 다루고 있는 영역은 유아교육, 의무교육, 성인 및 지역사회 교육, 긍정양육, 교육 중개 및 자문 등을 다루고 있다.³¹⁾

2

육아친화도시 사례: 일본³²⁾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추세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을 해온 일본의 사례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육아친화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자, 일본 나가레야마시와 돗토리현을 방문하였다. 나가레야마시는 ‘육아를 위해서는 나가레야마시로!’라는 슬로건으로 인구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육아’라는 키워드로 인구유입을 이루어낸 도시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돗토리현은 일본 자치현 중 가장 작은 규모이며 대부분 산지, 농지의 환경을 지닌 돗토리현은 “육아왕국 돗토리”라는 기치를 내세워 2010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한 이래, 꾸준한 출산율 상승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 도시이다.

29) <http://www.coreap.org.nz/about-coreap/> (2018. 8. 16. 인출)

30) <http://www.coreap.org.nz/about-coreap/what-we-do/> (2018. 8. 16. 인출)

31) <http://www.reapaotearoa.nz/reaps/> (2018. 8. 16. 인출)

32) 일본 사례는 2018.11.6.~11.8일 사이 다녀온 일본출장을 통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가. 치바현 나가레야마시(流山市)

1) 나가레야마시 소개

일본 나가레야마시는 ‘육아를 위해서는 나가레야마시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인구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육아’라는 키워드로 인구유입을 이루어낸 도시로 알려져 있다. 대도시 인근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육아친화 도시 전략으로 영유아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도시이다. 나가레야마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에서의 인구유입률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높아진 경향을 보였는데, 그 배경에 육아친화도시로서의 이미지 홍보와 육아친화적 정책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리상의 특징으로는 도쿄 도심에서 연결되는 고속철도가 놓이면서, 도쿄에서 철도로 30-60분 사이의 이동이 가능하고, 도쿄에 비해 저렴한 주거지역으로 주거지로서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나가레야마 인구 구성의 변화는 2017년 18만에서 19만으로 인구증가, 10년 사이 2만명 증가하였고, 2016년 데이터에서 전입해온 연령 중 25-39세, 0-5세의 인구가 급증하였다. 도시 인근에 있는 지리적 위치가 좋아, 도시 지하철에 광고를 통해 나가레야마시에서의 육아를 홍보하였다.

2) 나가레야마시 보육정책

나가레야마시 또한 육아친화도시로서 혜택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모자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임신, 출산, 산후조리 시기에 보건사가 가정방문하여 모든 가정에 찾아가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Hello Baby!’라는 프로그램으로 보건센터를 통한 0-6개월 사이 영유아 가구 대상으로 출산 시 가정방문, 3세 발달검사 시행 등이 있다.

또한, 영유아 자녀의 출산과 유입이 늘어나면서, 보육소가 양적으로 늘어났고, 보육원 수가 10년 전 8,843개에서 현재 12,109개로 증가하였다. 보육예산에 있어서도, 보육비 예산이 1억에서 11억, 운영비는 23억에서 59억으로 대폭 증가하여, 보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육원 증가에 따라 보육사의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도농지역의 질 높은 보육사 확보가 어려워, 질 높은 보육사의 확보에 주력을 기울임을 알 수 있었다. 질 높은 보육사를 확보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줌으로써 보육사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졸업 후 나가레야마시에서 5년간 보육사로 일을 할 경우 대학교졸업을 위한

학자금 대출 갚아주는 등의 등록금 지원 및 나가레야마시에서 살면서 교사를 할 경우 주택임대수당 등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혜택 등이 있다.

[그림 Ⅲ-1] 나가레야마 시청



출처: 본 연구 수행을 위한 현지답사 사진임(2018. 11. 6~8)

3) 오오타카노모리(おおたかのもり) 송영보육스테이션

보육스테이션을 운영하게 된 상황적 배경으로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셔틀을 운영하지 않아, 지역 내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으나, 역 주변의 어린이집의 대기 수요는 많고, 역에서 먼 어린이집은 정원이 차지 않는 현상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하였다. 운영 주체로는 시에서 위탁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운영 시간으로는 오전 7-8시에는 아이들을 보육스테이션에 맡기고, 오전 8시경 셔틀이 출발한다. 또한 오후에는 4시경 어린이집들에서 버스가 출발하여, 보육스테이션에 도착하여 6-7시경까지 보육이 가능하다.

이용 부모가 내는 이용비용은 1일에 100엔 정도이고, 1개월 최대 2,000엔까지 지불한다. 버스 관리 및 보육스테이션 운영은 위탁업체가 담당하며, 보육스테이션에서의 보육 등도 함께 담당한다. 보육스테이션 내에 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 자녀들을 스테이션에 데려다 주고 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가기까지 일시적 보육을 제공한다. 차량이용은 역 1층 주차장에 6-7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고, 차량이 이용되는 시간에 맞추어 보육스테이션 내의 담당 선생님이 아이들의 이동을 맡아 차량이용을 도와준다.

[그림 III-2] 보육스테이션 내부



출처: 본 연구 수행을 위한 현지답사 사진임(2018. 11. 6~8)

나. 돗토리현 (鳥取県)

1) 돗토리 소개

일본의 돗토리현 또한 10년 전부터 육아시책을 통한 출산율 향상과 젊은 층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이다.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으로서 돗토리현청을 방문하여 육아친화를 통한 인구 유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면담하였고, 돗토리현 인구유입의 주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도농복합지역 자원을 이용한 정책 시행 및 효과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돗토리현은 일본 열도 서쪽 끝에 위치하고 산지가 많으며 인구는 약 57만명으로 4시 14정 1촌으로 구성된다. 일본 전국에서 친환경 지역 2위로 풍부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고, 사회지수 특징을 보면, 대기아동률 0(전국 1위), 소아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 수 전국 1위, 봉사활동 참가자 비율 전국 4위이다. 돗토리현은 2010년 9월 ‘육아왕국 돗토리’ 건국을 추진한 이래 저출산 대책 분야에서 일본 내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전역 및 돗토리현 인구 추이는 2010년 육아왕국 건국 이후 ‘육아왕국 돗토리’ 실현을 위한 저출산 대책에 힘써온 결과,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합계 출산율을 회복하였다. 돗토리현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합계출산율 1.43(전국 17위)였으나, 2017년 합계출산율 1.66(전국 7위)으로 0.23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일본 전체 합계출산율이 0.06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높은 상승률이다.

〈표 Ⅲ-1〉 연도별 돗토리현과 일본 전체 합계출산율 비교

단위: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본전체	1.37	1.37	1.39	1.39	1.41	1.43	1.42	1.45	1.44	1.43
돗토리현	1.43	1.46	1.54	1.58	1.57	1.62	1.60	1.65	1.60	1.66

출처: 돗토리현 내부자료(2018)로 일본 현지출장에서 확보한 자료임.

2) 돗토리현의 육아정책

돗토리현의 육아정책은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대한 연속적 지원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미혼·만혼의 원인 분석 결과, 경제적 문제, 일하는 방식의 문제, 만남의 문제로 파악하고, ‘돗토리 만남 서포트센터’를 설립하여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결혼 지원을 2년간 10,000엔 회비로 운영하고 있고, 의료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현 자체적으로 지원, 불임치료비, 불임검사비, 불임치료 휴가취득촉진 장려금 등 불임치료비 지원하였다. 중간 지역 보육료 무상화 시범 사업, 셋째 자녀 이후 보육료 무상화 사업, 저소득 둘째 자녀 보육료 무상화, 재택육아가구 지원(보육소 미이용 0세 월 30,000엔 지원), 돗토리현 유아교육센터 설립, ‘숲유치원 인증제도’ 실시, 자연체험 활동 인증제도 실시, 방과후 아동 클럽, 병아 보육 강화, 어린이 의료비 조성, ‘육아세대 포괄지원센터’ 설립으로 임신부터 육아기간 연속인 지원 실시, 돗토리 육아멘 프로젝트(육아참여휴가 장려, 단시간 근무 조건 준수 기업주에 인센티브), 3세대 동거 또는 근거 추진(부동산 취득세 경감, 주거 신축·개수 지원), 조부모 손주 육아 지원 등 지자체의 육아지원 정책 시행을 하였다.

3) 돗토리시 0·1·2·3 子育て廣場(육아광장)

0123 육아광장은 일본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한 시설이지만 돗토리시에 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소개하고 있어 방문하였다. 0123 육아광장은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토요일 포함 주중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방문하여 놀이를 하고 장남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열린 육아공간이다. 이 시설은 부모-자녀 공동 놀이, 부모 간 교류, 전문인력과 육아 상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로, 평일에는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영유아, 주말에는 맞벌이나 아버지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돗토리 시내 0123 육아광장은 총 12개소로, 대부분 보육원(보육소)내에 위치하여 보육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진이 방문한 육아광장은 시립문화센터 건물 내에 위치하여 독립적

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위탁을 받은 재단에서 교사를 파견하여 운영하였으며, 점심시간을 두어 부모-자녀의 점심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점심시간과 오후 퇴근 이전 시간을 이용하여 교사는 모든 놀잇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다.

운영방식은 보육소 교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중년 연령의 교사 2명이 주 6일 근무하며, 일요일, 국경일, 연말연시를 제외하면 연중 이용 가능. 부모가 자녀와 함께 방문하여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게 하며, 부모 간 정보교환, 상근 교사와의 상담 및 교육 등이 이루어진다. 월 1~2회 교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참여자 모집에 응한 부모가 함께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림 III-3] 돗토리시 0·1·2·3 子育て(육아광장)



출처: 본 연구 수행을 위한 현지답사 사진임(2018. 11. 6~8)

3 시사점: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진의 해외 현지 출장을 통해 자료를 얻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생률을 높이고 육아친화적인 소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상징으로서 하나의 슬로건을 제시하는 것도 인구 유입과 지자체 구성원의

경각심의 고취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듯하다. 나가레야마시의 ‘육아를 위해서는 나가레야마로’라든지 ‘육아왕국 돗토리’라는 슬로건은 일본 전역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다른 곳과는 차별적으로 육아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홍보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무원, 주민들에게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단순히 보육의 양적 확대보다는 소도시, 농촌도시라는 측면이 약점으로 작용해 질 높은 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우수 교사 유치 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가레야마시에서는 5년간 지역 내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할 경우, 그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지자체가 대신 지불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교사에 대한 주택임대 수당 등의 주거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셋째, 송영보육스테이션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전철역을 이용하는 직장 통근자에게 보육시설 이용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들의 시간적 용이성과 더불어 아동의 버스 이동을 지자체가 안전하게 책임진다는 부분, 그리고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의 수요-공급이 차이나지 않도록 골고루 정원 충원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 먼저 부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개별적으로 데려다주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고 출근시간에 맞추어 전철역으로 가면 된다. 즉, 시간적으로 매우 유용하다. 또한, 도시 내의 보육시설이 각각 셔틀버스를 운영할 필요가 없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버스 스테이션에서 안전하게 영유아용으로 개조된 버스를 이용해 해당 어린이집까지 데려다 준다. 아동 이동의 안전을 지자체가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전철역에 가까워서 대기자까지 있는 보육시설과 멀리 위치하여 정원이 차지 않던 시설 간에 간극을 없애는 장치가 될 수 있어, 지역 내 모든 보육시설이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는 지역 내 전체 보육시설에 대해 부모의 신뢰가 동일하고 질적 수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지 않음에 동의해야 하는 문제는 있다.

넷째, 지자체가 저출생 문제를 결혼부터 관심을 두고 결혼-임신-출산-육아라는 전과정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새로운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즉, 지자체에서 ‘만남서포트센터’를 두고 만혼 현상을 줄일 수 있도록 만남추진을 하고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농어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숲유치원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홍보하여 좋은 환경을 원하는 부모의 이주를 유도하는 것 또한 지역 장점 활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도시와는 달리 공기나 자연환경이 좋은 장점을 지닌 도농복합도시는 특히 숲이나 자연, 산 등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해본다면, 체험학습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의 영유아 부모에게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육아왕국이라 자칭하는 돗토리현에서는 ‘육아맨 프로젝트’를 통해 육아휴직 등 육아에 적극적인 남성 직원을 지원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육아가 부부 양편 모두의 일이 되어야한다는 인식을 확산하면서 동시에 실천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완전한 남성의 육아 참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이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일곱째, 3세대 동거 또는 근거리 거주(近居)에 대해 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주어 장려하는 정책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 맞벌이 가구가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육아를 하고 있고 특히 도농복합시에는 면지역에 조부모가 살고 있고 영유아 양육 젊은 세대는 읍이나 동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데, 이러한 3세대 거주에 대한 세제 지원책은 조부모가 가까이에서 살면서 육아에 도움을 주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여덟째, 일본의 0123 육아광장 시스템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나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는 요구가 많은 도농복합시에 매우 적합한 하나의 개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에 비해 키즈카페나 문화센터 등이 없고 부모교육이나 상담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농어촌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육아광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가 직접 가정 내 양육을 하는 가정뿐만 아니라 주말 이용 가족을 위해서도 편리한 접근성을 가진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위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또한 추가적 이점이 될 것이다.

Ⅳ. 도농복합도시 유형별 요구 분석

본 장에서는 도농복합도시를 3개로 유형화한 분류를 근거로 4개 도시를 선정하고 해당 도시의 영유아와 초등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대다수 모)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 그리고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의 결과를 실었다. 이들의 의견에 대한 청취를 통해 육아실태와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심층면담 관련 정보

도농복합지역의 육아지원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지역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지역 수준(동/읍/면) 및 관련 기관(유치원/어린이집) 특성, 공급자와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심층면접을 통해 도농복합지역의 육아지원 실태와 각 집단의 요구에 대하여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표 IV-1〉 심층면담 일정 및 참석 인원

지역	구분	일시	면담대상자
안성	공무원	2018. 8. 3(금)	안성시 공무원 A
	어린이집 원장	2018. 8. 3(금)	안성시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감	2018. 9. 7(금)	안성시 유치원 원감
	동지역 거주, 영유아를 둔 모	2018. 8. 3(금)	안성시 어린이집 학부모 A, B, C
	읍지역 거주, 영유아를 둔 모	2018. 9. 7(금)	안성시 유치원 학부모 A, B, C
당진	공무원	2018. 9. 6(목)	당진시 공무원 A, B
	어린이집 원장	2018. 9. 6(목)	당진시 어린이집 원장
	읍지역 거주, 영유아를 둔 모	2018. 9. 6(목)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A, B, C
원주	공무원	2018. 10. 10(수)	원주시 공무원 A
	어린이집 원장	2018. 10. 10(수)	원주시 어린이집 원장
	읍지역 거주, 영유아를 둔 모	2018. 10. 10(수)	원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A, B, C
나주	공무원	2018. 9. 4(화)	나주시 공무원 A
		2018. 9. 5(수)	나주시 공무원 B
	어린이집 원장	2018. 9.12(수)	나주시 어린이집 원장 A, B, C, D
	유치원 원장	2018. 9.17(월)	나주시 유치원 원장 A, B
	영유아를 둔 모	2018. 9.20(목)	나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A, B, C, D, E
	영유아를 둔 모	2018. 9.27(목)	나주시 유치원 학부모 F, G, H, I, J, K, L

〈표 IV-2〉 심층면담 주요내용

구분	주요 면담내용
공무원 대상	- 지역 내 인구변화 양상 및 산업 구성 - 지역 내 영유아 가구 현황 및 특성 -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 현황 및 특성 - 지자체 특색 보육사업(유치원 지원 사업) - 지역 내 어린이집 관리의 문제점, 애로점 - 초등생 돌봄 시설 상황(아동, 청소년 담당자 응답 가능)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대상	- 위치(입지) 특성 - 이용자 특성(맞벌이 비율, 주 종사 직업, 소득수준, 이용시간 등) - 운영 상의 특징, 애로점(교사 수급, 프로그램 운영 특성, 차량 운행 현황)
부모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초등 방과후 프로그램(교내외, 학원) 이용 현황 - 어린이집 이용 시 애로점, 요구 사항 - 지역 내 육아지원시설(문화시설, 체험시설 등) 이용 현황 및 개선요구점 ‘육아친화적 도시’ 추진 시 필요한 개선사업, 정책 - 초등생 돌봄 상황(초등생 학부형 경우)

2 중간지역(경기도): 안성

가. 지역 특성

안성시는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평택, 북동쪽으로는 이천시, 남쪽으로는 천안, 진천, 음성, 북쪽으로는 용인시와 경계를 이루는³³⁾ 등 여러 도시와 경계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1900년대 초에 안성군으로 설치되었다가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458호)에 의하여 1998년 4월 1일 안성시로 승격되어 현재는 전통적으로 도시의 형태를 보이는 3개의 동 지역과 교통의 편리성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면에서 승격한 1개의 읍(공도읍)이 있으며, 이외에는 11개의 농촌 면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³⁴⁾ (그림 IV-1 참조) 지형적으로는 농지와 산지(50% 이상)가 많으며 축산업이 발달해 있다.

[그림 IV-1] 안성시 지도



자료: <https://blog.naver.com/jkim0815/30175840172> (2018. 8. 16. 인출)

인구는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고 정체된 상태로 19만 이하의 답보된 상황을 보이고 있고, 영유아는 보육아동 수를 통해 볼 때 줄어들고 있다(2017년 영유아수 11,200명,

33) 안성시청 홈페이지>안성소개>안성현황>위치

<https://www.anseong.go.kr/portal/contents.do?mId=0505010000> (2018. 8. 16. 인출)

34) 안성시청 홈페이지>안성소개>안성역사>연혁

<https://www.anseong.go.kr/portal/contents.do?mId=0503020000> (2018. 8. 16. 인출)

2016년 대비 6.17% 감소)³⁵⁾ 이는 전통적 도시 지역인 안성 1, 2, 3동이 모두 그러하고 그 외 11개 면 지역에서는 거의 영유아가 극소수로 줄어드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영유아의 육아지원 수요가 높은 곳은 경기도와 충청도 간 경계지역에 있어 주변의 큰 도시인 평택, 천안과 인접해있는 ‘공도읍’이다. 공도 IC가 근접해 있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쪽으로의 출퇴근도 가능해 이를 활용해 이곳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도 꽤 있는 편이며 집값 또한 평택 등 인근 도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공도읍의) 지역 특성은 안성이라 평택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의 경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서쪽에 위치해있는 거죠. 서울 쪽에 더 가까운 지역이라 서울이나 서울 인근 쪽 서울 아래쪽 동탄이나 수원 이런 쪽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평택으로 출퇴근한다던지 안성보다 도심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꽤 있을 거예요. 원래 안성 사람이 아닌, 외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비교적. 이쪽에서 이주를 해 나간 사람들도 꽤 있고, 새로 아파트를 지으니까, 직장을 여기에 안 둔 사람이 있을 텐데, 공도 쪽은 대부분은 농업이나 그런 거보다는 일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2018. 8. 안성시 공무원)

안성지역 전체적으로 신규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으나 대부분 안성지역 내 수평 이동이 많다고 하였다. 보수적이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지역민의 특성으로 유입인구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유입은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 이동인거예요. 아파트가 입주할 막 하고 있거든요. 입주율도 낮고 내부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인구가 유입되는 건 아니고. (2018. 8. 안성시 공무원)

아파트는 시골에도 많이 생기잖아요...(중략)... 기존 시설들은 다 죽는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죠. 여기는 인구가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수평이동이에요. 새 아파트가 생기면 현 아파트 살던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 가요. ○○아파트 같은 신도시는 아니지만 택지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아파트가 몽땅 이사 오는 거예요. 수평이동인거예요. 사람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수평이동이다 보니 어린이집도 굉장히 힘이 드는거예요. (2018. 8. 안성시 어린이집 원장)

(외지의 것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되게 심해요. 배척심이 있어요. 같은 안성이라도 그래요. 너 어디 출신이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같은 안성인데도. (2018. 8. 안성시 학부모A)

나. 보육·교육기관 운영, 관리, 이용의 특성

1) 어린이집/유치원 수 및 총족률

안성시 어린이집 현황은 2018년 기준 197개 기관(국공립 12개), 보육아동수 6,384명이며, 정원총족률은 73%로 전국 어린이집 평균 정원총족률 82.6% 보다 낮은 수준이다(안성시청 내부자

35) 안성시청 내부자료(2018. 8). 안성시청 공무원 면담에서 확보한 자료임.

료, 2018. 8). 실제 면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원아수가 급감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인데도) 정원 안 차요. 애들이 일단 없어요. 정말 저희도 제가 원장 돼서 얼마 안됐을 때는 엄마들이 밤을 샜거든요 들어가려고. 보육시스템 되고 나서는 그래도 어느정도 (정원이 다 찼는데). 근데 올해 처음 느꼈어요. 올해에 애들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없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깐요. 아 이거 심각하다. 애들 정원만 가지고 할 게 아니다. 내실 있게 얼마만큼 짜여진 인원에서 해야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인원을 줄였어요. (2018. 8. 안성시 어린이집 원장)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으로 국공립 이용은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0% 정도로 경기도 평균 수준이며, 최근(2017년 말) 국공립어린이집 3개 증가하였다(안성시청 내부자료, 2018. 8). 이는 신축아파트 내 기부채납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에 의한 부분이었는데, 기존 어린이집 정원이 차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설치된 어린이집과의 경쟁까지 더해져서 전체적으로 정원미충족 상황이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보육아동들이 일부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므로, 국공립어린이집도 밀집될 수 밖에 없는데, 대부분 시내(안성 1~3동)와 공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아파트가 생기니까 그러다보니 여기도 또 생기고 지금 생기는 데에는 이제는 메리트를 주기 위해서 아예 국공립을 만들어요. 자체에서 기부채납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공립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2018. 8. 안성시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의 경우도 어린이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 11월 기준으로 안성지역 내 유치원은 총 51개 설립되어 있는데, 이 중 4곳의 유치원이 현재 휴원 상태였다(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2018. 11. 27 인출). 면지역은 지역마다 초등학교 있어서 병설유치원이 같이 설립되기는 하지만, 면지역 내 유아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휴원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까지 한 반면, 공도읍과 같이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많이 생겨서 이곳 역시 정원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현장에서는 도농복합지역의 유치원, 어린이집에 있어 무조건적인 양적 확충 보다는 장기적으로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안성지역에 유치원 3개 없어졌나? 양성, 대덕도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없어지잖아요. 선생님들도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근데 지역적으로 시골에 애들이 없잖아요. (2018. 9. 안성시 유치원 원감)

젊은 사람들이 시내로 안 들어가고.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 유치원, 어린이집은 기본이잖아요. 주변에 있던 기존에 있던 유치원, 어린이집이 죽어야 돼요. 시내 쪽 병설유치원들이 지금 심각해요. 아이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못 가르쳐서가 아니라 아이가 없어서...(중략)...이 쪽(공도읍)은 학부모들의 젊은 사람들이 평택하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교통 때문에...(중략)... 새 아파트 서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도심이 되어서 좋은 점도 있으나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이곳 사람들이) 정착을 오래 하는 것 같지

는 않아요. 특히 이런 건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하는, 도농의 교육정책이잖아요. (인구)유입이 잦은 곳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단 (신규기관 설치를) 해놓고 변화가 너무 많이 버리면(안 되니까). (2018. 9. 안성시 유치원 원감)

2)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원장 대상 심층면담에 의하면 어린이집 연령별 반 운영에 있어 4, 5세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희는 (인원을 다) 안채우고 가는 거예요. (중략) 만 3세 애들을 받았어요. (중략) 25명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한 반은 12명, 한 반은 13명. 애네가 6세 (올라)가잖아요. 6세는 (교사 한명당 유아) 20명이잖아요. 5명이 나가주시면 너무 고맙겠는데 안 나가시잖아요. 7세까지 12명, 13명으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날까요, 안 날까요? 백프로 마이너스죠. 교사 둘이니까. (2018. 8. 안성시 어린이집 원장)

또한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반은 거점 어린이집 지정으로의 운영을 요구하였다. 각 원마다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은데, 모든 어린이집 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라는 의견이었으며, 시간연장 이용 영유아가 모두 귀가한 이후에도 9시까지 무조건 교사가 남아 있을 것을 보육사업 규정으로 두어서 농촌지역 내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의 범죄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문제점을 꼽았다.

거점을 만들어서 좀 거기서 (시간연장반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애들이 귀가할 때는 거기다 갖다 놓으면 큰 애들은 괜찮아요. 영아나 너무 어린 아이들은 안 되겠지만, 대개 4~7살 아이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중략)... 한 두 세명 이용하는 것 같아요. ...(중략)...애들이 8시에 가요. 문을 닫아요. 문을 닫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9시 반까지 열어두라고 해요. 아무도 없는데. 그럼 선생님 혼자 여기 시골은 굉장히 위험해요. ...(중략)... 여기에 시간 연장 선생님 혼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설마 정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을 해쳤다 해도 신고 못해요 아침에나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2018. 8. 안성시 어린이집 원장)

도농복합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무엇보다 질 높은 교사의 채용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공도읍의 경우, 교통이 편리해서 교사들 출퇴근 시 이동이 편리하기도 하고, 농어촌으로 분류되어 교사들에게 지자체에서 농어촌 수당이 처우개선비로 추가 지급되는 이점이 있어 교사수급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

같은 동에서 여기는 농지로 되어있고 여기는 자연녹지가 되어 있고. 대지로 되어있으면 못 받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곤란한 점이 많고요. 1, 2분 사이의 거리인데도. 선생님들이 이왕이면 11만원 더 받는 곳으로 가죠. 1분만 걸어가도. 차편이 더 좋은 공도 같은 데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버스를 이용하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는 버스 타고 쪽 걸어들어 와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2018. 8. 안성시 어린이집 원장)

도농복합지역에서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인식은 예전 보다 인식이 높아졌으며, 지역 내 공립 유아교육기관으로서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담당하기 어려운 특수학급 운영 등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더 나아가 단순히 특수학급 설치에 그치는 양적 확대 보다는 질적 수준에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공립유치원 내) 전문성 있는 특수 학급 설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중략)...모든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만들게만 할 게 아니라...(중략)...특수를 학급만 배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2018. 9. 안성시 유치원 원감)

3)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관련 지자체 지원

안성시는 동과 읍/면 간 행정적 차이로 어린이집 대상 농어촌 지원 정책에서도 차이가 존재하였다. 당초 안성 1~3동은 농어촌 지역 선정에서 제외되어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바로 인근 면지역 소재 기관들은 농어촌 혜택(예: 농어촌 수당-교사처우개선비, 탄력편성 가능)을 받았었다. 특히, 안성 내에서 최근 가장 발달이 많이 된 공도읍은 실질적으로 도시기능을 하면서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되어 농어촌 혜택을 받고 있어, 혜택에서 제외된 지역 내 원장들의 불만이 많은 실정이었다. 안성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현재는 안성시 내 농어촌 지역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 중심으로 교사 대상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일부 지급하고 있었다.

지자체 특색 사업으로 진행되는 별도의 보육사업은 없으나, 도비/국비가 지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기관 대상의 간식비, 냉난방비 지원, 평가인증 독려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지원, 공공형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있었다.

다. 육아지원 인프라 관련 특성

안성시 거주 학부모 대상의 심층면담에 의하면, 학부모들은 안성시내에 문화센터, 극장, 수영장 등의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서울, 평택 등 문화시설이 잘되어 있는 인근지역으로 휴일마다 이동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에 안성시에서 자연친화적 체험,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거주민에게 우선혜택을 부여하기를 희망하였다.

문화(시설)을 만들어놔어도 안성 시민을 위해서 할인을 해준다던지, 혜택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타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랑 별 차이가 없으니까 타지역에서 몇천원 더 내고 좋은 교육 시키는 게 낫지. 안성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여기 살아도 좋겠다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2018. 8. 안성시 어린이집 학부모 C)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 체육, 육아 시설 확실히 지금 부족하니까 늘릴 필요가 있어요. 많이 부족하니까. 지금 문화센터는 비싼데 10만원, 보건소에서 하면 만원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혜택이 크면 키우기에 시골이지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2018. 8. 안성시 어린이집 학부모 A)

덧붙여 면담대상자들은 안성지역 내 유아 전문병원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평상시 소아과를 통한 일상 진료는 가능하나, 야간응급상황 시 의료원에 소아전문의가 없어서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기존 지역 내 상급병원에 대한 신뢰도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응급상황 때는 야간에는 불안하긴 했어요. 애가 팔이 부러졌는데 평택까지 가려면 아이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이를 응급처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의료원, ○○병원이 있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여기 가니까 이런 게 있어서 큰 병원으로 갔다 더 문제가 생길 뻔 했다’ ... 신뢰할 수가 없어서 애기를 데리고 가기에는 불안하긴 했어요. 다행히 이 안에서 잘 해결이 되기는 했는데 불안하긴 했어요. 그래서 소아전문의가 더 있다던가 (하면 좋겠어요). (2018. 8. 안성시 어린이집 학부모 D)

타지역으로의 이동이 손쉬운 이점을 가진 공도읍 거주 학부모들은 인근도시 평택의 의료시설, 문화시설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여기는 굳이 밖에 평택 가기도 편하고 안성 들어가기도 편하고 고속도로 타서 나가기도 편하고. 이 지역이 이동이 편하고. 안성이지만 거의 평택 생활권. 공도는 거의 그런 거 같아요. (2018. 9 안성시 유치원 학부모 C)

라. 양육 특성 및 지자체 지원

단시간 파트타임 노동을 하는 맞벌이가 다수이기는 하나, 면담대상 어린이집의 맞벌이 비율은 60% 정도였다. 특별히 안성시의 경우는, 환아 긴급보육을 위한 의료시설 보육 장치를 만들었으나 조부모 양육이 많아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한 사례가 있었다.

환아 보육 센터도 저희가(안성시에서) 시작했었어요. 아픈 아이들은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픈 아이들을 따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두를 걸렸든가 전염성 있는 아이들 못 보내는 애들만 따로 병원의 한쪽을 완전히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다른 타 시군도 와갖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 시는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계세요. 조금만 가면. 대도시는 맞벌이가 많으니까 다 맡기지만, 한 어린이집 당 그렇게 부모가 맞벌이 하지만 조부모가 계신 곳이 거의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아이를 그쪽으로 안 보내고 할머니한테 보내고 할아버지한테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환아 센터가 돈은 많이 들었지만 차차 문을 닫게 된 거죠. (2018. 8. 안성시 어린이집 원장)

초등학교 내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수업이 있기는 하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안성지역 내 자녀 교육 인프라는 충분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향후 큰 도시로 이주계

획자가 많다고 하였다.

가정 대상의 출산지원정책 관련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을 지급한다. 2018년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셋째아 이상→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신생아건강보험 항목을 통합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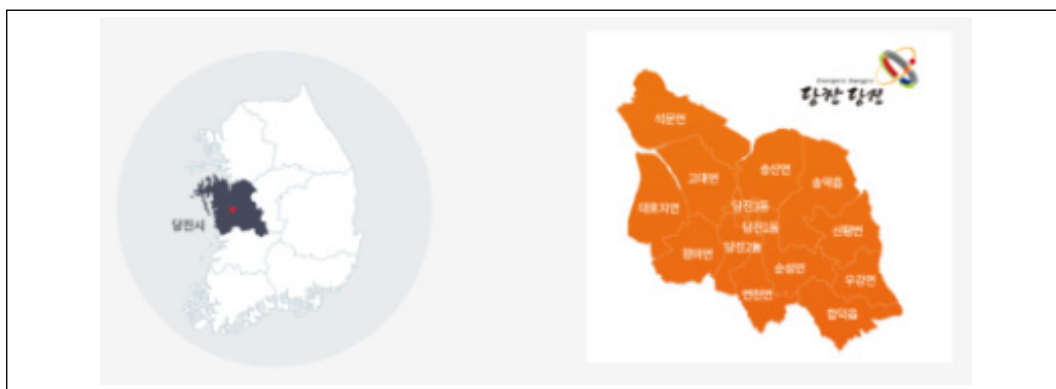
3 중간지역(충청도): 당진

가. 지역 특성

1) 지리적 특성

당진시는 충청남도의 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북으로는 서해와 아산만을 경계로 평택시, 화성시에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아산시에 접해있고, 남쪽으로 서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고, 당진시의 2/3가 바다와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³⁶⁾.

[그림 IV-2] 당진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자료: 당진시청 홈페이지 >당진소개 https://www.dangjin.go.kr/kor/sub04_01_02.do (2018.11.10. 인출)

36) 당진시청 홈페이지>당진소개 https://www.dangjin.go.kr/kor/sub04_01_02.do (2018.11.10. 인출)

〈그림 IV-2〉에서처럼 당진 1,2,3동만이 동으로 분류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읍·면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시청을 중심으로 한 도심 일부 지역을 벗어나면 다 시골마을이며, 동 내에서도 시골지역이 딱 잘라 도시, 농촌을 나누기는 어렵다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다.

1,2,3동 중에서도 도시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2,30분만 나가면 시골이에요. 당진 1동도 시골도 이 만큼 포함하고 있고 도시도 포함하고 있어서 딱 잘라서 여기는 도시, 여기는 농어촌에 해당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저희는 어촌 지역도 있어요. 성문, 송산 일부도 그렇고 어촌 지역도 있으나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2018. 9. 당진시 공무원 A)

2) 인구변화

아파트가 계속 생기며 당진 인구는 줄지 않고 있고, 2017년 출생통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65명으로 전국 기초시 중 1위, 시·군·구를 모두 포함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7위를 나타냈다(통계청 보도자료, 2018. 8. 22). 하지만, 아동 인구수로 보았을 때, 읍면 차이가 크다고 하였다. 또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보다는, 당진 시 내에서 새 아파트의 건축에 따라 지역 내 이동이 잦다고 하였다. 철강 등의 남성의 일자리가 많아 결혼과 함께 배우자의 직장을 따라 당진으로 이사를 오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학부모 면담 중에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이 이 아파트로 이사 오고 하는 거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오밀조밀. (2018. 9. 당진시 공무원 A)

3) 산업 특성

당진은 철강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철강 도시'로 유명하며, 현대제철, 동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 산업이 우세한 편이다. 남성 위주의 산업이 굉장히 많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울산 등 철강산업 쪽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직장을 따라 이주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공무원 면담 중). 또한 '당진 해나루쌀' 등 벼농사도 주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 보육·교육기관 운영, 관리, 이용의 특성

1) 어린이집 수 및 총족률

공무원 면담에 의하면 작년 연말까지는 161개 정도이던 어린이집 수가, 2018년 2월 28일자로 학기가 종료되면서 10개 정도가 폐지를 하였고, 아파트 신축 상황에 따라 관리동의 어린이집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말이 되면 다시 주는 형태여서, 늘고 있는 추세는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면지역은 충족률이 낮고, 당진 내 지역들이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어린이집은 충족률이 90%가 넘고, 일부 어린이집은 충족률이 매우 낮은 현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당진 1,2,3동 여기에서 송산으로 보내는 엄마들도 있고요. 심지어 송학으로 보내는 엄마들도 있어요. 수성으로 보내는 엄마들도 있어요. 여기는 충족률이 90퍼센트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바글바글하고 원장님들 말씀으로는 보육철학이라고 말씀하시죠. 엄마와 원장님의 보육철학이 맞아야 보낸다. 순성, 송학 일부, 송산 일부 이런 데가 아이들이 잘 없으니까 아이들을 한두 명을 싣고 쏘는 거죠. 20분 내면 다 도착을 하니까 평가인증할 때도 20분 안에 아이들 하라는 거 다 충족시킬 수 있다. (2018. 9. 당진시 공무원 A)

2) 어린이집 관련 운영

집에서 대부분의 어린이집까지 거리가 있어, 셔틀 운행에 아이들 이동을 맡기고 있는 상황으로, 원하는 시간에 데리러 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맞춤형 의미 없어요. 3시나 3시반이나 의미 없어요. 그러면 나는 종일반 받고 싶죠. 맞춤형 받고 싶지 않아요. 시골지역이니까 맞춤형은 서울 위주로 만들어진 거죠. 서울은 엄마가 데리러 갈 수 있잖아요. 여기는 그게 불가해요. 근데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어린이집 차가 없으면 데리러 갈 수가 없어요. 엄마가 차가 없으면, 근데 차량 출발할 때는 긴급바우처도 쓰지 말라면서요. 차량 때문에 바우처 쓰지 말라. 복지부 얘기하잖아요. 그럼 애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골을 완전히 배제한 거예요.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A)

또한 학부모 입장에서는 맞벌이 부부임에도 차량이 이른 시간밖에 운영하지 않아, 일하는 엄마의 경우는 오래 걸려도 데리러 직접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네. 근데 아쉬운 점이 그거(차량이용)예요. 저는 맞벌이인데 지금 휴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원이 맞벌이가 반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맞벌이를 하면 3시 하원이 가능할까라는 근무가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면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중략) 아파트가 확 늘고 있는데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30분 이렇게 버스를 태워도 동으로 있는 그쪽 어린이집으로 보내요.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 버스가 여기까지 들어와요. 애들이 그걸 타고 등하원을 하는 거예요.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A)

이 동네가 어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아파트도 새로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사도 많이 오고 특히 어린 애들 있는 집이 엄청 많아요. 근데 너무 어린 애들을 멀리 보내기에는 엄마들이 걱정되고, 근데 또 안 보내려고 하자니 애기를 데리고 있는 게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여기는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못 갈 수도 있어요.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C)

이렇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충족률이 높지 않은 어린이집이 많다고 하였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유치원 추첨 경쟁, 최근 인구증가로 영유아 수가 많고, 학교 등의 시설이 따라주질 않아, 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3) 도농 특성의 어린이집 운영 지원

공무원 면담에 따르면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대한 농어촌 수당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환경은 시골이나 행정구역상 등에 해당하여, 농어촌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또한 당진 특성상 농촌, 도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빈부차이가 있고, 요구가 달라 같은 기준을 정하여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도심지에서는 어린이집 대기자가 있고, 면지역은 충족률이 낮은 등의 현상도 그 일부라 할 수 있다. 또한 당진 지역에서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과의 보육료 차이를 지원해주는 민간차액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고,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예산이 연간 10억원에 달한다고 하였다. 어린이집 수 부족, 국공립어린이집 수 부족으로 인한 불만 등을 해결하려는 자체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다.

다. 육아지원 인프라 관련 특성

당진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느끼는 육아지원 인프라 정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문화시설, 체험시설, 병원시설 등의 부족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여기는 십년이 되도 뭔가가 이뤄지지가 않아요. 당진 자체가 도시 같은 경우 애들을 데리고 어디로든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갈 데가 없어요.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C)

1) 문화시설

자녀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문화활동 자체가 많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준 차이가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연 프로그램, 키즈카페, 큰 백화점 등 문화시설이 부족하고, 큰 도시로 아이들을 데리고 문화체험을 하러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 많은 경험을 시켜주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하였다.

없어요. 몇 프로 할인도 없고. 시에서 하는 문예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일반 가정이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공연 수준 차이도 너무 많이 나요. 그 돈을 어차피 쓸 거면 다른 도시 가서 제대로 된 공연을 보고 오는 게 낫더라고요. 엄마들이 아쉬우니까 가는 거더라고요. 결국.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A)

애들이 누릴 수 있는 게 한 군데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체험을 한다든가 뭘 볼 수가 있다든가 연극도 가끔 하고. 도시처럼 다양하지도 않고 뭘 할 수가 없어요. 데리고 나가고는 싶은데 사실상 애들 데리고 제가 운전해서 멀리 나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고, 애들 데리고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들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중략)...백화점을 갔더니 (아이가 흥분해서 부끄러웠다) ...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생겼으면 하는데도.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C)

하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시골이라서 가질 수 있는 장점들도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렇다고 또 그럴(시골의 자연을 느낄) 공간은 없어요. 정서적으로 누릴 만한 곳도 없어요. 그런 거는 또 부족해요.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A)

시골이라고 그래서 애들을 숲 같은 데 풀어놓을 거라 생각하시죠? 그런 숲 자체가 없어요. 충청도 보시면 산이 다 낮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얼마 없고요. 산들이 다 고만고만해서 공기가 좀 나쁜 것도 나무가 역할을 못해주는 부분도 있고.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C)

가을이나 봄 되면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나갈 수도 없어요. 어디 안에서 활동하는 거 외에는 애들을 데리고 나갈 데가 없어요...(중략)...미세먼지가 원래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주의보도 없고 그런 게 좀 불안하다고 해야 할까?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B)

2) 체험시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이들 체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한군데 시설이 생기면 방문객이 늘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전반적 체험시설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 카페에 후기가 올라와서, 키즈카페도 어디가 한 군데 좋다 하면 거기에 다 몰리다 보니까. 애들은 어마어마하니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모든 면에서.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A)

울 여름에 놀이터가 있는 수목원에 바닥을 코팅해서 물놀이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번도 못 갔어요. 엄마들이 줄을 섰어요. 그늘막을 해야 되는데. 장소는 한정되어있고. 경쟁이 치열해서 못 갔어요.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B)

3) 병원

학부모의 면담 중 부족한 인프라 중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병원시설의 부족임을 알 수 있었다. 영유아 인구는 많은데, 소아과가 부족하고 실력이 좋은 의사를 찾는 경향이 있어서,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주는 인기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줄을 서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소아과 문제도 있거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똑딱 어플로 예약을 해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금방 마감되고 새벽부터 줄 서서 진료 받기도 하고.... 의사분들 중에서도 잘 보는 분이 있으니까.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A)

둘째가 천식이예요. 근데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새벽 4시반에 줄을 서가지고 진료를 받아야 돼요. 입원시킬 데도 없어요. 겨울 되면 완전 치열해서 새벽 3시, 4시.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C)

또한 병원 이용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1시간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여 타 지역으로 진료받기 위해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병원 때문에 이사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B)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시간을 걸려서 평택이든 어디든 그 시간을 감안하고 움직시더라고요.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A)

라. 양육 특성 및 지자체 지원

1) 부모 및 양육 특성

가) 타지에서의 독박 육아

부모 면담에 참석한 3명의 학부모는 모두 당진이 고향이 아니고, 결혼 후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이사를 온 경우라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친정, 시댁이 먼 경우도 많아 양육에 있어 조부모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어머니들도 살던 곳에서 이사를 온 상황이라, 당진에 와서 새롭게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아빠의 직업상 교대근무자가 많아 아빠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육아에 도움을 받을 사람도, 아이를 데리고 갈 곳도, 어머니가 의지할 곳도 없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제가 일을 하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애를 봐줄 사람은 없죠. 다시 일을 시작하려니까 내 조건에 맞는 회사를 찾을 수가 없고. 조율되는 회사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겁도 나고요. 복합적으로 모든 게 잘 안 돼요.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C)

당진은 엄마들이 방치가 많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고민이 돼요. 우울한 엄마들. 저희가 타지에서 많이 와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많이 우울해하고 향수병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방치가 되어 있어요. 엄마들이 즐거운 생활을 해야 아이들에게 영향이 가는데, 엄마들이 집에 박혀있고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정책들이나 시에서 프로그램 나올 때는 놓고 있는 엄마들 배부른 소리한다고 할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당진은 특히 많아요.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B)

(아빠들이) 교대근무자들이 많아요. 아빠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우울증이 오고 그러는 게 전부 독박육아인 거예요.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C)

엄마 입장에서 신랑이 고생하고 온 거 알잖아요. 피곤해하는 사람한테 안 되는 마음을 아니까 엄마가 독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예요. 당신은 왜 안해? 이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이 철인이 되어야 되는 거야.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A)

나) 치열한 경쟁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이주해온 경우가 많다보니, 영유아 시기에는 당진에서 보내고 그 이후에는 이사를 할 계획은 세우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근처에 다 있기는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해지던가 아니면 다른 도시로 나가든가 그 둘 중에 하나 인 거 같아요.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C)

초등은 닥쳤으니까 증축을 해주는데, 중, 고등학교는 움직임이 없거든요. 아무리 많이 빠져나간다 한들 대부분은 갈 거 아니에요. 닥칠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A)

어린이집도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하고. (웃음)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A)

또한 어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경쟁이 치열하고 높아, 어머니들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부족하다고 하였다.

엄마들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도 경쟁이에요. 문화센터에도 엄마들 요가, 수영 이런 거 있잖아요. 선착 순 아니면 추천... 뭐든지 다 경쟁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없다보니까. 하다못해 문화센터도 가서 보니까 10시 접수인데 9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죠.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A)

다) 돌봄 공백으로 인한 가정양립의 어려움

시골의 경우, 외벌이 가정의 경우는 영아 자녀들을 집에 데리고 있거나, 일을 할 경우는 눈치 보지 않고 오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초등 돌봄의 경우 대책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초등학교는 방과후 돌봄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이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학원을 가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여기는 학교가 초등이 갑자기 커졌어요. 지금도 공사를 계속 해요..문제는 돌봄이 일학년이 12반인데 일학년 돌봄이 두 교실밖에 없어요. 2학년은 10개 반인데 한 반밖에 없고. 그래도 1학년 엄마들은, 1학년이 제일 돌봄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도 추첨을 하는 거예요. 1순위는 다문화라던지 취약계층, 남은 자리를 3순위 맞벌이들이 추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추첨에서 안 되면 엄마들은 학원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래 봐줄 수 있는 데. 교육의 질을 따지는 게 아니고 내 아이를 그 시간까지 봐줄 수 있는 학원.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A)

맞벌이인데 어린이집 상황이 안 받쳐주니까 중간에 그만 둔다던지 휴직을 한다던지.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A)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갔다가 초등학교 가면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갔다가. 이렇게 자꾸 끊기니까. 저
도 계속 알아보고는 있는데, 그 업체에 이력서를 내면 뭐가 다 걸리는 거예요. 애들을 때문에 많이 잘
려요. 애가 너무 어려도 안 되고 애를 키워놓으면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엄마들
이 나이 먹으면 공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2018. 9. 당진시 어린이집 학부모 C)

3) 지자체 특색 지원 사업

공무원과의 면담 중 당진시가 가지고 있는 지자체 만의 양육 지원체계를 물어보았을 때, 출산장
려금,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등을 언급하였다. 출산장려책으로 저출산 대책팀도 발족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또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돌봄센터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돌봄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돌봄센터를 민간을 선정을 해서 하더라도 저희가 해서 아이들을 좀 맞벌이 아이
들을 저녁에 두서너 시간이라도 봐줄 수 있는 걸 해보자 라는 걸 하고 있고요...위탁자 선정하고, 장소
물색 하고 있어요. 2019년부터 예정하고 있어요... (2018. 9. 당진시 공무원 A)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저녁 시간에 학원 가고 집에 가면 아이들만 있어서 방치되
다시피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맡아주지만, 일반 아이들은 방치
되기 때문에... (2018. 9. 당진시 공무원 A)

4 완전한 도시지역(강원도): 원주

가. 지역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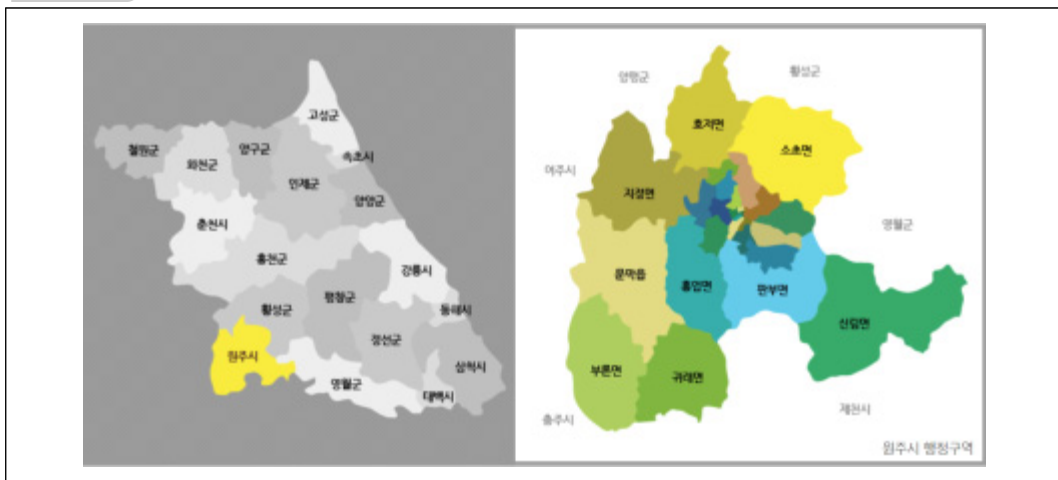
1) 인구 특성³⁷⁾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2018년 9월 기준 342,877명이 거주 중에 있다.
이중 0-5세 인구는 전체인구의 4.6%로 15,884명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구역은 단구동으로
46,238명이 거주하고 있고 다음으로 반곡관설동이 41,327명, 무실동 35,464명이다. 가장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혁신도시가 위치한 반곡관설동과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정면이다.

원주시는 강원도 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10년 전인 2008
년도의 인구 306,350명에서 현재 10%가 넘는 인구가 증가하였다.

37) 원주의 인구특성 내용은 원주시 인구 수 및 인구 변화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https://www.mois.go.kr/frt/sub/a05/totStat/screen.do>, 2018. 11. 19. 인출)

[그림 IV-3] 원주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자료: 원주시청 홈페이지(<http://www.wonju.go.kr/www/contents.do?key=230>) (2018. 11. 19. 인출)

2) 산업특성³⁸⁾

원주시의 주요 산업은 서비스업으로 전체 사업체 종사자 수의 36.3%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율은 14.6%이다. 원주시 주요 산업단지는 문막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 지방산업단지 5개소, 농공단지 3개소이다³⁹⁾. 주로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상주하고 있다.

3) 주요 보육정책⁴⁰⁾

원주시의 어린이집 수는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339개(보건복지부, 2018)로 그 중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16개소로 국공립 비율은 4.7% 수준으로 강원도 내 유사한 규모의 도시인 강릉과 춘천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전체 강원도 내 국공립 비율 7.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원주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있으며 원주시 장기발전연동계획(2017-2026)에 포함되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원주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비율은 약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도 증가시킬 계획이다.

38) 원주시통계 http://stat.wonju.go.kr/page/view.php/1sub2_4a. (2018. 11. 19. 인출)

39)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산업단지통계 <http://www.kicox.or.kr/home/gvrn/irsttInfo/irsttStats.jsp>. (2018. 11. 19. 인출)

40) 원주시 주요 보육정책은 '원주비전 2026 장기발전연동계획 (2017-2016)' 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http://www.wonju.go.kr/www/selectBbsNttView.do?key=2639&bbsNo=184&nttNo=133888> (2018. 11. 19. 인출)

보육특색사업으로는 어린이 체험환경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총 71개소, 3,247명의 아동들이 수혜를 받았다. 원주시는 어린이 체험환경 교실은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요보호아동 보호 확대조치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아동양육시설 4개소 4,351백만원(인건비 및 운영비), 보육사(생활지도원) 등 신규종사자, 개인양육시설 1개소 5백만원(시설운영비), 공동생활가정 2개소 274백만원(운영비, 인건비 및 사업비), 지역아동센터 31개소 2,817백만원(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원어민 파견 지원, 석식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원주시, 2017: 357).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나. 보육·교육기관 운영, 관리, 이용의 특성

1) 어린이집 수 및 총족률

어린이집 수는 전술하였듯이 300개가 넘는 수준으로 강원도 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많지 않고 민간어린이집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공무원 면담에 따르면 원주시의 출산율은 높지 않고 어린이집 수가 많아 정원충족률은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이다. 실제 2017보육통계에 따르면 10% 정도 낮은 70% 미만이었다.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읍/면지역의 어린이집의 원장의 경우에는 낮은 정원충족률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주 등록된 사람이 34만 한 5천 명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젊은 분들이 많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원주 같은 경우는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그 정착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애들을 낳지를 않아.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이고 인구면에서도 크고. 대신에 큰 대신에 또 어린이집이 많아요. 다른 데보다 한 100개 정도 더 많아요. (2018. 10. 원주시 공무원)

거기는 운영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도농이 복합지역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죠. 여기 같은, 시내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많이 저거 되는데 거기는 일부러 거기 살거나 특별히 애들을 보내야 하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지. (2018. 10. 원주시 공무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추가적으로 원하지만 일부 새롭게 인구가 증가한 혁신도시 쪽에서는 당초 기대보다 이주 후 정주한 비율이 높지 않아 보육아동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강원도 자체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원주시 담당 공무원은 예산 충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입인구가 정주인구가 유입돼야 하는데 거주 유입인구가 되는 바람에 뭐 목요일까지만 거주하고 금요일부터는 서울 사람이고 월요일부터는 원주 사람이니까 그런 형태로 가니까...(2018. 10. 원주시 공무원)

그랬으면 좋는데 지금 원주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국공립으로 가려면 전체적으로 어떤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죠. 사실상 서울은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쉽사리 국공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2018. 10. 원주시 공무원)

2) 어린이집 운영

근처 공단이 많이 위치해 있는 읍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면담 결과, 이용하는 부모님들은 맞벌이 비율이 높고,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연장 및 주말보육을 제공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거의 취업이시고, 취약 보육... 토요일에도 받거든요. 공립이어도 아이들이 100상이어야 운영 하는데 저희는 1명이어도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세요. 법정 보육시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철저히 지키고, 그런 것들이 민간하고 차이가 있어서 저희 어린이집 쪽으로 오시는 부모님도 가끔 계세요. (시간연장보육이) 된다고 하더라도 눈치가 보이고, 저희 어린이집에는 (취업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가끔. (2018. 10. 원주시 어린이집 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주 등록된 사람이 34만 한 5천 명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젊은 분들이 많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원주 같은 경우는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그 정착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애들을 낳지를 않아.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이고 인구면에서도 크고. 대신에 큰 대신에 또 어린이집이 많아요. 다른 데보다 한 100개 정도 더 많아요. (2018. 10. 원주시 공무원)

2) 어린이집 관련 운영

읍지역의 경우에는 양질의 선생님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편이고 실제 대부분의 선생님이 원주 시내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편도 기준 한 시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원주분이고 문막분은 지금 한 분. 아무래도 지역사회 선생님들이 근무하시면 부모님들하고의 만남 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하잖아요. 행하시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문막권의 선생님들일 채용 안 했어요. 교사 수급이 워낙 힘들다보니까 재작년에는 몇 분 채용했는데 아무래도 불편해 하시고, 또 세 분, 그만 두신 분들 중에 문막권에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세분이셨는데 2분이 원주로 이사하셨고 지금은 한분. (2018. 10. 원주시 어린이집 원장)

원주시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문제로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원충족률 70%를 기준으로

로 산정하고 있다. 전체 원주 어린이집 절반 정도인 대략 150개소에 보조교사 1명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보조교사 선정 요건에 충족하시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보조교사 한 분을 지원해 주고 있죠. 시간이. 요즘은 시간에 때문에 그러잖아요(153군데). (2018. 10. 원주시 어린이집 원장)

읍지역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원주 시내와 거리가 멀어 교사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시내 중심가 보다는 민원 강도는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어려운 점은 소통이 안 되는 점이 있어요. 뚝 떨어져 있으니까, 공립중에서도. 원장님들과의 소통 (이 어렵고) 모든 업무가 원주에 집중되다 보니까 회의를 해도 원주에 나가야 하고. 부모님들과 같은 형편이죠. 월례 회의나 회의가 있으면 제가 원주로 나가야 하니까... 장점도 있어요. 아무리 유입된 인구가 많고 해도 시골 같은 정감이 있거든요. 부모님들도... 요즘 부모님들의 민원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피부로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10년 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신뢰를 하세요. (2018. 10. 원주시 어린이집 원장)

다. 육아지원 인프라 관련 특성

1) 문화 교육시설 및 체험 부족

읍지역 학부모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결과 상대적으로 시내 중심가보다는 자녀와 놀이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체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원주 시내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문화센터가 있었는데 엄마들이 주로 원주로 가니까 한 석달 하고 폐업하고... (2018. 10. 원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B)

요즘 들어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피아노 학원이 없었는데 이번에 생기고 미술 학원이 전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했던 건데, 집에서 하셨던 거를 지금은 아예 밖으로 나와서 학원으로 하고. 미술학원 큰 데도 있고. 아니면 운동하는 거는 차량 지원해서 원주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운동은 요즘 들어서 많이... (2018. 10. 원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C)

2) 육아지원 정책 사각지대

읍지역은 상대적으로 육아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로 나타났다.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산후도우미 지원도 시내보다는 조건이 열악하였다.

‘다행이다.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지원되는 게 일반보다는 다문화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그러면 정 안되면 “공동육아를 하는 모임을 가져서 엄마들끼리 묶어주는 걸 지원해주나요?” 라고 물었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그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이라도 가능한가요?” “상담자도 예산이 안 돼 있어서 안 된다”고 (웃음)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게 안 되니까 저는 좌절을 많이 했어요. (2018. 10. 원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C)

도우미를 물어봤는데 (웃음) 그것도 원주에 계시던 분이 오시다 보니까 저한테 한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 시간 중에서 출퇴근 한 시간씩 빼고 나머지 시간 받는 거고 대신에 비용은 제가 전체를 부담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제가 너무 손해를 보는 거예요. (2018. 10. 원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A)

예산 책정이 그렇게 많이 안 돼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원주 그쪽까지 나가려면, 제가 초보 운전여서 그런데 버스로 가면 1시간 넘어 가요. (2018. 10. 원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B)

3) 의료기관 부족

읍지역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센터)이 근처에 없는 것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읍지역 학부모들은 태아 검사, 진료, 소아과 내원 등의 어려움을 자주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대부분 시내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진료시간도 기본 1시간이고 받고 (집으로) 들어갈 때는 애들 하교 시간이라... (2018. 10. 원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C)

맞아, 병원이 제일 문제예요. (2018. 10. 원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B)

저는 잘 안 다녀봐서 근처에는. 거기 운동장 있거든요. 장애물 같은 게 없으니까 뛰어놀 때 제일 좋은 거 같고. 단점은 병원이나 큰 마트... (2018. 10. 원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A)

5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전라남도): 나주

가. 지역 특성

나주시는 1995년 1월 1일 나주시와 나주군이 통합되면서 만들어진 도농복합도시이다.

1) 인구 구조⁴¹⁾

나주시 인구는 2018년(9월 30일 기준) 112,072명으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다. 나주시는 2000

41) 본 절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http://www.mois.go.kr/frt/sub/a05/totStat/screen.do> (2018. 9. 30 인출)

년 대비 2016년에 총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 중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이 모두 감소하여 총인구도 감소하는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로 분석된 바 있으나(박진경·김상민, 2017), 광주전 남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하며 2013년에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빛가람동의 경우 출생률이 높아 나주시 전체 평균연령인 44.9세보다 13세 적은 31.9세로 나타났다. 나주시청과 한국전력, 대한지적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위치해있는 기존의 나주시 도심에 해당되는 송월동 역시 평균연령이 39.6세로 나주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평면, 다도면, 동강면, 반남면, 다시면, 세지면, 노안면에 거주하는 인구의 평균연령은 55세를 넘어서 나주시 평균보다 10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주시 중심부에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 해당된다.

남평읍의 경우, 나주시 중심부에서는 떨어져있으나, 빛가람동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구 및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의 유일한 읍으로, 평균연령은 나주시 전체 평균연령보다 0.6세 많은 45.5세로 나타났으나, 최근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리적으로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인접해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IV-3〉 나주시 인구 및 세대현황(외국인 제외)

단위: 명, %, 세, 세대

	인구수			인구동태		평균연령	세대수
	계	남	여	출생	사망		
나주시 전체	112,072	56,421	55,651	71	68	44.9	53,501
남평읍	10,423	5,229	5,194	6	8	45.5	5,024
세지면	2,857	1,424	1,433	0	1	55.6	1,569
왕곡면	3,171	1,646	1,525	0	9	54.1	1,654
반남면	1,621	802	819	1	1	56.8	915
공산면	2,544	1,263	1,281	0	2	54.6	1,341
동강면	2,724	1,334	1,390	0	6	57.3	1,463
다시면	3,790	1,908	1,882	0	5	56.3	2,071
문평면	2,109	1,044	1,065	0	4	58.5	1,222
노안면	5,001	2,583	2,418	3	3	55.7	2,626
금천면	4,663	2,426	2,237	2	1	52.7	2,377
산포면	3,719	1,955	1,764	2	3	52.8	1,970
다도면	2,049	1,073	976	0	0	57.5	1,068
봉황면	4,589	2,353	2,236	1	3	55.3	2,535

	인구수			인구동태		평균연령	세대수
	계	남	여	출생	사망		
송월동	7,208	3,582	3,626	4	0	39.6	3,217
영강동	3,049	1,531	1,518	2	3	44.9	1,415
금남동	5,518	2,748	2,770	1	2	48.6	2,703
성북동	9,458	4,767	4,691	2	4	40.6	4,051
영산동	3,496	1,781	1,715	1	1	51.9	1,948
이창동	3,700	1,904	1,796	1	6	49.4	2,031
빛가람동	30,383	15,068	15,315	45	6	31.9	12,301
전라남도 전체	1,882,637	942,418	940,219	-	-	-	856,419
목포시	232,842	115,974	116,868	-	-	-	101,293
여수시	284,418	144,245	140,173	-	-	-	120,619
순천시	280,600	139,760	140,840	-	-	-	113,653
광양시	152,077	78,595	73,482	-	-	-	62,646

자료: 나주시 및 전라남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2018. 9. 30. 기준)
<http://www.mois.go.kr/frt/sub/a05/totStat/screen.do> (2018. 9. 30 인출)

2) 산업 구조⁴²⁾

2016년을 기준으로 나주시의 산업구조를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주시의 사업체수는 '도매 및 소매업'이 21.07%로 가장 많았으며, '협회, 수리, 개인', '제조업', '보건 및 사회복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 임업 및 어업'은 47개 사업체로 전체의 0.39%를 차지하고 있었고, '광업'은 11개 사업체로 0.03%로 나타났다.

나주시 산업 구조를 종사자 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조업'이 41.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수는 1,395명으로 0.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업' 종사자수는 114명으로 0.05%로 나타났다.

42) 나주시청 홈페이지>행정자료실>통계현황>통계연보>사업체(통계청 2016년 경제총조사 잠정 자료 기준)의 내용바탕으로 작성하였음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administration/stats/statistics> (2018. 9. 30 인출)

〈표 IV-4〉 나주시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단위: 개, 명, %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구성비		구성비
나주시 전체	7,542	100	43,761	100
A. 농업,임업 및 어업	47	0.39	1,395	0.66
B. 광업	11	0.03	114	0.05
C. 제조업	754	16.70	5,943	41.83
D.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6	0.04	2,344	0.18
E. 하수,폐기물,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52	0.53	251	0.83
F. 건설업	384	3.48	5,791	3.75
G. 도매 및 소매업	2,037	21.07	5,018	10.30
H. 운수업	593	9.30	1,165	4.82
I. 숙박 및 음식점업	1,307	20.24	3,784	8.04
J. 출판,영상,정보 등	76	0.24	755	0.68
K. 금융 및 보험업	83	0.65	956	1.28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273	3.30	686	1.35
M. 전문,과학,기술	171	1.50	1,899	1.37
N. 사업시설,사업지원	110	1.17	739	3.35
O. 행정,국방,사회보장	73	0.42	2,853	2.39
P. 교육서비스	243	4.21	3,274	7.43
Q. 보건 및 사회복지	319	3.71	4,380	5.92
R. 예술,스포츠,여가	181	3.10	824	2.34
S. 협회,수리,개인	812	9.92	1,590	3.42
T. 자가소비생산활동	-	-	-	-
U. 국제 및 외국기관	-	-	-	-

자료: 나주시 홈페이지>행정자료실>통계현황>통계연보>사업체(통계청 2016년 경제총조사 잠정 자료 기준)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administration/stats/statistics> (2018. 9. 30 인출)

나. 보육·교육기관 운영 및 관리, 이용의 특성

1)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측면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를 돌파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 반면, 유소년인구(0~14세)는 감소하여 '노령화 지수'(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가 2017년 기준 107.3에 달한다(통계청, 2018). 전라남도의 경우,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8%인 392,000명에 달하여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호남지방통계청 보도자료, 2018. 11. 27), 나주시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인구유입 및 영유아 증감 폭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지역의 육아지원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실시된 심층면담에서 어린이집 운영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은 지역별로 인구 격차가 크고, 이로 인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공급의 격차가 생기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공무원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인구 변동의 원인은 나주시에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 남평지구와 같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장이나 선호하는 거주지에 따른 이동 급증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혁신도시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동 지역도 전체적으로 줄지만, 새로 아파트가 생긴 곳은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개발 요인이 있는 곳은 늘지만, 그 외 동 지역, 면 지역은 다 줄고 있습니다. 빗가람동의 영유아 증가가 크고, 읍면 지역은 감소가 커서 인구절벽 상황입니다. (2018. 9. 나주시 공무원 A)

주택정책과도 연관이 있어요. 젊은 세대는 아파트를 선호해서요. 안 그럴겠어요, 새아파트에 살고 싶겠죠. (2018. 9. 나주시 공무원 B)

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나 사업체가 들어서는 경우, 신혼부부나 영유아 자녀를 둔 청년 인구가 유입되고 있었고, 정규직 직장이 아니더라도 신도시나 새롭게 형성되는 지구는 농촌 지역과 달리 파트타임 일자리 공급이 상시 많다는 점에서 출산 이후 아동의 성장에 따라 맞벌이가정으로 재취업 욕구를 가진 양육자들의 이주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파트와 같은 신규거주지를 선호하거나 교육이나 삶의 질 측면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보고 농업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도심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이동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이때 특징적인 것은 시기에 따라 거주지와 보육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며, 혁신도시와 같이 단기간에 많은 인구가 이동하여 보육수요에 대한 어린이집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으로 보육수요가 분산되어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1년 동안에도 농번기 유무 등 시기에 따라 수요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달라지거나, 보육에 대한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면 단위 어린이집임에도 이용아동 전체의 95%가 동 단위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 인구의 급증, 급감에 따라 동과 면의 경계를 넘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생기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집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 상의 거주지 인구 이동 외에 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보육 수요를 예측하고 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 정책에

반영할 때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골은) 전업주부, 농사 아니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정규직으로 취직을 해서 일할 그런 일터는 없는 거죠.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원장 B)

특용작물 하시는 분, 농협에 맡겨놓을 수 없는 작물 그런 것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돈을) 벌면 집은 혁신으로 (이사) 가요. 출퇴근용 농민이 많다는 거죠. (중략) 꿈이죠. 말하자면 저기에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고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기다 (이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서 한참 바쁠 때는 또 아기를 보내겠다고 와서..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원장 A)

2) 어린이집·유치원 관리 측면

어린이집 관리 측면에서 면지역 어린이집은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촌 지역의 특성으로 인한 유동성으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교사를 수급하는 등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확보되었더라도 아동 이용인원의 변동이 잦고, 반 구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면지역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근무 중인 교사 역시 어린이집의 정원 기준 유지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기가 들어와서 교사를 써가면서 두면 농번기 4~5개월 정도 수확해버리면 가는 거죠. 또 그러면 퇴소해달라고 하면 퇴소해줘야 하고. 그러니까 5명 있어서 반 하나를 만들었는데 3명이 빠져나가면 2명이 가지고 완전히 뭐.. (중략)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교사를 쓰기도 어중간, 안 쓰기도 어중간한. 그냥 너무 힘들죠. 선생님도 계속 한 다리 걸치고 (이직을) 알아보고 있고 내년에 이 반이 존재할까, 이 애들이 또 언니 따라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11월 달 되면은 한 4~5명 될 때는 괜찮은데, 선생님이 2명 있거든요. (아동이) 20명이니까 딱 (교사) 2명이니까 농촌 작은 어린이집은 문 닫으라는 정책인 것 같아요.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원장 A)

면 단위 어린이집 중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울만한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주변 면지역 단위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인근 어린이집과 협동교육을 계획하는 등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네 집(인근 어린이집)에서 잘 하고 싶은 교육을 하고, 내가(우리 어린이집에서) 잘 하고 싶은 교육을 해서 이동수업을 시켜서 둘이 같이 살아가는 방법은 없겠냐, 원장 월급을 받든 안 받든 냅뒀버리고 교사한테라도 희망을 주고 그렇게 했으면 어찌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00어린이집 원장이 “내년에라도 그렇게 실행하며 살아가게, 일단 수업을 오고 가면서 해보자”고 했어요. (중략) 시도는 못 해봤는데 외국에서 봤거든요, 너무너무 재미나게 하는 것을. 톱질 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아이가 하루종일 톱을 들고 그 나무를 자빠뜨려봐. 원 힘이 자빠 뜨리겠어요? 놀다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손톱으로 긁은 것처럼 나무를 깊어 놓은 상처 있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봤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시

골어린이집을 지었거든요. 그런 꿈도 이룰 수 있는데 애들한테 그렇게 줄 수 있는데 나주가 직장이고 나주가 집인데 엄마가 데리고 와서 초등학교까지 우리 면에서 보내는 그런 엄마도 있었어요. (중략) 올해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는데 교사 가면 포기되는 거지. 지금 가겠다는 걸 붙들고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를 하겠어요?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원장 A)

인구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수요자 감소를 우려하는 고민은 현재 어린이집 수요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동 단위 공급자에게서도 나타났다.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을 우려하고 어린이집의 운영 관리,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 민간 공급자의 위기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국가 정책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 중인 어린이집 공급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도 국공립 (전환) 신청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정을 지금 거의 마무리했는데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예산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고 지출은 그만큼 해야 하고 가계부에 비해서 지출이 많아지니까 민간이 버티기가 힘들어서 저도 국공립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 전환을 할 수 밖에 없게끔. 과연 이게 원장 결정인데, 자기 자산을 다 포기하고 가는 거니까 우리는 관리동 어린이집이니까 관리동에서 뭐 내가 일역을 투자했다 그러면 그거를 다 포기하고 국가에 기증하고 이제 국공립 전환하던가 아니면 장기임대를 하든 십 년 동안 임대료를 안 받고.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원장 B)

아울러, 교사수급 등에 대한 여건들은 읍면동 지역구분을 떠나서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나 민간이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를 정기적으로 선발하여 배치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수급 등에는 어려움이 없었고, 방과후 교사라 하더라도 수당이나 초과근무 등 근무여건이 민간어린이집에 비하여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사립이나 이런 데처럼 시간 외적으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제 선생님들이 저희 전남이 시간당 수당이 16500원이거든요. 호봉제나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원장 D)

면 단위 지역의 경우는 병설유치원 형태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작은 학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유치원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설유치원 유아가 면 단위 지역의 초등학교 입학생이 될 것으로 보고 학교장이 학교에 산을 병설유치원에 투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나, 행정 상의 기관장이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초등학교 교장이기에 학교 공간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을 활용해야 하거나 예산 운영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교육 방향에 맞게 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병설유치원의 많은 교장선생님 중에는 학교예산을 병설에 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설유치원생이 우리 초등학교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나주는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정책이 많은 편이라서 작은 학교 살리기가 유치원에서부터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2018. 9. 나주시 공무원 B)

(병설유치원이라서) 교사 수급은 어렵지 않지만은 시설, 예산.. 공간 쓰기가 어려운거죠. (2018. 9. 나주시 유치원 원장 A)

3)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측면

도농복합도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수요자에 해당되는 부모들은 일반기업 종사자 및 자영업, 농업, 축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맞벌이가정 외에도 부모의 근무지가 멀거나,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경우 아동이 어린이집을 장시간 이용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공급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농사도 (부모님의) 직업이 되고, 축사 같은 경우는 소 밥 주고 이런 시간 때가 있어서 아침 돌봄이랑 하는 아이가 있고...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원장 D)

(농사를 짓는데) 워낙에 바쁘시더라고요. (중략) 여기 현재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조금 더 늦게 있어도, 늦게까지 아이들이 있으면은 이제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2018. 9. 나주시 유치원 원장 A)

수요자들은 혁신도시와 같이 인구가 단기에 밀집하게 된 동 단위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의 수요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인근 먼지역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OO어린이집을 저희가 보내고 있잖아요. OO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나주시에서 관리를 하는 어린이집이잖아요. 여기를 가고 싶어가지고 물리는 추세인 거예요. 국공립이다 보니까.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C)

혁신도시가 포화상태라서 그 근방으로 알아보다가 여기로 오게 된건데요.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D)

아무래도 (거주지인 동 단위 유치원) 단설을 가고 싶었는데 이제 안 돼서 (면 단위 병설유치원이) 국공립이다 보니까 이렇게 시설도 좋고 웬만하면 이제 선생님들도 교육공무원이시고 해서 되게 유능하신 분들이기도 해서 그냥... 신뢰와 기대로..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E)

반면, 나주시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면 단위일수록 병설유치원이라 하더라도 반 개설에 필요한 이용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상 어려움으로 문을 닫게 된 면 단위 어린이집의 기존 이용아동을 병설유치원으로 등록시키기 위하여 주민이 나서거나 시기적으로 반존치를 위하여 아동을 빌려주는 상황까지 나타난 경우도 볼 수 있었다.

동네 이장까지 나서서 설득하기도 해요. 그 아이들 병실에 가게 할 때는. 이 지역을 살려 주라고. 병실이 문을 안 닫게 해주고, 한 명만 더 주면 우리가 문 안 닫는다고. 병실은 3월달에 애기를 빌려줘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병설유치원으로 등록하게끔) 빌려주면은 3월에 딱 수가 몇 차면은 문 열어요. 그리고 열면은 2달 다니고 다시 와요. 그렇게 빌려주기를 하는데 내가 그냥 가져가라고 했어요. 이제 또 왔다갔다 혁신으로 나주로 왔다갔다도 귀찮아 죽겠는데.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원장 A)

반면, 수요자들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는 명확하지만, 병설유치원에 대한 선호는 학부모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보육과 교육 중 어느 것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냐에 따른 교육관의 차이에서 방학시 이용시간의 제약 등도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심을 생각하고 보냈는데 보니 방치더라. 그건 자립이 아니라는 생각, 그것을 보고 아니구나 이게 정말 병설 안 보내길 정말 잘했구나. 그러면은 물론 그 체계이지만 (초등학교가) 방학이면 아이들이 같이 방학을 해요.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C)

다. 육아지원 인프라 관련 특성

1) 시설 이용 및 접근성 측면

어린이집 이용자들이 각자의 거주지역에서 가장 불만을 가지는 것은 육아지원 인프라의 부족에 해당되었으며, 관련 인프라가 존재하더라도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용가능인원, 운영시간에 따른 만족도 차이도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읍, 면 단위 수요자들의 경우, 육아지원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다양성이 부족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읍, 면 단위로 갈수록 아이들이나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편의시설 자체가 적었고, 자원이 제한된 만큼 지역에 특화된 자원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 비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공공도서관 그런데 그 도서관 프로그램도 애들이 이제 이렇게 신날 할만 그런 주제가 몇 개가 되나 그거죠. 주판이 있고.. 예술, 요리 이런 것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우리 지역이라도 이렇지만 그래도 00주민들이 우선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C)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자체가 없잖아요. 공원을 형성하라고 아파트 내에 아파트 주변에 조금 공원 형성된다고 한 게 조깅이예요. 절대 애들이 거기서 자전거 탄다거나 켄보드나 타는 상황들은 없어요. 저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니까 애들이 그런 부분에서 나가 놀아라 뭐 해서 (놀이터를) 내다보거나 같이 가줘야 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이제 워낙 외부인들도 있고 하니까. 정말 주변 거의 주택가 경우에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상황들이 없어요.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D)

상대적으로 육아지원 인프라가 갖춰져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동 단위 지역이라 하더라도 형성된 지 채 10년이 안 된 혁신도시의 경우, 아이 키우기 좋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주한 경우 구성된 육아지원 인프라가 실제 열악한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서관에도 아동열람실이 영유아 특성에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다치기 쉬운 구조이다 보니 소리를 지르거나 계속 이동하려고 하는 영유아를 데리고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대체재로 키즈카페나 동네 카페를 이용하고는 있으나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갈 때가 없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키즈카페를 가요. 키즈카페를 가면 그냥 어영부영 한 3만원 깨져요. (2018. 9. 나주시 유치원 학부모 K)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도 보면서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보호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파스쿠치 커피숍 밖에 (그런 곳)이 없네. (2018. 9. 나주시 유치원 학부모 G)

나도 지금 그 생각 했어. (일동 웃음) (2018. 9. 나주시 유치원 학부모 I)

커피숍 2층이 좌식으로 넓게 책도 있고, 티비도 있고. 아기엄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곳을 선호해요. 유모차 끌고. (2018. 9. 나주시 유치원 학부모 G)

읍, 면 단위 지역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육아지원 인프라 뿐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예체능학원이나 사설 이용기관 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방과후교실이나 돌봄교실을 통한 돌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남평읍의 경우 돌봄교실이 이용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거나, 방과후교실 이용인원의 과수용으로 인하여 “통학버스가 다니는 시간까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 그걸 배우고자 알고자 하는 아이들은 없다”고 할 정도로 이용자의 만족도나 기대가 떨어진 경우도 나타났다.

미술 가르치고 싶어도 미술 가르칠 때도 없고 다른 것을 뭘 시켜보고 싶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2018. 9. 나주시 유치원 학부모 F)

학원을 다니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니까는 학원이 여기도 학원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상 거기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C)

전에는 학급이 2개였는데 돌봄교실이 2개였으니까 거의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4개 학급이 되는데 (돌봄교실) 2개 반 밖에 없으니.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B)

부족한 육아지원 인프라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면이나 읍 단위에서 동 단위 지역으로, 동 단위 지역에서 부족한 경우는 인근 광주광역시로도 이동하여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육아지원 인프라 부족은 조손가족이나 다문화가족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 가정이 다양한 육아지원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차들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주말 같은데 애들 데리고 나갈 수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녀가 3명이라서 3명을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사실 아니에요. 신랑도 주말에 일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한 가정에 차가 1대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접하려면 어쨌든 혁신이나 광주나 교통을 이용해서 나가야 하는데, 버스 편의시설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집 앞 놀이터 가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나 이야기지, 주택 살고 이러면 집에 서만 있는 거예요.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D)

2) 요구사항

육아지원 인프라와 관련하여 읍면동 행정단위를 떠나서 도농복합도시의 수요자들은 기본적인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형성된 혁신도시와 같은 동 단위 지역은 단기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아직 도시 형성이 완성되지 않다 보니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에 대한 요구와 함께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육아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육아공동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기대도 함께 나타내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아동 입원병동이 있는 어린이병원, 서점, 영유아전용실이 갖춰지거나 어린이가 이용하기에 물리적으로 용이하게 구성된 도서관과 같은 이용시설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주말에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야외활동을 하기에 용이하도록 아동의 연령과 발달특성을 고려하고 안전하게 이용가능한 놀이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병원이 없어요. 입원하러 광주까지 가야 되니까. (2018. 9. 나주시 유치원 학부모 L)

(작은 도서관) 이용하지 않는데 형식이야, 형식. 진짜 별로 없어요. 책을 볼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일반 작은 도서관은 애들의 책이 있지만, 어른들 책상으로 그냥 있어요. 아이들이 들릴 수는 있으나 그 안에서 책을 읽을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2018. 9. 나주시 유치원 학부모 K)

아이들만의 이런 운동장이라던가, 미니 축구장이라던가. 뭐 이렇게 애들만 딱 들어가게 놀 수 있는. 어른들이랑 섞여 있지 않고. 부지는 넓은데 이용할만한 시설들이 없어요. (2018. 9. 나주시 유치원 학부모 J)

육아지원 인프라는 물리적으로 구성된 시설이 아니더라도 통학버스 지원과 같은 서비스 형태로도 수요자의 요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하교시 물리적 이동거리가 길거나, 물리적으로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동에 따른 사고 위험 등 아동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지원

요구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 단위 지역에서 특히 이러한 요구는 더욱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지금은 가까운 거리라도 애들이 위험한 요소만 있다 하면 언제든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인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도 잘 되어있는 것도 아닌데 가까운 거리라 해서 걸어 다녀라 가까우니까 (통학) 차량은 운행을 안 한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2018. 9. 나주시 유치원 학부모 F)

아울러,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욕구 또한 장기적으로 읍, 면 지역에서 동 단위 지역 또는 다른 광역시 지차체로의 이주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때 선택의 기준은 물리적으로 교육 관련 자원 존재 유무도 영향을 미치지만, 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역시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유료화로 전환되더라도 아동들이 이용하는 보육 및 교육 서비스가 질적으로 하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다수의 수요자에게서 나타났다.

사실은 방과후는 많이 실망을 했어요. 정말로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게 광주가 우리랑 정말 가깝잖아요. 15분 거리 밖에 안되잖아요.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저도 언니랑 올케 언니가 광주에 살고 같은 학년을 키워서 이것 저것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기본적인 출석 확인이 안 될 만큼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학교에 항의도 많이 했는데 학교 측에서 하는 말이 이제 (한 반에 이용아 동수가) 많고 급여가 낮아서 거의 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A)

일부러 (교육 때문에 이사) 가시는 5학년 말에 전학 가는 사람이 많아요.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B)

여기 학원하시는 분들께서도 여기서는 본인들의 근무지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여기서 가르치지만 (자신의) 애들은 광주 할머니댁에서 학교를 다닌다거나 그런 상황인거예요.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C)

육아지원 인프라의 확충, 접근성 및 이동지원 강화, 교육 관련 인프라 확대 등과 함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서 빈번하게 등장한 요구사항은 기본적으로 시의 전체적인 행정이 보다 육아친화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었으며, 육아지원센터 등이 마련되어 육아지원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아울러, 지자체와 공공영역에서의 역할 외에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이 강화되어 보다 안전하고 협력하는 육아공동체로 기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난감이나 육아용품 기부 활성화,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캠핑장 등의 아이디어도 나타났다. 이러한 욕구는 신생도시에 해당되는 동 단위 혁신도시 수요자에게서 더욱 강하게 드러났다.

그냥 불편한 도시예요. (중략) 말이 호수공원이지, 애기들이 그 물 맞아가지고 피부과병원 다니고 그랬어요. 병원을 애들 데리고 한 번 갔더니 “애들 혹시 호수공원 분수대 데리고 간다 왔냐”고 묻더라구요. (2018. 9. 나주시 유치원 학부모 H)

아기용품 전문으로 아기들 꺼만 기부를 받아줘서 그것을 유용하게. 같이 놀게끔. 결론은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만나고. 혁신적으로 변화를 시켜주세요. (일동 웃음) (2018. 9. 나주시 유치원 학부모 I)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여기에는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캠핑장 같은 것도. 멀리 안가고 이런 데 나무들 많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니까. 집에만 있기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친근감을 가지고 서로 친해지는 거지요. (2018. 9. 나주시 유치원 학부모 K)

라. 양육특성 및 지자체 지원

1) 양육특성

어린이집 이용 시 나타나는 양육특성 및 교육관 등에서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거주지나 학부모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면 단위 지역일수록 부모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한글교육 등 학습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있었고, 동 단위로 나올수록 어린이집 외의 학원이나 가정방문학습의 기회가 많은 만큼 어린이집 이용시간도 오히려 줄어들기를 바라는 경우도 나타났다.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서도 글자 가르치기 힘드니 학교 유치원에서 좀 다 해줬으면. 혁신도시에 있는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학원도 다니시고 오히려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오래 동안 머무르게 하는 것을 굉장히 축은해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5시까지 있으면은 너무 힘들다 집에 버스도 좀 늦게 와줬으면 집에.. 아이들이 등원시간을 늦춰줬으면 좋겠다, 하원시간은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 차량을 여러 번 해 달라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는 저희는 국립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정해져서 아침에 한 대로 이용하는데 두 번 하거든요. (2018. 9. 나주시 유치원 원장 A)

그게 다른 점은 의식의 차이죠. 그러니까 여기 현재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조금 더 늦게 있어도 늦게 까지 아이들이 있으면은 이제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죠.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원장 D)

같은 동 단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나주 구도심과 새롭게 형성된 혁신도시의 학부모 성향은 다소 다르게 공급자나 공무원들에게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새롭게 형성된 동 단위 지역일수록 어린이집에서 아침이나 저녁 돌봄을 지원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혁신도시 쪽 부모들이 수도 많고, 교육설명회에 참여하여 의견도 적극적으로 피력하시는 편입니다. 요즘 교육 경향에 민감하구요. 구도심 쪽의 경우 유치원을 믿고 이전의 정책을 괜찮다고 보시는 경향이 더 있구요. (2018. 9. 나주시 공무원 A)

나주 동 단위 지역 7곳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데 5곳이 혁신도시 쪽인데, 유치원에서 돌봄을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기대하시는 편입니다. (2018. 9. 나주시 공무원 B)

맞벌이가정의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어린이집에서 이른 아침이나 저녁의 보육시간 연장, 재량 휴업일 보육을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편이었으나, 어린이집이 방학인 시기에 맞벌이가정의 소수 아이들만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지원을 받기면서도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가정에서 돌보고자 하는 욕구도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영유아 시기를 지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 이후부터는 주로 양육을 담당해온 모들이 재취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나, 자녀의 양육과 돌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취업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엄마들 보면 방학기간이라던가 아니면 재량휴일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 보낼 때 없어서 할머니 맡기거나 유치원에 다시 보내는데.. (중략) 원래 방학기간은 1주일에서 2주 되는데 맞벌이들은 운행을 해요. 그런데 급식을 안 하니까 도시락과 간식을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도 몇 명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애들도 가기 싫어 하고.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집에서 있는 것보다 엄마가 일하는게 더 좋을 거 같아요. (대신 재취업을 하더라도) 아이 시간에 맞춰서 내가 시간을 움직이는 게 가능할 때 하려고요. (2018. 9. 나주시 유치원 학부모 L)

아울러, 읍, 면 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처럼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형태의 가정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온라인 접근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등 특별한 욕구를 가지는 수요자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온라인 통역지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보다 섬세하게 보육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로 뭐 해라 하면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손가정) 아이들은 숙제도 못 해가지고 오고 그런 정보에 진짜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C)

(주변의)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설명을 해줘도 모르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어렵고 그리고 담당선생님이랑 안 맞아 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언어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여성들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E)

2) 지자체 지원

도농복합도시인 나주시는 각 학교와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 도 차원에서의 다양한 지원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부서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차이가 있다보니 실행되는 정책 및 현장에서 인식하는 정책체감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로 인식되고 있었다.

유치원의 경우,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이용아동이 적고 유치원 규모가 작아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급당 아동이 적은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세울 때부터 유치원 2~3곳이 연합하여 현장체험학습이나 배차신청을 함께 하여 협동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2개 학급 이하의 작은 유치원은 연합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프로그램이 안정화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시 차원의 무지개학교 특색프로그램, 도 차원의 연구학교, 교육부 차원의 학급 및 개인별 지원 등도 실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교사 처우개선비로 11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동지역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나주시에서 자체 시비로 동지역 같은 조건의 보육교사에게 9만원을 지원하고 있었다. 민간차액 보육료의 경우에는 도비와 시비로 보조되고 있었으며, 민간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었으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나주시 전체를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8개 기관으로,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은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수요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하고는 있으나 신축 외에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들의 경우는 지자체의 보육 관련 지원에 대해 지역에 따라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지역의 경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도시에 맞추면 도시, 농촌에 맞추면 농촌’이라는 표현처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취약한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용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동 단위나 적은 수의 아동들에게 정책적 지원이 확실하게 적용되는 면 단위 지역에 비하여 읍 단위 지역은 좋은 교사나 교육을 확보하기에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는 편이었다.

거기가 면 단위라서 더 많이 받는 것..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A)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은 거죠. 애들이 숫자가 적어서 오히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가 많아요.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B)

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애들이,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게 되냐. 읍이라서 교사가 구하기 힘들니까 여기는 추가인원 2명까지 받을 수 있다는데, 과연 진짜 교사가 너무 너무 구하기 힘든 읍면동이나.. (중략) 저는 이제 사실을 몰랐던 부분을 최근에 알게 되어서 충격

적인 이야기였는데, 어린이집 차량이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게 (차량이용정원보다 초과하여) 인원이 늘어났어요.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B)

동 단위 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상 예정된 학교 개교도 무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영유아 시기의 보육지원 외에 취학연령 이후의 등하교, 방과후 지원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는 아이가 영유아기를 벗어나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들도 다시 직장을 포기하여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도 지금 이제 저희 집 근처 원래 2019년도에 예정된 초등학교가 있는데 아직 다른 아파트가 세워지지 않아서 학교가 개설을 못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집 근처에 있는 학교는 걸어서 10분정도 밖에 안 걸려서 거기를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 학교에서 안내문을 보내는 거예요. 둘째 편으로. (입학예정인 셋째는) 주변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다, 전학 갈 수 있으면 가라. 그 정도로 포화 상태로.. (중략) 엄마의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 학교가 생길 예정인데 교육부에 전화했더니 “아직 생각이 없다”라고만 하고, 조그마하게 나와 있거든요. 초등학교 일정이라. 그런데 저희 댁에는 조금 더 가깝고 (해서 이사를 왔는데) 이 학교를 떨어지고 이제 신입생도 떨어지는데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저는 이제 직장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런 것이 많이 안타깝지요.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E)

육아지원 인프라가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질적인 측면에서 충족되지 않을 때 부모들이 느끼는 불만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 면 단위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욕구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 단위 지역보다 강사료가 적은 상황에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일부 프로그램을 유료화를 해서라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차원에서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었을 때는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났으며, 이러한 상황은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가 악순환하는 형태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강사 심정이 이해가 가고 똑같은 거리인데 저도 5000원 더 주는데 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유료화 시키더라도 퀄리티를 더 높이자. 애들이 가서 그냥 거기서 컴퓨터하며 놀다 오는 게 다이고.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A)

(도시와) 똑같은 수준이면 안 되고 기존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좀 선생님과 환경들이 필요하겠죠. (2018. 9. 나주시 어린이집 학부모 C)

6 소결

도농복합도시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서 시와 군이 통합된 지역을 의미한다. 도농복합지역은 농촌지역의 공동화 현상 지연, 적정규모의 지리적 범위에 따른 행정효율성 확보와 지역의 역할 및 기능 보완, 유기적 연계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이질적인 기능과 문화의 충돌로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격차,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 쉽다는 점, 장기간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과 같은 인구집단과 도농지역의 인위적 정책 결합으로 유인된 인구집단 간의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격차가 있기 쉽다는 점(배은석·박해금, 2016)이 지속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심층면담을 실시한 각 도시별로 간략히 시사점을 정리해 두고자 한다.

1) 안성시

심층면담을 통한 정책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종합해보면 도농복합시 안성지역의 육아지원 개선을 위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보육 담당 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 면담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촌지역 선정에 따른 혜택의 역차별 문제가 있었다. 이는 특별히 안성시에 국한된 이슈라고 간주하기 보다는 도농복합지역에서의 흔한 사례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 구분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진행하거나, 인근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유사지역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지 않도록 보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안성시 공도읍은 편리한 교통과 낮은 주거비용, 주변 지역의 육아지원 인프라 이용 가능성으로 영유아가구의 유입이 늘어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농복합지역 내 모든 지역 마다 육아지원시설을 동일하게 늘릴 수는 없으므로, 공도읍처럼 대도시 대비 출산 및 육아 환경 구비가 미흡하지만 영유아 인구 증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심층면담에서 확인하였듯이, 갑작스런 영유아인구 증가에 대해 무조건적인 양적 확대 보다는 기존 시설의 질적 확대가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2) 당진시

당진시는 철강산업이라는 대표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도시로, 대표 기업 중심의 인구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도시이다. 결혼을 하면서 이동하여 온 인구들이 한 부류를 형성하고,

이러한 가구 등으로 인한 영유아 인구 및 출산율이 높은 도시이다. 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영유아 인구수에 비해서 아이들을 위한 문화, 체험 시설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소아과 등 병원시설수의 부족으로 자녀가 아플 때에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타지역에 1시간 이상의 이동으로 병원을 찾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이주해온 어머니들의 경우 원가족과의 거리가 멀고, 남편이 일로 인해 양육을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독박육아의 어려움과 타향살이의 외로움 등을 함께 겪는 고충을 토로하였다.

거주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농촌이라는 느낌이 강하며,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장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이 갈 수 있는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문화시설 및 병원 시설 등의 증대가 필요하다. 또한 늘어나는 영유아 수 및 취학아동의 수에 맞는 돌봄시설 및 영유아 이용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3) 원주시

원주시는 강원도 내 유사한 규모(춘천, 강릉)의 도시보다 어린이집 수가 많은 편이었다. 다만 강원도 특성상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많지 않았고 원주의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더욱 낮았다. 향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은 있으나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출산·육아수당을 크게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별도로 예산이 증가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도 하였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제정으로 인해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보조교사 지원은 정원 충족률 기준(70%)으로 제공하고 있고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 정도에 지원하고 있었다.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영유아 수가 지속적으로 급감하는 상태였다. 공단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문막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대부분은 맞벌이였으며,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주말보육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일부 직장어린이집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의 어린이집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양질의 보육교사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점이었다. 이로 인해 선생님 대부분이 시내 쪽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이 편도기준 1시간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의 학부모는 어린이집은 충분한 상태이나 양질의 어린이집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가 있는 시내 중심으로 정책이 공급되고 있고 읍·면지역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읍면지역은 영유아를 위한 교육, 놀이, 체험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점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문화 체험 시설, 양질의 소아과, 산부인과,

육아지원 프로그램(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보미) 및 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4) 나주시

나주시를 대상으로 도농복합지역의 육아지원 실태를 살펴보고자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도농복합지역인 나주시 내에서 육아지원의 수요와 공급은 급격한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불균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는 동 단위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나주혁신도시와 구도심 생활권, 읍·면 단위에서는 읍 단위의 도시개발사업과 기존의 면 생활권에서 인구이동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었다. 직장이나 직업 차원에서의 이동 외에 주택정책과 맞물린 아파트 생활 선호, 육아지원이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 상위교급 진학 시 자녀교육의 편리성 등을 기대하며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보육수요도 변화하는 경향이 본 연구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도농복합도시 육아정책 측면에서 읍·면 단위도 주택정책(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거편리성, 투자)이나 육아·교육 여건(향후 배치될 학군이나 현재 학교의 두드러진 장점)에 따른 영향이 크며, 인구이동과 이에 따르는 육아수요·공급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고려한 육아정책 수립 및 실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도시개발이나 육아·교육 여건 변화를 면밀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단위에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담당하는 주관부처와 교육(지원)청 간의 소통과 협의가 보다 활발히 일어나야 할 것이며,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등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한 후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형태로 육아지원정책과 서비스를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육아정책 수요자들의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고 있었으나 수요 공급 격차에 따른 불편함을 겪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생길 수 있는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격차를 고려한 고민들도 취학 전 학부모들에게부터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구성된 지 채 10년이 안 된 동 단위 지역의 경우, “아이를 기르기 좋은 환경을 기대하고 이사했지만, 다 수용하지 못 해서 인근 면 단위 병설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개교 예정인 학교도 설립이 불투명하여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반면, 읍 단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며 만족”하지만, “차가 없으면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제약”이 많고 도심 인근의 읍 단위 지역이어서 오히려 지원이 제한적인 것이 아닌지 도농복합도시인 점이 오히려 차별적인 환경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다.

“(읍 단위) 초등학교 이후 방과후교실이 무료로 지원되어도 질이 떨어지고 있어 고민”하는 것처럼 지원의 양을 확대하거나 무료 지원으로 인한 부담을 덜더라도 질적인 측면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수요자에게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고, 어린이집 이용 등에 있어서도 물리적인 거리나 이용 가능 시간, 이동수단 확보 등에 따른 영향도 크게 받고 있었다. 교통에 따라 접근성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보호자가 차가 없거나 운전을 못 하거나 조손가정 등의 경우에는 사회적 배제 상황에 놓이기 쉬울 수 있으며, 면 단위 지역에서 잘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가 제한적으로나마 역할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다. 보육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보육 수요만을 우선으로 할 경우, 보육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이 더욱 취약해지는 악순환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 및 강사, 물리적 이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읍이나 면 단위 지역에 대한 지원 기준은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주거이동 등에 따라 단기간에 급변함에 따라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급자들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이나 읍 단위의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대기자가 넘쳐나는 상황이었고, 면 단위의 경우에는 국공립 유치원(병설)이라 하더라도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정원으로 등록할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몇 달 빌려오거나” 앞으로의 정원 유지를 걱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도심과 인접한 경우에는 면 단위 병설유치원이라도 신도시에서 수용하는 못하는 수요를 수용함으로써 정원을 모두 채울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면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는 전체 이용정원의 5%에 불과하여 형제 2명만이 지역 안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민간어린이집은 면 단위일수록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형편에 교사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고, 동 단위의 경우에도 현재는 수요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요가 줄 것 등을 대비하여 민간어린이집을 정부 정책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있는 공급자들도 있었다. 농번기 유무 등 시기에 따라 수요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달라지거나, 인구가 급변하는 상화에 따라 동과 면의 경계를 넘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수요자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상의 거주자 수요만을 고려한 보육정책 수립보다는 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보육 수요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수요공급의 원리를 떠나서 보육자원이 취약한 지역이 더욱 취약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면 단위의 어린이집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한 방안으로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경우 여유 공간을 영유아 보육 외에 지역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돌봄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활용함으로써 기관운영이 보다 용이하게끔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어린이집 등 직접적인 육아지원 자원 외에 지역사회 내의 육아지원 인프라에 대해서는 읍면동 각 단위의 지역마다 우선 양적으로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아동 입원병동이 있는 어린이병원, 서점, 영유아전용실이 갖춰지거나 어린이가 이용하기에 물리적으로 용이하게 구성된 도서관 등의 이용시설, 아동의 연령과 발달특성을 고려하고 안전한 놀이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영유아 및 아동 대상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환경적으로 아동발달 특성에 맞지 않거나 운영시간이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접근성이 떨어질 때 수요자들의 이용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육구를 충족시키는 공공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 수요가 많은 젊은 부모를 타겟으로 잡아 영유아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운영되는 커피숍이나 키즈카페가 성업을 하고 있는 동 단위 지역도 있었다.

육아지원 인프라 여건에 따라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었고, 도농복합도시가 시와 군의 통합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며 단기간에 인구가 급변하다보니 육아자원에 대한 지자체의 제한된 지원에 대하여 읍면동 단위 각 지역마다 갈등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었다. 읍면동 단위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단위의 육아지원 정책이 보다 촘촘하게 실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육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육아지원센터 등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단위의 육아정책을 실행할 때 사회적 자원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데,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어 인구가 모인 동 단위 지역이라 하더라도 주민들 간의 교류나 소통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들은 지역사회가 육아공동체로 역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육아 용품을 기부하고 나누는 시설이나 장난감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주민들이 소통하고, 지역 내 캠핑장시설 등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었다.

향후 육아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때 읍면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물리적 통합 이상으로 정서적 교류와 통합, 공동체 의식과 연대에 초점을 둔 운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와 농촌 특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발전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군 단위의 다른 읍, 면들이 누리고 있는 지원들도 못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물리적으로 기관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 이상으로 주민들이 교류하기 쉽도록 물리적 구조와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 내 복지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단위 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육아지원이 요구된다. 면 단위 지역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게 이동식으로 어린이도서관과 장난감 대여소를 운영하거나, 농번기에 맞춰 영유아놀이방을 운영하는 등의 별도 지원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육아정책이 주로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도농복합 도시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 수립이 요구되며,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제도적 지원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019년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 이후에는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들이 아동과 가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점에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V. 도농복합지역 육아 실태 및 정책 인식

본 장에서는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응답자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이 외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 초등 방과후 돌봄 현황 및 실태를 알아보고, 보육·교육 정책 관련 의견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도농복합지역의 육아지원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응답자 특성

도농복합지역 내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의 육아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V-1>과 같다.

전체 500명의 영유아 부모가 참여하였으며, 앞서 2장에서 논의한 도농복합지역의 구분에 따라 응답자의 지역을 구분한 결과, 완전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74.4%, 중간지역 거주자 24.0%,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 거주자는 1.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거주지역 특성을 동/읍/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동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72.8%, 읍지역 거주자 18.2%, 면지역 거주자는 9.0%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응답자 성별로는 남성, 즉,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가 46.8%, 어머니가 53.2%로 비교적 고르게 표집되었다. 전체 대상자 가구의 61.4%가 부모 모두 일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이었으며,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가 74.4%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의 연령대도 30대가 74.2%로 가장 많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본인의 출신지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8%, 배우자가 이 지역

출신이라는 응답은 39.0%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9.2%는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로 일하고 있는 경우 5%, 무급가족종사자 1.6%, 무직인 경우는 14.2%였다.

응답자의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자녀 수가 2명인 경우가 전체의 48.4%로 가장 많았고, 1명 41.2%, 3명 9.4% 순이었으며 자녀를 4명 둔 경우도 다섯 사례(1.0%) 있었다. 막내자녀 기준으로 자녀 연령을 분석해보니, 0세에서 만2세까지의 영아인 경우가 48.6%, 만3세에서 취학 전까지에 해당하는 유아 자녀를 둔 경우가 51.4%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표 V-1〉 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500)	100.0	전체		(500)	100.0
지역구분	완연한 도시지역	(372)	74.4	거주지역 특성	동지역	(364)	72.8
	중간지역	(120)	24.0		읍지역	(91)	18.2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	(8)	1.6		면지역	(45)	9.0
성별	남성	(234)	46.8	맞벌이 여부	맞벌이	(307)	61.4
	여성	(266)	53.2		홀벌이	(193)	38.6
연령대 본인	20대	(32)	6.4	연령대 배우자	20대	(18)	3.6
	30대	(372)	74.4		30대	(369)	74.2
	40대	(95)	19.0		40대	(107)	21.5
	50대	(1)	0.2		50대	(3)	0.6
해당지역출신 본인	예	(224)	44.8	해당지역출신 배우자	예	(194)	39.0
	아니오	(276)	55.2		아니오	(303)	61.0
취업유형 본인	임금근로자	(396)	79.2	취업유형 배우자*	임금근로자	(325)	65.4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	(25)	5.0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	(42)	8.5
	무급가족종사자	(8)	1.6		무급가족종사자	(11)	2.2
	무직	(71)	14.2		무직	(119)	23.9
총 자녀수	1명	(206)	41.2	자녀 연령 막내 기준	영아	(243)	48.6
	2명	(242)	48.4		유아	(257)	51.4
	3명	(47)	9.4				
	4명	(5)	1.0				

주: 배우자의 취업유형 문항은 무응답으로 인하여 사례수가 다름(N=497).

2 자녀양육 특성

가. 가구 구성

본 절은 자녀양육과 관련한 가족구성원 현황과 특성, 자녀양육에의 어려움 및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함께 거주하는 가구구성원으로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에서 부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비율은 85.6%, 모 87.2%, 조부 5.8%, 조모는 8.0%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결과로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조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14.7%로 높은 편이었고 맞벌이 가구에서 10.1%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비율)

단위: %, (명)

구분		부	모	조부	조모	계(수)
전체		85.60	87.20	5.80	8.00	100.0(500)
지역 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86.83	88.17	4.84	7.53	100.0(372)
	중간지역	80.83	83.33	9.17	10.00	100.0(120)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100.00	100.00	0.00	0.00	100.0(8)
거주지역 특성별	동	84.89	86.54	7.42	9.34	100.0(364)
	읍	91.21	92.31	0.00	4.40	100.0(91)
	면	80.00	82.22	4.44	4.44	100.0(45)
맞벌이 여부	맞벌이	84.36	86.64	6.51	10.10	100.0(307)
	홀벌이	87.56	88.08	4.66	4.66	100.0(193)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86.67	88.57	6.67	7.62	100.0(10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84.67	85.40	2.92	3.65	100.0(13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85.25	86.07	4.92	5.74	100.0(122)
	500만원 이상	86.03	88.97	8.82	14.71	100.0(136)

주 1)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제시함.

2) 자녀연령은 막내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함.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 수는 평균 1.57명으로 나왔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자녀 수가 대부분 1~2명이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 기타 동거인의 수는 평균 0.07명이고, 총 가구원 수는 평균 3.51명으로 조사되었다(표 V-3 참조).

〈표 V-3〉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 수

단위: 명

구분	형제자매 수	기타(친인척, 비혈연 포함) 가구 수	총 가구원 수
전체	1.57	0.07	3.51

응답대상자 자녀가 부 혹은 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73개 사례에 대하여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 또는 모의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산다는 응답의 전체의 7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부 또는 모의 사망으로(11.0%), 부모가 별거 중이라(9.6%), 부모가 이혼 중(1.4%)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세부특성별로 추가 분석한 결과, 특히 맞벌이 가정과 월소득 수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구간 가정에서 부 또는 모의 직장 때문에 자녀와 떨어져 산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4〉 자녀-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부 또는 모의 직장 때문	부모가 별거함	부모가 이혼함	부 또는 모가 사망함	기타	계(수)
전체		74.0	9.6	1.4	11.0	4.1	100.0(73)
지역 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74.0	10.0	0.0	14.0	2.0	100.0(50)
	중간지역	73.9	8.7	4.3	4.3	8.7	100.0(23)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0.0	0.0	0.0	0.0	0.0(0)
$\chi^2(df)$		n/a					
거주지역 특성별	동	71.4	10.7	1.8	12.5	3.6	100.0(56)
	읍	62.5	12.5	0.0	12.5	12.5	100.0(8)
	면	100.0	0.0	0.0	0.0	0.0	100.0(9)
$\chi^2(df)$		n/a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2	8.3	0.0	12.5	0.0	100.0(48)
	홀벌이	64.0	12.0	4.0	8.0	12.0	100.0(25)
$\chi^2(df)$		n/a					
자녀 연령별	영아	70.6	11.8	0.0	11.8	5.9	100.0(34)
	유아	76.9	7.7	2.6	10.3	2.6	100.0(39)
$\chi^2(df)$		n/a					
월 소득별	300만원 미만	66.7	6.7	6.7	6.7	13.3	100.0(1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81.0	14.3	0.0	0.0	4.8	100.0(21)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77.8	11.1	0.0	11.1	0.0	100.0(18)
	500만원 이상	68.4	5.3	0.0	26.3	0.0	100.0(19)
$\chi^2(df)$		n/a					

주 1)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자녀연령은 막내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함.

나. 자녀 양육의 어려움

〈표 V-5〉는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대상으로 자녀를 기르면서 겪는 어려운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도농복합지역 부모들은 자녀를 기르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보고했는데, 전체의 60.4%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전혀 어렵지 않음’을 1점으로, ‘매우 어려움’을 5점으로 가정하였을 때 평균 3.64점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 자녀 맡길 곳의 부족(3.44점), 양육 및 교육비용(3.33점), 자녀 양육에 대한 주변 친지 등의 도움 부족(3.22점)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 자녀를 기르면서 어려운 점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어렵지 않음	어렵지 않음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수)	평균
1) 아이와의 상호작용	8.8	35.0	33.6	19.8	2.8	100.0(500)	2.73
2) 양육 및 교육 비용	3.8	16.4	33.2	36.4	10.2	100.0(500)	3.33
3) 양육에 대한 배우자와의 갈등	10.4	29.2	36.4	18.0	6.0	100.0(500)	2.80
4) 양육에 대한 자신감 결여	8.2	28.6	41.0	18.6	3.6	100.0(500)	2.81
5) 자녀 맡길 곳의 부족	4.4	16.8	28.0	32.0	18.8	100.0(500)	3.44
6) 자녀 양육에 대한 주변 친지 등의 도움 부족	7.0	21.6	28.6	27.6	15.2	100.0(500)	3.22
7) 자녀지도·교육에 대한 지식 부족	3.8	26.4	39.2	27.4	3.2	100.0(500)	3.00
8) 일과 양육 병행	4.4	10.8	24.4	37.4	23.0	100.0(500)	3.64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시간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대상의 31.2%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의 돌봄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하원시간 이후와 부모의 퇴근시간 사이가 가장 보편적인 돌봄 공백시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간대로는 오후 3시~5시(14.2%), 저녁 7시~9시(12.8%)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저녁 7시~9시에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16.3%에 달했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저녁 7시~9시에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24.0%, 밤 9시~11시 사이 4.0%, 밤 11시 이후에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였다. 월소득별로 살펴봐도 월 4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미만 가구와, 500만원 이상의 가구에서 저녁 7시와 9시 사이에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16.4%, 16.2%로 전체 평균 12.8% 보다 높았는데,

이는 월소득에 대한 차이보다는 맞벌이 가구가 겪는 어려움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표 V-6〉 양육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된 시간대

단위: %, (명)

구분	없음	오전 6시~9시	오전 9시~12시	오후 12시~3시	오후 3시~5시	오후 5시~7시	저녁 7시~9시	밤 9시~11시	밤 11시이후	계(수)
전체	15.8	9.8	9.0	4.8	14.2	31.2	12.8	1.4	1.0	100.0(500)
지역 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15.3	9.7	9.7	5.4	14.2	29.8	13.4	1.3	100.0(372)
	중간지역	16.7	10.0	6.7	3.3	14.2	35.8	10.8	1.7	100.0(120)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25.0	12.5	12.5	0.0	12.5	25.0	12.5	0.0	100.0(8)
	$\chi^2(df)$	n/a								
거주 지역 특성별	동	16.2	10.2	9.1	4.4	13.5	32.4	11.8	1.4	100.0(364)
	읍	15.4	8.8	12.1	5.5	15.4	24.2	16.5	2.2	100.0(91)
	면	13.3	8.9	2.2	6.7	17.8	35.6	13.3	0.0	100.0(45)
	$\chi^2(df)$	n/a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1	12.4	7.5	3.6	13.4	32.6	16.3	1.6	100.0(307)
	홀벌이	21.8	5.7	11.4	6.7	15.5	29.0	7.3	1.0	100.0(193)
본인 취업 유형별	임금근로자	15.2	11.1	8.8	4.8	14.9	30.3	12.6	1.5	100.0(396)
	자영업자	12.0	0.0	4.0	0.0	4.0	44.0	24.0	4.0	100.0(25)
	기타	20.3	6.3	11.4	6.3	13.9	31.6	10.1	0.0	100.0(79)
	$\chi^2(df)$	n/a								
월 소득별	300만원 미만	19.0	6.7	11.4	5.7	10.5	32.4	11.4	1.0	100.0(10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8.2	12.4	9.5	8.0	16.8	25.5	7.3	2.2	100.0(137)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3.1	9.0	8.2	3.3	13.1	35.2	16.4	0.8	100.0(122)
	500만원 이상	13.2	10.3	7.4	2.2	15.4	32.4	16.2	1.5	100.0(136)
	$\chi^2(df)$	n/a								

주: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현재 자녀 양육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는 자녀의 외조부모가 32.8%가 가장 많았고, 도와주는 사람 없음이 31.4%, 친조부모 20.4%, 엄마의 형제자매 7.0%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주목할 만한 결과로는 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3.3%로 동·읍지역 거주가구에 비해 높게 나왔다. 이는 면지역 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 시 지원인력이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V-7〉 자녀 양육을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

단위: %, (명)

구분		아동의 친조부모	아동의 외조부모	아빠의 형제자매	엄마의 형제자매	이웃, 엄마· 아빠 친구	기타	없음	계(수)
전체		20.4	32.8	0.6	7.0	4.8	3.0	31.4	100.0(500)
지역 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18.8	33.9	0.5	7.3	4.8	2.2	32.5	100.0(372)
	중간지역	26.7	30.0	0.8	5.0	4.2	5.8	27.5	100.0(120)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25.0	0.0	25.0	12.5	0.0	37.5	100.0(8)
$\chi^2(df)$		n/a							
거주 지역 특성별	동	21.4	35.4	0.5	6.6	4.4	3.6	28.0	100.0(364)
	읍	18.7	30.8	1.1	6.6	6.6	2.2	34.1	100.0(91)
	면	15.6	15.6	0.0	11.1	4.4	0.0	53.3	100.0(45)
$\chi^2(df)$		n/a							
맞벌이 여부	맞벌이	23.8	36.2	1.0	6.2	4.6	4.2	24.1	100.0(307)
	홀벌이	15.0	27.5	0.0	8.3	5.2	1.0	43.0	100.0(193)
$\chi^2(df)$		n/a							
월 소득별	300만원 미만	19.0	30.5	1.0	8.6	4.8	0.0	36.2	100.0(10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9.7	26.3	0.0	7.3	4.4	2.2	40.1	100.0(13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5.6	38.5	1.6	8.2	5.7	3.3	27.0	100.0(122)
	500만원 이상	26.5	36.0	0.0	4.4	4.4	5.9	22.8	100.0(136)
$\chi^2(df)$		n/a							

주: n/a는 사레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다. 육아지원 서비스별 이용 시간

자녀(막내자녀 기준)가 이용 중인 육아지원 서비스에 따른 이용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육아지원 서비스는 1) 유치원과 어린이집, 반일제 학원 등의 기관, 2) 혈연 개별보육 서비스, 3) 비혈연 개별보육 서비스, 4) 시간제학원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장 먼저 육아지원 서비스별 평일과 주말의 이용일수를 알아본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반일제 학원 등의 기관은 평일에는 5일 내내 이용하고(4.95일), 주말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0.03일)으로 나타났다. 조부모 등의 의한 혈연 개별보육의 경우는 평일 5일 중 3.79일 이용하고, 주말 2일 동안은 0.63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혈연 개인보육은 그 보다 조금 덜 이용하는 수준으로 평일 3.54일, 주말 0.25일로 나타났다. 시간제 학원은 평일에는 4.09일 가고, 주말에는 거의 가지 않는 것(0.09일)으로 분석되었다.

〈표 V-8〉 육아지원 서비스(전체) 이용 현황-평일/주말 이용일수

단위: (명), 일

구분	기관 이용 (N=350)		혈연 개별보육 (N=73)		비혈연 개별보육 (N=28)		시간제 학원 (N=33)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주말
전체	4.95	0.03	3.79	0.63	3.54	0.25	4.09	0.09

주: 이용자에 한해서만 이용일 수를 받음.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1) 교육/보육 기관 이용 시간

먼저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및 기타 기관을 이용할 경우, 평일 기준으로 1일 이용시간을 알아본 결과, 평균 7.45시간 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학원 등과 같은 기관에 보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39.4%는 6시간에서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고, 8시간에서 10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비율도 37.7%였다.

집단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의 절반(60.3%) 이상은 8시간 이상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10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12.6%에 달했다. 맞벌이 가정(7.85시간)은 홀벌이 가정(6.60시간) 보다 약 1시간 이상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러한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집단이 소득이 낮은 집단에 비해 1일 기관이용 시간이 많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소득 차이 보다는 맞벌이 가구가 소득이 높은 가구로 분류되면서 보이는 특성으로 추정된다.

〈표 V-9〉 육아지원 서비스(기관) 이용 현황-1일 이용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13.4	39.4	37.7	9.4	100.0(350)	7.45
지역 구분별	완전한 도시지역	14.1	40.6	36.7	8.6	100.0(256)	7.43
	중간지역	12.2	36.7	40.0	11.1	100.0(90)	7.46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25.0	50.0	25.0	100.0(4)	8.83
$\chi^2(df)/F$		n/a					1.050
거주 지역 특성별	동	11.5	43.7	36.0	8.8	100.0(261)	7.46
	읍	20.6	25.4	46.0	7.9	100.0(63)	7.30
	면	15.4	30.8	34.6	19.2	100.0(26)	7.74
$\chi^2(df)/F$		12.399(6)					0.50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0	29.7	47.7	12.6	100.0(239)	7.85
	홀벌이	20.7	60.4	16.2	2.7	100.0(111)	6.60
$\chi^2(df)/t$		52.219(3)***					5.889***
월 소득별	300만원 미만	10.0	51.7	28.3	10.0	100.0(60)	7.3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9.1	44.7	29.8	6.4	100.0(94)	7.0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6.6	37.4	44.0	12.1	100.0(91)	7.94
	500만원 이상	16.2	29.5	44.8	9.5	100.0(105)	7.47

구분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계(수)	평균
$\chi^2(df)/F$	19.144(9)*					3.570*

주 1)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이용시간에는 집에서부터의 이동시간을 포함함.

* $p < 0.05$, *** $p < 0.001$.

2) 돌봄서비스(개별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

그 다음으로 조부모 등에 의한 혈연 개별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평일 기준으로 1일 이용시간을 알아본 결과,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동안 이용하는 경우가 37.0%로 가장 많았다. 6시간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30.1%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고,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7.8%, 2시간 미만 이용은 15.1%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자녀를 돌봐주는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과 같이 기관을 주로 이용하고, 하원시간 이후부터 부모의 퇴근시간 사이의 공백을 2~4시간 정도 메꾸어 주거나, 아니면 그 이상 장시간 동안 봐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인다.

거주지역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에 사는 경우 혈연 개별보육 서비스를 6시간 이상 이용하는 비율이 37.3%로 전체 평균 30.1% 보다 높은 편이었다. 면의 경우도 혈연 개별보육 서비스를 6시간 이상 이용하는 비율이 40.0%로 매우 높지만, 사례 수가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결과로 영아 자녀를 둔 경우, 혈연 개별보육 서비스를 6시간 이상 이용하는 가구가 43.2%에 달했으며, 이는 유아 자녀를 둔 경우(16.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였다. 이는 영아 자녀의 경우, 단체생활에 대한 부담으로 장시간 기관을 이용하기 보다는 혈연 개별보육 서비스를 길게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V-10〉 육아지원 서비스(혈연 개별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1일 이용시간

단위: %, (명)

구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계(수)
전체		15.1	37.0	17.8	30.1	100.0(73)
지역 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14.0	35.1	19.3	31.6	100.0(57)
	중간지역	20.0	40.0	13.3	26.7	100.0(15)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100.0	0.0	0.0	100.0(1)
$\chi^2(df)$		n/a				
거주 지역 특성별	동	13.7	33.3	15.7	37.3	100.0(51)
	읍	17.6	47.1	29.4	5.9	100.0(17)
	면	20.0	40.0	0.0	40.0	100.0(5)
$\chi^2(df)$		n/a				

구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계(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11.5	36.1	21.3	31.1	100.0(61)
	홀벌이	33.3	41.7	0.0	25.0	100.0(12)
$\chi^2(df)$		n/a				
자녀 연령별	영아	13.5	29.7	13.5	43.2	100.0(37)
	유아	16.7	44.4	22.2	16.7	100.0(36)
$\chi^2(df)$		6.242(3)				
월 소득별	300만원 미만	11.1	55.6	11.1	22.2	100.0(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2.9	42.9	14.3	0.0	100.0(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0.8	16.7	25.0	37.5	100.0(24)
	500만원 이상	6.1	45.5	15.2	33.3	100.0(33)
$\chi^2(df)$		n/a				

주 1)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이용시간에는 집에서부터의 이동시간을 포함함.

3) 자녀연령은 막내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함.

민간업체를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고용한 민간도우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 보육 등에 의한 비혈연 개별보육 서비스에 대한 1일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이용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28.6%로 나타났다. 즉, 57.2% 이상이 4시간 미만으로 다소 짧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시간 이상 이용하는 비율도 25.0%로 혈연 개별보육 서비스 30.1%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11〉 육아지원 서비스(비혈연 개별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1일 이용시간

단위: %, (명)

구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계(수)
전체		28.6	28.6	17.9	25.0	100.0(28)
지역 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25.0	35.0	10.0	30.0	100.0(20)
	중간지역	37.5	12.5	37.5	12.5	100.0(8)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0.0	0.0	0.0	0.0(0)
$\chi^2(df)$		n/a				
거주 지역 특성별	동	28.6	23.8	19.0	28.6	100.0(21)
	읍	50.0	50.0	0.0	0.0	100.0(4)
	면	0.0	33.3	33.3	33.3	100.0(3)
$\chi^2(df)$		n/a				
맞벌이 여부	맞벌이	31.6	36.8	5.3	26.3	100.0(19)
	홀벌이	22.2	11.1	44.4	22.2	100.0(9)
$\chi^2(df)$		n/a				
자녀 연령별	영아	19.0	28.6	19.0	33.3	100.0(21)
	유아	57.1	28.6	14.3	0.0	100.0(7)
$\chi^2(df)$		n/a				

구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계(수)
월 소득별	300만원 미만	20.0	40.0	40.0	0.0	100.0(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0.0	20.0	20.0	20.0	100.0(1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3.3	33.3	0.0	33.3	100.0(6)
	500만원 이상	14.3	28.6	14.3	42.9	100.0(7)
$\chi^2(df)$		n/a				

주 1)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이용시간에는 집에서부터의 이동시간을 포함함.

3) 자녀연령은 막내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함.

3) 시간제 학원 이용 시간

자녀를 시간제 학원에 보내는 경우는 2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57.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이 30.3%로 나타났다. 반면, 6시간 이상 보내는 경우도 9.1% 있었다.

〈표 V-12〉 육아지원 서비스(시간제 학원) 이용 현황-1일 이용시간

단위: %, (명)

구분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계(수)
전체		57.6	30.3	3.0	9.1	100.0(33)
지역 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44.0	40.0	4.0	12.0	100.0(25)
	중간지역	100.0	0.0	0.0	0.0	100.0(7)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100.0	0.0	0.0	0.0	100.0(1)
$\chi^2(df)$		n/a				
거주 지역 특성별	동	72.7	22.7	4.5	0.0	100.0(22)
	읍	14.3	71.4	0.0	14.3	100.0(7)
	면	50.0	0.0	0.0	50.0	100.0(4)
$\chi^2(df)$		n/a				
맞벌이 여부	맞벌이	56.0	32.0	4.0	8.0	100.0(25)
	홀벌이	62.5	25.0	0.0	12.5	100.0(8)
$\chi^2(df)$		n/a				
자녀 연령별	영아	57.1	14.3	0.0	28.6	100.0(7)
	유아	57.7	34.6	3.8	3.8	100.0(26)
$\chi^2(df)$		n/a				
월 소득별	300만원 미만	0.0	50.0	50.0	0.0	100.0(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0.0	40.0	0.0	30.0	100.0(1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85.7	14.3	0.0	0.0	100.0(7)
	500만원 이상	71.4	28.6	0.0	0.0	100.0(14)
$\chi^2(df)$		n/a				

주 1)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이용시간에는 집에서부터의 이동시간을 포함함.

3) 자녀연령은 막내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함.

3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 이용

가. 이용하는 기관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종류를 살펴보았는데, 민간어린이집이 33.4%로 가장 높았고, 사립유치원 17.4%, 국공립어린이집 12.9%의 순서로 나타났다. 영유아를 구분하여 보았을 때에는 영아의 45.1%가 민간어린이집, 29.4%가 가정 어린이집, 12.7%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고, 유아의 28.6%가 민간어린이집, 24.6%가 사립 유치원, 13.3%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유아 모두 민간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의 이용 비율이 10%대로 낮은 편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정에서 사립유치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소득과 선택 기관의 연관성을 알 수 있었다.

〈표 V-13〉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종류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반일제 학원	계(수)
전체	12.9	6.3	5.4	33.4	13.1	1.4	9.7	17.4	0.3	100.0(350)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12.9	5.9	4.7	34.0	12.5	2.0	7.8	19.9	0.4	100.0(256)
중간지역	11.1	7.8	7.8	32.2	15.6	0.0	15.6	10.0	0.0	100.0(90)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50.0	0.0	0.0	25.0	0.0	0.0	0.0	25.0	0.0	100.0(4)
$\chi^2(df)$	n/a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8	5.4	6.7	28.9	13.8	1.7	9.2	20.1	0.4	100.0(239)
홀벌이	10.8	8.1	2.7	43.2	11.7	0.9	10.8	11.7	0.0	100.0(111)
$\chi^2(df)$	n/a									
거주지역 특성별										
동	11.9	5.7	5.7	33.3	13.8	1.9	10.0	17.2	0.4	100.0(261)
읍	15.9	6.3	3.2	34.9	11.1	0.0	6.3	22.2	0.0	100.0(63)
면	15.4	11.5	7.7	30.8	11.5	0.0	15.4	7.7	0.0	100.0(26)
$\chi^2(df)$	n/a									
자녀 연령별(막내자녀 기준)										
영아	12.7	5.9	3.9	45.1	29.4	2.0	1.0	0.0	0.0	100.0(102)
유아	12.9	6.5	6.0	28.6	6.5	1.2	13.3	24.6	0.4	100.0(248)
$\chi^2(df)$	72.584(8)*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작장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반일제 학원	계(수)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16.7	5.0	5.0	45.0	15.0	1.7	5.0	6.7	0.0	100.0(6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1.7	8.5	3.2	41.5	12.8	2.1	10.6	9.6	0.0	100.0(9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3.2	5.5	6.6	26.4	15.4	0.0	16.5	16.5	0.0	100.0(91)
500만원 이상	11.4	5.7	6.7	25.7	10.5	1.9	5.7	31.4	1.0	100.0(105)
$\chi^2(df)$	42.733(24)*									

주 1)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0.0%로 조사된 항목은 생략함.

* $p < 0.05$.

자녀가 다니는 기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으로는 집과의 거리가 27.4%로 가장 높았고, 교사가 15.1%, 운영시간이 13.7%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맞벌이 여부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한 점의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맞벌이의 경우 18.8%가 이용시간을 크게 고려한 반면 홀벌이는 이용시간은 2.7%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원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11.7%로 맞벌이의 경우 원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응답한 비율 7.1%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완전한 도시지역에서는 16.0%가 교사, 14.1%의 응답자가 교육프로그램을 가장 중요시 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간지역에서는 32.2%가 집과의 거리로 응답한 것으로 보아, 중간지역의 경우 집근처에 기관이 많지 않아, 집에서 가까운 거리가 가장 우선시 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14〉 자녀가 다니는 기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점 - 1+2순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8	9	10	12	13	16	(수)
전체	13.1	24.9	18.9	6.9	24.9	10.3	8.9	8.9	42.3	6.9	19.7	3.4	(350)
지역구분별													
완전한 도시지역	11.7	27.0	19.5	7.8	28.1	10.2	7.8	8.6	40.2	7.0	19.5	3.5	(256)
중간지역	17.8	18.9	17.8	4.4	15.6	10.0	10.0	10.0	48.9	6.7	20.0	3.3	(90)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25.0	0.0	0.0	25.0	25.0	50.0	0.0	25.0	0.0	25.0	0.0	(4)
맞벌이 여부													
맞벌이	11.7	23.4	25.5	7.1	26.4	9.6	7.9	8.4	43.1	5.9	16.7	4.2	(239)
홀벌이	16.2	27.9	4.5	6.3	21.6	11.7	10.8	9.9	40.5	9.0	26.1	1.8	(111)
거주지역 특성별													
동	13.0	25.3	18.8	7.7	24.1	10.3	10.7	7.7	41.4	7.3	18.4	3.1	(261)
읍	12.7	25.4	19.0	3.2	28.6	9.5	4.8	12.7	44.4	3.2	27.0	4.8	(63)
면	15.4	19.2	19.2	7.7	23.1	11.5	0.0	11.5	46.2	11.5	15.4	3.8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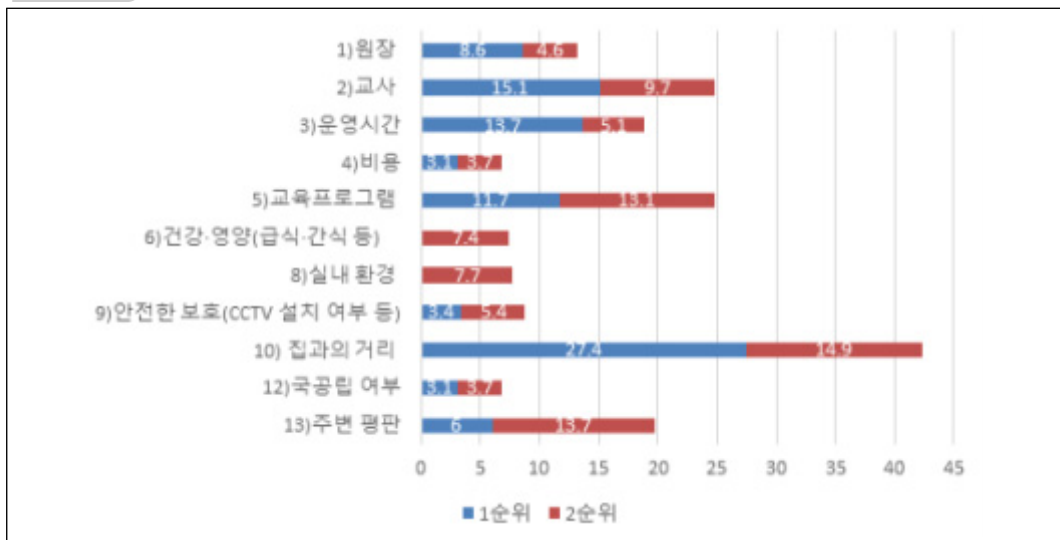
구분	1	2	3	4	5	6	8	9	10	12	13	16	(수)
자녀 연령별(막내자녀 기준)													
영아	17.6	27.5	16.7	3.9	17.6	12.7	9.8	15.7	48.0	4.9	17.6	2.0	(102)
유아	11.3	23.8	19.8	8.1	27.8	9.3	8.5	6.0	39.9	7.7	20.6	4.0	(248)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21.7	41.7	11.7	6.7	15.0	16.7	8.3	10.0	35.0	5.0	16.7	1.7	(6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2.8	19.1	17.0	4.3	21.3	9.6	8.5	13.8	44.7	7.4	24.5	4.3	(9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2.1	24.2	23.1	12.1	19.8	6.6	13.2	2.2	44.0	13.2	16.5	3.3	(91)
500만원 이상	9.5	21.0	21.0	4.8	38.1	10.5	5.7	9.5	42.9	1.9	20.0	3.8	(105)

1) 원장, 2) 교사, 3) 운영시간, 4) 비용, 5) 교육프로그램, 6) 건강·영양(급식·간식 등), 7) 기관 학급 규모(아동 수), 8) 실내 환경
9) 안전한 보호(CCTV 설치 여부 등), 10) 집과의 거리, 12) 국공립 여부, 13) 주변 평판, 14) 주변환경, 15) 평가인증 결과, 16)
차량운행 여부, 17) 특별활동(방과 후 특성화활동), 18) 형제자원 여부, 19) 공공형어린이집 여부, 20) 기타

주 1)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2) 3.0% 미만으로 조사된 항목은 생략함.

[그림 V-1] 기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



주: <표 V-14>를 그림으로 표현

나. 등하원

<표 V-15>는 앞선 문항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 학원 등 기관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자녀의 기관 등하원 방법에 대한 조사한 결과이다.

설문응답 대상자인 도농복합지역 거주 가정의 43.7%는 기관차량을 이용하여 등원하고, 자가차량으로 등원하는 경우는 28.6%, 걸어서 등원이 27.7%로 나타났다. 거주지역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읍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기관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50.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른 등원 방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였는데, 맞벌이인 경우 기관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40.6%로 가장 높기는 하였으나, 자가차량으로 등원하는 비율이 33.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홀벌이인 경우는 자가차량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17.1%), 기관차량을 이용하거나(50.5%), 도보로 이용하는(32.4%) 비율이 높았다.

하원 시에는 등원 때와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귀가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으나, 매우 미미한 수치였다. 이를 제외한 하원방법은 등원방법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V-15〉 자녀의 기관 등하원 방법

단위: %, (명)

구분		등원			하원					계(수)
		기관차량	도보	자가차량	기관차량	도보	자가차량	대중교통	기타	
전체		43.7	27.7	28.6	44.9	26.6	26.9	0.3	1.4	100.0(350)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45.3	27.7	27.0	47.3	27.7	23.0	0.4	1.6	100.0(256)
	중간지역	37.8	28.9	33.3	36.7	24.4	37.8	0.0	1.1	100.0(90)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75.0	0.0	25.0	75.0	0.0	25.0	0.0	0.0	100.0(4)
$\chi^2(df)$		n/a			n/a					
거주지역 특성별	동	43.7	27.6	28.7	43.7	28.0	26.8	0.4	1.1	100.0(261)
	읍	50.8	20.6	28.6	55.6	15.9	25.4	0.0	3.2	100.0(63)
	면	26.9	46.2	26.9	30.8	38.5	30.8	0.0	0.0	100.0(26)
$\chi^2(df)$		6.757(4)			n/a					
맞벌이 여부	맞벌이	40.6	25.5	33.9	42.3	24.3	31.0	0.4	2.1	100.0(239)
	홀벌이	50.5	32.4	17.1	50.5	31.5	18.0	0.0	0.0	100.0(111)
$\chi^2(df)$		10.457(2)**			n/a					
자녀연령별	영아	30.4	35.3	34.3	28.4	33.3	37.3	1.0	0.0	100.0(102)
	유아	49.2	24.6	26.2	51.6	23.8	22.6	0.0	2.0	100.0(248)
$\chi^2(df)$		10.490(2)*			n/a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50.0	23.3	26.7	51.7	21.7	23.3	1.7	1.7	100.0(6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4.7	34.0	21.3	41.5	31.9	25.5	0.0	1.1	100.0(9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0.7	26.4	33.0	42.9	26.4	29.7	0.0	1.1	100.0(91)
	500만원 이상	41.9	25.7	32.4	45.7	24.8	27.6	0.0	1.9	100.0(105)
$\chi^2(df)$		5.795(6)			n/a					

주 1)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2) 자녀연령은 막내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함.

* $p < 0.05$. ** $p < 0.01$.

〈표 V-16〉에서는 자녀가 집에서 기관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등원과 하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등하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대략적으로 13분 정도 소요되었다. 등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읍지역(15.35)의 경우 동(12.91)이나 면(13.68)에 비해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6〉 자녀가 기관까지 이동하는 시간

단위: 분

구분		등원	하원
전체		13.15	13.85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13.64	14.57
	중간지역	11.77	11.61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13.00	18.00
맞벌이여부	맞벌이	13.03	14.02
	홀벌이	13.40	13.50
거주지역 특성별	동	12.91	13.68
	읍	15.35	15.46
	면	10.19	11.69
자녀 연령별	영아	11.47	12.41
	유아	13.84	14.44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14.10	14.68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3.68	14.22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1.99	12.90
	500만원 이상	13.13	13.87

주 1) 이동하는 시간의 평균(분)을 나타냄.

2)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3) 자녀연령은 막내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함.

다. 추가 보육·방과후 이용

자녀가 이용 중인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보육, 어린이집 휴일보육,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지, 운영할 경우 이용여부와 이용 의사를 물어보았다. 시간제 보육의 경우 55.5%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자녀가 운영하는 기관을 다니는 응답자 중 48.2%가 이용 중이나, 82.3%가 이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시간 연장형 보육, 어린이집 휴일보육의 경우도 이용 중인 경우는 42.0%, 14.1%이나, 이용 의사가 있는 경우는 각각 79.3%, 64.8%로 나타나, 이용 중인 수에 비해 이용 의사가 높다고 밝힌 경우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경우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만 해당이 되지만, 유치원 이용 응답자의 기관 중 87.4%의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71.1%가 이용 중이며, 81.9%가 이용 의사가 있다고 나타나,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규 과정 이외의 자녀돌봄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수가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17〉 자녀돌봄 서비스 운영 여부, 이용 여부 및 이용 의사

단위: %, (명)

구분	운영하고 있음	계(수)	현재 이용중	이용 의사 있음	계(수)
1) 시간제 보육	55.5	100.0(254)	48.2	82.3	100.0(141)
2)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	59.1	100.0(254)	42.0	79.3	100.0(150)
3) 어린이집 휴일보육	28.0	100.0(254)	14.1	64.8	100.0(71)
4) 유치원 방과후 과정	87.4	100.0(95)	71.1	81.9	100.0(83)

주: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라. 교육·보육 기관에 대한 인식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 3.62~3.91에서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교직원에 대한 만족도가 3.91, 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3.62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V-18〉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만족도(인력, 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 비용)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01) 교직원(원장, 교사)	0.3	2.3	21.7	57.1	18.6	100.0(350)	3.91
02) 주변환경	0.0	5.1	28.3	53.7	12.9	100.0(350)	3.74
03) 시설설비(교재교구)	0.6	2.0	28.0	54.3	15.1	100.0(350)	3.81
04) 비용	0.6	8.3	35.4	39.7	16.0	100.0(350)	3.62
05) 건강관리	0.3	2.0	36.6	50.3	10.9	100.0(350)	3.69
06) 급간식관리	0.6	3.4	28.0	52.9	15.1	100.0(350)	3.79
07) 안전관리	0.3	2.0	28.0	54.6	15.1	100.0(350)	3.82
08) 교육내용	0.3	2.3	25.4	56.0	16.0	100.0(350)	3.85
09) 생활지도	0.6	2.3	27.4	53.4	16.3	100.0(350)	3.83
10) 부모참여 및 교육	0.3	2.0	36.6	48.0	13.1	100.0(350)	3.72

주: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 가장 개선하여야 할 부분을 물은 부분에서는 1+2순위 기준 가장 많은 수가 교사의 역량 강화(32.9%), 비용부담 감소(32.6%), 그 다음으로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26.9%), 노후 시설정비(26.3%)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구분으로 살펴보면, 완전한 도시지역에서는 비용부담 감소(33.6%) 및 교사의 역량 강화가 가장 높은 요구(29.7%)로 나타난 반면, 중간지역에서는 교사의 역량강화가 42.2%로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와 교사증원이 31.1%로 동등하게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도시 지역에 비해서 중간지역이 역량 높은 교사의 부족현상과 노후한 시설의 정비 필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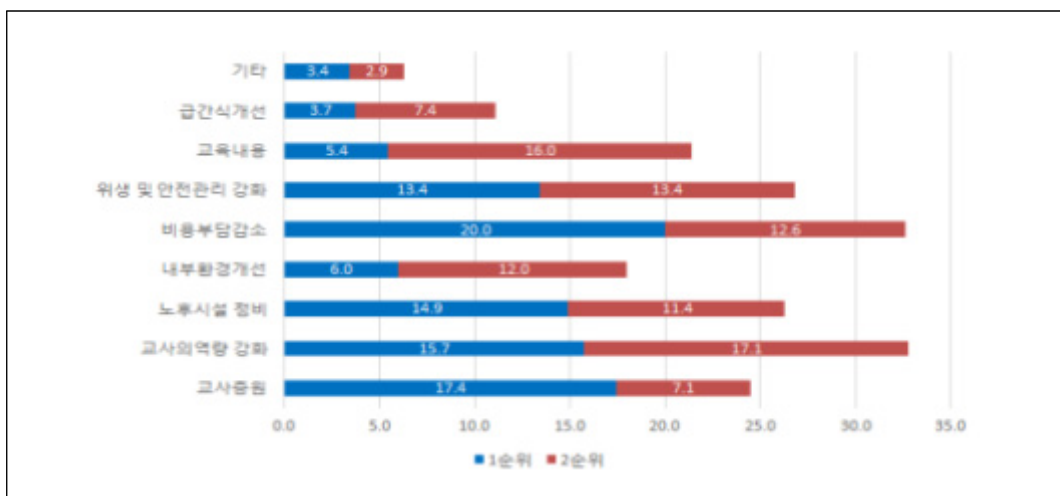
〈표 V-19〉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 가장 개선하여야 할 부분-1+2순위

단위: %, (명)

구분	교사 증원	교사의 역량 강화	노후 시설 정비	내부 환경 개선	비용 부담 감소	위생및 안전관리 강화	교육 내용	급 간식 개선	기타	계(수)
전체	24.6	32.9	26.3	18.0	32.6	26.9	21.4	11.1	6.3	(350)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22.7	29.7	26.6	19.5	33.6	25.4	24.2	11.3	7.0	(256)
중간지역	31.1	42.2	23.3	14.4	27.8	31.1	14.4	11.1	4.4	(90)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25.0	75.0	0.0	75.0	25.0	0.0	0.0	0.0	(4)
맞벌이 여부										
맞벌이	25.5	35.6	25.1	18.0	31.8	24.3	21.8	10.9	7.1	(239)
홀벌이	22.5	27.0	28.8	18.0	34.2	32.4	20.7	11.7	4.5	(111)
거주지역 특성별										
동	23.8	34.1	25.7	16.1	33.7	26.8	23.8	9.6	6.5	(261)
읍	25.4	28.6	28.6	25.4	25.4	30.2	15.9	15.9	4.8	(63)
면	30.8	30.8	26.9	19.2	38.5	19.2	11.5	15.4	7.7	(26)
자녀 연령별(막내자녀 기준)										
영아	34.3	31.4	19.6	21.6	32.4	28.4	16.7	10.8	4.9	(102)
유아	20.6	33.5	29.0	16.5	32.7	26.2	23.4	11.3	6.9	(248)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23.3	30.0	25.0	18.3	28.3	33.3	26.7	6.7	8.3	(6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9.8	24.5	31.9	19.1	39.4	26.6	16.0	10.6	2.1	(9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3.1	37.4	20.9	16.5	28.6	25.3	27.5	13.2	7.7	(91)
500만원 이상	21.9	38.1	26.7	18.1	32.4	24.8	18.1	12.4	7.6	(105)

주: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그림 V-2〉 자녀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



주: 〈표 V-19〉를 그림으로 표현

자녀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서 교육내용이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서 교육내용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그 중 26.7%의 응답자가 유치원 어린이집 기본 교육과정 충실 이행'이라고 응답하였고, 놀이 활동 강화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1.3%, 교재교구 다양화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0.0%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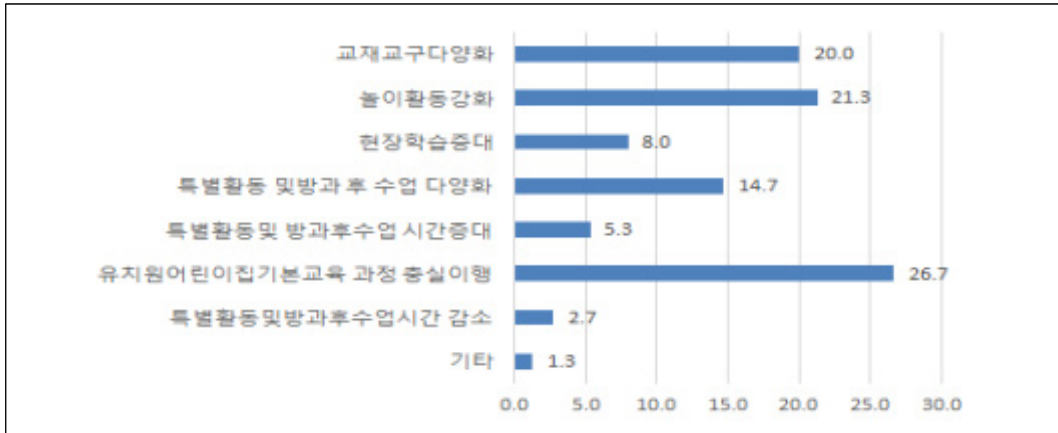
〈표 V-20〉 교육내용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단위: %, (명)

구분	교재 교구 다양화	놀이 활동 강화	현장 학습 증대	방과 후 수업 다양화	방과후 수업 시간증대	기본교육 과정 충실 이행	방과후 수업 시간 감소	기타	계(수)
전체	20.0	21.3	8.0	14.7	5.3	26.7	2.7	1.3	100.0(75)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22.6	22.6	9.7	12.9	4.8	22.6	3.2	1.6	100.0(62)
중간지역	7.7	15.4	0.0	23.1	7.7	46.2	0.0	0.0	100.0(13)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0.0	0.0	0.0	0.0	0.0	0.0	0.0	0.0(0)
$\chi^2(df)$	n/a								
맞벌이 여부									
맞벌이	17.3	17.3	7.7	15.4	7.7	28.8	3.8	1.9	100.0(52)
홀벌이	26.1	30.4	8.7	13.0	0.0	21.7	0.0	0.0	100.0(23)
$\chi^2(df)$	n/a								
거주지역 특성별									
동	22.6	22.6	4.8	12.9	6.5	25.8	3.2	1.6	100.0(62)
읍	10.0	20.0	10.0	20.0	0.0	40.0	0.0	0.0	100.0(10)
면	0.0	0.0	66.7	33.3	0.0	0.0	0.0	0.0	100.0(3)
$\chi^2(df)$	n/a								
자녀 연령별(막내자녀 기준)									
영아	23.5	17.6	5.9	5.9	0.0	47.1	0.0	0.0	100.0(17)
유아	19.0	22.4	8.6	17.2	6.9	20.7	3.4	1.7	100.0(58)
$\chi^2(df)$	n/a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6.3	18.8	18.8	12.5	6.3	37.5	0.0	0.0	100.0(16)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3.3	40.0	6.7	13.3	0.0	6.7	0.0	0.0	100.0(15)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0.0	20.0	8.0	12.0	12.0	20.0	8.0	0.0	100.0(25)
500만원 이상	21.1	10.5	0.0	21.1	0.0	42.1	0.0	5.3	100.0(19)
$\chi^2(df)$	n/a								

주: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그림 V-3] 교육내용 중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주: <표 V-20>을 그림으로 표현

4 기타 육아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이용 현황

가. 육아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인프라

<표 V-21>에서는 거주 지역사회 내 이용시설 유무를 살펴보았는데, 4(공원), 9(도서관), 10(키즈카페), 12(소아과병원)는 90%이상의 응답자가 이용시설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육아종합지원센터), 2(건강가정지원센터), 6(미술관) 등은 50% 이하의 응답자가 이용시설이 있다고 응답하여, 도농지역 내에 해당 시설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8(영화관) 및 14(산부인과병원)등의 경우 동지역(각각 92.3%, 91.5%)이 읍지역(74.7%, 68.1%)보다 확연히 높은 이용시설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이용시설을 비롯하여, 영화관, 도서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동지역에 시설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V-21> 거주 지역사회 내 이용시설 유무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수)
전체	41.5	40.1	95.4	93.0	58.3	39.7	67.5	88.0	92.6	94.4	86.2	95.0	80.0	86.6	(499)
지역구분별															
완전한 도시지역	44.2	37.7	95.4	92.7	56.3	41.5	64.4	87.3	90.8	93.8	88.1	94.6	77.9	84.1	(371)
중간지역	31.7	46.7	95.8	94.2	65.8	35.8	77.5	92.5	97.5	96.7	81.7	96.7	86.7	95.0	(120)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62.5	50.0	87.5	87.5	37.5	12.5	62.5	50.0	100.0	87.5	62.5	87.5	75.0	75.0	(8)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44.3	42.7	95.8	93.5	60.9	43.3	71.3	89.3	94.5	94.8	85.0	96.1	82.4	87.9	(307)
홀벌이	37.0	35.9	94.8	92.2	54.2	33.9	61.5	85.9	89.6	93.8	88.0	93.2	76.0	84.4	(192)
거주지역 특성별															
동	45.1	44.8	95.6	94.5	61.8	42.3	71.2	92.3	91.8	95.6	90.7	97.3	86.3	91.5	(364)
읍	26.4	25.3	94.5	87.9	46.2	37.4	54.9	74.7	95.6	92.3	71.4	91.2	59.3	68.1	(91)
면	43.2	31.8	95.5	90.9	54.5	22.7	63.6	79.5	93.2	88.6	79.5	84.1	70.5	84.1	(44)
자녀 연령별(막내자녀 기준)															
영아	41.6	39.5	95.5	93.4	56.4	32.9	66.7	86.8	90.9	94.7	86.8	95.1	77.0	85.6	(243)
유아	41.4	40.6	95.3	92.6	60.2	46.1	68.4	89.1	94.1	94.1	85.5	94.9	82.8	87.5	(256)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37.5	32.7	93.3	87.5	52.9	36.5	58.7	85.6	90.4	91.3	85.6	94.2	74.0	81.7	(104)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34.3	36.5	95.6	92.7	57.7	30.7	60.6	84.7	92.0	94.9	84.7	91.2	78.8	85.4	(137)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45.9	41.0	94.3	92.6	52.5	41.0	70.5	88.5	95.1	94.3	83.6	97.5	82.0	88.5	(122)
500만원 이상	47.8	48.5	97.8	97.8	68.4	50.0	78.7	92.6	92.6	96.3	90.4	97.1	83.8	89.7	(136)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건강가정지원센터, 3) 놀이터, 4) 공원, 5) 박물관, 6) 미술관, 7) 공연시설(음악회, 연극 등), 8) 영화관, 9) 도서관, 10) 시설놀이공간(키즈카페 등), 11) 문화센터(백화점, 대형마트, 지역주민센터 내 등), 12) 소아과병원, 13) 응급의료시설, 14) 산부인과 병원

주 1) 이용 가능 시설 있음에 해당되는 비율 제시

2)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또한 지역사회 내 이용시설에 대해 이용경험을 물었을 때, 이용률은 대부분 떨어지지만, 4(공원), 12(소아과병원)의 경우 90%가 넘는 이용률을 나타냈다. 또한 거주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이용률에 있어서도, 8(영화관), 13(응급의료시설), 14(산부인과병원)등의 경우 읍면지역이 동지역보다 이용시설 이용경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아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읍면지역의 지역사회 내 이용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22〉 거주 지역사회 내 이용시설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수)
전체	15.5	11.1	91.5	90.7	44.2	22.4	44.0	75.2	75.6	82.9	67.3	93.3	57.7	77.0	(496)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16.8	9.5	91.3	90.5	44.3	23.9	42.4	75.0	73.9	83.2	70.4	92.7	55.2	76.1	(368)
중간지역	12.5	15.8	93.3	91.7	46.7	19.2	50.8	77.5	80.8	82.5	58.3	95.8	65.8	80.8	(120)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12.5	75.0	87.5	0.0	0.0	12.5	50.0	75.0	75.0	62.5	87.5	50.0	62.5	(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7	11.8	91.5	90.5	45.8	25.5	48.7	75.8	78.1	83.7	66.0	94.4	58.8	79.1	(306)
홀벌이	18.4	10.0	91.6	91.1	41.6	17.4	36.3	74.2	71.6	81.6	69.5	91.6	55.8	73.7	(190)
거주지역 특성별															
동	17.7	13.0	91.7	93.9	49.0	23.8	47.6	80.1	75.6	82.8	72.3	96.1	62.9	83.1	(361)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수)
읍	8.8	7.7	92.3	81.3	31.9	22.0	31.9	64.8	78.0	86.8	56.0	87.9	42.9	56.0	(91)
면	11.4	2.3	88.6	84.1	29.5	11.4	38.6	56.8	70.5	75.0	50.0	81.8	45.5	70.5	(44)
자녀 연령별(막내자녀 기준)															
영아	17.9	9.2	88.8	90.8	37.5	15.4	35.4	69.2	65.8	75.0	65.8	93.3	51.7	76.7	(240)
유아	13.3	12.9	94.1	90.6	50.4	28.9	52.0	80.9	84.8	90.2	68.8	93.4	63.3	77.3	(256)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20.4	9.7	88.3	85.4	39.8	17.5	34.0	68.9	67.0	74.8	64.1	91.3	51.5	74.8	(10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1.0	9.6	92.6	91.2	41.2	14.0	33.8	74.3	73.5	83.1	68.4	89.0	59.6	74.3	(136)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7.2	10.7	90.2	89.3	38.5	25.4	45.9	71.3	79.5	81.1	56.6	95.9	53.3	77.0	(122)
500만원 이상	14.8	14.1	94.1	95.6	55.6	31.9	60.0	84.4	80.7	90.4	78.5	97.0	64.4	81.5	(135)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건강가정지원센터, 3) 놀이터, 4) 공원, 5) 박물관, 6) 미술관, 7) 공연시설(음악회, 연극 등), 8) 영화관, 9) 도서관, 10) 사설놀이공간(키즈카페 등), 11) 문화센터(백화점, 대형마트, 지역주민센터 내 등), 12) 소아과병원, 13) 응급의료 시설, 14) 산부인과 병원

주 1) 이용 경험에 있음에 해당되는 비율 제시

2)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또한 각 지역사회 내 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걸리는 이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5(박물관), 6(미술관) 등이 각각 23.8분, 26.2분 등으로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3(놀이터)가 유일하게 5분 내의 위치에 있었으며 그 위는 대부분 10-22분 사이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거주지역 특성별로 살펴보면, 8(영화관), 9(도서관)의 경우도 동지역 보다는 읍지역이 읍지역 보다는 면지역이 거리가 멀었지만, 13(응급의료시설의 경우) 동지역이 16.3분, 읍지역이 19.5분, 면지역이 20.6분으로 지역이 작을수록 이동시간이 길고, 절대적인 소요시간도 길어, 도농복합지역 의료시설의 공급과, 특히 읍면지역의 의료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표 V-23〉 거주 지역사회 내 이용시설까지 이동시간(분)

단위: 분, (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수)
전체	21.5	21.0	5.6	11.6	23.8	26.2	21.1	16.0	13.8	13.6	15.8	12.4	17.1	16.3	(496)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22.4	21.6	5.5	11.7	23.8	26.4	23.1	16.7	14.4	13.6	16.6	12.7	17.8	16.9	(368)
중간지역	17.7	19.5	5.9	11.4	23.9	25.7	15.9	13.8	12.4	13.8	12.6	11.6	15.3	14.5	(120)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	30.0	3.5	5.6	-	-	30.0	18.8	12.0	14.2	23.4	12.4	16.3	16.0	(8)
맞벌이 여부															
맞벌이	21.0	19.7	5.3	11.0	24.0	26.0	20.2	15.0	13.3	13.0	14.9	12.3	16.8	16.4	(306)
홀벌이	22.0	23.4	6.0	12.5	23.4	26.8	23.1	17.6	14.7	14.6	17.3	12.7	17.5	16.0	(190)
거주지역 특성별															
동	21.7	20.6	5.5	11.4	23.6	25.3	20.4	15.0	14.3	13.1	15.0	11.9	16.3	15.2	(361)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수)
읍	20.6	23.6	6.3	12.0	24.7	31.0	21.9	18.8	11.3	14.0	18.3	14.4	19.5	19.7	(91)
면	20.6	20.0	4.7	11.9	24.6	22.0	26.8	20.0	15.0	17.0	20.0	13.5	21.6	20.6	(44)
자녀 연령별(막내자녀 기준)															
영아	20.1	19.8	5.1	11.1	21.5	24.1	20.4	14.8	13.7	13.7	14.7	12.3	17.1	15.9	(240)
유아	23.3	21.8	6.0	12.0	25.4	27.3	21.6	17.0	13.9	13.6	16.9	12.6	17.1	16.6	(256)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22.8	22.5	7.4	15.7	23.9	25.8	25.0	19.0	17.1	16.1	19.0	13.8	17.4	16.3	(10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9.9	24.2	5.7	10.8	24.1	21.1	19.4	15.9	13.0	13.7	15.3	12.0	17.2	17.0	(136)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1.2	22.7	5.4	11.3	21.6	27.7	21.5	15.6	12.8	13.1	15.4	13.0	17.5	17.0	(122)
500만원 이상	21.7	16.8	4.3	9.7	25.0	27.6	20.1	14.5	13.4	12.4	14.6	11.4	16.5	14.8	(135)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건강가정지원센터, 3) 놀이터, 4) 공원, 5) 박물관, 6) 미술관, 7) 공연시설(음악회, 연극 등), 8) 영화관, 9) 도서관, 10) 사설놀이공간(키즈카페 등), 11) 문화센터(백화점, 대형마트, 지역주민센터 내 등), 12) 소아과병원, 13) 응급의료시설, 14) 산부인과 병원
 주 1) 이동시간 평균(분)을 제시함,
 2)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지역사회 내 이용시설 이용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3.20에서 3.78로 나타났는데, 도서관 이용 만족도가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3.2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면담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V-24〉 거주 지역사회 내 이용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1) 육아종합지원센터	0.0	7.8	50.6	35.1	6.5	100.0(77)	3.40
2) 건강가정지원센터	0.0	3.6	49.1	43.6	3.6	100.0(55)	3.47
3) 놀이터	0.9	9.7	41.4	44.1	4.0	100.0(454)	3.41
4) 공원	0.0	6.4	32.9	52.7	8.0	100.0(450)	3.62
5) 박물관	0.0	5.5	42.9	47.0	4.6	100.0(219)	3.51
6) 미술관	0.0	5.4	40.5	47.7	6.3	100.0(111)	3.55
7) 공연시설(음악회, 연극 등)	0.5	8.3	43.1	44.5	3.7	100.0(218)	3.43
8) 영화관	0.5	5.4	29.0	58.2	7.0	100.0(373)	3.66
9) 도서관	0.0	4.0	26.9	56.3	12.8	100.0(375)	3.78
10) 사설놀이공간(키즈카페 등)	1.0	5.6	38.0	50.9	4.6	100.0(411)	3.53
11) 문화센터(백화점, 대형마트, 지역주민센터 내 등)	0.3	5.7	31.1	56.9	6.0	100.0(334)	3.63
12) 소아과 병원	1.1	9.3	36.5	47.7	5.4	100.0(463)	3.47
13) 응급 의료 시설	3.1	15.4	42.7	35.7	3.1	100.0(286)	3.20
14) 산부인과 병원	1.0	7.9	44.8	41.9	4.5	100.0(382)	3.41

주: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나. 아이돌보미와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돌봄 사업 인지 및 이용 경험을 묻은 결과, ‘알고 있지만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64.8%로 가장 높았다. 도시지역의 경우 잘 모르는 경우가 높았으며, 중간 지역 거주 응답자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과거 이용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가구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하거나 과거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물었을 때는 3.59점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보다는 영아 부모가, 다른 소득계층보다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V-25〉 건강가정지원센터(정부지원기관)의 돌봄 사업 인지 및 이용 경험(아이 돌보미)

단위: %, 점, (명)

구분	현재 이용	과거 이용 경험 있음	알지만 이용 경험 없음	잘 모름	계(수)	이용자 만족도 평균	계(수)
전체	3.4	10.6	64.8	21.2	100.0(500)	3.59	100.0(70)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3.0	9.4	64.2	23.4	100.0(372)	3.52	100.0(46)
중간지역	5.0	12.5	68.3	14.2	100.0(120)	3.71	100.0(21)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37.5	37.5	25.0	100.0(8)	3.67	100.0(3)
$\chi^2(df)/F$	12.621(6)*					0.3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4.2	14.3	64.8	16.6	100.0(307)	3.58	100.0(57)
홀벌이	2.1	4.7	64.8	28.5	100.0(193)	3.62	100.0(13)
$\chi^2(df)/t$	19.977(3)*					-0.134	
거주지역 특성별							
동	3.6	11.5	64.0	20.9	100.0(364)	3.58	100.0(55)
읍	3.3	6.6	65.9	24.2	100.0(91)	3.67	100.0(9)
면	2.2	11.1	68.9	17.8	100.0(45)	3.50	100.0(6)
$\chi^2(df)/F$	2.725(6)					0.066	
자녀 연령별(막내자녀 기준)							
영아	4.5	9.1	61.7	24.7	100.0(243)	3.73	100.0(33)
유아	2.3	12.1	67.7	17.9	100.0(257)	3.46	100.0(37)
$\chi^2(df)/t$	6.239(3)					1.282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1.9	8.6	63.8	25.7	100.0(105)	3.55	100.0(11)
300만원이상~400만원 미만	1.5	8.8	62.8	27.0	100.0(137)	3.21	100.0(14)
4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	5.7	10.7	66.4	17.2	100.0(122)	3.55	100.0(20)
500만원 이상	4.4	14.0	66.2	15.4	100.0(136)	3.84	100.0(25)
$\chi^2(df)/F$	13.302(9)					1.600	

주: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 $p < 0.05$.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이용 경험과 이용자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해보았거나 이용 경험이 있는 가구는 3.2%에 지나지 않았고, 알지만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가 47.0%, 잘 모르는 경우가 49.8%로 나타났다. 만족도도 3.44 정도로 보통 정도로 나타났고, 도시지역보다는 중간지역이 만족도가 비교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6〉 건강가정지원센터(정부지원기관)의 돌봄 사업 인지 및 이용 경험(공동육아나눔터)

단위: %, 점, (명)

구분	현재 이용	과거 이용 경험 있음	알지만 이용 경험 없음	잘 모름	계(수)	이용자 만족도 평균	계(수)
전체	0.8	2.4	47.0	49.8	100.0(500)	3.44	100.0(16)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0.5	2.2	48.1	49.2	100.0(372)	3.30	100.0(10)
중간지역	1.7	2.5	45.8	50.0	100.0(120)	3.80	100.0(5)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12.5	12.5	75.0	100.0(8)	3.00	100.0(1)
$\chi^2(df)$	8.221(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	2.9	50.5	45.6	100.0(307)	3.42	100.0(12)
홀벌이	0.5	1.6	41.5	56.5	100.0(193)	3.50	100.0(14)
$\chi^2(df)$	6.122(3)						
거주지역 특성별							
동	0.8	3.0	46.4	49.7	100.0(364)	3.43	100.0(14)
읍	1.1	0.0	51.6	47.3	100.0(91)	4.00	100.0(1)
면	0.0	2.2	42.2	55.6	100.0(45)	3.00	100.0(1)
$\chi^2(df)$	4.321(6)						
자녀 연령별(막내자녀 기준)							
영아	0.8	1.6	42.0	55.6	100.0(243)	3.83	100.0(6)
유아	0.8	3.1	51.8	44.4	100.0(257)	3.20	100.0(10)
$\chi^2(df)$	6.807(3)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0.0	1.0	42.9	56.2	100.0(105)	3.00	100.0(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0.0	2.9	40.9	56.2	100.0(137)	3.00	100.0(1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5	3.3	45.9	48.4	100.0(122)	3.71	100.0(17)
500만원 이상	0.7	2.2	57.4	39.7	100.0(136)	3.50	100.0(4)
$\chi^2(df)$	17.057(9)*						

주: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 $p < 0.05$.

다. 영유아 문화프로그램 이용

영유아 자녀가 지난 1년간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여부를 물었을 때, 박물관, 미술관, 전시회의 경우 1년에 1-2회 관람한 경우가 47.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공연의 경우 1년에

1-2회 관람이 41%, 1년에 3-4회 관람이 10.4%로 나타났다. 영화의 경우에는 5회 이상 관람도 11.6%로 나타나 많은 비율이 영화관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험학습의 경우 40.0%가 1년에 1-2번은 이용한다고 나타났다.

〈표 V-27〉 지난 1년간 영유아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의 이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이용한 적 없다	1년에 1~2회 관람	1년에 3~4회 관람	5회 이상 관람	계(수)
박물관/미술관/전시회	42.0	47.6	8.0	2.4	100.0(500)
공연(연극/뮤지컬/음악회)	45.8	41.0	10.4	2.8	100.0(500)
영화	34.8	38.0	15.6	11.6	100.0(500)
체험프로그램(숲, 도자기 등)	44.6	40.0	8.4	7.0	100.0(500)

문화프로그램 이용 장소는 영화의 경우 82.2%가 해당 시에서 이용한다고 하였으나, 체험 프로그램 및 공연의 경우 각각 28.5%, 26.6%가 인근 타도시, 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의 경우는 타도시에 이용 하는 비율도 15.2%, 12.3%로 꽤 높게 나타났다.

〈표 V-28〉 지난 1년간 영유아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이용 장소

단위: %, (명)

구분	해당 시	인근 타도시	타도시	계(수)
박물관/미술관/전시회	51.4	33.4	15.2	100.0(290)
공연(연극/뮤지컬/음악회)	64.2	26.6	9.2	100.0(271)
영화	82.2	16.3	1.5	100.0(326)
체험프로그램(숲, 도자기 등)	59.2	28.5	12.3	100.0(277)

주: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영유아 자녀를 위해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어려운 점을 각각의 문화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살펴보았는데, 박물관/미술관/전시회, 공연,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는 이용가능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34.8%, 31.0%,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화의 경우만 시간부족이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정보부족으로 답한 경우가 좀 있었으며, 공연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라고 답한 경우가 다른 종류의 문화프로그램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도농지역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의 접근성은 다른 영역의 문화시설보다 좋으나, 다른 종류의 문화프로그램의 경우 시설부족이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V-29〉 지난 1년간 영유아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이용 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구분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불편	이용 가능한 행사/시설 부족	정보 부족	기타	계(수)
박물관/미술관/전시회	9.3	25.5	13.1	34.8	14.8	2.4	100.0(290)
공연(연극/뮤지컬/음악회)	19.6	23.2	9.6	31.0	14.8	1.8	100.0(271)
영화	14.1	45.1	8.0	19.9	7.7	5.2	100.0(326)
체험프로그램(숲, 도자기 등)	11.6	26.7	10.8	32.5	17.0	1.4	100.0(277)

주: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5 보육·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지원 인프라 확대 측면에서 필요성을 7점 척도로 물어보았는데,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확대가 5.68, 영유아 가구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확대가 5.65의 순위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육아지원 인프라 확대 정책 필요성이 5.48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V-30〉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단위: %, (명), 점/7점

구분	필요성 매우 낮음	필요성 낮음	필요성 조금 낮음	보통	필요성 조금 높음	필요성 높음	필요성 매우 높음	계(수)	평균
1) 육아지원 인프라 확대 정책 필요성	0.2	1.0	3.4	20.6	26.2	17.8	30.8	100.0 (500)	5.48
2) 영유아 가구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0.4	1.0	6.6	13.6	20.4	19.6	38.4	100.0 (500)	5.65
3)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 제고	0.2	0.6	5.6	16.4	19.0	23.2	35.0	100.0 (500)	5.63
4) 가정 양육 지원 확대	0.4	1.0	5.6	17.4	22.2	22.4	31.0	100.0 (500)	5.51
5) 보육, 교육, 육아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0.6	1.2	5.8	16.2	22.6	21.0	32.6	100.0 (500)	5.52
6)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0.6	2.0	6.8	14.8	14.0	19.2	42.6	100.0 (500)	5.68
7)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	1.6	1.4	6.4	15.0	15.8	17.6	42.2	100.0 (500)	5.64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지원 인프라 확대 필요성에 대한 필요성을 물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읍지역이 동지역, 면지역보다는 더 높은 필요성을 요구하였다. 또한 유아보다 영아가 높은 수준의 인프라 확대를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31〉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지원 인프라 확대 정책 필요성

단위: %, (명), 점

구분	필요성 매우 낮음	필요성 낮음	필요성 조금 낮음	보통	필요성 조금 높음	필요성 높음	필요성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0.2	1.0	3.4	20.6	26.2	17.8	30.8	100.0(500)	5.48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0.3	1.3	3.0	21.2	24.5	17.7	32.0	100.0(372)	5.49
중간지역	0.0	0.0	5.0	18.3	32.5	16.7	27.5	100.0(120)	5.43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0.0	0.0	25.0	12.5	37.5	25.0	100.0(8)	5.63
$\chi^2(df)/F$	9.236(12)								0.154
맞벌이 여부									
맞벌이	0.0	0.7	3.9	21.2	26.7	16.9	30.6	100.0(307)	5.47
홀벌이	0.5	1.6	2.6	19.7	25.4	19.2	31.1	100.0(193)	5.50
$\chi^2(df)/t$	3.708(6)								-0.213
거주지역 특성별									
동	0.3	1.1	3.8	21.4	27.2	18.1	28.0	100.0(364)	5.41
읍	0.0	0.0	2.2	16.5	22.0	20.9	38.5	100.0(91)	5.77
면	0.0	2.2	2.2	22.2	26.7	8.9	37.8	100.0(45)	5.51
$\chi^2(df)/F$	10.336(12)								2.946
자녀 연령별(막내자녀 기준)									
영아	0.4	1.2	3.3	17.3	25.5	17.3	35.0	100.0(243)	5.58
유아	0.0	0.8	3.5	23.7	26.8	18.3	26.8	100.0(257)	5.39
$\chi^2(df)/t$	6.694(6)								1.669
월소득별									
300만원미만	1.0	0.0	2.9	19.0	21.9	19.0	36.2	100.0(105)	5.63
300만원이상~400만원 미만	0.0	2.2	3.6	21.2	28.5	16.1	28.5	100.0(137)	5.38
4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	0.0	0.8	3.3	25.4	25.4	20.5	24.6	100.0(122)	5.35
500만원이상	0.0	0.7	3.7	16.9	27.9	16.2	34.6	100.0(136)	5.59
$\chi^2(df)/F$	15.052(18)								1.479

영유아 가구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7점 만점에 5.65점으로 필요성을 응답하였으며, 맞벌이 보다(5.78)는 홀벌이 가구(5.97)가, 동(5.59), 면(5.60)지역 보다는 읍(5.91) 지역에서 양육비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요구가 높았다.

〈표 V-32〉 영유아 가구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

단위: %, (명), 점

구분	필요성 매우 낮음	필요성 낮음	필요성 조금 낮음	보통	필요성 조금 높음	필요성 높음	필요성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0.4	1.0	6.6	13.6	20.4	19.6	38.4	100.0(500)	5.65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0.5	1.3	6.5	13.4	19.6	19.4	39.2	100.0(372)	5.65
중간지역	0.0	0.0	6.7	14.2	23.3	20.8	35.0	100.0(120)	5.63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0.0	12.5	12.5	12.5	12.5	50.0	100.0(8)	5.75
$\chi^2(df)/F$	n/a								0.031
맞벌이 여부									
맞벌이	0.3	1.0	7.5	15.0	20.5	20.5	35.2	100.0(307)	5.57
홀벌이	0.5	1.0	5.2	11.4	20.2	18.1	43.5	100.0(193)	5.78
$\chi^2(df)/t$	n/a								-1.721
거주지역 특성별									
동	0.5	0.8	7.7	13.7	21.4	18.7	37.1	100.0(364)	5.59
읍	0.0	1.1	4.4	9.9	15.4	25.3	44.0	100.0(91)	5.91
면	0.0	2.2	2.2	20.0	22.2	15.6	37.8	100.0(45)	5.60
$\chi^2(df)/F$	n/a								2.056
자녀 연령별(막내자녀 기준)									
영아	0.8	0.8	5.8	13.6	15.6	20.2	43.2	100.0(243)	5.76
유아	0.0	1.2	7.4	13.6	24.9	19.1	33.9	100.0(257)	5.55
$\chi^2(df)/t$	n/a								1.709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1.0	0.0	4.8	10.5	17.1	19.0	47.6	100.0(105)	5.9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0.0	1.5	6.6	16.8	15.3	25.5	34.3	100.0(137)	5.6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0.8	0.8	7.4	14.8	23.8	18.9	33.6	100.0(122)	5.51
500만원 이상	0.0	1.5	7.4	11.8	25.0	14.7	39.7	100.0(136)	5.63
$\chi^2(df)/F$	n/a								1.734

주: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영유아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 제고에 있어서는 5.63점으로 필요성을 응답하였고, 그룹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아 자녀를 둔 경우가 유아 자녀 가구보다 질 제고에 있어 더 높은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V-33〉 영유아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 제고 정책의 필요성

단위: %, (명), 점

구분	필요성 매우 낮음	필요성 낮음	필요성 조금 낮음	보통	필요성 조금 높음	필요성 높음	필요성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0.2	0.6	5.6	16.4	19.0	23.2	35.0	100.0(500)	5.63
지역구분별									

구분	필요성 매우 낮음	필요성 낮음	필요성 조금 낮음	보통	필요성 조금 높음	필요성 높음	필요성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완연한 도시지역	0.3	0.8	5.1	16.4	18.5	22.3	36.6	100.0(372)	5.65
중간지역	0.0	0.0	6.7	17.5	19.2	25.8	30.8	100.0(120)	5.57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0.0	12.5	0.0	37.5	25.0	25.0	100.0(8)	5.50
$\chi^2(df)/F$	6.923(12)								0.238
맞벌이 여부									
맞벌이	0.0	0.7	5.2	18.2	18.9	22.1	34.9	100.0(307)	5.61
홀벌이	0.5	0.5	6.2	13.5	19.2	24.9	35.2	100.0(193)	5.66
$\chi^2(df)/t$	3.871(6)								-0.379
거주지역 특성별									
동	0.3	0.3	6.9	15.7	19.0	22.8	35.2	100.0(364)	5.62
읍	0.0	1.1	2.2	19.8	17.6	24.2	35.2	100.0(91)	5.67
면	0.0	2.2	2.2	15.6	22.2	24.4	33.3	100.0(45)	5.64
$\chi^2(df)/F$	8.459(12)								0.061
자녀 연령별(막내자녀 기준)									
영아	0.4	0.4	4.9	15.6	16.5	23.5	38.7	100.0(243)	5.72
유아	0.0	0.8	6.2	17.1	21.4	23.0	31.5	100.0(257)	5.54
$\chi^2(df)/t$	5.325(6)								1.569
월소득별									
300만원미만	1.0	0.0	2.9	20.0	11.4	24.8	40.0	100.0(105)	5.75
300만원이상~400만원 미만	0.0	1.5	8.0	10.9	27.0	24.1	28.5	100.0(137)	5.50
4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	0.0	0.0	6.6	19.7	18.0	23.0	32.8	100.0(122)	5.56
500만원이상	0.0	0.7	4.4	16.2	17.6	21.3	39.7	100.0(136)	5.74
$\chi^2(df)/F$	26.164(18)								1.203

가정 양육 지원 확대 필요성은 7점 만점에 5.51 정도의 필요성을 나타내었고, 그룹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가정양육 비율이 높은 영아 가구(5.61)가 유아 가구(5.42)보다 더 높은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4〉 가정 양육 지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

단위: %, (명), 점/7점

구분	필요성 매우 낮음	필요성 낮음	필요성 조금 낮음	보통	필요성 조금 높음	필요성 높음	필요성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0.4	1.0	5.6	17.4	22.2	22.4	31.0	100.0(500)	5.51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0.5	1.1	6.5	15.6	21.5	23.7	31.2	100.0(372)	5.52
중간지역	0.0	0.8	2.5	21.7	25.0	20.0	30.0	100.0(120)	5.51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0.0	12.5	37.5	12.5	0.0	37.5	100.0(8)	5.13
$\chi^2(df)/F$	11.214(12)								0.350

구분	필요성 매우 낮음	필요성 낮음	필요성 조금 낮음	보통	필요성 조금 높음	필요성 높음	필요성 매우 높음	계(수)	평균
맞벌이 여부									
맞벌이	0.3	1.3	5.5	16.9	23.8	21.2	30.9	100.0(307)	5.50
홀벌이	0.5	0.5	5.7	18.1	19.7	24.4	31.1	100.0(193)	5.53
$\chi^2(df)/t$	2.371(6)								-0.290
거주지역 특성별									
동	0.3	1.1	6.0	15.9	23.9	23.6	29.1	100.0(364)	5.49
읍	1.1	0.0	5.5	20.9	15.4	20.9	36.3	100.0(91)	5.57
면	0.0	2.2	2.2	22.2	22.2	15.6	35.6	100.0(45)	5.53
$\chi^2(df)/F$	10.970(12)								0.129
자녀 연령별(막내자녀 기준)									
영아	0.4	1.2	4.9	16.5	19.3	22.6	35.0	100.0(243)	5.61
유아	0.4	0.8	6.2	18.3	24.9	22.2	27.2	100.0(257)	5.42
$\chi^2(df)/t$	5.038(6)								1.594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1.0	1.0	4.8	19.0	13.3	22.9	38.1	100.0(105)	5.6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0.7	0.7	5.8	13.1	29.9	23.4	26.3	100.0(137)	5.46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0.0	0.8	4.9	21.3	20.5	24.6	27.9	100.0(122)	5.47
500만원 이상	0.0	1.5	6.6	16.9	22.8	19.1	33.1	100.0(136)	5.51
$\chi^2(df)/F$	17.667(18)								0.433

보육, 교육, 육아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정책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7만점에 5.52의 필요성을 나타내었으며, 그룹별로 동, 면지역보다는 읍지역, 유아 가구 보다는 영아 가구, 고소득 보다는 저소득 가구에서 정책의 필요성을 더 높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V-35〉 보육, 교육, 육아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정책의 필요성

단위: %(명, 점/7점)

구분	필요성 매우 낮음	필요성 낮음	필요성 조금 낮음	보통	필요성 조금 높음	필요성 높음	필요성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0.6	1.2	5.8	16.2	22.6	21.0	32.6	100.0(500)	5.52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0.8	1.1	6.2	15.6	22.8	20.7	32.8	100.0(372)	5.52
중간지역	0.0	1.7	4.2	18.3	22.5	21.7	31.7	100.0(120)	5.53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0.0	12.5	12.5	12.5	25.0	37.5	100.0(8)	5.63
$\chi^2(df)/F$	3.719(12)								0.028
맞벌이 여부									
맞벌이	0.7	1.3	5.5	16.0	22.1	22.5	31.9	100.0(307)	5.53

구분	필요성 매우 낮음	필요성 낮음	필요성 조금 낮음	보통	필요성 조금 높음	필요성 높음	필요성 매우 높음	계(수)	평균
홀별이	0.5	1.0	6.2	16.6	23.3	18.7	33.7	100.0(193)	5.52
$\chi^2(df)/t$	1.236(6)								0.077
거주지역 특성별									
동	0.3	1.6	5.5	15.4	25.0	22.0	30.2	100.0(364)	5.50
읍	1.1	0.0	6.6	16.5	16.5	18.7	40.7	100.0(91)	5.66
면	2.2	0.0	6.7	22.2	15.6	17.8	35.6	100.0(45)	5.44
$\chi^2(df)/F$	13.221(12)								0.586
자녀 연령별(막내자녀 기준)									
영아	0.8	0.8	3.7	17.7	18.5	24.7	33.7	100.0(243)	5.61
유아	0.4	1.6	7.8	14.8	26.5	17.5	31.5	100.0(257)	5.44
$\chi^2(df)/t$	11.929(6)								1.430
월소득별									
300만원미만	1.0	1.0	5.7	15.2	20.0	20.0	37.1	100.0(105)	5.61
300만원이상~400만원 미만	0.7	2.2	3.6	16.8	24.8	21.9	29.9	100.0(137)	5.48
400만원이상~500만원 미만	0.0	0.8	9.0	18.0	23.0	22.1	27.0	100.0(122)	5.38
500만원이상	0.7	0.7	5.1	14.7	22.1	19.9	36.8	100.0(136)	5.63
$\chi^2(df)/F$	10.233(18)								0.949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서는 5.68로 가장 높은 필요성을 나타냈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그룹에서 높은 필요성을 나타냈으나, 상대적으로 홀별이 가구 보다는 맞벌이 가구가, 동, 면지역보다는 읍지역에서, 유아 가구보다는 영아 가구에서 높은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부모의 일-가정양립 지원에 있어서는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서(5.70) 두 번째로 높은 필요성을 나타냈고,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5.86)에서 그보다도 더 높은 필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뿐만 아니라 고소득 가구에서도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일-가정 양립 지원확대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36〉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

단위: %, (명), 점/7점

구분	필요성 매우 낮음	필요성 낮음	필요성 조금 낮음	보통	필요성 조금 높음	필요성 높음	필요성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0.6	2.0	6.8	14.8	14.0	19.2	42.6	100.0(500)	5.68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0.8	2.4	5.9	15.1	14.0	16.9	44.9	100.0(372)	5.69
중간지역	0.0	0.8	10.0	12.5	15.0	26.7	35.0	100.0(120)	5.62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0.0	0.0	37.5	0.0	12.5	50.0	100.0(8)	5.75

구분	필요성 매우 낮음	필요성 낮음	필요성 조금 낮음	보통	필요성 조금 높음	필요성 높음	필요성 매우 높음	계(수)	평균
$\chi^2(df)/F$	16.407(12)								0.135
맞벌이 여부									
맞벌이	0.7	1.3	7.8	14.3	11.4	19.9	44.6	100.0(307)	5.73
홀벌이	0.5	3.1	5.2	15.5	18.1	18.1	39.4	100.0(193)	5.60
$\chi^2(df)/t$	8.086(6)								0.971
거주지역 특성별									
동	0.3	2.2	8.0	13.5	15.4	19.8	40.9	100.0(364)	5.65
읍	1.1	2.2	3.3	16.5	9.9	16.5	50.5	100.0(91)	5.84
면	2.2	0.0	4.4	22.2	11.1	20.0	40.0	100.0(45)	5.60
$\chi^2(df)/F$	12.962(12)								0.677
자녀 연령별(막내자녀 기준)									
영아	0.8	2.5	4.5	15.2	12.8	18.5	45.7	100.0(243)	5.75
유아	0.4	1.6	8.9	14.4	15.2	19.8	39.7	100.0(257)	5.61
$\chi^2(df)/t$	6.251(6)								1.085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1.0	3.8	1.9	19.0	13.3	14.3	46.7	100.0(105)	5.7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0.7	2.2	8.0	13.1	21.2	19.7	35.0	100.0(137)	5.51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0.0	0.8	10.7	14.8	12.3	20.5	41.0	100.0(122)	5.64
500만원 이상	0.7	1.5	5.9	13.2	8.8	21.3	48.5	100.0(136)	5.86
$\chi^2(df)/F$	25.541(18)								1.336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 또한 7점 만점에 5.64점으로 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도 위에서 논의한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지원 필요성의 패턴과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동, 면지역보다는 읍지역에서, 유아보다는 영아 가구에서, 다른 소득기준보다 300만원 이하의 저소득과 500만원 이하의 고소득 가구에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이 영역에 있어서는 맞벌이 가구와 홀벌이 가구 사이에는 필요성 점수에는 차이가 거의 없어 배우자의 양육참여는 맞벌이, 홀벌이에 상관없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배우자가 없어 제3의 양육자가 없는 가구에 대한 양육지원도 고려가 필요하다.

〈표 V-37〉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

단위: %, (명), 점/7점

구분	필요성 매우 낮음	필요성 낮음	필요성 조금 낮음	보통	필요성 조금 높음	필요성 높음	필요성 매우 높음	계(수)	평균
전체	1.6	1.4	6.4	15.0	15.8	17.6	42.2	100.0(500)	5.64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1.3	1.9	5.6	15.9	15.3	16.1	43.8	100.0(372)	5.66
중간지역	2.5	0.0	9.2	12.5	16.7	21.7	37.5	100.0(120)	5.56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0.0	0.0	12.5	25.0	25.0	37.5	100.0(8)	5.88
$\chi^2(df)/F$	9.565(12)								0.294
맞벌이 여부									
맞벌이	1.6	1.6	7.5	15.6	14.0	16.9	42.7	100.0(307)	5.60
홀벌이	1.6	1.0	4.7	14.0	18.7	18.7	41.5	100.0(193)	5.69
$\chi^2(df)/t$	3.855(6)								-0.627
거주지역 특성별									
동	1.6	1.4	8.2	14.3	17.0	16.8	40.7	100.0(364)	5.57
읍	1.1	2.2	0.0	17.6	11.0	18.7	49.5	100.0(91)	5.89
면	2.2	0.0	4.4	15.6	15.6	22.2	40.0	100.0(45)	5.69
$\chi^2(df)/F$	13.691(12)								1.734
자녀 연령별(막내자녀 기준)									
영아	1.2	0.8	5.3	14.4	14.0	17.7	46.5	100.0(243)	5.78
유아	1.9	1.9	7.4	15.6	17.5	17.5	38.1	100.0(257)	5.50
$\chi^2(df)/t$	5.500(6)								2.121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1.9	1.9	2.9	15.2	16.2	15.2	46.7	100.0(105)	5.7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9	1.5	7.3	11.7	19.0	21.9	35.8	100.0(137)	5.51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0.8	0.8	9.0	16.4	18.0	15.6	39.3	100.0(122)	5.54
500만원 이상	0.7	1.5	5.9	16.9	10.3	16.9	47.8	100.0(136)	5.76
$\chi^2(df)/F$	17.296(18)								0.991

6 양육에 대한 지역 특색

가. 육아지원 관련 요구

지역에서 자녀 양육 시 어려움 정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야간 이용 가능한 자녀돌봄 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비율이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의 놀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 부족이 60.0%, 문화시설의 부족이 55.2%,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인프라 부족이 54.8% 순이었다.

지역구분별로 살펴보면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의 경우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인프라 부족, 야간시간 이용 가능한 자녀돌봄 시설, 소아전문 의료시설 등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모두 75.0%로 높게 나타났다. 중간지역도 자녀 놀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 부족이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인프라 부족, 야간시간 이용 가능한 자녀돌봄 시설 부족, 소아전문 의료시설 부족하다는 응답이 60%가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 특성별로 보면 읍지역이 야간시간 이용 가능한 자녀돌봄 시설 부족, 자녀 놀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 부족 등이 각각 72.6%, 67.1%로 읍면지역보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300만원 미만 가구에서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인프라 부족과 소아전문 의료시설 부족이 각각 60.9%, 58.1%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8〉 지역에서 자녀 양육 시, 어려움 정도-①

단위: %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양적 부족	어린이집, 유치원의 낮은 질적 수준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인프라 부족	문화시설의 부족	자녀 놀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 부족
전체	41.2	40.6	54.8	55.2	60.0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44.4	40.9	51.4	54.1	57.2
중간지역	30.8	41.7	64.2	60.0	68.4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50.0	12.5	75.0	37.5	6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9.8	38.1	51.8	54.4	59.3
홀벌이	43.5	44.6	59.6	56.5	61.1
거주지역 특성별					
동	41.5	43.1	52.5	52.5	58.5
읍	37.4	36.3	61.6	67.1	69.3
면	46.7	28.9	60.0	53.3	53.4
자녀 연령별(막내자녀 기준)					
영아	47.7	44.8	57.6	53.1	56.8
유아	35	36.5	52.2	57.2	63.1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40	48.6	60.9	60.9	62.8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5.2	39.4	53.3	54.7	58.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8.5	36.9	52.5	57.4	61.5
500만원 이상	40.4	39	53.6	49.2	58

주: 표에 제시한 비율은 '그려함'과 '매우 그려함'을 합한 비율임.

〈표 V-39〉 지역에서 자녀 양육 시, 어려움 정도-②

단위: %, (명)

구분	방문교육 (학습지 등) 수혜의 어려움	야간시간 이용 가능한 자녀돌봄 시설 부족	소아전문 의료시설 부족	계(수)
전체	29.8	65.2	50.8	100.0(500)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27.1	64.0	47.1	100.0(372)
중간지역	38.3	68.4	60.8	100.0(120)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25.0	75.0	75.0	100.0(8)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7	68.7	51.4	100.0(307)
홀벌이	31.6	59.6	49.8	100.0(193)
거주지역 특성별				
동	27.7	64.1	47.0	100.0(364)
읍	35.2	72.6	61.6	100.0(91)
면	35.5	60.0	60.0	100.0(45)
자녀 연령별(막내자녀 기준)				
영아	27.6	66.2	49.4	100.0(243)
유아	31.9	64.2	52.2	100.0(257)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40.0	65.7	58.1	100.0(10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8.4	62.0	48.2	100.0(13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7.9	64.8	50.8	100.0(122)
500만원 이상	25.0	68.4	47.8	100.0(136)

도농복합지역 양육환경 개선에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1순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기존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영유아를 위한 놀이시설, 체험시설 등 공간 확충이 19.0%,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이 11.0% 순이었다.

지역구분별로 살펴보면 완연한 도시지역과 중간지역은 기존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4.5%,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은 영유아를 위한 놀이시설, 체험시설 등 공간 확충과 부모를 위한 공간(정보나눔터, 문화센터, 쇼핑센터 등)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 특성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으며 월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40〉 도농복합지역 양육환경 개선에 가장 필요한 것-1순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계(수)
전체	10.6	7.8	24.2	11.0	7.2	19.0	3.4	8.4	7.4	1.0	100.0(500)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11.8	8.1	24.5	10.8	7.3	18.8	2.7	8.9	5.9	1.3	100.0(372)
중간지역	6.7	6.7	24.2	12.5	7.5	19.2	4.2	6.7	12.5	0.0	100.0(120)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12.5	12.5	12.5	0.0	0.0	25.0	25.0	12.5	0.0	0.0	100.0(8)
$\chi^2(df)$	n/a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7	7.8	23.5	11.7	8.5	21.2	2.3	6.5	7.2	0.7	100.0(307)
홀벌이	10.4	7.8	25.4	9.8	5.2	15.5	5.2	11.4	7.8	1.6	100.0(193)
$\chi^2(df)$	11.661(9)										
거주지역 특성별											
동	11.0	7.7	25.5	10.7	7.1	19.5	2.5	9.1	6.3	0.5	100.0(364)
읍	9.9	7.7	18.7	11.0	6.6	19.8	5.5	8.8	9.9	2.2	100.0(91)
면	8.9	8.9	24.4	13.3	8.9	13.3	6.7	2.2	11.1	2.2	100.0(45)
$\chi^2(df)$	n/a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10.5	4.8	25.7	9.5	3.8	20.0	7.6	8.6	8.6	1.0	100.0(10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9.5	8.8	24.1	10.9	10.9	18.2	2.9	5.8	8.0	0.7	100.0(13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2.3	9.8	17.2	13.1	3.3	23.8	0.0	9.8	8.2	2.5	100.0(122)
500만원 이상	10.3	7.4	29.4	10.3	9.6	14.7	3.7	9.6	5.1	0.0	100.0(136)
$\chi^2(df)$	35.052(27)										

1) 어린이집 확충 2) 유치원 확충 3)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 4)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충 5) 가정으로 파견하는 육아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등) 확충 6) 영유아를 위한 놀이시설, 체험시설 등 공간 확충 7) 부모를 위한 공간(정보나눔터, 문화센터, 쇼핑센터 등) 확충 8)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 9) 소아 전문 의료시설 확충 10) 기타

주: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도농복합지역 양육환경 개선에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1순위, 2순위를 통합한 결과를 살펴보면 영유아를 위한 놀이시설, 체험시설 등 공간 확충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 질적 향상이 35.4%,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 23.8%,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이 23.2% 순으로 나타났다.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의 경우 영유아를 위한 놀이시설, 체험시설 등 공간 확충, 부모를 위한 공간(정보나눔터, 문화센터, 쇼핑센터) 등 확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0%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 특성별로 살펴보면 면지역이 영유아를 위한 놀이시설, 체험시설 등 공간 확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7%로, 소아전문 의료시설 확충이 26.7%로 동, 읍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구분별로 살펴보면 3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응답한 비율이 26.7%, 소아전문 의료시설 확충이 25.7%로 소득이 수준이 낮을수록 소아전문 의료시설에 대한 요구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1〉 도농복합지역 양육환경 개선에 가장 필요한 것 - 1+2순위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수)
전체	13.0	14.2	35.4	23.2	17.8	38.8	13.0	23.8	19.4	1.4	(500)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14.5	14.8	36.6	23.1	17.2	38.4	13.2	24.5	15.9	1.9	(372)
중간지역	8.3	12.5	33.3	23.3	20.8	39.2	10.0	20.8	31.7	0.0	(120)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12.5	12.5	12.5	25.0	0.0	50.0	50.0	37.5	0.0	0.0	(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0	14.0	32.6	25.7	21.5	39.4	11.1	23.1	18.6	1.0	(307)
홀벌이	13.0	14.5	39.9	19.2	11.9	37.8	16.1	24.9	20.7	2.1	(193)
거주지역 특성별											
동	14.0	13.7	37.6	22.5	18.1	37.4	13.2	25.0	17.3	1.1	(364)
읍	9.9	16.5	28.6	26.4	13.2	40.7	14.3	24.2	24.2	2.2	(91)
면	11.1	13.3	31.1	22.2	24.4	46.7	8.9	13.3	26.7	2.2	(45)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11.4	8.6	38.1	21.0	8.6	42.9	16.2	26.7	25.7	1.0	(10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2.4	16.1	32.1	25.5	20.4	38.0	15.3	21.2	18.2	0.7	(13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4.8	18.9	32.0	18.9	18.0	44.3	10.7	23.0	15.6	4.1	(122)
500만원 이상	13.2	12.5	39.7	26.5	22.1	31.6	10.3	25.0	19.1	0.0	(136)

1) 어린이집 확충, 2) 유치원 확충, 3)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 4)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충, 5) 가정으로 파견하는 육아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등) 확충, 6) 영유아를 위한 놀이시설, 체험시설 등 공간 확충, 7) 부모를 위한 공간(정보나눔터, 문화센터, 쇼핑센터 등) 확충, 8)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 9) 소아전문 의료시설 확충, 10) 기타

나. 거주 지역의 특색에 대한 인식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정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본인 혹은 배우자 직장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본 지역 출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2%, 원가족 근처에 거주하기 위해가 7.0% 순으로 나타났다.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의 경우 거주비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0%로 다른 지역보다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지역의 경우 본지역 출신인 비율이 31.3%로 읍이나 면지역 보다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면지역의 본인 혹은 배우자 직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6%로 동이나 읍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42〉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정착하게 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본지역 출신임	본인 혹은 배우자 직장	자녀 교육 및 보육	주거 환경	거주 비용	교통	원가족 근처에 거주 위해	기타	계(수)
전체	27.2	49.4	3.6	6.6	5.4	0.6	7.0	0.2	100.0(500)
지역구분별									
완전한 도시지역	23.7	50.0	4.3	7.8	6.2	0.8	7.0	0.3	100.0(372)
중간지역	38.3	48.3	1.7	2.5	1.7	0.0	7.5	0.0	100.0(120)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25.0	37.5	0.0	12.5	25.0	0.0	0.0	0.0	100.0(8)
$\chi^2(df)$	n/a								
맞벌이 여부									
맞벌이	30.3	45.9	3.6	6.8	4.2	1.0	7.8	0.3	100.0(307)
홀벌이	22.3	54.9	3.6	6.2	7.3	0.0	5.7	0.0	100.0(193)
$\chi^2(df)$	n/a								
거주지역 특성별									
동	31.3	47.5	3.6	6.0	4.1	0.3	6.9	0.3	100.0(364)
읍	16.5	53.8	3.3	5.5	9.9	2.2	8.8	0.0	100.0(91)
면	15.6	55.6	4.4	13.3	6.7	0.0	4.4	0.0	100.0(45)
$\chi^2(df)$	n/a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28.6	41.0	5.7	6.7	7.6	0.0	10.5	0.0	100.0(105)
300만원 이상~400만원	25.5	55.5	0.7	8.0	5.1	0.0	5.1	0.0	100.0(137)
400만원 이상~500만원	25.4	53.3	3.3	4.1	5.7	1.6	5.7	0.8	100.0(122)
500만원 이상	29.4	46.3	5.1	7.4	3.7	0.7	7.4	0.0	100.0(136)
$\chi^2(df)$	n/a								

주: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p < 0.05$.

거주 지역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인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완전한 도시지역이 평균 4.27로 중간지역과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지역에 거주할 때 평균이 4.25로 읍이나, 면지역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V-43〉 거주 지역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여부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안좋다	조금 안좋다	안좋은 편	보통	좋은 편	조금 좋다	매우 좋다	계(수)	평균
전체	5.0	3.4	14.6	36.6	30.0	7.2	3.2	100.0(500)	4.18
지역구분별									
완전한 도시지역	4.6	3.5	12.4	35.5	32.0	8.1	4.0	100.0(372)	4.27

구분	매우 안좋다	조금 안좋다	안좋은 편	보통	좋은 편	조금 좋다	매우 좋다	계(수)	평균
중간지역	5.8	2.5	21.7	39.2	25.8	4.2	0.8	100.0(120)	3.93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12.5	12.5	12.5	50.0	0.0	12.5	0.0	100.0(8)	3.50
$\chi^2(df)/F$	n/a								4.691**
맞벌이 여부									
맞벌이	3.6	2.6	16.3	38.4	28.3	7.2	3.6	100.0(307)	4.21
홀벌이	7.3	4.7	11.9	33.7	32.6	7.3	2.6	100.0(193)	4.12
$\chi^2(df)/t$	8.049(6)								0.801
거주지역 특성별									
동	4.7	2.2	13.7	34.6	34.6	7.7	2.5	100.0(364)	4.25
읍	6.6	6.6	15.4	40.7	18.7	6.6	5.5	100.0(91)	4.00
면	4.4	6.7	20.0	44.4	15.6	4.4	4.4	100.0(45)	3.91
$\chi^2(df)/F$	n/a								2.586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7.6	5.7	15.2	37.1	25.7	4.8	3.8	100.0(105)	3.97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4	1.5	16.1	41.6	29.2	5.1	2.2	100.0(137)	4.1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3	2.5	13.9	39.3	30.3	6.6	4.1	100.0(122)	4.27
500만원 이상	5.1	4.4	13.2	28.7	33.8	11.8	2.9	100.0(136)	4.29
$\chi^2(df)/F$	n/a								1.554

주: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 $p < 0.01$,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가장 좋은 점 1순위에 대한 조사결과 공기와 자연이 좋다는 응답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직장이 가깝다가 30.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구분별로 살펴보면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과 중간지역은 공기와 자연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0.0%, 4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완전한 도시지역은 부모의 직장이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주특성별로 살펴보면 면지역과 동지역이 공기와 자연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6.7%,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읍지역의 경우에는 부모의 직장이 가깝다가 36.3%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44〉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가장 좋은 점-1순위

단위: %, (명)

구분	1	2	3	4	6	10	12	계(수)
전체	33.6	7.6	3.0	3.6	3.8	30.4	4.8	100.0(500)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30.1	8.9	2.7	3.5	4.3	30.4	5.4	100.0(372)
중간지역	43.3	3.3	4.2	4.2	2.5	30.8	2.5	100.0(120)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50.0	12.5	0.0	0.0	0.0	25.0	12.5	100.0(8)
$\chi^2(df)$	n/a							
맞벌이 여부								
맞벌이	33.2	6.5	3.3	2.9	4.2	33.9	4.9	100.0(307)
홀벌이	34.2	9.3	2.6	4.7	3.1	24.9	4.7	100.0(193)
$\chi^2(df)$	n/a							
거주지역 특성별								
동	32.1	6.9	2.7	4.4	4.9	29.9	6.0	100.0(364)
읍	33.0	12.1	3.3	2.2	1.1	36.3	1.1	100.0(91)
면	46.7	4.4	4.4	0.0	0.0	22.2	2.2	100.0(45)
$\chi^2(df)$	n/a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32.4	8.6	4.8	3.8	1.9	24.8	5.7	100.0(10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5.8	8.0	4.4	2.2	3.6	27.7	6.6	100.0(13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9.3	4.9	0.8	4.1	2.5	31.1	4.1	100.0(122)
500만원 이상	27.2	8.8	2.2	4.4	6.6	36.8	2.9	100.0(136)
$\chi^2(df)$	n/a							

1) 공기와 자연이 좋다, 2) 또래가 많다, 3)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이 높다, 4)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많다, 5) 유치원 등 교육시설의 질이 좋다, 6) 학군이 좋다, 7) 학원 등 교육시설이 다양하다, 8)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9) 놀이터나 체험시설이 많다, 10) 부모의 직장이 가깝다, 11) 양육비용이 적게 든다, 12) 마트 등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13) 의료시설이 가까이 있다, 14) 기타
주 1) 3.0% 미만으로 조사된 항목은 생략함.

2) 계는 전체 문항 기준 100으로 제시함.

3)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가장 좋은 점 1순위와 2순위를 통합한 결과, 부모의 직장이 가깝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공기와 자연이 좋다가 45.6%, 마트 등 상업시설이 편리하다가 17.6%, 또래가 많다가 16.8% 순으로 나타났다.

중심도시 연계형 지역은 공기와 자연이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7.5% 다른 지역보다 좋은 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중간지역 부모의 직장가 가깝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1.7%로 다른 지역보다 좋은 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지역구분별로 살펴보면 면지역이 공기와 자연이 좋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4.4%로 다른 지역보다 좋은 점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양육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2.4%로 다른 지역소득 집단보다 높았다.

〈표 V-45〉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가장 좋은 점-1+2순위

단위: %, (명)

구분	1	2	3	4	6	8	10	11	12	13	14	(수)
전체	45.6	16.8	5.0	6.6	6.2	6.8	51.2	9.0	17.6	7.0	8.0	(500)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41.1	19.1	4.3	7.5	7.3	8.1	48.1	5.9	19.1	8.6	8.3	(372)
중간지역	56.7	10.0	7.5	4.2	3.3	3.3	61.7	17.5	12.5	2.5	6.7	(120)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87.5	12.5	0.0	0.0	0.0	0.0	37.5	25.0	25.0	0.0	12.5	(8)
맞벌이 여부												
맞벌이	46.9	16.0	4.9	5.2	5.5	6.5	56.7	9.4	16.9	5.2	7.2	(307)
홀벌이	43.5	18.1	5.2	8.8	7.3	7.3	42.5	8.3	18.7	9.8	9.3	(193)
거주지역 특성별												
동	41.8	15.9	4.4	6.9	7.1	8.2	50.5	8.5	20.9	7.7	8.0	(364)
읍	51.6	20.9	6.6	7.7	4.4	2.2	56.0	9.9	9.9	4.4	8.8	(91)
면	64.4	15.6	6.7	2.2	2.2	4.4	46.7	11.1	6.7	6.7	6.7	(45)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44.8	17.1	8.6	7.6	4.8	5.7	39.0	12.4	18.1	11.4	8.6	(10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4.5	16.1	6.6	5.8	5.8	5.8	53.3	7.3	19.7	5.8	8.0	(13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9.2	16.4	1.6	5.7	4.1	6.6	55.7	9.0	16.4	8.2	11.5	(122)
500만원 이상	44.1	17.6	3.7	7.4	9.6	8.8	54.4	8.1	16.2	3.7	4.4	(136)

1) 공기와 자연이 좋다, 2) 또래가 많다, 3)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이 높다, 4)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많다, 5) 유치원 등 교육시설의 질이 좋다, 6) 학군이 좋다, 7) 학원 등 교육시설이 다양하다, 8)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9) 놀이터나 체험시설이 많다, 10) 부모의 직장이 가깝다, 11) 양육비용이 적게 든다, 12) 마트 등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13) 의료시설이 가까이 있다, 14) 기타
주: 5.0% 미만으로 조사된 항목은 생략함.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가장 나쁜 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문화시설 이용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이 낮다 17.0%, 공기와 자연이 좋지 않다가 11.6% 순이었다.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의 경우 문화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놀이터 체험시설이 적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5.0%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났으며, 완연한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이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9.1%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지역 읍지역은 문화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9.2%, 1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면지역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이 낮다가 17.8% 가장 높았다.

〈표 V-46〉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가장 나쁜 점-1순위

단위: %, (명)

구분	1	3	4	6	7	8	9	11	13	계(수)
전체	11.6	17.0	8.8	7.0	5.8	19.0	5.6	3.4	8.2	100.0(500)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13.2	19.1	8.3	8.1	4.8	17.2	5.4	3.8	6.2	100.0(372)
중간지역	6.7	11.7	10.0	4.2	8.3	24.2	5.0	2.5	14.2	100.0(120)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12.5	0.0	12.5	0.0	12.5	25.0	25.0	0.0	12.5	100.0(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1	16.6	8.1	6.5	6.5	21.2	5.9	2.9	8.5	100.0(307)
홀벌이	14.0	17.6	9.8	7.8	4.7	15.5	5.2	4.1	7.8	100.0(193)
$\chi^2(df)$	7.360(13)									
거주지역 특성별										
동	11.8	17.3	8.2	6.3	6.3	19.2	6.0	3.8	7.4	100.0(364)
읍	13.2	15.4	7.7	6.6	5.5	19.8	5.5	0.0	11.0	100.0(91)
면	6.7	17.8	15.6	13.3	2.2	15.6	2.2	6.7	8.9	100.0(45)
$\chi^2(df)$	n/a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9.5	13.3	5.7	5.7	2.9	19.0	6.7	3.8	8.6	100.0(10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3.9	24.8	13.1	8.8	5.8	15.3	2.9	2.9	8.0	100.0(13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8.2	13.9	6.6	5.7	7.4	23.0	7.4	4.1	9.8	100.0(122)
500만원 이상	14.0	14.7	8.8	7.4	6.6	19.1	5.9	2.9	6.6	100.0(136)
$\chi^2(df)$	n/a									

1) 공기와 자연이 좋지 않다, 2) 또래가 적다, 3)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이 낮다, 4)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5) 유치원 등 교육 시설의 질이 낮다, 6) 학군이 나쁘다, 7) 학원 등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8) 문화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9) 놀이터나 체험시설이 적다, 10) 부모의 직장이 멀다, 11) 양육비용이 많이 든다, 12) 마트 등 상업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13) 의료시설의 질이 낮거나 부족하다, 14) 기타 주 1) 5.0% 미만으로 조사된 항목은 생략함.

2)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나쁜 점 1, 2순위를 통합한 결과, 문화시설 이용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이 낮다 26.8%, 의료시설의 질이 낮다 20.0%, 놀이터나 체험시설이 적다가 18.2% 순이었다.

완연한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등 비용 지원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29.6%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며 중간지역의 경우에는 의료시설의 질이 낮다가 35.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V-47〉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가장 나쁜 점-1+2순위

단위: %, (명)

구분	1	3	4	5	6	7	8	9	10	11	12	13	계(수)
전체	15.2	26.8	16.0	8.6	13.4	12.2	34.6	18.2	7.2	10.4	6.6	20.0	(500)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16.9	29.6	16.9	8.6	15.1	12.4	30.9	16.4	8.1	12.1	6.7	14.8	(372)
중간지역	10.0	19.2	13.3	9.2	9.2	10.8	45.0	22.5	5.0	5.8	5.0	35.8	(120)

구분	1	3	4	5	6	7	8	9	10	11	12	13	계(수)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12.5	12.5	12.5	0.0	0.0	25.0	50.0	37.5	0.0	0.0	25.0	25.0	(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0	25.4	17.3	8.8	12.1	12.7	36.5	19.9	7.5	10.4	6.8	19.5	(307)
홀벌이	17.1	29.0	14.0	8.3	15.5	11.4	31.6	15.5	6.7	10.4	6.2	20.7	(193)
거주지역 특성별													
동	15.9	26.6	17.0	9.1	12.1	11.3	34.6	18.7	7.4	11.5	5.5	18.4	(364)
읍	13.2	26.4	11.0	9.9	17.6	13.2	35.2	18.7	6.6	5.5	9.9	26.4	(91)
면	13.3	28.9	17.8	2.2	15.6	17.8	33.3	13.3	6.7	11.1	8.9	20.0	(45)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12.4	21.0	9.5	8.6	12.4	10.5	35.2	21.9	9.5	10.5	5.7	22.9	(10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7.5	37.2	19.7	5.8	15.3	10.2	30.7	13.9	5.1	12.4	4.4	19.7	(13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0.7	23.8	13.1	9.0	12.3	13.9	35.2	22.1	6.6	9.8	9.0	22.1	(122)
500만원 이상	19.1	23.5	19.9	11.0	13.2	14.0	37.5	16.2	8.1	8.8	7.4	16.2	(136)

1) 공기와 자연이 좋지 않다, 2) 또래가 적다, 3)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이 낮다, 4)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5) 유치원 등 교육 시설의 질이 낮다, 6) 학군이 나쁘다, 7) 학원 등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8) 문화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9) 놀이터나 체험시설이 적다, 10) 부모의 직장이 멀다, 11) 양육비용이 많이 든다, 12) 마트 등 상업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13) 의료시설의 질이 낮거나 부족하다, 14) 기타
주: 5.0% 미만으로 조사된 항목은 생략함.

향후 다른 지역 이동 계획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4%였다.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다. 동지역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3.4%로 읍이나 면지역보다 낮았으며 300만원 미만의 경우에 응답한 비율이 58.1% 다른 소득구간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48〉 향후 다른 지역 이동 계획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47.4	52.6	100.0(500)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47.3	52.7	100.0(372)
중간지역	45.8	54.2	100.0(120)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75.0	25.0	100.0(8)
$\chi^2(df)$	n/a		
맞벌이 여부			
맞벌이	45.9	54.1	100.0(307)
홀벌이	49.7	50.3	100.0(193)
$\chi^2(df)$	0.691(1)		
거주지역 특성별			
동	43.4	56.6	100.0(364)
읍	59.3	40.7	100.0(91)
면	55.6	44.4	100.0(45)
$\chi^2(df)$	8.733(2)		
월소득별			

구분	있다	없다	계(수)
300만원 미만	58.1	41.9	100.0(10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4.5	55.5	100.0(13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5.1	54.9	100.0(122)
500만원 이상	44.1	55.9	100.0(136)
$\chi^2(df)$	6.122(3)		

주: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이동계획이 있는 응답자 대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계획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자녀 교육 및 보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본인 혹은 배우자 직장 23.6% 순이었다.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의 경우에 자녀 교육 및 보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6.7%로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V-49〉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계획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본인 혹은 배우자 직장	자녀 교육 및 보육	주거 환경	거주 비용	교통	원가족 거주지 근처에 거주하기 위하여	기타	계(수)
전체	23.6	40.1	27.4	3.4	1.7	3.4	0.4	100.0(237)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22.7	39.2	27.8	4.0	2.3	3.4	0.6	100.0(176)
중간지역	27.3	40.0	27.3	1.8	0.0	3.6	0.0	100.0(55)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16.7	66.7	16.7	0.0	0.0	0.0	0.0	100.0(6)
$\chi^2(df)$	n/a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7	43.3	25.5	3.5	1.4	3.5	0.0	100.0(141)
홀벌이	25.0	35.4	30.2	3.1	2.1	3.1	1.0	100.0(96)
$\chi^2(df)$	n/a							
거주지역 특성별								
동	24.7	41.1	27.2	2.5	1.3	2.5	0.6	100.0(158)
읍	20.4	37.0	29.6	3.7	3.7	5.6	0.0	100.0(54)
면	24.0	40.0	24.0	8.0	0.0	4.0	0.0	100.0(25)
$\chi^2(df)$	n/a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26.2	36.1	27.9	4.9	0.0	3.3	1.6	100.0(61)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9.5	32.8	24.6	4.9	4.9	3.3	0.0	100.0(61)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4.5	49.1	32.7	0.0	0.0	3.6	0.0	100.0(55)
500만원 이상	23.3	43.3	25.0	3.3	1.7	3.3	0.0	100.0(60)
$\chi^2(df)$	n/a							

주 1)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2)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이사 연령 시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10~12세가 2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7~9세 22.4%, 5~6세 21.9%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모든 구분 유형과 관계없이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시기에 이사 계획을 잡고 있었으며 그 중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연령대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50〉 이사 시기(첫째 자녀 연령 기준)

단위: %, (명), 세

구분	0~2세	3~4세	5~6세	7~9세	10~12세	13~14세	15세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1	8.4	21.9	22.4	23.2	10.1	11.8	100.0(237)	9.20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1.7	9.1	22.2	20.5	21.0	11.4	14.2	100.0(176)	9.44
중간지역	3.6	5.5	21.8	27.3	29.1	7.3	5.5	100.0(55)	8.62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16.7	16.7	33.3	33.3	0.0	0.0	100.0(6)	7.50
$\chi^2(df)$	n/a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	7.1	22.7	22.7	24.8	10.6	9.2	100.0(141)	8.94
홀벌이	1.0	10.4	20.8	21.9	20.8	9.4	15.6	100.0(96)	9.58
$\chi^2(df)$	n/a								
거주지역 특성별									
동	2.5	8.2	20.9	26.6	20.9	10.1	10.8	100.0(158)	9.15
읍	1.9	7.4	22.2	13.0	31.5	9.3	14.8	100.0(54)	9.56
면	0.0	12.0	28.0	16.0	20.0	12.0	12.0	100.0(25)	8.80
$\chi^2(df)$	n/a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4.9	11.5	26.2	19.7	19.7	13.1	4.9	100.0(61)	7.9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6	13.1	21.3	31.1	18.0	3.3	11.5	100.0(61)	8.8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0.0	3.6	16.4	21.8	29.1	10.9	18.2	100.0(55)	10.44
500만원 이상	1.7	5.0	23.3	16.7	26.7	13.3	13.3	100.0(60)	9.77
$X^2(df)$	n/a								

주 1)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2)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X^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7 초등 방과후 돌봄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규수업 시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오후 1시에서 2시 이전이 44.6%, 오후 2시~3시 이전이 33.8%로 나타났다. 구분 유형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규수업은 3시 이전에 종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0%가 넘었다.

〈표 V-51〉 자녀(초등 저학년 자녀)의 초등학교 정규수업 종료 시간

단위: %, (명)

구분	오후 1시 이전	오후 1시~ 2시 이전	오후 2시~ 3시 이전	오후 3시~ 4시 이전	오후 4시~ 5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계(수)
전체	5.8	44.6	33.8	10.1	2.9	2.9	100.0(139)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3.9	44.7	35.0	10.7	3.9	1.9	100.0(103)
중간지역	11.8	41.2	32.4	8.8	0.0	5.9	100.0(34)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100.0	0.0	0.0	0.0	0.0	100.0(2)
$\chi^2(df)$	n/a						
맞벌이 여부							
맞벌이	6.6	46.2	29.7	11.0	3.3	3.3	100.0(91)
홀벌이	4.2	41.7	41.7	8.3	2.1	2.1	100.0(48)
$\chi^2(df)$	n/a						
거주지역 특성별							
동	6.3	39.6	35.4	12.5	3.1	3.1	100.0(96)
읍	6.5	54.8	29.0	6.5	0.0	3.2	100.0(31)
면	0.0	58.3	33.3	0.0	8.3	0.0	100.0(12)
$\chi^2(df)$	n/a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10.0	40.0	35.0	5.0	5.0	5.0	100.0(2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4	45.2	31.0	14.3	4.8	2.4	100.0(42)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7.3	56.1	26.8	7.3	2.4	0.0	100.0(41)
500만원 이상	5.6	33.3	44.4	11.1	0.0	5.6	100.0(36)
$\chi^2(df)$	n/a						

주 1)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2)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정규수업 종료 후 이용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방과후교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초등 돌봄교실 25.2%, 기타 24.5%, 학원 등 사교육 기관 23.7% 순이었다. 맞벌이 가구가 초등 돌봄교실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3.0%로 홀벌이에 비해 높았으며 읍면지역의 경우,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8.7%, 33.3%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 맡겨지는 비율이 높았다.

〈표 V-52〉 자녀가 정규 수업 종료 후 이용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8	9	(수)
전체	25.2	48.9	1.4	2.9	3.6	23.7	24.5	(139)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25.2	51.5	0.0	2.9	1.9	26.2	23.3	(103)
중간지역	26.5	41.2	5.9	2.9	8.8	14.7	26.5	(34)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50.0	0.0	0.0	0.0	50.0	50.0	(2)
맞벌이 여부								
맞벌이	33.0	47.3	1.1	4.4	5.5	23.1	23.1	(91)
홀벌이	10.4	52.1	2.1	0.0	0.0	25.0	27.1	(48)
거주지역 특성별								
동	29.2	49.0	2.1	2.1	4.2	17.7	26.0	(96)
읍	12.9	48.4	0.0	6.5	0.0	38.7	25.8	(31)
면	25.0	50.0	0.0	0.0	8.3	33.3	8.3	(12)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15.0	25.0	0.0	5.0	5.0	15.0	50.0	(2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8.6	54.8	4.8	4.8	0.0	19.0	14.3	(42)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6.8	51.2	0.0	2.4	7.3	22.0	24.4	(41)
500만원 이상	25.0	52.8	0.0	0.0	2.8	36.1	22.2	(36)

0) 이용하지 않음, 1) 초등 돌봄교실(방과후교실 연계 포함), 2) 방과후교실, 3) 지역아동센터, 4) 기타 지역사회 내 공공운영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청소년센터, 다함께 돌봄교실, 어린이집 등), 5) 사설 방과후 프로그램, 6) 아이돌봄서비스, 7) 민간 육아도우미, 8) 학원 등 사교육 기관, 9) 기타

주 1)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2) 3.0% 미만으로 조사된 항목은 생략함.(예와: 3,4번 보기, 다음문항과 연계)

3) 다중응답으로 사례수만 제시함.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초등 돌봄교실은 평균 약 124분, 방과후교실은 약 82분, 지역아동센터는 300분, 기타 지역사회 내 공공운영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약 127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벌이 보다 맞벌이 가구에서 초등 돌봄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길었다.

〈표 V-53〉 공공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

단위: 분, (명)

구분	초등 돌봄교실 (N=35)	학교 방과후교실 (N=68)	지역아동센터 (N=2)	기타 지역사회 내 공공 운영 방과후 돌봄서비스 (N=4)
전체	124.29	82.50	300.00	127.50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115.38	82.45	-	130.00
중간지역	150.00	84.29	300.00	120.00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	60.00	-	-

구분	초등 돌봄교실 (N=35)	학교 방과후교실 (N=68)	지역아동센터 (N=2)	기타 지역사회 내 공공 운영 방과후 돌봄서비스 (N=4)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9.00	86.63	300.00	127.50
홀벌이	96.00	75.40	300.00	-
거주지역 특성별				
동	128.57	82.34	300.00	45.00
읍	90.00	81.33	-	210.00
면	130.00	86.67	-	-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120.00	84.00	-	120.0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22.50	92.17	300.00	180.0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17.27	78.81	-	30.00
500만원 이상	136.67	74.47	-	-

주 1)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2) 이용시간의 평균을 제시함.

초등 돌봄교실 충분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 대체로 충분하다는 비율이 22.9%였으며 완전한 도시지역의 평균이 3.12로 중간지역 2.89보다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홀벌이에 비해 맞벌이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떨어졌으며, 읍이나 면지역에 비해 동지역이 초등 돌봄교실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또한 소득이 낮은 경우 초등 돌봄교실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54〉 공공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역 내 충분성-1) 초등 돌봄교실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부족	부족	보통	대체로 충분	매우 충분	계(수)	평균
전체	8.6	11.4	51.4	22.9	5.7	100.0(35)	3.06
지역구분별							
완전한 도시지역	7.7	11.5	50.0	23.1	7.7	100.0(26)	3.12
중간지역	11.1	11.1	55.6	22.2	0.0	100.0(9)	2.89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0.0	0.0	0.0	0.0	0.0(0)	0.0
$\chi^2(df)/F$	n/a						.359
맞벌이 여부							
맞벌이	6.7	13.3	53.3	26.7	0.0	100.0(30)	3.00
홀벌이	20.0	0.0	40.0	0.0	40.0	100.0(5)	3.40
$\chi^2(df)/t$	n/a						.852
거주지역 특성별							
동	7.1	14.3	60.7	14.3	3.6	100.0(28)	2.93

구분	매우 부족	부족	보통	대체로 충분	매우 충분	계(수)	평균
읍	0.0	0.0	25.0	75.0	0.0	100.0(4)	3.75
면	33.3	0.0	0.0	33.3	33.3	100.0(3)	3.33
$\chi^2(df)/F$	n/a						1.428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0.0	0.0	0.0	33.3	66.7	100.0(3)	4.67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8.3	25.0	50.0	16.7	0.0	100.0(12)	2.75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9.1	9.1	54.5	27.3	0.0	100.0(11)	3.00
500만원 이상	11.1	0.0	66.7	22.2	0.0	100.0(9)	3.00
$\chi^2(df)/F$	n/a						4.044*

주 1)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2)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 $p < 0.05$.

방과후 교실의 충분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대체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5%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초등 돌봄교실 보다는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완전한 도시지역이 중간지역에 비해, 동지역이 읍이나 면지역에 비해, 소득이 낮을수록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V-55〉 공공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역 내 충분성-2) 학교 방과후교실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부족	부족	보통	대체로 충분	매우 충분	계(수)	평균
전체	4.4	13.2	44.1	36.8	1.5	100.0(68)	3.18
지역구분별							
완전한 도시지역	1.9	11.3	49.1	35.8	1.9	100.0(53)	3.25
중간지역	14.3	14.3	28.6	42.9	0.0	100.0(14)	3.00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100.0	0.0	0.0	0.0	100.0(1)	2.00
$\chi^2(df)/F$	n/a						1.469
맞벌이 여부							
맞벌이	7.0	11.6	51.2	27.9	2.3	100.0(43)	3.07
홀벌이	0.0	16.0	32.0	52.0	0.0	100.0(25)	3.36
$\chi^2(df)/t$	n/a						1.374
거주지역 특성별							
동	4.3	10.6	44.7	40.4	0.0	100.0(47)	3.21
읍	0.0	13.3	60.0	26.7	0.0	100.0(15)	3.13
면	16.7	33.3	0.0	33.3	16.7	100.0(6)	3.00
$\chi^2(df)/F$	n/a						.189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0.0	0.0	40.0	60.0	0.0	100.0(5)	3.6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0.0	8.7	34.8	52.2	4.3	100.0(23)	3.52

구분	매우 부족	부족	보통	대체로 충분	매우 충분	계(수)	평균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8	19.0	52.4	23.8	0.0	100.0(21)	2.95
500만원 이상	10.5	15.8	47.4	26.3	0.0	100.0(19)	2.89
$\chi^2(df)/F$	n/a						3.174*

주 1)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2)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3) 지역아동센터(n=2), 4) 기타 지역사회 내 공공운영 방과후 돌봄서비스(n=4)는 사례수가 너무 적어 충분성 제시하지 않음.

* $p < 0.05$.

초등 방과후교실에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1.4%였다. 맞벌이에 비해 홀벌이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동이나 읍지역에 비해 면지역의 만족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으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일 때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표 V-56〉 공공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역 내 만족도-1) 초등 돌봄교실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전체	2.9	5.7	60.0	20.0	11.4	100.0(35)	3.31
지역구분별							
완전한 도시지역	3.8	7.7	53.8	23.1	11.5	100.0(26)	3.31
중간지역	0.0	0.0	77.8	11.1	11.1	100.0(9)	3.33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0.0	0.0	0.0	0.0	0.0(0)	0.0
$\chi^2(df)/F$	n/a						.006
맞벌이 여부							
맞벌이	3.3	6.7	63.3	20.0	6.7	100.0(30)	3.20
홀벌이	0.0	0.0	40.0	20.0	40.0	100.0(5)	4.00
$\chi^2(df)/F$	n/a						1.992
거주지역 특성별							
동	3.6	7.1	67.9	17.9	3.6	100.0(28)	3.11
읍	0.0	0.0	50.0	25.0	25.0	100.0(4)	3.75
면	0.0	0.0	0.0	33.3	66.7	100.0(3)	4.67
$\chi^2(df)/F$	n/a						6.585***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0.0	0.0	0.0	0.0	100.0	100.0(3)	5.0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0.0	16.7	66.7	16.7	0.0	100.0(12)	3.0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9.1	0.0	63.6	27.3	0.0	100.0(11)	3.09
500만원 이상	0.0	0.0	66.7	22.2	11.1	100.0(9)	3.44
$\chi^2(df)/F$	n/a						7.110***

주 1)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2)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 $p < 0.001$.

학교 방과후교실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1%,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5%였다. 초등 돌봄교실 만족도와 비교해볼 때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았으며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다. 지역구분별로 살펴보면 완전한 도시지역이 중간지역보다 만족도가 높았으며 월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7〉 공공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역 내 만족도-2) 학교 방과후교실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전체	2.9	7.4	44.1	44.1	1.5	100.0(68)	3.34
지역구분별							
완전한 도시지역	1.9	3.8	47.2	45.3	1.9	100.0(53)	3.42
중간지역	7.1	14.3	35.7	42.9	0.0	100.0(14)	3.14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100.0	0.0	0.0	0.0	100.0(1)	2.00
$\chi^2(df)/F$	n/a						2.34
맞벌이 여부							
맞벌이	4.7	9.3	46.5	39.5	0.0	100.0(43)	3.21
홀벌이	0.0	4.0	40.0	52.0	4.0	100.0(25)	3.56
$\chi^2(df)/t$	n/a						1.86
거주지역 특성별							
동	4.3	4.3	42.6	46.8	2.1	100.0(47)	3.38
읍	0.0	13.3	53.3	33.3	0.0	100.0(15)	3.20
면	0.0	16.7	33.3	50.0	0.0	100.0(6)	3.33
$\chi^2(df)/F$	n/a						.319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0.0	0.0	20.0	60.0	20.0	100.0(5)	4.0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0.0	8.7	34.8	56.5	0.0	100.0(23)	3.48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8	0.0	57.1	38.1	0.0	100.0(21)	3.29
500만원 이상	5.3	15.8	47.4	31.6	0.0	100.0(19)	3.05
$\chi^2(df)/F$	n/a						2.592

주 1)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2)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3) 지역아동센터(n=2), 4) 기타 지역사회 내 공공운영 방과후 돌봄서비스(n=4)는 사례수가 너무 적어 만족도 제시 하지 않음.

자녀가 이용하는 학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예체능 학원이 9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국어 36.4%, 산수 및 수학 33.3%, 국어 21.2% 순이었다.

〈표 V-58〉 자녀가 이용하는 학원

단위: %, (명)

구분	국어	산수 및 수학	외국어	예체능	기타	(수)
전체	21.2	33.3	36.4	93.9	12.1	(33)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22.2	33.3	37.0	92.6	11.1	(27)
중간지역	20.0	20.0	20.0	100.0	20.0	(5)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100.0	100.0	100.0	0.0	(1)
맞벌이 여부						
맞벌이	23.8	38.1	38.1	90.5	14.3	(21)
홀벌이	16.7	25.0	33.3	100.0	8.3	(12)
거주지역 특성별						
동	29.4	35.3	41.2	94.1	17.6	(17)
읍	8.3	33.3	41.7	91.7	8.3	(12)
면	25.0	25.0	0.0	100.0	0.0	(4)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0.0	0.0	33.3	100.0	0.0	(3)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0.0	25.0	12.5	87.5	12.5	(8)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11.1	11.1	33.3	100.0	0.0	(9)
500만원 이상	46.2	61.5	53.8	92.3	23.1	(13)

주 1)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2) 다중응답으로 사례수만 제시함.

자녀가 학원에서 보내는 주당 총 시간은 예체능이 평균 약 145분이었으며 다음으로 외국어 평균 약 140분, 산수 및 수학 약 101분, 국어가 약 67분이었다.

〈표 V-59〉 자녀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주당 총 이용시간)

단위: 분, (명)

구분	국어 (N=7)	산수 및 수학 (N=11)	외국어 (N=12)	예체능 (N=31)	기타 (N=4)
전체	67.14	101.82	140.00	145.16	120.00
지역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73.33	114.44	150.00	145.20	150.00
중간지역	30.00	30.00	120.00	162.00	30.00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	60.00	60.00	60.00	-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00	98.75	150.00	155.79	120.00
홀벌이	65.00	110.00	120.00	128.33	120.00
거주지역 특성별					
동	74.00	100.00	162.86	132.50	130.00
읍	40.00	115.00	108.00	162.73	90.00
면	60.00	60.00	-	147.50	-

구분	국어 (N=7)	산수 및 수학 (N=11)	외국어 (N=12)	예체능 (N=31)	기타 (N=4)
본인 취업유형별					
임금근로자	67.14	106.00	156.00	154.07	120.00
자영업자	-	-	-	-	-
기타	-	60.00	60.00	85.00	-
자녀 연령별(막내자녀 기준)					
영아	-	-	60.00	102.50	-
유아	67.14	101.82	147.27	151.48	120.00
월소득별					
300만원 미만	-	-	60.00	160.00	-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180.00	120.00	142.86	90.0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0.00	40.00	140.00	186.67	-
500만원 이상	71.67	90.00	154.29	111.67	130.00

주 1) 무응답(해당없음)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2) 이용시간의 평균을 제시함.

8 소결

본 장의 조사 결과에 비추어 요약해본 도농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도농지역 중 완전한 도시지역보다는 중간지역에서 조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았고, 맞벌이일수록 조모와의 동거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양육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중간지역에서 조부모의 돌봄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맞벌이에서 조부모 돌봄이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 중 일·양육 병행, 자녀 맡길 곳이 없다는 높게 나타났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도농지역의 인적, 물적 양육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자녀가 영아의 경우에 혈연 개별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도농복합시의 중간지역에 맞벌이를 위한 영아 보육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두 번째,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도농지역의 기관이용의 특징으로는 기관차량의 이용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등원, 하원의 45% 정도를 기관차량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읍지역에서 기관차량 이용이 등하원 각각 50.8%, 55.6%인 것으로 나타나 동지역의 43.7%(등하원 모두), 동지역의 26.9%, 30.8%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읍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의 인프라 부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홀벌이 가구의 기관 이용률이 매우 높은데 반해, 맞벌이 기관차량 이용률이 20%대로 낮았다. 반면 맞벌이 가구는 자가차량 이용률이 30%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의 경우, 기관에서 정해진 등하원 차량 시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퇴근시간까지 맡기기 위해서는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하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차량이용이 이루어지는 3시 이후에서 보통 정규직 부모가 퇴근하는 오후 3-7시 사이가 돌봄 공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임을 알 수 있다. 도농지역에서 기관차량 운행의 필요가 높음에도 맞벌이 가정의 경우 활용하지 못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도농지역 중 중간지역,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의 읍지역, 면지역의 문화체험시설, 응급의료시설 등 양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완전한 도시지역, 동지역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의 경우 학원, 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소아전문 의료시설에 대해서 완전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도시 등으로 인해 도시 기능이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 인프라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이 이미 대도시에 충분하기 때문에 인접 지역인 도농복합지역은 신규 인프라 구축의 효율성이 낮다고 지자체에 판단하여 적극적인 구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인프라 구축 등을 하여도 대도시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주비용 등의 이유로 임시로 이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 미온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본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아과 등 의료시설, 문화체험시설 등의 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접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에도 양육환경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방과후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등 공공 돌봄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읍이나 면지역에 비해 동지역이 초등 돌봄교실의 충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지역은 읍이나 면지역에 비해 방과후수업의 충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수업은 단순 돌봄이 아니라 사교육 감소를 위해 다양한 예체능에 대한 아동과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운영되는 것을 고려하여 읍면지역의 방과후 지원비 확충 등을 통해 양질의 방과후수업이 이뤄지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결과, 초등 돌봄교실, 방과후수업의 경우 소득이 낮을 수록 만족도와 충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맞벌이인 경우는 충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인 맞벌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초등 돌봄교실의 확충이 필요하다.

VI. 도농복합지역 지자체 의견 분석

1 조사 참여자 특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전체 56개 도농복합시의 시청 보육담당자와 교육지원청 유아교육담당 전문직 공무원 각 1명씩 총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참여한 공무원은 다음의 <표 V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51명이었으므로 46%의 응답률을 보인 셈이다. 응답자 51명은 시청 보육 담당 공무원 29명, 교육지원청 공무원 22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완전한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가 사례수 28로, 중간지역(21명)이나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2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권 근무자가 35.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경기/강원권 근무자는 25.5%였다. 충청권과 전라권의 참여자가 가장 적었다. 근속연수는 과반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정도였고, 해당업무 경력은 2년 미만이 57% 정도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나, 유아교육 담당의 경우 전문직 공무원이므로 업무 경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업무별로 나누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VI-1〉 조사 대상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51)	100.0
지역구분		
완전한 도시지역	(28)	54.9
중간지역	(21)	41.2
중심도시연계형 중간지역	(2)	3.9
구분		
교육지원청	(22)	43.1
시청	(29)	56.9
지역 세부별		
경기/강원권	(13)	25.5
충청권	(10)	19.6
전라권	(10)	19.6
경상권	(18)	35.3
근속년수별(총 경력)		
10년 미만	(13)	25.5
10년 이상~20년 미만	(2)	3.9
20년 이상~30년 미만	(28)	54.9
30년 이상	(8)	15.7
해당업무 경력별		
1년 미만	(18)	35.3
1년 이상~2년 미만	(11)	21.6
2년 이상~3년 미만	(8)	15.7
3년 이상~4년 미만	(8)	15.7
4년 이상~10년 미만	(4)	7.8
10년 이상	(2)	3.9

2 지역 내 인구 변화 인식

최근 5년간의 인구 동향을 보았을 때 인구 변화가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43%가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을 하여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상당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완전한 도시지역에 속하는 공무원들의 응답에서 인구 증가를 답한 비율이 높았고 반면, 도시지역이 아닌 중간지역에 속한 도농복합시는 대부분(81%)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다. 지역 권역별로는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충청권에서 인구가 늘었다는 비율이 타권역에 비해 20%포인트 가량 두드러지게 높았다.

〈표 VI-2〉 최근 5년간 인구 변화 여부

단위: %, (명)

구분	인구가 줄어듦	인구가 늘어남	인구변화 없음	계(수)
전체	56.9	43.1	0.0	100.0(51)
지역 구분별				
완전한 도시지역	39.3	60.7	0.0	100.0(28)
중간지역	81.0	19.0	0.0	100.0(21)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50.0	50.0	0.0	100.0(2)
$\chi^2(df)$	n/a			
지역 세부별				
경기/강원권	53.8	46.2	0.0	100.0(13)
충청권	40.0	60.0	0.0	100.0(10)
전라권	60.0	40.0	0.0	100.0(10)
경상권	66.7	33.3	0.0	100.0(18)
$\chi^2(df)$	1.95(3)			

주: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 $p < 0.05$.

인구 변화 중 특히, 영유아 가구 수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대체로 영유아 가구는 감소했다는 응답이 67%로 높았고, 특히 보육담당자들의 체감율이 더 높았다. 또한 완전한 도시지역보다는 중간지역에 속하는 도농복합도시에서 영유아 감소를 보고하는 비율이 81%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 권역별로는 경상권이 가장 감소율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충청권에 사는 영유아 가구 증가라는 응답이 감소보다 20% 포인트 더 높았다.

〈표 VI-3〉 최근 5년간 영유아를 둔 가구(30-40대 세대주 등)수의 변화

단위: %, (명)

구분	영유아 가구 증가	영유아 가구 감소	영유아 가구 변화 없음	계(수)
전체	33.3	66.7	0.0	100.0(51)
구분				
교육지원청	54.5	45.5	0.0	100.0(22)
시청	17.2	82.8	0.0	100.0(29)
$\chi^2(df)$	7.834(1)*			
지역 구분별				
완전한 도시지역	42.9	57.1	0.0	100.0(28)
중간지역	19.0	81.0	0.0	100.0(21)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50.0	50.0	0.0	100.0(2)
$\chi^2(df)$	3.321(2)			
지역 세부별				

구분	영유아 가구 증가	영유아 가구 감소	영유아 가구 변화 없음	계(수)
경기/강원권	38.5	61.5	0.0	100.0(13)
충청권	60.0	40.0	0.0	100.0(10)
전라권	30.0	70.0	0.0	100.0(10)
경상권	16.7	83.3	0.0	100.0(18)
$\chi^2(df)$	5.654(3)			

* $p < 0.05$.

영유아 가구가 증가하였다고 답한 지역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전체 응답자가 17명으로 매우 소수에 불과하지만 분석 결과를 보면, '산업단지 등 일부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 유입 가구가 있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특히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의 응답자가 여기에 답한 특색을 보였다. 그리고 충청권에서 이러한 응답을 과반수 이상이 선택하였다. 그 외에 '교육, 보육 환경 등 육아 환경이 좋아 우리 시로 유입 가구가 늘었음'을 17명 중 3명이 선택하였고 기타 응답이 높았다. 자율서술로 응답케한 기타 선택지에 대해서는 선택한 7명이 모두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유입'을 제시하였다.

〈표 VI-4〉 영유아 가구 증가 이유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계(수)
전체	41.2	0.0	17.6	0.0	41.2	100.0(17)
구분						
교육지원청	33.3	0.0	16.7	0.0	50.0	100.0(12)
시청	60.0	0.0	20.0	0.0	20.0	100.0(5)
$\chi^2(df)$	1.403(2)					
지역 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33.3	0.0	25.0	0.0	41.7	100.0(12)
중간지역	50.0	0.0	0.0	0.0	50.0	100.0(4)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100.0	0.0	0.0	0.0	0.0	100.0(1)
$\chi^2(df)$	2.833(4)					
지역 세부별						
경기/강원권	20.0	0.0	40.0	0.0	40.0	100.0(5)
충청권	66.7	0.0	0.0	0.0	33.3	100.0(6)
전라권	33.3	0.0	33.3	0.0	33.3	100.0(3)
경상권	33.3	0.0	0.0	0.0	66.7	100.0(3)
$\chi^2(df)$	5.613(6)					

1) 산업단지 등 일부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 유입 가구가 있음, 2) 우리 시 출산 정책의 영향 등으로 출생률이 높아졌음, 3) 교육, 보육 환경 등 육아 환경이 좋아 우리 시로 유입 가구가 늘었음, 4) 특별한 이유는 없는 듯 하나 영유아 가구가 많아졌음, 5) 기타
주: 무응답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3 인프라 확충 필요성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추가로 더 설치가 필요한지라는 질문에 대해 교육지원청의 공무원들은 유치원 추가 설치가 일부지역에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81.8%로 많이 한 반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청 공무원들은 추가 설치가 필요없거나 오히려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82.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치 수요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권역별로는 충청권에서 추가 설치 수요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상권에서는 축소에 대한 의견이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표 VI-5〉 어린이집/유치원의 추가 설치 수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모든지역 더 설치 필요함	일부지역 더 설치 필요함	현재적절 /설치 불필요	일부지역 줄일 필요있음	많이 줄여야 함	계(수)
전체	2.0	45.1	21.6	17.6	13.7	100.0(51)
기관						
유치원	4.5	81.8	13.6	0.0	0.0	100.0(22)
어린이집	0.0	17.2	27.6	31.0	24.1	100.0(29)
$\chi^2(df)$	26.152(4)*					
도시구분						
완연한 도시지역	0.0	46.4	25.0	21.4	7.1	100.0(28)
중간지역	4.8	42.9	14.3	14.3	23.8	100.0(21)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50.0	50.0	0.0	0.0	100.0(2)
$\chi^2(df)$	n/a					
지역 권역						
경기/강원권	0.0	46.2	38.5	7.7	7.7	100.0(13)
충청권	0.0	70.0	20.0	0.0	10.0	100.0(10)
전라권	0.0	50.0	20.0	20.0	10.0	100.0(10)
경상권	5.6	27.8	11.1	33.3	22.2	100.0(18)
$\chi^2(df)$	13.647(12)					

주: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 $p < 0.05$.

추가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23명의 보육·유아교육 담당자에게 읍, 면, 동 중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를 질문한 결과, 23명 중 87.0%가 동 지역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동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한 경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동일하게 다른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높았다. 읍지역에 대해서도 20% 내외의 설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면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수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6〉 기관(시설) 추가 설치 필요 행정 구역(복수 응답)

단위: %, (명)

구분	읍	면	동	(수)
전체	21.7	8.7	87.0	(23)
구분				
유치원	22.2	11.1	83.3	(18)
어린이집	20.0	0.0	100.0	(5)
지역 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23.1	7.7	76.9	(13)
중간지역	11.1	11.1	100.0	(9)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100.0	0.0	100.0	(1)
지역 세부별				
경기/강원권	16.7	0.0	83.3	(6)
충청권	14.3	14.3	100.0	(7)
전라권	40.0	0.0	80.0	(5)
경상권	20.0	20.0	80.0	(5)

주: 1) 무응답으로 인해 영역별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2) 복수응답으로 사례수만 제시함

초등 저학년의 돌봄서비스가 충분한지를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 담당자나 보육 담당자 간에는 유의미한 의견 차이가 없이, 부족하다는 견해가 과반수를 넘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 구분으로 봤을 때 완연한 도시지역보다는 중간지역에 속한 지역에서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권역별로는 충청권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VI-7〉 초등 저학년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제공 충분성

단위: %, (명)

구분	충분하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계(수)
전체	9.8	35.3	54.9	100.0(51)
구분				
교육지원청	18.2	27.3	54.5	100.0(22)
시청	3.4	41.4	55.2	100.0(29)
$\chi^2(df)$	3.48(2)			
지역 구분별				
완연한 도시지역	7.1	53.6	39.3	100.0(28)
중간지역	14.3	9.5	76.2	100.0(21)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0.0	50.0	50.0	100.0(2)
$\chi^2(df)$	n/a			
지역 세부별				
경기/강원권	0.0	46.2	53.8	100.0(13)
충청권	10.0	0.0	90.0	100.0(10)
전라권	10.0	40.0	50.0	100.0(10)

구분	충분하다	적절하다	부족하다	계(수)
경상권	16.7	44.4	38.9	100.0(18)
$\chi^2(df)$	9.72(6)			

주: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4 지역 내 동-읍-면 차이 인식

동, 읍, 면이라는 행정 구역 간에 ‘영유아 육아지원 관련 요구가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응답은 양측으로 나뉘었다. ‘있다’라는 응답이 47.1%이고 ‘없다’라는 응답이 52.9%였다. 동읍면 간 차이가 있다고 보는 입장은 유아교육 담당 공무원이 보육 담당 공무원보다는 더 많았고 완전한 도시 지역보다는 중간지역에 속하는 도농복합시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권역별로는 경기/강원권에서 차이를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표 VI-8〉 동/읍/면지역 간 ‘영유아 육아지원 관련 요구’라는 측면에서의 특징 차이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전체	47.1	52.9	100.0(51)
구분			
교육지원청	54.5	45.5	100.0(22)
시청	41.4	58.6	100.0(29)
$\chi^2(df)$	0.87(1)		
지역 구분별			
완전한 도시지역	35.7	64.3	100.0(28)
중간지역	57.1	42.9	100.0(21)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100.0	0.0	100.0(2)
$\chi^2(df)$	n/a		
지역 세부별			
경기/강원권	61.5	38.5	100.0(13)
충청권	50.0	50.0	100.0(10)
전라권	40.0	60.0	100.0(10)
경상권	38.9	61.1	100.0(18)
$\chi^2(df)$	1.81(3)		

주: n/a는 사례수로 인하여 χ^2 검증이 불가능함을 의미함.

다음의 〈표 VI-9〉를 보면, 동지역이나 일부 읍지역은 많은 경우 도시개발 등으로 인구유입이 있어 시설이나 환경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나, 면지역은 대체로 영유아 인구가 줄어 시설 운영이

어렵고 놀이시설, 장시간 어린이집 등이 부족하며 문화, 교육적 환경에서 동지역에 비해 많은 격차가 있는 것으로 공무원들은 인식하고 있다.

특히 동지역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설 수요, 친환경 보육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면지역은 농사 등 종사하는 일의 특성상 주말, 휴일 보육, 온종일 돌봄 등 장시간 보육을 요구하고 있고 차량운행 어려움 등 운영상의 애로 등 육아 요구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은 관심을 기울여 검토해보아야 할 지점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VI-9〉 동과 읍, 면 간 육아지원의 측면에서 차이나는 점

구분	시	동/읍/면 간 차이나는 특징
시청 보육 담당자	김해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별 차등지원 (5단계 월200천원~100천원)
	사천	읍면지역에 젊은 층이 많이 거주
	여주	면지역은 영유아 인구 수 대비 면적이 넓어 차량운행 문제점 발생, 출생률 낮아 운영 어려움
	삼척	동지역은 실내 놀이시설이 있으나 읍면지역은 실내놀이시설이 없음
	공주	동지역: 육아정보를 공유하거나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함 면지역: 주말이나 휴일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 제도를 필요함
	남원	영유아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 정원충족률이 매우 낮음
	김제	농촌 인구가 줄어 정부지원 사업의 도시와 농촌의 차별화된 지원 기준 필요(정부 지원 확대)
	안동	보육의 형태 즉, 동지역은 특성화된 친환경 어린이집 등을 원하고 읍,면 지역은 온종일 서비스나 주말 등 농사철에 보육 돌봄을 원하고 있음
	파주	면지역은 인구의 변화가 없으며, 동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으로 인구 유입의 변화가 큼
	포천	읍, 동은 시내지역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아 늦게까지 어린이집 운영을 필요로 함
	나주	동지역은 광주 전남 공동혁신 도시인구 유입 및 나주 역세권 아파트 단지 조성 읍지역은 강변 도시 아파트 단지 조성
	양주	농어촌 영유아가 적어 농어촌 차량 운영비 지원 및 농어촌 특례인정(반별정원기준) 부문 등
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자	김포	다문화 가정의 많이 밀집되어 있는 면 읍지역이 있음
	천안	특정지역이 유아 밀집됨
	용인	도농복합지역에 따른 교육 문화 환경 격차 상존
	포항	동지역 신규 택지 개발지나 아파트 밀집지역은 영유아 가구 수 증가/ 다른 지역은 급격 감소
	양산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읍)에는 시설 추가나 확대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제천	어린이집과 교육시설로 구분되어 보육 쪽의 정부지원이 교육 부분보다 더 많다 교사인건비와 학부모에 대한 지원금 모두에 해당됨
	보령	동지역의 지원 편중
	상주	거리상 인력 문제
	영주	급식비 지원이 면 이하 지역은 지자체에서 지원되나 시내 병설유치원은 지원되지 않고 있음
	광주	읍면지역은 유아수가 현저히 줄고, 동지역은 택지개발 등으로 유아수가 늘고 있음

5 특색 사업 및 정책 인식, 제언

지자체별로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나 영유아 지원 사업을 조사하였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도시가 19개로 전체 중 40%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나타나서 가장 많은 곳에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50개 시 중 7개 시인 것으로 조사되어 15%로 나왔고, 산모신생아/산후도우미지원이 9%로 다음 순이었다.

지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중점사업으로 두고 있거나 초등생에 대한 아동돌봄센터 설치, 국공립 시설 설치 등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외의 돌봄 인프라 구축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10〉 영유아 가족 및 출산장려를 위한 지자체 특수 시책이나 정책 사업

단위: %

시책 또는 사업명	해당 도농복합시	시행 비율
출산장려금 지원금	강릉, 사천, 삼척, 양주, 여주, 영천, 제주, 경산, 공주, 구미, 군산, 김천, 아산, 안성, 평택, 포천, 김제, 파주, 거제	40
부모부담 보육료지원	상주, 안동, 문경, 창원, 영천, 김해, 나주	1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 산후도우미 지원	공주, 아산, 삼척, 서산	9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미, 남원, 서산	6
아동돌봄센터	여수, 광양, 광주	6
시설운영비	안동, 여수	4
국·공립설치	양산	2
기타	구미, 김제, 삼척, 여수, 보령, 양산, 영주, 제천, 천안	18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어떤 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어린이집의 경우는 아동 수가 감소하여 운영이 어렵다는 응답이 9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농어촌 교사 수당 인상을 포함한 교사처우 개선이 5건, 농어촌의 상황을 고려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이 4건으로 다음 순이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은 결국 아동 수 감소로 인한 운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며 교사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원 수 조건을 완화하여 운영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입장의 제안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 가정 지원을 위한 부모의 보육료나 양육비에 대한 지원, 부모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12시간 보육시간에 대한 준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농어촌에

서는 산업 특성상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이 많으나 실제로 공급이 부족하여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부모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유치원 담당 공무원의 응답을 보면, 공립유치원 특히, 단설유치원의 확충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응답이 총 20명 중 10명에게서 나와 50% 비율을 보였다. 그 외 유아교육과를 교육(지원)청에 신설해야 한다든지 유아교육 고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점검 인력이 증원되어야 한다든지 등 행정력 강화 요구가 있었고, 방과후 과정 내실화, 동·읍·면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완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동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에서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VI-11〉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관련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

단위: 건

구분	어린이집(n=29)		유치원(n=20)	
문제점	아동 수 감소로 운영 어려움	9	공립(단설)유치원 확대 및 통합	10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	4	유아교육 행정력 강화	3
	교사처우개선, 교사 수당 인상	5	방과후 과정 내실화	2
	부모 보육료/양육비 지원	3	지역 간 불균형 완화	2
개선 요구 사항	교사/원장 교육	2	읍·면 지역 돌봄 강화	1
	지역 간 격차 해소	1	기타	2
	국공립 시설 확충	1		
	보육시간 준수, 야간 보육 이용	1		
	기타	3		

도농복합시의 육아정책 담당자로서 정부 정책이 관심을 두어야 할 사안으로서 꼽은 것은, 보육 담당자의 경우 농어촌의 상황과 어려움을 고려한 돌봄/보육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은 보육료 지원 확대, 지역 간 지원 불균형, 국공립 확충 등이 제시되었다.

유치원 담당 공무원들은 앞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동일하게 공립 단설유치원 확충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역 간 격차 또한 중요한 정책적 이슈라고 보았다. 또 면지역의 경우 아동 수가 적는데 비해 병설유치원은 많은 편이므로 운영의 효율화와 유치원 교육의 질적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공립유치원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돌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또한 농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차량지원 등 농촌 상황을 고려한 지원의 정책적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표 VI-12〉 도농복합시의 육아정책 담당자로서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심 기울여야 하는 사안

단위: 건

구분	보육 담당자		유아교육 담당자	
내용	농촌형 돌봄/보육지원 확대	4	단설/공립 확충	7
	농촌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2	동·읍·면(지역) 간 격차	5
	동·읍·면 간 지원 불균형	2	유치원 통합/돌봄 강화	2
	국공립 확충	2	농촌형 지원(차량 등) 강화	2
	교직원 처우 개선	2	예술 문화 프로그램 확대	2
	농촌 특별지원 확대	2	다문화 지원 확대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	방과 후 프로그램 강화	1
	유·보 통합 운영	1		

지역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 도시가 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라는 질문에 대해, 시청의 보육 공무원이나 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 공무원은 크게 다르지 않는 의견을 내놓았다. 육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바라고 돌봄이나 교육 기능을 하는 기관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일자리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고 교통 환경이 좋아져야 한다는 지적은 눈여겨볼 만하다, 또한 두 영역 담당자 공히 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고 방과후 돌봄 등 돌봄 기능이 증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표 VI-13〉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육아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단위: 건

구분	보육		유아교육	
내용	육아 인프라	9	다양한 돌봄/교육 센터/서비스 확충	3
	가정·양육 지원 확대	5	유아교육 예산 확대	2
	일자리 공급	3	방과후 돌봄 강화	2
	돌봄 확대	3	편리한 교통 환경	1
	국·공립 확충	3	교사 질 개선/처우 개선	1
	교직원 처우 개선	2	병원 확충	1
	기타	1	기타	5

Ⅶ.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1 요약: 지역 특징 및 요구

가. 도농복합지역 지역 특징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의 특징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존의 인구 등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문헌연구한 결과를 보면 도농복합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영유아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의 인구분석에 따르면, 도농복합도시의 도시나 농촌에 비해 인구감소를 겪는 지역이 적은 편으로 나타났고 전입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인구 유입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도농복합시는 0~4세 영유아 인구에 있어 2016년 기준 최근 5년간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9세 이하 아동 수 역시 도시나 농촌 지역에 비해 늘어났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수는 도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지역의 재정 자립도 또한 도시 수준과 가까워 농촌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도농지역 내에서 농촌과 도시 지역 간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육아나 교육의 영역에서 도시지역(동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농촌지역 주민의 만족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농복합시 내의 지역 간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도농복합시에 속하는 4개 도시를 선정해 실시한 면담사례를 보면 도농복합지역의 특징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선정한 도시는 완전한 도시지역⁴³⁾에 속하는 강원도

43)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도농복합지역을 큰 틀에서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음. 즉, 일반도시적 성격을 지닌 완전한 도시지역, 상대적으로 도시성이 적으며 독자적 생활권을 구축한 중소거점인 중간지역, 중심도시와 상호보완적인 성향을 보이는 대도시 배후지역인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이 그것임.

원주, 중간지역에 속하는 경기도 안성과 충청남도 당진,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에 속하는 나주이다. 이 중 전통적인 농촌지역에 가깝고 자립형 중소거점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안성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안성의 경우, 인구가 장기 정체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유아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같은 중간지역에 속하는 당진의 경우, 해안을 접해 철강 산업 관련 기업이 대거 자리잡고 있어 남성 일자리가 풍부하므로 결혼과 함께 이주하는 유입 인구가 많아 영유아 인구 또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도시지역에 속하는 원주도 문막읍을 중심으로 지방산업단지가 형성되고 제조업체가 상주하면서 강원도 내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도시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나주시는 2013년 이후 혁신도시로 조성되면서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지정된 빛가람동을 중심으로 여러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관계 인구가 이동해 들어오면서 지역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출생률도 높아져 영유아 및 전체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사례에 해당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농복합도시는 일반적인 도시나 농촌과 달리 인구유입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 특성을 지닌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이 젊은 세대의 이주와 함께 영유아 인구 증가를 예상케하고 결과적으로 이에 따르는 육아지원 서비스 요구가 높아지는 곳으로 특징될 수 있는 것이다.

도농복합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도농복합시 내부 일정 지역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일자리와 주택공급이 늘어나고 필요한 인구가 유입되어 영유아 보육 등 육아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읍’지역이나 신규 ‘동’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역들은 제조업 등 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해있고 특히 교통이 편리하여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위치에 있다. 즉, 도농복합시는 신도시형 읍이나 新 동지역, 기존의 전통적 도시이며 정체되어 있는 舊 ‘동’지역, 농촌이라 할 수 있는 ‘면’지역, 이렇게 3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 동과 읍 또는 면 간 인구, 환경, 요구의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어느 한 곳의 상황이 도농복합시 전체 특징이 되기는 힘들다. 즉, 앞서 언급한 인구가 늘어나는 신도시지역과 달리 도농복합시 내 면지역은 농지가 대부분이고 영유아 인구는 미미한 정도인 곳이 많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정원 충족률은 매우 낮은 상황이 된다.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은 운영이 어려워지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동이나 신도시 읍지역은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급이 부족하여 부모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도농복합도시 내 지역 격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제되어 있는 舊 동지역이나 면지역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新 동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조차도, 그들 다수는 자녀가 다녀야 하는 지역 내 교육 기관에 대해 불안해하고 초등학교 기간 중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다른 시로 이주해 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

넷째, 영유아 가구의 많은 수가 지역으로의 유입인구에 속하여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니고 타 지역, 타 시도 출신이 많다. 따라서 원가족, 친지 등 육아 중 도움을 받을 대상이 가까이에 없고 남성중심 제조업 등 근무시간이 긴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자녀 부의 육아참여를 기대하기 힘든 경우도 많으므로 자녀 모가 육아를 전적으로 맡아야 하는 독박육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육아스트레스를 해소할 환경도 없는 상황이라 영유아 부모, 특히 모의 정신건강과 웰빙에 대한 요구가 높다.

나. 도농복합지역 영유아 육아 관련 요구

1) 서비스 공급자의 측면

도농복합도시는 농촌과 도시, 그리고 신도시가 혼합된 복합적 성향의 지역이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그 중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운영상 문제점이나 요구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읍면동의 다양한 지역에 위한 기관을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많은 사례를 포함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들의 목소리에 근거하여 서비스 공급자의 애로점과 필요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아동 수가 감소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충족률 편차가 있어 도농복합시 내부적 지역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수 감소는 도농복합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나 농촌지역의 면적이 넓게 차지하고 있는 도농복합시의 경우, 면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특히 이러한 문제점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도시에 해당하는 신규 동이나 읍의 경우는 오히려 대기자가 있고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 차이의 해소가 필요하다.

둘째, 비슷한 맥락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동지역에 위치한 시설과 행정 경계를 넘어서 인근의 면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과는 정부 지원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있다. 즉, 면지역 어린이집은 농촌에 속하므로 농어촌교사수당 월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농촌형 규정에 따라 인원초과보육도 가능하다. 그러나 매우 근접한 위치라 하더라도 행정구역상 동이면

농촌이 아닌 도시 지역으로 분류되어 농촌에 해당하는 지원이 없게 된다. 동일한 생활주거권에 있고 전통적 '동'의 경우 아동 수가 증가되지 못하는 농촌적 성향을 띠고 있을 수 있는데 이들도 동일하게 도시 어린이집으로 포함되는데 대한 현실적 불평이 있는 것이다.

셋째, 통학차량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면지역의 경우 면적이 넓어서 운행해야 하는 범위가 운영비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모든 영유아를 등하원시키기에는 과도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공립유치원은 통학차량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이러한 점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맞벌이 부모들은 4·5시 이후 늦은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시설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갖는데 비해 어린이집 측에서는 농촌이라는 지역특성상 여성이 대부분인 교사 1인이 남아 연장보육을 진행하는 것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점, 극소수의 영유아만이 이용하므로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늦은 시간 보육, 연장보육이 불가능함을 호소한다.

2) 영유아 부모의 측면

도농복합지역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 부모들의 요구와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맞벌이 부모의 경우 등하원 시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통원 차량은 이용시간이 적절치 않아 활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자녀가 다니는 기관을 선택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집과의 거리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교사, 프로그램 순이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에서는 운영시간이 집과의 거리 다음으로 중요한 선택 요인으로 선택되었다.

셋째, 부모들의 이용 의사가 가장 높은 형태는 '시간제 보육'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이 되는 도농복합지역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어린이집 외 보육지원 기관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간제보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미미한 수준이다. 전업주부인 경우와 조부모 등 육아지원을 위한 활용 인력이 있음 등을 고려할 때 시간제보육의 필요성이 두드러진다. 이 외에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 또한 높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 형태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에 대한 요구가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도시지역이라 할 수 없는 중간지역의 도농복합시에서 교사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고, 완전한 도시지역 유형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을 감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섯째, 육아환경으로서 도농복합지역은 소아과 병원, 응급의료서비스 등 의료시설이 부족하

다는 것이 대부분 지역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여섯째, 문화시설 혹은 영유아를 위한 교육적 체험시설이 부족하여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소외를 느끼고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 1년간 영유아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42~45%가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는 답을 하였고 이용한 가정의 40-50%는 거주하고 있는 도시가 아닌 타도시의 박물관이나 공연, 체험시설을 이용하였다고 답하여 문화와 체험의 측면에서 도농복합시는 도시로서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보육·교육정책의 면에서, 가장 필요성이 큰 것으로 선택된 정책은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 제고였고, 다음으로 가구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였다. 특히 영아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사의 자질이나 장시간 보육에 대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또 유치원의 확충을 요구한 것은 특히 ‘읍’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찬가지로, 양육환경 개선에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이 제일 먼저라고 꼽혔고 영유아 놀이시설과 체험시간 등 공간 확충 또한 중요한 문제로 선택되었다.

여덟째,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야간시간에 이용가능한 자녀돌봄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전체의 65.2%가 이를 응답하였고, 다음이 자녀놀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응답들은 지역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중간지역에서 특히 자녀 놀이나 학습 정보 부족이 어려움이라고 꼽고 있었고 이는 읍지역이나 영아보다는 유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해당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한편,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에서는 소아전문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야간돌봄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큰 어려움으로 선택하였다. 거주 도시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가장 단점이라고 보는 점 또한 비슷한데, 문화시설 이용이 불편하고 놀이터나 체험시설이 부족하며, 의료시설의 질이 낮다는 것 또한 많은 부모가 선택하였다.

아홉째, 거주하고 있는 도농복합시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이라 보는지에 대해 완전한 도시지역은 7점 총점에 4.27을 받았지만 중간지역과 연계지역은 모두 3점대의 점수에 머물렀고 면지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도농복합시에 있어 도시지역과 농촌 중심지역은 육아와 관련한 삶의 만족도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도 6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도농복합시의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열째, 도농복합지역의 많은 부모가 자녀교육과 보육으로 인해 그들 중 50% 가까이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자녀가 10-12세 되는 지점에 그러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열한째,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50% 가까이 가장 많은 아동들이 학교 방과후교실을 이용하고 있었고 25%는 방과후와 연계된 초등 돌봄교실을 다니고 있었다. 맞벌이 중 33%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어 상당한 비율을 보였고 평균 이용시간은 2시간 9분, 방과후교실은 약 1시간 27분 정도로 조사되어 맞벌이 가정의 초등 저학년은 방과후와 돌봄을 합쳐서 일일 총 3시간 36분을 방과 후에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 종료가 1시부터 3시정도까지로 보면, 3시 정도에 마칠 때 맞벌이 부모가 귀가하여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거의 맞물려 적당하고 할 수 있겠다. 돌봄교실은 수요일에 비해 자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 정책 제안

가. 기본 방향

본 보고서에서는 도농복합도시의 고유한 특성과 면담, 설문조사, 문헌자료 등 다양한 연구방법에 의한 종합적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하고자 한다.

첫째, 도농복합도시는 농촌지역인 면과 도시 및 농촌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읍, 그리고 도시적인 특성을 가진 동 등 행정구역 구분에 따라 다양한 측면을 복합적으로 가진 지역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영유아 부모, 공무원 등 관련자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행정구역에 따른 육아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도농복합도시를 완전한 도시지역, 중간지역, 중심도시 연계형 중간지역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도농복합도시의 지리적 위치, 인구, 산업, 역할, 주변 도시와의 관계 등 여러 여건에 근거하여 분류된 결과이며 이러한 구분이 줄 수 있는 함의를 찾아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영유아에 대한 보육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아 대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은 복잡다난한 도농복합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그 성격이 가지는 고유성이 희미해지는 면이 없지 않지만, 면지역, 동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나 개선 필요성이 다르게 작용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책제언을 할 필요가 있다.

나. 육아실태 개선 정책 우선 지역: '중간지역형' 도농복합시 - 지역 내 격차 완화 추진

중간지역에 속하는 도농복합시에 대해 우선적으로 동-읍-면 간 지역적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다른 유형의 도농복합시도 비슷한 지역 간 격차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중간지역(농촌성향을 많이 지닌 지역) 시가 내부적으로 가장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부모들이 느끼기에 육아가 힘든 지역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고 육아지원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 또한 가장 높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어려움에 중앙정부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이 요구된다.

도농복합시의 유형 중 중간지역은 독자적인 생활권을 구축하고 있고 지역의 중소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이 있는 도시로 특성이 구분되지만, 완전한 도시지역형 보다는 농촌적 성격을 많이 지니고 높게는 50%까지의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이러한 중간 지역 도농복합시는 교통이나 산업지역이 위치한 신흥 읍지역으로 젊은 세대 가구가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반면, 전통적 도심이라할 동지역은 노후화하고 정체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상대적으로 넓은 면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하여 해당지역 유치원, 어린이집은 운영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1) '동'지역에 대한 농어촌 지원 정책 적용

중간지역 유형의 도농복합시 내 동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읍, 면과 동일한 수준에서 농촌 보육지원 정책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농어촌교사 특별수당인 월 11만원을 중간지역 도시에서는 행정구역 '동'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에게도 줄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차량운행 유류비 지원도 해당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 적용한다.

2) '면'지역에 대한 완화된 정책 적용

또한 중간지역 도시의 면지역에 대해서는 규정을 한층 더 완화하여 보다 적은 인원의 영유아를 돌보더라도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 수 규정을 예외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유아반의 경우, 3세 아동이 1:15이면 80%인 12명 이상일 때 인건비가 지원되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를 중간지역 면지역에 한해 10명 이상 정도로 기준을 낮춰서 아동 수가 적은 면지역에서의 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면지역에서의 어린이집 운영이 보다 활기를 얻고 보육의 질 또한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인식이 좋아진다면 동이나 읍에서 시설 부족으로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영유아까지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다.

3) 신도시 ‘읍’지역 교육·보육 서비스 양적·질적 제고 노력

중간지역의 신흥 읍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이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젊은 세대 가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의 영유아 부모는 인구와 주택은 늘어나고 그에 따르는 육아나 생활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있고 이주에 들어온 타지 출신이 많아 생활 적응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또한 장래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으로 인근 도시로 다시 전출하고자 하는 의식도 강하다. 이들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유입 인구의 거주에 대해 환영하고 있음을 체감하게 하고 지역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인프라 확대와 방과후 교실 내실화 등으로 젊은 세대의 교육적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 요구된다.

다. 교육·보육 시설 개선

1) 장시간·야간 보육 이용 시설 제공: 거점형 시설

도농복합시 영유아 부모가 가진 가장 큰 요구 중 하나는 조금 늦은 저녁시간까지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곳이 부족하고 야간보육을 하는 곳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어 장시간 일해야 하는 맞벌이 부모의 육아 어려움을 해소해달라는 것이었다. 농어촌은 아이돌보미와 같은 개별 비혈연 육아지원 서비스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야간보육 이용에 대한 요구는 더 클 수 있다. 특히, 면지역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가장 컸다는 점도 개별 육아도우미 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는 결과라 하겠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거점형 장시간 보육서비스 시설을 지정하고 집중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거점형 시설은 기존 어린이집 중 일부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고 또는 신규 시설을 설치하여 거점형 보육센터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 거점 어린이집 방식

기존 어린이집 중 한 곳을 거점시설로 선정하여 활용할 경우, 면지역 어린이집 중 한 곳(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거점으로 지정하고 (거리상 차량 이동 30분 이내)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보육 이용을 희망하는 영유아를 하원시간에 소속 어린이집(B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해 거점 어린이집(A 어린이집)으로 이동시킨다. B어린이집에 대해 현재 기본운영시간인 7시 30분 기준을 잣대로 들이대기보다는 주변 인적이 드문 농촌이고 현실적인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종료시간

혹은 차량운행이 일상적인 4~5시 정도에 A어린이집으로 이동하기를 허용해야 하며, 부모에게는 7시 30분까지는 기본 보육지원 내 시간이므로 추가 비용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 A어린이집에서는 소속 교사와 물리적 환경을 거점형 연장보육 서비스를 위해 활용하고, 교사는 해당 어린이집의 시간연장 교사뿐만 아니라 B어린이집(비거점시설) 시간연장 교사 또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운영이 원활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지원 수준은 지자체에서 면밀히 검토해 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나) 영유아 보육 스테이션(가칭) 방식

본 보고서 3장에서 살펴본 일본의 송영보육스테이션을 벤치마킹하여, 기존 어린이집이 아닌, 신규 시설로 저녁 돌봄을 위한 보육센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각 어린이집에서 맞춤반 이후 시간의 종일보육 또는 연장보육을 희망하는 영유아를 해당 시설 차량을 이용하여 스테이션으로 이동해오고 부모는 퇴근 시 야간보육센터로 가서 자녀를 데리고 귀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본 사례에서 본 나가레야마시 전철역 보육스테이션이 경우와는 달리 부모의 직장이 이 시설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동선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스테이션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집으로 귀가시켜 줄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이용이 편리할 것이다.

도농복합시 영유아 스테이션은 오후 4~5시 이후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안전과 효과성, 효율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한 곳으로 모아 보육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담당 교사와 교재교구, 기타 장난감 등이 갖추어진 공간이 있어야 한다. 스테이션식 야간보육센터는 지자체 직영으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성에 대한 보장, 단시간 근무 인력에 대한 인건비 확보의 측면에서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본다.

2) 공립병설유치원의 통합과 단설유치원 증설

도농복합지역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다수의 전문직 공무원들 의견에서 큰 비중으로 제시되는 안이 아동 수가 부족하여 지속 운영이 어려운 면지역의 공립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고 동지역에 대해서는 단설유치원을 증설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공립유치원은 학교로 이어지는 단계에 있는 기관이므로 학교의 일부로 여겨지는 측면도 있어 상징적인 측면에서 유지되어야 함을 내세우는 입장도 있다. 학교가 필요한 것처럼 면지역의 병설유치원도 유지되는 편이 좋을 것이나, 유아를 위한 교육환경과 양질의 프로그램을 고려한다면 통학을 위한 버스가 제공되는 조건에서 보다 적정 규모의 병설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유아교육의 시각에서 적절할 것이다.

동지역에서는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어 병설이 모두 수용치 못하는 대상 인원에 대한 확대의 역할과 장애영유아 교육 등 공립이 가진 의미 있는 역할에 집중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지비용이 비싼 동지역 보다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면지역에 병설 대신 단설을 설치하여 오히려 동에서 면으로 유아를 이동시켜 전원적 환경을 경험케 하는 방안도 생각해 봄직한 안일 것이다.

3) 보육의 질 개선: 우수 교사 유치 방안 강구

도농복합시 부모나 보육 관련자는 보육의 질 개선을 가장 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데, 보육의 질을 보육교사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개선을 시도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일본 나가레야마시 사례에서 보듯이, 우수 교사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방식처럼 1) 일정 기간(예. 5년) 해당 도농복합시 농촌 지역에 근무할 경우 대학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도 있고, 2) 타 지역 출신으로 해당 지역에 근무하고자 하는 교사일 때 주거비를 일부 지원해줄 수 있다. 또한 3) 교통 편의를 위해 자동차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든지 등 직접적 체감이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4) 현재 11만원 지급되고 있는 농어촌 교사수당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상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더라도 최대 20만원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우수 교사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4)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 및 이용시간 확대

도농복합지역에서는 학교 방과후 시간 동안 다른 보육의 방식보다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의 이용 비율이 높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장 많이 의존하는 돌봄이 되고 있다. 그러나 면담의 결과를 보면 방과후교실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 듯 하나 방과후 돌봄은 자리가 부족하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에 적절한 돌봄교실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이용시간에 대한 조사를 보면 방과후교실까지 포함하여 3시간 30분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초등 저학년, 특히 1학년의 경우는 맞벌이 부모를 두었을 때 부모 퇴근 시까지의 충분한 돌봄시간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야간돌봄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므로 현재 방과후교실 1시간 30분, 돌봄교실 2시간 이용으로 조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돌봄교실을 1시간 정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육아환경 개선

1) 부모-자녀 공동 활동 공간 '육아광장' 설치

‘부모와 함께 참여할 체험이나 놀이시설이 부족하다’,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다’, ‘육아 정보가 부족하다’, ‘타지출신이라 고립감이 크다’라는 여러 가지 육아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보고서의 일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육아광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육아광장은 부모가 자녀가 함께 방문하여 자유롭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시간을 보내다 갈 수 있는 곳으로, 참여하는 부모끼리의 육아정보 교환과 관리 교사가 제공하는 부모상담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엄마랑 아기랑’과 같은 체험교실 등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요구에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자체 재정 수준이 가능하다면 좀 더 다양한 놀잇감과 환경으로 공공 키즈카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도 될 것이다.

일본의 0123 육아광장은 0~3세 영아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므로 공간 구성이나 구비한 장난감이 영아용이 대부분이었다. 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아 대상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도농복합시의 육아광장 또한 영아용, 유아용 구별된 시설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유아용의 경우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공간이나 설비, 구비 시설 등이 키즈카페 형식이 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운영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육아프로그램의 노하우를 가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하여도 된다. 혹은 공립유치원이 참여할 수도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시설의 일부를 육아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은퇴한 교사나 단기 인력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만큼의 인건비가 필요치 않으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도농복합시에서 그 기능을 일부 할 수 있는 소규모 센터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2) 의료시설의 확충

대부분의 도농복합시가 가진 육아친화가 어려운 환경요인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소아전문병원이 수적으로 매우 부족하고 기존의 오래된 병원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중보건의 배치 시 소아과 또는 가정의학 등 관련 전공 의사를 도농복합시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소아과 병원을 신흥 동이나 읍지역에 개원할 경우,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통해 개원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혹은 건물 대여비용에 대한 장기저리 대출 등 금전적 지원 환경을 제공하여 병원 개원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응급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말이나 야간 시기, 응급차를 부를 정도의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영유아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현재의 인프라와 인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지역 보건소 혹은 공공 네트워크 속의 의사 등 담당 의료인과 연결되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주말 등 필요시 의료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넷째, 독박육아와 타지 생활 등으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영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서적 치유 혹은 정신과적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러한 치료를 받겠다는 경우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보건소를 통한 부모교육, 부모행복감 교육 등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3) 영유아 문화센터로서 지역 도서관의 활용성 강화

도서관 체계를 보면 시청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도)립도서관이 있고 교육(지원)청이 설립, 관할하는 도서관이 있다. 즉 다양한 재원에서 설치되고 있어 설립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는 편이다. 도서관은 지역 주민을 위한 독서 및 문화, 교육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적 시설이 거의 없는 도농복합시에서 도서관의 예산 활용성을 키워 시내 문화회관 등 기관과의 협업 속에 영유아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서관의 전문적 인력과 재정을 활용하고 지역 내 공공 공간 등 물리적 환경을 접목하여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공연, 독서와 관련한 체험 교실 등을 보다 많이 개최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경희·박분희·양미경(2000). 농촌지역 영유아 보육정책 개발연구, 농림부.
- 김미정(2013). 농촌지역 육아지원서비스 운영실태 및 정책제언.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선명·김기현(2008). 행정구역개편안에 관한 주요 쟁점 및 평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351-381.
- 김은설·윤재석·윤지연(2015). 농어촌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이정원·박진아·조혜주(2014). 농촌 소규모 보육 및 돌봄시설 운영모델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이정원·지성애·이세원(2007).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돗토리현 내부자료(2018). 본 연구수행 중 일본 현지출장에서 확보한 자료임.
- 박종서·윤여원·정준영(2012). 저출산 현상의 통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 사례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진경·김상민(2017). 전남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전라남도 정책이슈 리포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배은석·박해금(2016). 도농복합지역 주민의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8, 173-199.
- 보건복지부(2018). 2017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서문희·이미화·김은설·이세원(2006).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손승호(2013). 인구규모의 변화를 통해 본 도농통합시의 차별적 성장.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1). 85-98.
- 안성시청 내부자료(2018. 8). 안성시청 공무원 면담에서 확보한 자료임.
- 이규천·최경환(2008). 농촌지역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본사례 사진(2018. 11. 6~8). 본 연구 수행을 위한 현지답사 사진임.
- 정도채·심재현·유은영(2015).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도채·심재현·유은영(2016). 2016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석주·장은주·박종관·윤석범(2000). 도농복합형태의 시 제도분석과 발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은희(2010). 충남 농어촌 보육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통계청 보도자료(2017. 9. 28).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18. 8. 22). 2017년 출생 통계.

호남지방통계청 보도자료(2018. 11. 27). 2018년 전라남도 고령자 통계.

〈데이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lInfoP.do?lsiSeq=78876#0000> (2018. 8. 3. 인출)

유은영·박지숙(2017). 2017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e-지방지표, <http://kosis.kr/visual/eRegionJipyo/index/index.do> (2018. 8. 3. 인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국내통계, 주제별통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2018. 8. 4. 인출)

〈해외 사례 참고사이트〉

<http://www.coreap.org.nz/about-coreap/> (2018. 8. 16. 인출)

<http://www.coreap.org.nz/about-coreap/what-we-do/> (2018. 8. 16. 인출)

<http://www.reapaotearoa.nz/reaps> (2018. 8. 16. 인출)

<https://hechingerreport.org/how-rural-families-came-to-rely-on-head-start/> (2018. 8. 16. 인출)

<https://money.cnn.com/2017/12/14/news/economy/kentucky-child-care/index.html> (2018. 8. 16. 인출)

<https://www.louisianabelieves.com/docs/default-source/child-care-providers/ccap-application-process-flowchart.pdf?sfvrsn=2> (2018. 8. 16. 인출)

<https://www.louisianabelieves.com/early-childhood/child-care-assistance-program> (2018. 8. 16.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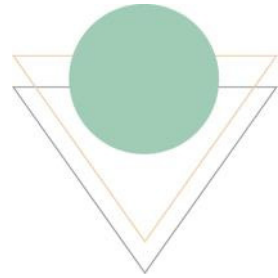
<https://www.nafcc.org/About-Us> (2018. 8. 16. 인출)

<https://www.rd.usda.gov/programs-services/community-facilities-direct-loan-grant-program/ia> (2018. 8. 16. 인출)

<https://www2.ed.gov/programs/21stcclc/index.html> (2018. 8. 16. 인출)

〈국내 사례 참고사이트〉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an.kr/intro/school_1.php (2018. 11. 27. 인출)
- 나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naju.go.kr/www/administration/administration/stats/statistics>
(2018. 9. 30. 인출)
- 당진시청 홈페이지>당진소개 https://www.dangjin.go.kr/kor/sub04_01_02.do (2018. 11. 10. 인출)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산업단지통계
<http://www.kicox.or.kr/home/gvrn/irsttInfo/irsttStats.jsp>. (2018. 11. 19. 인출)
- 안성시청 홈페이지>안성소개>안성역사>연혁
<https://www.anseong.go.kr/portal/contents.do?mId=0503020000> (2018. 8. 16. 인출)
- 안성시청 홈페이지>안성소개>안성현황>위치
<https://www.anseong.go.kr/portal/contents.do?mId=0505010000> (2018. 8. 16. 인출)
- 안성지도 <https://blog.naver.com/jkim0815/30175840172> (2018. 8. 16. 인출)
- 원주시(2017). 원주비전 2026 장기발전연동계획 (2017-2016).
<http://www.wonju.go.kr/www/selectBbsNttView.do?key=2639&bbsNo=184&nttNo=133888> (2018. 11. 19. 인출)
- 원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www/contents.do?key=230> (2018. 11. 19. 인출)
- 원주시통계 http://stat.wonju.go.kr/page/view.php/1sub2_4a. (2018. 11. 19. 인출)
- 통계청(2018). 2018년 고령자 통계.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jsp?num=180865>
(2018. 9. 30. 인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s://www.mois.go.kr/frt/sub/a05/totStat/screen.do>, (2018. 11. 19. 인출)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www.mois.go.kr/frt/sub/a05/totStat/screen.do> (2018. 9. 30. 인출)



부록

- 부록 1. 부모 대상 설문지
- 부록 2. 공무원 대상 설문지
- 부록 3. 공무원 조사 주관식문항 결과표

부록 1. 부모 대상 설문지

도농복합지역 영유아 부모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관련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지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18년 연구과제인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 56개 도농복합시의 육아지원 현황 및 요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가 정책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성 ② 여성

SQ2. 귀하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만 18세 이상)

SQ3. 귀하의 혼인상태를 선택해 주세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

SQ3-1. [PROG: SQ3=2만] 귀하의 배우자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SQ4.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① 있음 (1 이상)명 ② 없음 → 설문중단

SQ4-0. 실제로 귀하의 자녀(들)와 거주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설문중단

SQ4-1. 귀하의 자녀의 나이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큰 자녀 순서대로 기입해 주세요.

[PROG: SQ4의 수만큼/ 최대 4] 자녀 중 1~6번이 한 명이라도 없으면 → 설문중단

[prog: 1~6번 응답 시, 5번 응답되면 안됨/ 7번~8번은 1~3번 안됨]

	2-1. 연령(만)		2-2. 성별	2-3. 기관 이용 현황
자녀1	① 0세(생후 12개월 미만) ③ 만2세(24~36개월 미만) ⑤ 만4세(48~60개월 미만) ⑦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② 만1세(12~24개월 미만) ④ 만3세(36~48개월 미만) ⑥ 만5세(60개월~취학전) ⑧ 초등학교 4학년 이상	① 남아 ② 여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반일제학원(영어유치원 등) ④ 이용하지 않음 ⑤ 초등학교 ⑥ 기타()
자녀2	① 0세(생후 12개월 미만) ③ 만2세(24~36개월 미만) ⑤ 만4세(48~60개월 미만) ⑦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② 만1세(12~24개월 미만) ④ 만3세(36~48개월 미만) ⑥ 만5세(60개월~취학전) ⑧ 초등학교 4학년 이상	① 남아 ② 여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반일제학원(영어유치원 등) ④ 이용하지 않음 ⑤ 초등학교 ⑥ 기타()
자녀3	① 0세(생후 12개월 미만) ③ 만2세(24~36개월 미만) ⑤ 만4세(48~60개월 미만) ⑦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② 만1세(12~24개월 미만) ④ 만3세(36~48개월 미만) ⑥ 만5세(60개월~취학전) ⑧ 초등학교 4학년 이상	① 남아 ② 여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반일제학원(영어유치원 등) ④ 이용하지 않음 ⑤ 초등학교 ⑥ 기타()
자녀4	① 0세(생후 12개월 미만) ③ 만2세(24~36개월 미만) ⑤ 만4세(48~60개월 미만) ⑦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② 만1세(12~24개월 미만) ④ 만3세(36~48개월 미만) ⑥ 만5세(60개월~취학전) ⑧ 초등학교 4학년 이상	① 남아 ② 여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반일제학원(영어유치원 등) ④ 이용하지 않음 ⑤ 초등학교 ⑥ 기타()

SQ5. 귀하의 거주지(주택)이 위치한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지도 2개 삽입)

SQ5-1. 귀하의 지역 구분을 선택해주세요.

구분 1	① 동지역 ② 읍지역 ③ 면지역
구분 2	① 도심주택지역 ② 농발 인근 지역 ③산업단지 인근 ④ 상업지역
주택 구분	① 아파트 ② 빌라/다가구 ③ 단독 주택

SQ6-1. 귀하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출신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지역 출신 기준: 현재 거주 지역에서 만 18세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SQ6-2. [PROG: SQ3=2만]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출신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지역 출신 기준: 현재 거주 지역에서 만 18세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PROG: SQ3=1,3에 경우, Q1-1~Q1-9 배우자를 질문하지 않음]

Q1-1.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에 취업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PROG: 둘 다 무직일 수 없음]

본인	배우자
① 임금근로자(비정규직 포함) ②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농업 포함) ③ 무급가족 종사자 ④ 무직	① 임금근로자(비정규직 포함) ②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 ③ 무급가족 종사자 ④ 무직

Q1-2. (Q1-1의 ①인 경우) 정규직 유무를 선택해주세요.

본인	배우자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Q1-3. (Q1-1의 ①, ②, ③인 경우) 사업장 규모(직원 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	배우자
① 1~4인 ② 5~9인 ③ 10~19인 ④ 20~49인 ⑤ 50~99인 ⑥ 100인~299인 ⑦ 300인 이상	① 1~4인 ② 5~9인 ③ 10~19인 ④ 20~49인 ⑤ 50~99인 ⑥ 100인~299인 ⑦ 300인 이상

Q1-5. (Q1-1의 ①, ②, ③인 경우) 귀하의 업종을 선택해주세요.

본인	배우자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운수업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⑪ 금융 및 보험업 ⑫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⑯ 교육 서비스업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⑤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운수업 ⑨ 숙박 및 음식점업 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⑪ 금융 및 보험업 ⑫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⑭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⑯ 교육 서비스업

본인	배우자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⑳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 활동 ㉑ 국제 및 외국기관	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⑲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⑳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 활동 ㉑ 국제 및 외국기관

[PROG: (Q1-1의 ①, ②, ③인 경우)만 문항 나옴, Q1-6~Q1-9까지]

Q1-6. 근무 시간을 선택해주세요.

※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번기의 근무시간으로 답하여 주십시오.

※ 예: 오전 9시의 경우 09시로 입력, 오후 9시의 경우 21시로 입력해주세요.

[PROG:2자리로 둘 다 응답하게 해주세요.]

본인	배우자
()시()분 ~ ()시()분	()시()분 ~ ()시()분

Q1-7. 출퇴근 방법 및 소요 시간을 답하여 주세요. 편도소요시간을 기입해주세요

(1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에 0을 기입해주세요)

[PROG: 0시간 0분 불가능]

본인	배우자
① 차량 ()시간 ()분 ② 대중교통 ()시간 ()분 ③ 도보 ()시간 ()분	① 차량 ()시간 ()분 ② 대중교통 ()시간 ()분 ③ 도보 ()시간 ()분

Q1-8. 근무형태를 보고 응답해주세요.

구분	본인	배우자
A. 매일 근무시간 양이 거의 같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B. 매주 근무일수가 거의 같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C. 매주 근무시간대가 거의 같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D.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E. 대기근무(호출을 받으면 바로 와서 업무를 수행)를 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F. 교대근무를 한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Q1-9. 교대 근무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PROG: Q1-8의 E항목의=1(그렇다)선택한 사람만]

본인	배우자
① 평일 분할교대 ② 영구교대(오전, 오후, 야간) ③ 기타()	① 평일 분할교대 ② 영구교대(오전, 오후, 야간) ③ 기타()

Q1-10. 귀하 가구의 월 소득(세후, 모든 소득 포함)을 선택해주세요.

- | | |
|-----------------------|-----------------------|
| ① 200만원 미만 | ⑤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
| ②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⑥ 600만원 이상 |
| ③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
| ④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

I. 자녀 양육

Q2-1. 귀택에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가 부/모 임)

구성원	1-1. 구성원 유무/수
1) 조부 (자녀의 (외)할아버지)	① 있다(함께 거주) ② 없다(거주X)
2) 조모 (자녀의 (외)할머니)	① 있다(함께 거주) ② 없다(거주X)
3) 부	① 있다(함께 거주) ② 없다(거주X)
4) 모	① 있다(함께 거주) ② 없다(거주X)
5) 형제·자매(자녀)	()명 [SQ4번의 자녀수보다 작거나 같게]
6) 기타(친인척, 비혈연 포함)	()명
7) 총 합계	(자동 합계)명

[※ Q2-1번 질문에서 3) 부, 4) 모 중 한 개라도 2번 보기가 있을 경우, 아래 문항 질문]

Q2-1-2.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 ① 부 또는 모의 직장 때문 | ② 부모가 별거함 | ③ 부모가 이혼함 |
| ④ 부 또는 모가 사망함 | ⑤ 미혼모 또는 미혼부임 | ⑥ 부 또는 모가 가출함 |
| ⑦ 기타 () | | |

Q2-2. 자녀의 현재 부모는 이주민(다문화, 결혼이민자, 귀화자)입니까?

본인	배우자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① 그렇다 ② 아니다

Q2-3. [Q2-2에서 둘 중 한 개라도 1] 예가 있는 경우 지역 내에 다문화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다문화 프로그램 등)이 충분합니까?

매우 불충분	불충분	보통	충분	매우 충분
1	2	3	4	5

Q2-4. 자녀를 기르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구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어렵지 않음	전혀 어렵지 않음
1) 아이와의 상호작용	1	2	3	4	5
2) 양육 및 교육 비용	1	2	3	4	5
3) 양육에 대한 배우자와의 갈등	1	2	3	4	5
4) 양육에 대한 자신감 결여	1	2	3	4	5
5) 자녀 맡길 곳의 부족	1	2	3	4	5
6) 자녀 양육에 대한 주변 친지 등의 도움 부족	1	2	3	4	5
7) 자녀지도·교육에 대한 지식 부족	1	2	3	4	5
8) 일과 양육 병행	1	2	3	4	5

Q2-5.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 주로 어려움을 겪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 ① 없음 ② 오전 6시~9시 ③ 오전 9시~12시
 ④ 오후 12시~3시 ⑤ 오후 3~5시 ⑥ 오후 5시~7시
 ⑦ 저녁 7시~9시 ⑧ 밤 9시~11시 ⑩ 밤 11시 이후

Q2-6. 현재 자녀 양육을 가장 많이 배우자 외에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아동의 친조부모 ② 아동의 외조부모 ③ 아버지의 형제자매
 ④ 어머니의 형제자매 ⑤ 이웃, 엄마·아빠 친구 ⑥ 기타()
 ⑨ 없음

II. 자녀양육 및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막내'를 기준으로 응답

Q3-1. 귀하가 이용 중인 기관과 돌봄 시간 등을 모두 표시해주세요.

※ 기관 이용시 시간 작성 예: 오전 9시의 경우 09시로 입력, 오후 9시의 경우 21시로 입력해주세요.

[이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일수/시간 받음, 일수가 둘 다 0/0일 수 없음]

[PROG: 1] 번 보기의 시간, 분 2자리로 둘 다 응답하게 해주세요]

이용 중인 서비스 기관 또는 돌봄 인력	이용 일 수	일일 돌봄(이용) 시간(평일 기준)
① 기관 이용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학원 및 기타 기관)	평일(0~5)일 주말(0~2)일	0시 0분 ~ 0시 0분
② 혈연 개별보육 서비스(조부모 등)	평일(0~5)일 주말(0~2)일	① 2시간 미만 ②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③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④ 6시간 이상
③ 비혈연 개별보육 서비스(민간도우미, 아이돌 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평일(0~5)일 주말(0~2)일	① 2시간 미만 ②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③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④ 6시간 이상
④ 시간제학원(총 누적시간)	평일(0~5)일 주말(0~2)일	① 2시간 미만 ②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③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④ 6시간 이상
⑤ 기타 (구체적으로:)	평일(0~5)일 주말(0~2)일	① 2시간 미만 ②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③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④ 6시간 이상
⑥ 서비스나 돌봄 이용 없음 (부모가 직접 양육)		

☞ 이용 시간은 이동시간까지 포함

Q3-2. (Q3-1번에서 1을 선택한 경우) 자녀의 기관 등하원 방법 및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에 0을 기입해 주세요)

	등원	하원
등하원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① 기관 차량 ② 도보 ③ 자가 차량 ④ 대중교통(버스) ⑤ 지하철 ⑥ 기타()	① 기관 차량 ② 도보 ③ 자가 차량 ④ 대중교통(버스) ⑤ 지하철 ⑥ 기타()
기관까지 이동하는 시간	() 시간 () 분	() 시간 () 분

Q3-3. (Q3-1번에서 1을 선택한 경우) 기관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국공립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③ 법인·단체어린이집
④ 민간어린이집 ⑤ 가정어린이집 ⑥ 직장어린이집
⑦ 부모협동어린이집 ⑧ 국·공립유치원 ⑨ 사립유치원
⑩ 반일제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⑪ 기타()

Q3-3-1. (Q3-1번에서 1을 선택한 경우) 이 아이가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점을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OG: Q3-3에서 1~7번 응답시만, 15번 19번 보기 활성화]

01) 원장	02) 교사	03) 운영시간
04) 비용	05) 교육프로그램	06) 건강·영양(급식·간식 등)
07) 기관 학급 규모(아동 수)	08) 실내 환경	09) 안전한 보호(CCTV설치 여부 등)
10) 집과의 거리	11)	12) 국공립 여부
13) 주변 평판	14) 주변환경	15) 평가인증 결과
16) 차량운행 여부	17) 특별활동(방과후 특성화활동)	18) 형제 자원 여부
19) 공공형어린이집 여부	20) 기타()	

Q3-4 현재 이용 중인 기관에서 제공하는 해당서비스를 향후 이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어린이집 이용자 응답(Q3-3의 ①~⑦ 응답자만)

자녀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운영 여부		현재 이용 여부		향후 이용 의사	
	운영하고 있음	운영하고 있지 않음	이용함	하지 않음	이용 의사 있음	이용 의사 없음
시간제보육	①	②	①	②	①	②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	①	②	①	②	①	②
어린이집 휴일보육	①	②	①	②	①	②

※ 유치원 이용자 응답(Q3-3의 ⑧~⑨ 응답자만)

자녀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운영 여부		현재 이용 여부		향후 이용 의사	
	운영하고 있음	운영하고 있지 않음	이용함	하지 않음	이용 의사 있음	이용 의사 없음
유치원 방과후 과정	①	②	①	②	①	②

Q3-5.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의 인력, 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 비용 등에 만족하십니까?

[PROG: Q3-1에서 1번 선택 시에만 나옴]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01) 교직원(원장, 교사)	1	2	3	4	5
02) 주변환경	1	2	3	4	5
03) 시설설비(교재·교구)	1	2	3	4	5
04) 비용	1	2	3	4	5
05) 건강관리	1	2	3	4	5
06) 급간식관리	1	2	3	4	5
07) 안전관리	1	2	3	4	5
08) 교육내용	1	2	3	4	5
09) 생활지도	1	2	3	4	5
10) 부모참여 및 교육	1	2	3	4	5

Q3-6. 현재 이 아이가 다니는 기관에서 가장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PROG: Q3-1에서 1번 선택 시에만 나옴]

【보기】 ① 교사 증원 ② 교사의 역량 강화 ③ 노후 시설 정비 ④ 내부 환경(인테리어 등) 개선 ⑤ 비용 부담 감소 ⑥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⑦ 교육내용 ⑧ 급간식 개선 ⑨ 기타()
--

Q3-7.(Q3-6의 ⑦ 교육내용 응답 시) 교육 내용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재교구 다양화 ② 놀이활동 강화 ③ 현장 학습 증대
 ④ 특별활동 및 방과후수업 다양화 ⑤ 특별활동 및 방과후수업 시간 증대
 ⑥ 유치원·어린이집 기본교육과정 충실히 이행
 ⑦ 특별활동 및 방과후수업 시간 감소 ⑧기타 _____

Ⅲ. 기타 육아지원 기관 및 서비스

Q4-1-1. 귀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정부지원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음과 같은 돌봄 사업을 알고, 이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지 및 이용 경험
1) 아이돌보미	① 현재 이용 ② 과거 이용 경험 있음 ③ 알지만 이용 경험 없음 ④ 잘 모름
2) 공동육아나눔터	① 현재 이용 ② 과거 이용 경험 있음 ③ 알지만 이용 경험 없음 ④ 잘 모름

Q4-1-2. 귀하가 이용해 본 돌봄 사업의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PROG: Q4-1-1의 각 항목의 응답이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만 만족도 질문]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아이돌보미	1	2	3	4	5
2) 공동육아나눔터	1	2	3	4	5

다음은 귀하가 살고 계시는 지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답해주세요.

Q4-2-1. 귀하가 살고 계시는 지역에 다음의 시설이 이용가능합니까?

[PROG: 이용이 가능한 장소에 대해 경험을 받음]

장소	이용가능한 시설이 있음		이용 경험	
	O	X	O	X
육아종합지원센터	1	2	1	2
건강가정지원센터	1	2	1	2
놀이터	1	2	1	2
공원	1	2	1	2
박물관	1	2	1	2
미술관	1	2	1	2
공연시설(음악회, 연극 등)	1	2	1	2
영화관	1	2	1	2
도서관	1	2	1	2

장소	이용가능한 시설이 있음		이용 경험	
	O	X	O	X
사설놀이공간(키즈카페 등)	1	2	1	2
문화센터(백화점, 대형마트, 지역주민센터 내 등)	1	2	1	2
소아과 병원	1	2	1	2
응급의료시설	1	2	1	2
산부인과 병원	1	2	1	2

Q4-2-2. 귀하가 이용해 본 장소들은 이동시간(편도)이 얼마나 걸리십니까?

[PROG: Q4-2-1의 이용 장소에 한해서만 받음]

장소	주 이동방법		총 소요시간
	도보	차량	
육아종합지원센터	1	2	()시간 ()분
건강가정지원센터	1	2	()시간 ()분
놀이터	1	2	()시간 ()분
공원	1	2	()시간 ()분
박물관	1	2	()시간 ()분
미술관	1	2	()시간 ()분
공연시설(음악회, 연극 등)	1	2	()시간 ()분
영화관	1	2	()시간 ()분
도서관	1	2	()시간 ()분
사설놀이공간(키즈카페 등)	1	2	()시간 ()분
문화센터(백화점, 대형마트, 지역주민센터 내 등)	1	2	()시간 ()분
소아과 병원	1	2	()시간 ()분
응급의료시설	1	2	()시간 ()분
산부인과 병원	1	2	()시간 ()분

Q4-2-2. 귀하가 이용해 본 장소들의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PROG: Q4-2-1의 이용 장소에 한해서만 받음]

장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만족
육아종합지원센터	1	2	3	4	5
건강가정지원센터	1	2	3	4	5
놀이터	1	2	3	4	5

장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만족
공원	1	2	3	4	5
박물관	1	2	3	4	5
미술관	1	2	3	4	5
공연시설(음악회, 연극 등)	1	2	3	4	5
영화관	1	2	3	4	5
도서관	1	2	3	4	5
사설놀이공간(키즈카페 등)	1	2	3	4	5
문화센터(백화점, 대형마트, 지역주민센터 내 등)	1	2	3	4	5
소아과 병원	1	2	3	4	5
응급의료시설	1	2	3	4	5
산부인과 병원	1	2	3	4	5

Q4-3-1. 귀하의 자녀는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영유아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용 횟수 및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물관/미술관/전시회	공연 (연극/뮤지컬/음악회)	영화	체험프로그램 (숲, 도자기 등)
① 이용한 적이 없다 ② 1년에 1~2회 관람 ③ 1년에 3~4회 관람 ④ 5회 이상 관람	① 이용한 적이 없다 ② 1년에 1~2회 관람 ③ 1년에 3~4회 관람 ④ 5회 이상 관람	① 이용한 적이 없다 ② 1년에 1~2회 관람 ③ 1년에 3~4회 관람 ④ 5회 이상 관람	① 이용한 적이 없다 ② 1년에 1~2회 관람 ③ 1년에 3~4회 관람 ④ 5회 이상 관람

Q4-3-2. 귀하의 자녀는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영유아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용 횟수 및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Q4-3-1에서 2~4번 응답 장소만 받음]

	박물관/미술관/전시회	공연 (연극/뮤지컬/음악회)	영화	체험프로그램 (숲, 도자기 등)
이용 장소	① 해당 시 ② 인근 타도시 (차량 이동시 1시간 이 내 거리) ③ 타도시 (차량 이동 시 1시간 이 상 거리)	① 해당 시 ② 인근 타도시 (차량 이동시 1시간 이 내 거리) ③ 타도시 (차량 이동 시 1시간 이 상 거리)	① 해당 시 ② 인근 타도시 (차량 이동시 1시간 이 내 거리) ③ 타도시 (차량 이동 시 1시간 이 상 거리)	① 해당 시 ② 인근 타도시 (차량 이동시 1시간 이 내 거리) ③ 타도시 (차량 이동 시 1시간 이 상 거리)
이용시 어려운 점	① 경제적 부담 ② 시간 부족 ③ 교통 불편 ④ 이용가능한 행사/ 시설 부족 ⑤ 정보 부족 ⑥ 기타()	① 경제적 부담 ② 시간 부족 ③ 교통 불편 ④ 이용가능한 행사/ 시설 부족 ⑤ 정보 부족 ⑥ 기타()	① 경제적 부담 ② 시간 부족 ③ 교통 불편 ④ 이용가능한 행사/ 시설 부족 ⑤ 정보 부족 ⑥ 기타()	① 경제적 부담 ② 시간 부족 ③ 교통 불편 ④ 이용가능한 행사/ 시설 부족 ⑤ 정보 부족 ⑥ 기타()

IV. 보육교육 정책 및 기타

Q5-1.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육아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필요성 매우 낮음	조금 낮음	낮은 편	보통	높은 편	높음	필요성 매우 높음
1) 어린이집·유치원 등 육아지원 인프라 확대 (예: 어린이집, 유치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등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영유아 가구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예: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교육비 지원 등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3) 육아지원 서비스의 질 제고 (예: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 프로그램의 질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⑥	
4) 가정 양육 지원 확대 (예: 가정 양육 가구 이용 서비스 확충, 부모교육, 상담, 정보 제공 등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⑥	
5) 보육·교육, 육아지원 서비스의 다양화 (예: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6)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예: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등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7) 남성의 양육참여 지원 확대 (예: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지원 확대, 직장의 근로문화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Q5-2. 귀하의 지역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기타의 척도를 잘못 찍으셨다면, 없음으로 기입해 주세요.)

구분	매우 그려함	그려함	보통	그렇지 않음	전혀 그렇지 않음
1) 어린이집·유치원의 양적 부족	①	②	③	④	⑤
2) 어린이집·유치원의 낮은 질적 수준					
3) 학원, 문화센터 등 교육인프라 부족					
4) 문화시설의 부족(박물관, 영화관, 공원 등)					
5) 자녀 놀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 부족					
6) 방문교육(학습지 등) 수혜의 어려움					
7) 야간 시간 이용가능한 자녀 돌봄 시설 부족					
8) 소아전문 의료시설 부족					
9) 기타 ()					

Q5-3. 도농복합지역의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을 두 개만 선택해주시오.

- ① 어린이집 확충
- ② 유치원 확충
- ③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
- ④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 ⑤ 가정으로 파견하는 육아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등) 확충
- ⑥ 영유아를 위한 놀이시설, 체험시설 등 공간 확충
- ⑦ 부모를 위한 공간(정보나눔터, 문화센터, 쇼핑센터 등) 확충
- ⑧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
- ⑨ 소아전문 의료시설 확충
- ⑩ 기타

Q5-4.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정착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본 지역 출신임 (SQ6-1=1번만 활성화)
- ② 본인 혹은 배우자 직장
- ③ 자녀 교육 및 보육
- ④ 주거환경
- ⑤ 거주 비용
- ⑥ 교통
- ⑦ 원가족(친가 또는 외가) 근처에 거주하기 위하여
- ⑧ 기타 ()

Q5-5.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좋다	조금 안좋다	안좋은 편	보통	좋은 편	조금 좋다	매우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Q6-6.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 순서대로 선택으로 해 주세요)

- 1) 공기와 자연이 좋다
- 2) 또래가 많다
- 3)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이 높다
- 4)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많다
- 5) 유치원 등 교육시설의 질이 좋다
- 6) 학군이 좋다
- 7) 학원 등 교육시설이 다양하다
- 8)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 9) 놀이터나 체험시설이 많다
- 10) 부모의 직장이 가깝다
- 11) 양육비용이 적게 든다
- 12) 마트 등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 13) 의료시설이 가까이 있다
- 14) 기타: _____

Q6-7. 귀하가 살고 계신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가장 나쁜 점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 순서대로 선택으로 해주세요)

- 1) 공기와 자연이 좋지않다
- 2) 또래가 적다
- 3)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이 낮다
- 4)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 5) 유치원 등 교육시설의 질이 낮다
- 6) 학군이 나쁘다
- 7) 학원 등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 8) 문화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 9) 놀이터나 체험시설이 적다
- 10) 부모의 직장이 멀다
- 11) 양육비용이 많이 든다
- 12) 마트 등 상업시설 이용이 불편하다
- 13) 의료시설의 질이 낮거나 부족하다
- 14)기타: _____

Q6-8. 귀하는 향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질문 6-8-1) ② 없다

Q6-8-1. 있으시다면 이사를 계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본인 혹은 배우자 직장
- ② 자녀 교육 및 보육
- ③ 주거환경
- ④ 거주 비용
- ⑤ 교통
- ⑥ 원가족 거주지 근처에 거주하기 위하여
- ⑦ 기타 ()

Q6-8-2. 이사 시기는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첫째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 _____세

V. 초등 방과후 돌봄

[Sq4-1에서 7번 OR 8번이 있는 경우]

Q7-1. 귀하의 자녀(초등 저학년 자녀)의 초등학교 정규수업 종료 시간은 주로 몇시입니까?

- ① 오후 1시 이전 ② 오후 1시 ~ 2시 이전 ③ 오후 2시 ~ 3시 이전
④ 오후 3시 ~ 4시 이전 ⑤ 오후 4시 ~ 5시 이전 ⑥ 5시 이후

Q7-2. 귀하의 자녀는 정규수업 종료 후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0. 이용하지 않음

- ① 초등 돌봄교실(방과후교실 연계 포함) ② 방과후교실 ③ 지역아동센터
④ 기타 지역사회내 공공운영 방과후 돌봄프로그램(청소년 센터, 다함께 돌봄교실, 어린이집 등)
⑤ 사설 방과후 프로그램 ⑥ 아이돌봄서비스 ⑦ 민간 육아도우미
⑧ 학원 등 사교육 기관
⑨ 기타_____

Q7-3-1. 공공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기입해주세요.

[PROG: Q7-2에서 1~4번 응답이 있을 경우 / 0시간 0분 불가능]

	이용시간
① 초등 돌봄교실	()시간 ()분
② 학교 방과후교실	()시간 ()분
③ 지역아동센터	()시간 ()분
④ 기타 지역사회 내 공공운영 방과후 돌봄서비스 (청소년 센터, 다함께 돌봄교실, 어린이집 등)	()시간 ()분

Q7-3-1. 공공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지역 내 충분성,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주시요.

[PROG: Q7-2에서 1~4번 응답이 있을 경우 / 0시간 0분 불가능]

	지역 내 충분성				
	매우 부족	대체로 부족	보통	대체로 충분	매우 충분
① 초등 돌봄교실	1	2	3	4	5
② 학교 방과후교실	1	2	3	4	5
③ 지역아동센터	1	2	3	4	5
④ 기타 지역사회 내 공공운영 방과후 돌봄서비스 (청소년 센터, 다함께 돌봄교실, 어린이집 등)	1	2	3	4	5

	만족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초등 돌봄교실	1	2	3	4	5
② 학교 방과후교실	1	2	3	4	5
③ 지역아동센터	1	2	3	4	5
④ 기타 지역사회 내 공공운영 방과후 돌봄서비스(청소년 센터, 다함께 돌봄교실, 어린이집 등)	1	2	3	4	5

Q7-4. (Q7-2에 ⑧번 응답) 자녀가 학원에서 보내는 총 시간 및 다니는 학원 종류는?

	이용여부		주당 총 이용 시간
	예	아니오	
① 국어(한글, 토론, 독서 등)	1	2	()시간 ()분
② 산수 및 수학	1	2	()시간 ()분
③ 외국어(영어 등)	1	2	()시간 ()분
④ 예체능(태권도, 미술, 피아노 등)	1	2	()시간 ()분
⑤ 기타()	1	2	()시간 ()분

부록 2. 공무원 대상 설문지

도농복합지역 공무원 설문조사

<일반 사항>

직위: _____

소속 및 담당업무:

____도 ____시청(교육지원청)

_____과(팀) _____업무(주)

총 경력: ____년 ____개월

해당업무 경력: ____년 ____개월

1. 귀 도시의 어린이집(유치원)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시청) 어린이집

단위: 개소, 명

	국공립		민간		사회복지법인		단체	
	시설수	총 재원아수	시설수	총 재원아수	시설수	총 재원아수	시설수	총 재원아수
동 ()개								
읍 ()개								
면 ()개								
계								

	부모협동		가정		계		평균 정원 충족률
	시설수	총 재원 아수	시설수	총 재원 아수	시설 수	현원	
동 ()개							
읍 ()개							
면 ()개							
계							

- (교육지원청) 유치원

단위: 개원

	국·공립(병설)		국·공립(단설)		계		평균 정원 충족률
	기관수	총 재원 아수	기관수	총 재원 아수	기관수	총 재원 아수	
동 ()개							
읍 ()개							
면 ()개							
계							

2. 귀 도시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설치가 수적으로 더 필요합니까?

- ① 모든 지역에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
- ② 일부 지역에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
- ③ 현재 수준이 적절하여 더 설치할 필요는 없다
- ④ 현재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시설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
- ⑤ 대부분 지역에서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 시설을 많이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 ②, ④번 응답시 문항 추가

②, ④번에서 말씀하신 일부지역이 다음 중 어떤 지역입니까? 1) 읍 2) 면 3) 동 (복수선택 가능)

2-1. 귀 시에서는 초등 저학년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충분하다
- ② 적절하다
- ③ 부족하다

3. 귀 도시는 최근 5년간 인구 변화가 있습니까?

- ① 인구가 줄었다
- ② 인구가 늘었다
- ③ 인구 변화가 없다

4. 귀 도시는 최근 5년간 영유아를 둔 가구(30~40대 세대주 등)수에 변화가 있습니까?

- ① 영유아 가구가 늘었다 (→ 4-1번으로)
- ② 영유아 가구가 줄었다
- ③ 영유아 가구 수에 변화가 없다

4-1. 영유아 가구가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① 산업단지 등 일부 지역에 일자리가 많아 유입 가구가 있음
- ② 우리 시 출산 정책의 영향 등으로 출생률이 높아졌음
- ③ 교육, 보육 환경 등 육아 환경이 좋아 우리 시로 유입 가구가 늘었음
- ④ 특별한 이유는 없는 듯하나 영유아 가구가 많아졌음
- ⑤ 기타: _____

5. 귀 시에서는 동지역과 읍지역, 면지역 간 ‘영유아 육아지원 관련 요구’라는 측면에서 차이나는 특징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5-1번으로)
- ② 없다

5-1. 차이나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합니까?

6. 귀 시(교육지원청)에서 관할지역 출산장려, 영유아 그 가족 또는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특별한 시책이나 정책 사업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사업인지 소개해주십시오.

[시책 또는 정책사업명]	[사업소개]
-	
-	
-	
-	

※ 다음의 질문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7. 귀 시의 유치원(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귀 시는 행정구역상 도농복합시에 속합니다. 도농복합시의 육아정책(혹은 보육정책/ 유아교육정책) 담당자로서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9. 귀 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육아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부록 3. 공무원 조사 주관식문항 결과표

〈부록 표 1〉 관할지역 출산장려, 영유아 그 가족 또는 출산장려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특별한 시책이나 정책 사업

구분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명	사업 소개
시청	강릉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첫째, 둘째, 셋째 이상)에 따른 장려금 지급
시청	거제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 115만원 넷째 315만원 다섯째 515만원
시청	경산	출산장려금 지원	무응답
시청	공주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둘째아 2백만원, 셋째아 3백만원, 넷째아 이상 5백만원 지원
시청	공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시청	구미	출산장려금 등 지원	첫째아 10만원(1회) 둘째아 이상 월5만원 1년간 지원 셋째아 이상 셋째아는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지원 출산축하용품 첫째아 지원(기저귀 등 2만원 상당)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가입 지원, 병원진료비 1가구 5만원 지원 어린이집부모부담보육료지원(세자녀 이상 가구)
시청	구미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캠핑장 요금감면 50% 구미에코랜드 이용료 감면 50% 육성자연휴양림 감면 50% 평생교육원 수강료 1과목 면제
시청	구미	육아종합인프라 구축	가족행복플라자 건립(2019년 준공)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2021년 준공) 청소년문화의집 건립(2022년 개관)
시청	군산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아 300만원
시청	김제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기준 둘째 자녀 출산시 1000천원 셋째 자녀 출산시 2000천원 넷째 자녀 출산시 3000천원 다섯째 자녀 출산시 5000천원 여섯째 자녀 출산시 8000천원 일곱째 자녀 이상 출산시 10000천원
시청	김제	출산축하용품(마더박스)지원	지원대상 자녀 출생일 이전 김제에 주소지를 둔 모 지원내용 출생후 2달 사용할 수 있는 출산용품 지원방법 직접 수령 및 배달
시청	김천	출산장려금 지원	자녀 수에 따라 현금 차등 지원
시청	김해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수당	셋째아부터 영유아를 출산 양육하는데 지원함 취학 전(만 6세까지) 월 100천원씩 분기별 지원
시청	나주	영유아 지원	셋째 자녀 월 50,000원 지원 (초등학교입학 전까지)

구분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명	사업 소개
시청	남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인프라 마련
시청	문경	아이돌봄 자부담분 지원	유형에 따른 자부담을 40~100% 지원
시청	사천	출산장려금 지원	아동 출산 시 보조금 지급
시청	삼척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	가구당 월 5만원에서 12만원, 3년간 지원
시청	삼척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지원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180만원 지원
시청	삼척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200만원
시청	아산	출산장려금 지급	둘째아 출산 시 50만원 지급 셋째아 출산 시 100만원 지급 넷째아 이상 출산 시 200만원 지급
시청	아산	산후도우미 파견	첫째아: 건강보험료기준 신청여부 결정 둘째 자녀부터 소득 관계없이 신청가능 협약업체 연결 및 지원(자부담발생)
시청	안동	보육료 부모 차액분 시비 부담	어린이집에 부모 부담 추가 보육료 1인당 월 5만원 정도를 시비로 부담
시청	안동	영아반 운영비 시비 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을 위해 개소당 월10만원을 시비로 지원
시청	안동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원아 부모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 원생 1인당 월 2만원을 어린이집에 시비로 지원
시청	안성	둘째 이상 출산장려금	둘째 출산 시 50만원 지원
시청	양주	출산장려금 지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90만원 1회 지원
시청	양주	둘째이상 출산장려금	둘째 출산 시 50만원 지원
시청	양주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 보험 지원	2015. 2.27 이후 신규가입 종결 60회까지 지원
시청	여수	긴급.일시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운영	만 6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위해 방과 후 아동 돌봄 센터 운영
시청	여수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2018년 어린이집 반별 공기청정기 지원
시청	여수	영유아 페스티벌 행사 개최	영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 6회째 개최
시청	여주	출산장려금 지급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000만원 지원
시청	영천	첫째 출산 시 500만원부터 넷째 출산시 1000만원 지원	없다
시청	영천	3자녀 가정에 자녀 모두 대학학자금 지원	없다
시청	제주	출산장려금 지원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후 200만원
시청	제주	둘째아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	월5만원씩 12개월 지원

구분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명	사업 소개
시청	창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20년까지 40% 확충
시청	창원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2019년 시행)	첫째아 50% 지원
시청	창원	다자녀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2019년 시행)	둘째아 이상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지원
시청	파주	출산장려금 지원	셋째아 이상 지원
시청	평택	출산장려금 둘째 50만원 지원	무응답
시청	포천	출산장려금 지원	둘째아 이상부터 30만원, 100만원 지원
시청	포천	출생아 건강 보험가입 지원	둘째아부터 월 2만원상당의 건강 보험가입지원
교육지원청	광양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질병감염 아동 무료 돌봄서비스 제공 예스키즈존 설치 지원 영유아희망나래프로젝트
교육지원청	광주	방과후과정반 운영	맞벌이 자녀 돌봄
교육지원청	보령	출산교사의 우선전보	다자녀교사의 우선전보혜택
교육지원청	상주	보육료 지원사업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영유아누리공동과정, 장애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교육지원청	서산	여성친화도시 정착화	2016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여성과 남성이 조화롭게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음
교육지원청	서산	마을육아 확대를 통한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	젊은 세대의 비중이 높은 서산시의 인구 특성을 살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거주지 중심으로 마을육아활성화 및 역량강화로 육아문제 해결
교육지원청	서산	임산부, 영아 방문케어 서비스 운영	저출산 시대에 출산과 영유아,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사업 확대하고 있음(방문인력: 간호사, 사회복지사 전문가 교육 및 훈련사업)
교육지원청	양산	공립유치원 설립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진행 중
교육지원청	양산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강사 인건비 지원	사립유치원 교원의 연수 및 출산, 경조사 휴가(결혼 등) 시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교육지원청	영주	원아모집	원아모집 시 다 자녀 우선 입학 가능
교육지원청	제천	드림스타트	0세에서 만12세 아동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결혼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지원청	제천	모자보건사업	출산축하금 1인당 40에서1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월10만원에서 20만원 양육비지원 셋째이상 자녀 월10만원 임신축하금 1회 30만원 분만축하금 1회40만원 다자녀카드 막내아기준만12세까지 160개업소 할인 혜택
교육지원청	천안	교원인사	두자녀 이상 다자녀로 간주하여 인사에 유리하게 적용

주: 무응답(모르겠음), 없음은 제외

〈부록 표 2〉 어린이집/유치원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

구분	지역별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시청	강릉	보육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을 보육료 인상분이 따라가지 못해 다수의원이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
시청	거제	부모들은 7시30분까지 보육을 요구하지만 아동이 혼자 남겨나 부모가 동의 한다는 사유로 늦은 시간까지 보육 안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보낼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및 보완이 필요
시청	경산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시청	공주	영유아 감소에 따른 수급의 문제로 특히 농촌 지역아동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시청	구미	어린이집 운영담당 조직개편(현보육계를 보육지원과 보육지도계로 분리 필요) 양육수당현실화로부모가아이를집에서키울수있는여건조성 소규모가정어린이집원장교사 겸직제도 개선(원장이 교사, 급식, 차량 등 업무과중) 대표자 원장 대상 회계 관련 교육 정례화 필요
시청	군산	극소수의어린이집 허위 시간연장 아동 등 허위시간등록
시청	김제	1. 지방중소도시(도농복합지역)의경우출산아동감소로아동의감소폭이수도권광역권도시들에 비해훨씬크에따라 원아모집이 힘들고 원아모집의 어려움과 더불어 젊은 보육교사의 수급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용 완화가 필요함 예) 누리과정아동(만3~5세)의 아동비율기준을 3세에 맞춰 조정(1인당 15인 이하) 인건비 지원 시설의 경우 교사대아동 비율 하에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아동을 보육해야 하나 실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존재함에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유예기준을 현재 2개월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수정 (해당내용을 삭제 또는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변경)이 필요함 2. 지방 도농 복합 도시의 농어촌 지역에 대한 교사특별수당 110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수당으로 교사를 농촌지역으로 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에 농어촌 교사 특별수당의 증액이 필요
시청	양산	신도시(물금읍, 동면)와 구도심(중앙, 삼성, 강서) 동부 양산(웅상지역)의 정원총족율이 차이가 많음
시청	김천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곤란
시청	김해	부모부담 보육료 법정아동에게만 무상지원에서 이용 아동 모두에게 무상지원 요망 인근시군과보육사업비교분석후예산요구에서 시책 검토 후 국가에서 지원 요망
시청	나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확대에 대하여 문제점은 공동주택(APT)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시 임대료(보육료 5%내) 수입 감소로 입주자대표회의 등 동의거부 반발예상 및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시 기존 민간어린이집 반발(출산아동감소, 빛가람동 전출 등) 대책으로인센티브검토와보육서비스항상공감대형성및민간차액보육료추가지원검토
시청	문경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사천	읍면지역에 국공립 확충
시청	삼척	정원총족률 미달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 있음
시청	아산	어린이집 유형별로 지원을 다르게 하지 말고 같게 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영아는 차액보육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유아는 차액보육료가 발생하고 시도에 따라 차이가 많아 시도에서 지원여부에 따라서 개인부담이 다르므로 정부에서영아와 마찬가지로 유아도 보육료를 결정하여 전국적으로 같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용 보육료의 차이가 커서 저출산정책을 위해서는 가정양육수당을 현재의 2~3배 올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구분	지역별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시청	밀양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함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가정양육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시청	안동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하여 이직률이 높아 아이들의 보육 및 교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추고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교대근무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즉 전일 오전부터 8시간 근무하면, 다음 날은 오후 4시간 근무토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시청	안성	보육아동 수 감소로 인하여 어린이집 운영난에서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음
시청	양주	평균정원충족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신규인가 제한지역으로 어린이집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음 어린이집의 정원감원 및 폐원유도를 통한 원활한 수급관리 정책 필요
교육지원청	김포	시의 예산 중 유아교육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운영
시청	양주	보육아동 수 감소로 인하여 어린이집 운영난 보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음
교육지원청	아산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민원으로 인한 공립유치원 확대 어려움
교육지원청	익산	지역의 단설유치원이 2개원으로(2019학년도 개원예정 포함) 단설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 단설유치원 추가설립이 매우 시급함
교육지원청	용인	유치원 방과후과정 내실화 1. 모든 유치원에서 방과후과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맞벌이 가정 자녀수는 많지 않음 2. 맞벌이 가정에 대한 맞춤형 방과후과정 지원 센터 필요
교육지원청	순천	공립단일학급과 공립단설에서 근무하는 교사와의 역량의 차이 사립유치원교사의 자질 및 역량강화 공립단설유치원의 확대
시청	여수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청	여주	고령화가 늘고 영유아 출생률이 점차 낮아짐에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점 발생 젊은 층들의 귀직(공장 등 신설)하여 정주할 수 있는 도시로 개선
시청	영천	현재 시행중인 종일반 시간(7시30분~19시30분) 시간이 길어서 근로시간(8시간)에 저촉을 받으므로 종일반 시간을 줄이고 시간연장 보육을 현재 19시30분을 18시30분으로 당기는 방안 검토 요망
교육지원청	당진	읍면 지역의 유아들을 위한 지원(특히 방학중 돌봄)이 더욱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제주	지원금액이 종류별로 너무 다양해서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음 사회복지시설처럼 1년단위로 운영비를 일괄지원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함) 또한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급여나 수당 등 상한선이 없어 잉여금에 대한 시설장 급여상승분으로 지출해도 지도감독 불가함
교육지원청	논산	동지역에는 공립유치원이 부족하다
교육지원청	경주	농어촌의 소규모 유치원 운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소규모 농어촌 유치원 통합으로 단설적 극적 바람
시청	창원	운영자와 보육교직원 교육자로서 자질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임금 보장
교육지원청	서귀포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도 마찬가지로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모든 교육청에 유아교육과가 신설되어 모든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분	지역별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시청	파주	최저임금으로 인해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이 있음
시청	평택	어린이 연합회가 양분화 되어 있어 운영 및 정책에 예로
시청	포천	인구감소로 소멸해 가는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 필요 인구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정원미달로 운영부실 우려
교육지원청	광양	유아교육 관련 주관부처가 통일되지 않아 혼선이 있음 처음 학교 시스템 홍보 확대 필요
교육지원청	광주	학부모들은 맞벌이와 상관없이 교육기관에서 긴 시간 교육 및 특성화프로그램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교육기관에서는 긴 시간 교육 및 돌봄을 위한 제도적 조치가 미비함
교육지원청	보령	도심편중
교육지원청	서산	1. 시지역과 면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한 공교육기관(공립단설유치원) 신설 설립 촉구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반대로 설립하지 못하고 있음 2. 공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력 부족(장학사 1명이 모든 업무 추진)으로 지도점검이 어려움. 3.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4. 공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유치원의 무교육이 시급함)
교육지원청	양산	추가적인 부설, 단설 공립유치원 설립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이용 풍토 정착
교육지원청	영주	사립유치원이 국가정책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 처음학교로 미참여, 각종 연수실시에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교육지원청	제천	1. 인구의 자연 감소 2. 새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인구 이동 3. 인구밀집지역으로 인해 공사립유치원이 포진해 있다가 그 지역유아들이 감소되고, 신설되는 곳에는 유치원 보낼 데가 없다고 증설이나 신설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짐
교육지원청	천안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함, 특정지역 밀집현상
교육지원청	충주	동지역 공립유치원에 학부모들이 유아들을 입학 시키고자 하나 동지역 공립유치원 학급수가 부족하여 희망하는 유치원에 입학시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입학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지역 공립유치원 학급 수 증설이나 단설유치원 설립이 필요함
교육지원청	통영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추진에 따른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의 반대
교육지원청	포항	동지역 인구밀집 지역은 학부모들이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설립 요구가 많으나 진행이 어렵고, 읍면지역 인구감소 지역은 원아수가 매우 감소되어 원아모집이 어려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 무응답(모르겠음), 없음은 제외

〈부록 표 3〉 도농복합시의 육아정책 담당자로서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심 기울여야 하는 사안

구분	지역별	관심 사안
시청	강릉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보육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
시청	거제	영유아의 안전 및 보육이 우선시 되는 정책이 필요하며 부모들이 어린이집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맡길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 (실제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추가 지원 빨리 마치는 어린이집은 지원금 삭감 등)
시청	경산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시청	공주	농촌지역의 경우 기존의 어린이집 형태가 아닌 지역돌봄 형태의 새로운 모델 필요 지역 내 자원부족으로 기존의 어린이집은 지속적 운영이 곤란하고 초등학교 폐원처럼 어린이집 자체가 황폐화되어가고 있음
시청	구미	맞춤형제도폐지, 맞춤형으로 인해 부정수급 발생
시청	군산	농어촌지역은 아동수감소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충족률이 동지역에 낮은 편이며 통합운영이 필요함(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유치원(유아교육법) 적용법령이 다르지만 적절한 운영시간, 연령을 조정하여 대책이 요구됨), 도서지역에는 병설유치원은 있으나 어린이집은 없는 경우도 있으며 3세미만은 연령제한으로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시청	김제	1. 농어촌어린이집이 지속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교사지원 확대 예) 농어촌차량운영비(중액), 농어촌 교사 특별수당 증액 2.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정부 인프라 구축 시 우선권 부여
시청	양산	우리는 신도시 조성으로 물금읍, 동면은 행정구역 명칭은 농촌이지만 실제로는 도시화 되어있고 구도심은 행정구역상 동지역으로 농촌특별근무수당, 차량운영비가 역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
시청	김천	어린이집,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육아 부담 완화
시청	김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청	나주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안심교육 환경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확충이 필요하고 민간과 상생, 어린이집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및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시청	남원	도시는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도농복합시는 인구감소가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에서 차별화된 육아정책을 통해 도농복합시에서도 차별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함
시청	문경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 정책이 필요함
시청	사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청	삼척	농촌지역은 어린이집을 이용이 어려우므로 농촌 육아돌봄 형태를 확대운영토록 하여야함
시청	밀양	도시와 농촌이 다르다는 것을 알자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어린이집이 자동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시청	안동	무엇보다도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즉, 보육교사들의 호봉제 도입 및 봉급 현실화, 근무시간 8시간 준수 및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저하 등
시청	안성	지역 간 균형적 발전
시청	양주	현재 농촌 지역 근무 보육 교사에 대하여는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여 교사확보에는 노력하고 있으나 농촌지역 어린이집에 재원아동에 대하여도 추가 보육료 등 지원 차별화 정책 필요
교육지원청	김포	정부보다 지역자치단체 주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청	양주	지역 간 균형적 발전
교육지원청	아산	읍면지역 공립유치원 확보 등을 통한 인구 배분
교육지원청	익산	농촌지역 병설유치원의 자녀돌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권역별 돌봄센터가 필요함 (인근 2~3개 유치원을 권역별로 묶어 저녁돌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구분	지역별	관심 사안
교육지원청	용인	맞벌이 가정 자녀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교육지원청	순천	유아수가 현저히 줄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는 출산을 저하에 관심을 가지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청	여수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의 아동과 보육교직원을 위해 반별 배치에 관해 자율성 부여 필요
시청	여주	우리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완화 등 여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시청	영천	2013년부터 누리반 보육료가 동결되어 있음 운영시간을 줄이거나 보육료 인상이 불가피함
교육지원청	당진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도시로만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농촌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통학차량운영,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접목, 영어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제주	지원정책을 어린이집 보다는 부모 직접 지원 형식으로 전환 필요 어린이집지원 및 관리에 행정예산투입보다는 부모에게 육아비용 대폭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여부는 부모의 선택권으로 돌리고 어린이집 지도감독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
교육지원청	논산	동지역이나 읍지역에 단설유치원(읍에 있는 병설유치원 수용하여)은 증설하여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교육지원청	경주	7항과 같이 소규모 유치원 통합 단설유치원으로 운영해야 유아 교육의 신뢰도 및 교육의 질이 높아짐.
시청	창원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정책에서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 필요
교육지원청	서귀포	농촌지역에 유치원들을 통합운영 단설유치원을 만들어 좀 더 체계적인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시청	파주	취약보육의 적절한 추진
시청	평택	농촌 소재 원아수가 적어 어린이집 운영에 애로점
시청	포천	도농복합시로 영유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책의 이원화로 영유아 인구수 대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적절히 공급되어야하나 서로간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 발생
교육지원청	광양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예술, 문화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청	광주	현재 농촌에 있는 유치원은 유아들이 현저히 줄어서 한 학급에 5명을 겨우 채우고 있어 어려움이 있고, 신도시에는 유치원 수가 부족하여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있음
교육지원청	보령	영유아어린이집 확충 동지역의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교육지원청	서산	1.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의 질 좋은 교육환경을 위한 공교육기관 확대 (동지역, 면지역 공립단설 신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2. 유치원교육과 보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배치와 돌봄서비스를 위한 환경조성 시급 3.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양성이 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여성, 아동, 가족 등 전시민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출산장려책 마련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여성의 단절경력 인정 및 지속적 사회생활 보장)
교육지원청	양산	무조건적인 돌봄확대나 유치원확대보다 더 체계적인 사전조사를 통해 정책을 반영해야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거점을 중심으로 확대보다는 유지에 더 힘을 주고 인구증가하는 구역은 조속히 시설구축을 승인, 지원해야 합니다. 저희지역 돌봄교실을 예로 들면 구도심에는 유휴교실이 남아 있지만 돌봄수요가 감소하여 굳이 돌봄교실을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신도심에는 돌봄수요를 모두 수용할만한 유휴교실이 없어서 교육청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해도 돌봄교실 확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	지역별	관심 사항
교육지원청	영주	유치원이 정원미달되는 상황에서도 대형어린이집이 생겨서 병설유치원 원아모집에 어려움 있음. 기존 유치원이 있는 데도 기관끼리 전혀 협의도 없이 어린이집이 생기고 있음
교육지원청	제천	출장장려지원금 등으로 출산장려를 한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돌봄과 교육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시에서는 신설아파트로 인해 철새처럼 인구가 유동적이다. 지역이 작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고려한 단설유치원 추진과 통학차량 운행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치원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임
교육지원청	천안	지역 공동화 현상에 따른 유치원 통폐합 및 밀집지역 단설유치원 확대
교육지원청	충주	면지역 대부분의 공립유치원 원아수가 학급 정원의 50% 정도 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바 면지 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농촌살리기 운동, 농촌 복지정책, 출산 장려금 등)이 필요
교육지원청	통영	인구의 유입 등을 고려한 도농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 벽지 등의 추가 행·재정적 지원 바람
교육지원청	포항	공립유치원 취원을 40%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인구밀집지역과 도시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지역을 잘 살펴보고, 조정이 필요함

주: 무응답(모르겠음), 없음은 제외

〈부록 표 4〉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육아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

구분	지역별	필요한 것
시청	강릉	여성 친화도시로서의 정책 다변화, 일자리 공급 증가(양질)등
시청	거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영유아와 부모가 시간을 같이 할수 있는 공간을 많이 조성해야함
시청	경산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시청	공주	단순히 보육이나 복지수준의 향상에 앞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등이 있어서 가임자원이 확보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시청	구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청	군산	영유아 가족을 위한 사회생활 전반적인 우대 서비스(실재적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으로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 확립) 학원비 지원, 교육비 지원, 임대료 지원 등
시청	김제	1. 도농복합시의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증대 또는 유지를 위한 정책지원사업 예) 저소득층이 아닌 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정책(도시개발 등) 2. 20대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아동을 위한 시설 조성 예) 청년일자리와 여성일자리 우대지원, 문화시설 및 놀이시설 설치 등
시청	양산	육아종합지원센터, 생태공원 등 다양한 육아종합 인프라 구축 누리과정보육료의 현실적 지원
시청	김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육아휴직제도 개선 돌봄서비스 확충
시청	김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운영
시청	나주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양육지원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부모 교육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시청	남원	친환경 조성은 되어 있으나 인프라 없음. 아이들과 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함
시청	문경	초등 저학년에 대한 학교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부모 퇴근 시까지 학교에서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함
시청	사천	출산아동 수당 지급,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시청	삼척	아이돌봄 시설을 언제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 필요
시청	아산	가정양육수당을 많이 지원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인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인지 학부모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시청	밀양	다양한 육아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한다
시청	안동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청	안성	젊은 세대 인구 유입이 필요함. 지금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아이 낳고 키우기 위한 여러 인프라 구축이 잘 안되어 있는 실정임
시청	양주	장지적인 정책을 통하여 가정 민간 등 사설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공보육 체계 확립 필요
교육지원청	김포	편리한 교통 환경
시청	양주	젊은 세대 인구유입이 필요함 지금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아이 낳고 키우기 위한 여러 인프라 구축이 잘 안되어 있는 실정임
교육지원청	익산	단설유치원 추가 설립
교육지원청	용인	지자체 예산 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센터 운영

구분	지역별	필요한 것
교육지원청	순천	유아교육을 전공한 전문가, 유모, 놀이전문가, 책임어주는 선생님, 의사, 간호사, 이유식 등등 다양한 선생님들이 함께 계시는 센터에서 부모님들이 바쁠 때 시간대별로 아이들을 맡기고 일을 볼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구축하여 무료로 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
시청	여수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
시청	여주	양육수당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도농복합도시로서 영유아 관련 인센티브 제공
시청	영천	3세 미만 아동에는 가정양육수당을 보전하여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방안 검토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도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함
교육지원청	당진	유치원, 시청, 교육지원청(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으로 아이학대 예방 등 다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제주	사회적으로나 시민 상호간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보다는 가정으로 출장 보육서비스 등 다양한 육아 서비스 제도 마련이 시급
교육지원청	논산	영유아 돌봄 기능강화
교육지원청	경주	시청복지과의 육아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시청	창원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맘카페, 키즈카페, 놀이시설 등과 다양한 육아정보 제공
교육지원청	서귀포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여 유급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부모가 없거나 소외된 아이들을 국가가 키워주는 시스템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국가차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을 수용하고 초, 중, 고, 대학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3. 미혼모들에게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대신 아이들을 국가차원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단순 지원을 지원해 주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가 책임지고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파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추가 선정
시청	평택	어린이의 육아 환경 조성
시청	포천	자연친화적 어린이공원, 문화센터 등 영유아 및 어린이 관련시설 확충 대규모 신도시 조성
교육지원청	광양	맞벌이 부부에 대한 영유아 돌봄 예산 지원 확대
교육지원청	광주	온 마을이 유아를 돌볼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이 필요함. 학교나 유치원에만 그 역할을 부담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듯 합니다
교육지원청	보령	체계적인 유아정책 및 예산지원
교육지원청	상주	영유아 병원시설 활성화와 다양한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교육지원청	서산	1.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및 여성 안전도시 인프라 확대로 양성평등 환경 조성 2. 젊은 세대의 인구유입에 따른 체계적인 영유아, 산모관리를 위한 서비스 및 육아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돌봄서비스 확대
교육지원청	양산	양적인 확대도 필요하지만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좋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가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처우를 개선한다든가, 연수를 통해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불어 철저한 인성 및 자격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나 짧은 시간 안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얻다 보니 아이를 맡기기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더욱 어린이집교사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유아보육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없다 보면 자연스레 육아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	영주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필요 자녀들을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맞벌이 하지 않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하는 방법 강구. 부모 인식 개선 유아들의 정서적 안정과 부모의 애착형성이 시급

구분	지역별	필요한 것
교육지원청	제천	학부모들은 공립단설에 보내길 희망한다. 단설은 시설과 환경, 교사의 질, 통학차량 등 모든 지원이 나라에서 되고 감사 등으로 인해 모든 부분에서 안정적이다. 작은 유치원들을 통합하여 단설을 추진한다면 학부모들은 돌봄과 교육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	천안	유아교육시설이나 문화적 정책이 부족
교육지원청	충주	요즘 교육의 흐름과 함께하는 놀이중심 교육 실천을 위해 자연친화적 유치원 환경 조성과 놀이에 대한 학부모 인식 변화로 유아들이 마음껏 놀이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분위기 조성
교육지원청	통영	안정적이고 안전한 유아교육시설 확충 및 방과후과정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시청 등)의 적극적인 동참
교육지원청	포항	예산지원

주: 무응답(모르겠음), 없음은 제외

연구보고서 18-30-01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발행 2018년 12월 31일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909호
전화 044) 211-1000
홈페이지 www.nrc.re.kr
ISBN 979-11-5567-286-0

* 연구회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비매품/무료



9 791155 672860

ISBN 979-11-5567-286-0